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하의면편

2011

문화대학교 도시문화연구소 · 신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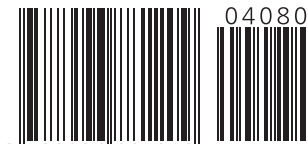
9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하의면편



도서문화연구원 · 신안군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하의면편



9 788996 881209 04080  
ISBN 978-89-968812-0-9



---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이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하의면을 대상으로 “도서관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연구”를 수행한 최종 성과물이다. 본 학술용역은 2003년 압해면(읍)으로부터 시작하여 비금면, 흑산면, 도초면, 안좌·팔금면,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에 걸쳐 수행한 바 있으니, 이번 하의면은 열 번째 면, 제9권에 해당한다.

하의면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크게 여덟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생태자원, 선사문화자원, 역사자원, 민속사회자원, 어로문화자원, 구비전승자원, 방언문화자원, 주거문화자원 등이 그것이다. 생태 분야는 그 자체 자연의 영역에 해당하여 문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도서해양이라는 독특한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생태를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또한 방언문화와 주거문화의 분야는 기존의 문화유적 조사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었는데, 육지에서 사라진 도서지역 언어의 흔적을 기록해 놓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도서주거문화의 중요한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는 대리의 주거문화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하의면 조사·연구에서는 두 분야를 특별히 포함시켰다.

하의도의 후광리는 세계적인 민권운동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평화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후광 김대중을 배출한 뜻깊은 곳이다. 후광리에 인접해 있는 대리는 큰 유학자 초암 김연 선생이 도서지역 뿐 아니라 나주·무안의 꿈나무들에게 한학을 가르쳐준 곳으로, 어린 시절 후광 역시 초암에게서 한학을 사사했다 하니, 초암에서 후광으로 이어지는 하의도의 지적 전통을 가늠케 한다. 뿐만 아니라 하의도는 하의3도(하의·상태·하태도)의 농민들이 350년의 장구한 세월 불의에 맞서 토지탈환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승리를 일궈낸 민권운동의 본향이기도 하다. 결국 김대중의 민권·평화의 정신은 농민운동의 역사와 초암의 학맥을 잇는 하의도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오랜 농민운동이 일어난 곳답게 하의도는 일찍부터 간척이 이루어져 농지가 풍부하다보니 섬이면서도 어업과 염업 못지않게 농업도 비교적 발달한 곳이었다. 그런 만큼 농업과 관련된 민속 및 구비전승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게 조사되었다. 다양한 세시풍속이 발달했다거나 연자장아노래/놀이가 중시되었던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하의면에는 도서문화의 보편적 특징을 이루는 당신앙이 유행하여 10여 개의 마을에서 당제가 이루어졌음이 살펴졌다. 다만 대부분의 당제가 2000년 이전에 폐지되어 당집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선사문화유산이 대부분 훼손되어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함께 심히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하의도의 본당 역할을 했던 대리당의 당집과 당숲을 위시로 하여 어은리의 띠숲과 옥도의 당숲 등이 그나마 잘 남아 있는 편이어서, 하의면 당제문화의 편린을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대리당에 얽혀 전하는 이야기는 하의도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당숲에 대해서는 생태문화적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하의면은 큰빨과 옥도빨과 같은 갯벌이 발달하여 독특한 ‘섬갯벌’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당숲과 함께 갯벌의 생태문화적 보존과 활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옥도의 경우는 갯벌(옥도빨)뿐 아니라 물이 풍부하고, 일명 ‘팔구포’라 불리우듯이 이른바 ‘다이아몬드’ 군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일찍이 해군기지로 활용되기도 했으니, 이를 주목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활용방안을 구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큰 인물(김대중)의 배출과 큰 사건(농민운동)의 발생에 의해서 구비전승(설화)의 스토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사자바위’의 전승이 김대중에 의해 ‘큰바위얼굴’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거나, 성신앙의 일종인 불알바위의 전

승이 농민운동의 상징물인 '양세바위'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본 조사·연구에서 많은 세세한 문화자원이 확인되고 확보되었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성과를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더욱 구체화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하의면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몇 가지 대표 테마의 아이টে을 활용의 사례로 제안하였다. “평화와 민권의 섬, 하의도”, “봉알바위(양세바위)와 사자바위(큰바위얼굴) 이야기”, “하의도 대리당 이야기”, “사통팔달 팔구포의 섬, 옥도”, “힐링의 섬, 신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하의면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도서문화연구원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문한국 수행 연구소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기존의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총장 직속의 도서문화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안군의 면 단위 문화유적 지표조사 학술용역은, 도서문화연구원이 도서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연구원이 전국 해역의 도서문화로, 그리고 세계의 도서문화로 그 연구영역을 넓히고 심화시켜 가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에 소중한 조사·연구의 기회를 부여해 준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성의껏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갈무리해 주신 연구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11년 1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9

## 하의면편

—

- 책을 내면서** 강봉룡 /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2
- 연구개요** 홍순일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6
- 자연생태** 홍선기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1
- 선사유적** 장대훈 / 목포대박물관 특별연구원 37
- 역사유적** 최성환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49
- 민속사회** 박종오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77
- 어로문화** 김경완 /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17
- 구비전승** 홍순일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57
- 방언문화** 이기갑 /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25
- 주거문화** 김지민 /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247
-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 도서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261  
이윤선 /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하의면 문화지도** 277

---

# 연구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 ...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여 자료화한다.

### 도시 문화유적의 자원화

- ...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 ... 이번 제4차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하의면 편(2010.07.28 - 2011.01.23)은 이전의 제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 - 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 - 09.30), 제3차 지도·증도·임자도(2006.01.12 - 06.11)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는다.

## 2. 연구의 기본방향

-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고)문헌조사, 현지조사를 심도있게 추진하여 자료를 파악한다.
-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문화유산들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이것들이 철저히 체계적으로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 조사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방안을 모색한다.
-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 연구 대상지역은 하의면 1개면으로 한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 하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 ... 이를 위해 방언학, 구비문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생태학, 건축학, 관광자원화 분야에서

지표조사를 수행

## 유·무형문화재 현장 구전기록 및 사진기록 보전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승 및 보전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사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 확보
-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 관련 자료 목록 작성
- ... 유적지, 고문서, 고문헌, 구비전승, 굿, 당제, 민속자료,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자료화
-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된 자연문화유산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 작성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 군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 상품화
-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 제안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

-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자료화

## 5. 기대효과

-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 문화관광자원화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 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 이번 제4차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하의면 편)”은 계기가 되면 이후에도 암태면, 자은면, 장산면, 신의면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기회 마련
-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 6. 연구진 구성

- ... 책임연구원 강봉룡(목포대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 ... 공동연구원 이기갑(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언학 전공)
  - 김지민(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전공)
  -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비문학 전공, PM)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생태학 전공)
  - 박종오(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민속학 전공)
  - 이윤선(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민속학 전공)
  - 최성환(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역사학 전공)
- ... 연구보조원 장대훈(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보조원, 고고학 전공)
  - 김경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보조원, 문화인류학 전공)
  - 임은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인턴, 역사학 전공, 실무)

## 7. 조사일정

### 자연생태 홍선기 공동연구원

- ... 2010.10.7-8, 하의면 일원, 홍선기 조사, 〈자연환경 및 활용방안〉, 개별조사
- ... 2011.01.4-5, 하의면 일원 및 옥도, 홍선기 조사, 옥도주민 제보, 〈자연환경 및 활용방안〉, 공동조사
- ... 2012.04.07-08, 하의면 일대, 홍선기 조사, 신도주민 제보, 〈하의도의 자연생태〉, 공동조사

### 선사유적 장대훈 연구보조원

- ... 2010.10.19-20, 하의면 일원, 장대훈 조사, 〈기존 선사유적 현황 파악 및 신규지표조사〉, 개별조사

### 역사유적 최성환 공동연구원

- ... 2010.12.04, 하의면,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개별조사
- ... 2011.01.05, 하의면 옥도,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공동조사
- ... 2011.01.06, 하의면,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공동조사
- ... 2011.01.10, 하의면, 최성환 조사, 지표조사 〈역사유적〉, 개별조사

### 민속사회 박종오 공동연구원

- ... 2008.06.23~26, 하의면 오류리, 어은리 일원, 박종오·조화영 조사, 김해자(여, 1930년생), 이윤임(여, 1928년생), 홍영복(남, 1929년생) 제보, 〈공동체신앙, 가택신앙, 일생의례, 세시풍속〉,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조사
- ... 2009.04.19~20, 하의면 후광리, 웅곡리 일원, 박종오 조사, 장영채(남, 1931년생), 우군기(남, 1929년생), 조궁기(남, 1926년) 제보, 〈공동체신앙, 전통소금, 상장례풍습〉, 개별조사
- ... 2011.01.04~05, 하의면 후광리, 능산리, 대림리, 오은리, 웅곡리 일원, 박종오 조사, 김숙자(여, 1928년생), 김원인(남, 1937년생), 김이춘(여, 1940년생), 변순단(여, 1922년생), 우군기(남, 1929년생), 우덕후(남, 1952년생), 우예순(여, 1930년생), 이판구(남, 1935년생), 조궁기(남, 1926년생) 제보, 〈공동체신앙, 일생의례, 세시풍속, 가택신앙〉, 개별조사

### 어로문화 김경완 연구보조원

- ... 2011.01.04-05, 하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옥도주민 제보, 〈하의도의 어로문화〉, 공동조사
- ... 2012.04.08, 하의면 일대, 김경완 조사, 신도주민 제보, 〈하의도의 어로문화〉, 공동조사

### 구비전승 홍순일 공동연구원(PM)

- ... 2008.06.23-25, 하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추점봉(남,미상); 김원인(남,75);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4); 이흥채(남,69); 김모음(여,78) 제보, 〈하의도의 구비전승자원〉, 공동조사
- ... 2010.12.10-11, 하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이흥채(남,71), 이판구(남,77), 이범숙(남,65), 심순례(여,49); 김연예(여,67), 장명자(여,59), 신광용(남,71), 송종광(남,70), 곽춘자(여,70) 제보, 〈하의도 이흥채의 구비

전승자원, 목포 김연예 남도민요·판소리, 개별조사

- 2011.01.04-05, 하의면 일대, 홍순일 조사, 송경환(남,44), 아무개1(남,미상), 아무개2(남,미상); 이홍채(남,71), 김양단(여,66), 김이춘(여,72); 제갈권섭(남,미상), 강혜정(여.) 제보, <하의도의 구비전승자원>, 공동조사

#### **방언문화 이기갑 공동연구원**

- 2010.12.10, 하의면 대리, 오림리, 이기갑 조사, 강복기(남, 82세), <방언문화>, 개별조사

#### **주거문화 김지민 공동연구원**

- 2011.09.23, 하의도 대리, 김지민 조사, 김원인(1934생) 제보, <민가>, 개별조사
- 2011.10.06, 하의도 대리, 김지민 조사, 제갈향덕(1948생) 제보, <민가>, 개별조사

####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책임연구원·이윤선 공동연구원**

- 2011.01.04-05, 하의면 일대, 강봉룡 조사, 옥도주민 제보, <하의도의 관광자원>, 공동조사
- 2012.04.07-08, 하의면 일대, 강봉룡 조사, 신도주민 제보, <하의도의 관광자원>, 공동조사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I 자연생태

홍선기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12
2. 하의도의 지질과 지형 14
3. 하의면의 식생과 식물상 15
4. 마을의 생태경관 16
5. 하의면의 무인도서 19
6. 생태우수 무인도서 20
7. 하의면의 생태자원 활용방안 32



# I 자연생태

## 1. 조사 개요

본 자료는 신안군 하의도의 지표조사의 항목 중 대표적인 자연과 생태자원을 조사하여 특징을 서술하고 정리하였다. 하의면은 우리나라의 김대중대통령이 태어난 생가가 있고, 주변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바탕으로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큰바위얼굴(그림 1), 양새바위, 개굴바위를 비롯하여 서부해안일주도로에서 보이는 리아스식 해안의 독특한 지형은 하의도 해안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과 더불어 신안군의 다른 도서에서 볼 수 없는 생태문화적 풍요로움을 주고 있다(그림 2). 하의면에는 대야도, 능산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개도 등 9개의 유인도와 장도, 용도, 거도 등 49개의 무인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34.6km^2$  (유인도서:  $34.01km^2$ , 무인도서:  $06km^2$ )이다. 대야도(능산2리)와 신도(능산3리)는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천일염, 툇, 김, 미역 등의 1차 생산품이 주요 산업이며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과 블루베리도 생산하고 있다(표 1).

표1. 하의면의 자연경관 목록

구 분		자 원	주 소(위치)	규모 및 설명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신안군 하의도	전남 신안군 하의면 E126°02' N34°36'	연화만개 (연꽃이 활짝 핀 모습)
	면적과 특성	면적 14.46km <sup>2</sup> 해안선 길이 32km	목포시 남서쪽 57.6km 해상에 위치	인구 2,045 가구 1,069
지형과 기후	생물기후구계	서해안남부형 (해안생물기후구)	하의도(신안군 일대)	하계-고온다습 동계-한랭건조
	해안지형	해식애, 암석해안, 리아스식해안	하의동 해안선	해안사구 기암암석이 노출된 암석해안지대
	해안사구, 해수욕장 및 해안생태계	모래구미해수욕장	하의면 서부일주도로	사구길이 100m 사구의 폭 80m
		신도사구 신도해수욕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도해안	사구길이 800m 곰솔방풍림
	토양	변성암류 화강암류 경상누층군	하의도 해안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
	기후	해양성 기후	하의도, 신안군	연평균기온: 13.3℃ 연평균강수량: 1,306mm
	산림	곰솔군락, 순비기군락, 통보리사초군락	하의도	간척지가 많아 산림의 면적은 크지 않음
지역 산물	특산물	천일염, 식초바다술 참깨, 유채, 전복, 낚지	간척지, 밭	주로 밭농사 위주, 간척지 염전에서 천일염 제조
기타 명소	명소	큰바위얼굴, 양세바위(일명 봉알바위), 개굴바위	하의면 대섬	모래구미사구주변 리아스식해안 기암절벽
	문화재	어은리 조개무지	하의면 어은리	패총
	포구	관문 옹곡포구	하의면 옹곡리	해안 어촌마을

해안가에 발달된 방풍림을 비롯하여 마을마다 당숲과 같은 마을숲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몇몇 마을에서는 인근 도서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상록활엽수림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마을을 감싸고 있어 상록활엽수로 구성된 독특한 마을숲으로서 신안군에서도 매우 드문 생태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의면의 주요 산업은 주로 농업과 갯벌에서의 맨손어업으로서 어촌계가 발달하여 半農半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일염, 식초바다술, 참깨, 유채, 전복, 낚지 등이 주요 산물이다.

본 자료는 하의면의 본도를 비롯하여 무인도서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특히 생태적으로 주요한 무인도서의 내용은 직접 입도하여 조사한 결과와 함께 2010년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조사의 내용 일부를 활용하였다.



사진 1. 신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큰바위얼굴



사진 2. 서부해안일주도로 주변의 해안가에 발달된 타포니 지형

## 2. 하의도의 지질과 지형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하의도와 하의도의 주변도서 및 연안해역이다. 위도상으로는  $34^{\circ}30'30''N$ , 경도상으로는  $125^{\circ}57'30''$ 와  $126^{\circ}05'00''$ 에 위치하고 있다.

유환수 등 (2006)의 조사에 의하면 하의도의 육상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에 속하는 연천계에 대비되는 암체와 암층으로 화성암과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연안의 지질은 현생 퇴적암으로 갯벌, 해변 및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응회암이 하의도와 인근 부근의 주된 기반암으로 되어 있으며 유문암질 응회암과 안산암질 응회암이 국부적으로 연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정합적이다.

또한 하의도의 높은 산에 해당하는 망매산(150m)과 금성산(132m)은 주로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화강암은 신도 선착장의 능선구에서 응회암을 관입 절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갯벌은 하의도의 만곡부와 옥도에서 상태도 쪽으로, 장병도와

하의도 사이에 비교적 대상으로 남측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자갈은 표력으로 절벽을 이루는 해안과 신도와 정도 사이의 협잡한 만곡부에 발달한다.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은 높이 132~152m 이하 저구능 사이 낮은 계곡부와 만곡부에 퇴적되어 있고 육지의 낮은 저구능 사이의 충적층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연안만입부의 저지는 어은리, 오림리, 능곡리, 전원리, 후광리, 소포리에서는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염전으로 이용하기 전에는 조석의 작용으로 갯벌로 피복된 곳이다. 한편, 하의도의 일대를 구성하는 암석들의 지질계통은 다음 <표 2>과 같다.



그림 1. 하의도의 지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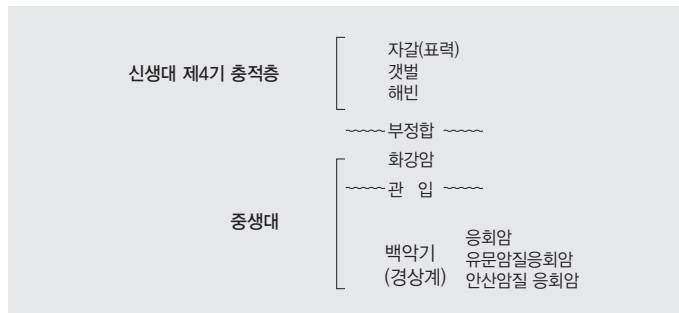


표 2. 지질계통

### 3. 하의면의 식생과 식물상

우리나라의 서·남해 해상에 분포하는 도서들의 난온대상록수림대는 Yim & Kira(1975, 1977)의 온도조건에 의하면, 대부분이 한랭지수(CI)  $-10^{\circ}\text{C} \cdot \text{month}$ 의 등치선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또, 이·임(1978)의 구계구분에 의하면 남해안아구에 속한다. 난온대상록수림이

분포하는 서·남해 지역은 일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정치, 경제,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주민들과 자치단체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개발된 상태이고 자연식생이 그대로 잔존하는 지역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오 1995). 본 조사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은 상관에 의하면 주로 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으로 구성된 상록활엽수림이지만, 화재, 벌채, 경작, 방목 등의 다양한 인간간섭으로 현존하는 상록수림은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고, 주로 곰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록침엽수림이 분포한다.

그 외에 굴피나무, 예덕나무, 소사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곰솔 등과 혼생하거나 또는 인접한 상태에서 분포하고 있고, 참역새, 칩 등의 초본성 및 만경식물군락도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본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으로 판단되는 개서나무-후박나무군락 등이 분포하는 지역은, 본 지역에서 입지에 따라 극상군락으로 발전해가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것으로 사료된다. 곰솔군락과 곰솔군락내에 굴피나무, 사방오리,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혼생하는 지역은 인간간섭이 정지되면, 본 지역의 기후 및 입지에 따라서 상록침엽수에서 낙엽활엽수를 거쳐 상록활엽수로 이행되거나, 또는 직접 상록활엽수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실잣밤나무, 소사나무 등은 본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으로 볼 수 있고, 곰솔군락, 이대군락, 초지 등은 대부분이 본 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이 아닌 대상식생이다. 따라서 식물군락의 보전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상록활엽수림이 조성되기 위한 천이단계의 기반 토대로서 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군락으로서의 가치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마을의 생태경관

### 1) 하의면 대리1구 대리당 주변 당숲(마을숲)

신안군의 대부분의 지역이 곰솔이 우점하는 이차식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의면 대리1구의 마을주변의 식생은 낙엽활엽수림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서어나무가 크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표 3). 아마도 대리당이 있는 당숲으로서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에 의하여 보전되어 전형적인 마을숲이라고 볼 수 있다(사진 3). 그러나 최근 당숲 주변에 무궁화와 동백나무 등을 식립하여 서어나무군락의 자연성을 훼손하고 있다(그림 6).

표 3. 대리1리 마을숲 수목 직경급 조사자료(20m×20m)

수목 직경급 (cm)	서어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팽나무
10~15	8			
15~20	10			
20~25				
25~30	6			
30~35		2		2
35~40		1	3	
40~45				
합 계	24	3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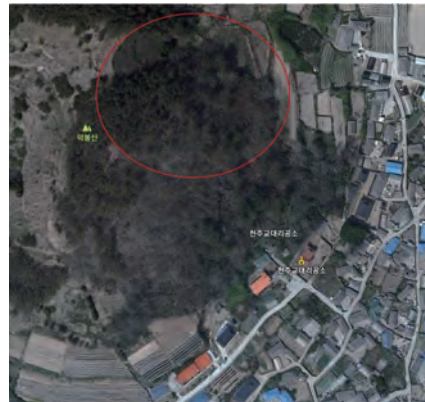


그림 2. 대리1구 마을숲의 위치



사진 3. 대리1구의 대리당. 주변 식생은 우수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있음



사진 4. 대리1구 대리당 주변 서어나무군락

표 4. 어은1구 방풍림 마을숲 주요 수목 직경급 조사자료(20m×20m)

수목직경급(cm)	팽나무	멀구슬나무	곰솔	굴참나무
10~15				
15~20	2	2		2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1	
55~60				
60~65	6			
65~70				
70~75	3			
합계	11	2	1	2

## 2) 하의면 어은1구 마을숲

어은리 1구에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띠숲(우실)이 있다(그림 3). 주로 팽나무로 구성된 이 띠숲은 팽나무 수목 직경이 60~70cm에 가까울 정도로 노거수에 가깝다(표 4). 또한 숲 내부에 이미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정자형태의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과거 이 숲을 휴식처나 마을 공동의 모임 장소 등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5). 그러나



그림 3. 하의면 어은1구 마을숲(방풍림)의 위치



사진 5. 하의면 어은1구 방풍림 마을숲에서 바라 본 바다

현재는 주민들의 이용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숲 내에는 관목이나 기타 초본의 성장으로 숲 내부로 진입하기 쉽지 않다. 마을숲의 유지와 보전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 띠 숲은 지역 문화자원으로 전혀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보고서를 통하여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사진 6. 옥도의 당숲과 당목

### 3) 옥도 당숲

옥도 보건지소와 옥도교회 인근에 있는 상록활엽수림 군락이다. 직경50cm 정도의 거대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동백나무를 비롯하여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의 상록성 교목이 성장하고 있다(그림 9). 옥도의 다른 지역의 식생에 비하여 이 곳에만 상록 활엽수들이 집중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독특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이 숲은 옥도의 전형적인 잠재자연식생(potential natural vegetation)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할 필요가 있다.

### 4) 신도, 대야도

하의면 능곡리 신도(薪島)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곳으로 두 개의 작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하나의 부락만이 존재한다. 신도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가 800m에 이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곰솔(*Pinus thunbergii*)군락이 둘러싸고 있어서 백사장과 조화를 이루는 매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사진 7). 일반인들에게 잘 홍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도를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신도해수욕장의 특징은 다른 해수욕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양쓰레기가 적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섬 주변 해류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도의 서북쪽 해안은 주상절리와 유사한 특이한 지질이 발달되어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다고 본다. 비교적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신도 해수욕장에서는 환경부지정 취약종인 황구렁이를 발견하였다. 대야도는 하의도 본도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능산리 부속도서로서 섬 전체가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대서리라고 명명되었다가 대야도로 변경되었다. 대야도는 신도와 마찬가지로 섬 전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안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하의면 갯벌의 우수한 도서로서 옥도가 있다면 우수한 해변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신도와 대야도라고 생각된다.



사진 7. 신도의 해수욕장과 송림

## 5. 하의면의 무인도서

2010년도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하의면의 무인도서는 48개이다(표 5). 하의도의 대부분의 무인도서의 특성과 같이 주요 식물군락은 주로 곰솔 등으

---

1) 섬 전체에 뿔감나무가 많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

로 이루어진 상록침엽수 이차림이 분포하고 있고, 곰솔군락의 임상에는 억새 등의 초본성 식물군락이 일부 분포하고 있다. 그 외에 암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무인도서가 인간 간섭이 가해진 지역이며,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삼림식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의 무인도서 중 일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다른 무인도서에 비하여 풍경과 자연이 매우 우수하다.

표 5. 하의도의 무인도서

면	무인도서 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능산리	20	8
대리산	2	0
어은리	5	0
오림리	2	0
후광리	19	0
계	48	8

## 6. 생태 우수 무인도서

### 6.1 능산리 산의도

#### 가. 일반현황

산의도 무인도서의 지번은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산406이며, 좌표는 34° 37' 54.9"N, 125° 56' 29.1"E이다. 면적은 91,636㎡로서 비교적 큰 무인도서이다(사진 8). 제일 가까운 면사무소와의 거리로 측정된 육지와와의 거리는 9.15km이다. 산의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이다. 주변 해역에서는 주로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김양식을 하고 있다(표 6).

표 6. 능산리 신의도의 이용현황

사용목적	사용자	위치	면적(㎡)	면허번호
양식장	대리어촌계	하의 대야도	200,000	11297

#### 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 1) 지형경관

산의도는 섬의 높이 약 80m, 길이 약 800m 정도의 규모로 남서 방향으로는 직벽 구조를 가지며 북동 방향으로는 완만한 중상형태의 지형을 보인다. 목본류를 포함한 식생이 발달하고, 주 구성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 특징으로 남쪽과 서쪽에 직각을 이루는 급격한 해식에 발달하며, 남서 방향으로 높이 10m 내외의 해식동이 여러 개 발달하여 있다. 절리에 의해 분리된 시스택 존재하며, 다양한 크기의 타포니와 절리가 발달하여 있다 해안은 갯벌 발달이 거의 없는 암반 조간대로 구성되어진다(사진 8). 직벽에 가까운 해식애와 해식동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지형경관 종합평가는 준보전 등급이다.



사진 8. 신의도의 전경사진과 중요한 지질경관

## 2) 식생 및 식물상

본 무인도서의 주요 식생은 40년생 내외의 곰솔군락과 소사나무군락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곰솔군락의 구분종은 곰솔이며, 식생의 높이는 10m 내외이고, 군락의 식피율은 95%로 군락로, 소사나무군락의 구분종은 소사나무이고, 식생의 높이는 3 m내외이고, 식피율은 100%로 나타나 식생의 발달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섬의 현존식생도는 소사나무군락이 중앙부분을 차지하고,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에 곰솔군락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관찰된 목본류는 곰솔, 소사나무, 산벚나무, 동백나무, 보리밥나무, 장

구릅나무, 붉나무, 참싸리, 초피나무, 상동나무, 이스라지, 층꽃나무, 떡갈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굴피나무, 사스레피나무,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갈매나무, 꾸지뽕나무 등이 우점하여 나타났고, 초본류는 억새, 참으아리, 꿀잎원추리, 개머루, 산국, 고사리, 큰까치수영, 무릇, 참나리, 갯쭉부쟁이, 단풍마, 엉겅퀴, 쑥, 층층잔대, 천문동, 밀사초, 더덕, 애기나리 등 33과 50속 42종 8변종 총 50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이 지역은 식생과 식물다양성 측면에서 준 보전지역으로 사료된다.

표7. 출현 식물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Pteridaceae <i>Pteridium aquilinum</i> var. <i>latiusculum</i> UNDERW.	고사리과 고사리
Pinaceae <i>Pinus thunbergii</i> PARL.	소나무과 곰솔
Graminaceae <i>Miscanthus sinensis</i> var. <i>purpurascens</i> RENDLE.	벼과 억새
Cyperaceae <i>Carex boottiana</i> HOOKER et ARNOTT.	사초과 밀사초
Araceae <i>Arisaema ringens</i> SCHOTT	천남성과 큰천남성
Liliaceae <i>Hemerocallis lilioasphodelus</i> L. <i>Lilium lancifolium</i> Thib <i>Scilla scilloides</i> (Lind.) Druce <i>Asparagus cochinchinensis</i> Merr. <i>Disporum smilacinum</i> A. Gray	백합과 꿀잎원추리 참나리 무릇 천문동 애기나리
Dioscoreaceae <i>Dioscorea quinqueloba</i> Thunb.	마과 단풍마
Juglandaceae <i>Platycarya strobilacea</i> S. et Z.	가래나무과 굴피나무
Betulaceae <i>Carpinus turczaninowii</i> Hance	자작나무과 소사나무
Fagaceae <i>Quercus dentata</i> Thunb.	참나무과 떡갈나무
Santalaceae <i>Thesium chinense</i> Turcz.	단양과 제비꽃
Ranunculaceae <i>Clematis terniflora</i> DC.	마니리아재비과 참으아리
Crassulaceae <i>Sedum polystichoides</i> Hemsl.	돌나물과 바위채송화
Pittosporaceae <i>Pittosporum tobira</i> Ait.	돈나무과 돈나무
Rosaceae <i>Prunus sargentii</i> RENDER. <i>Prunus japonica</i> var. <i>nakaii</i> (LEV. ) RENDER.	장미과 산벚나무 이스라지
Leguminosae <i>Lespedeza cyrtobotrya</i> MIQ. <i>Indigofera kirilowii</i> MAX. <i>Pueraria thunbergiana</i> BENTH.	콩과 참싸리 땅비싸리 취
Rutaceae <i>Zanthoxylum piperitum</i> A. P. DC.	운향과 초피나무
Anacardiaceae <i>Rhus chinensis</i> MILL.	울나무과 붉나무

학 명	국 명
Rhamnaceae <i>Rhamnus davurica</i> Pall. <i>Sageretia theezans</i> BRONGN.	갈매나무과 갈매나무 상동나무
Vitaceae <i>Ampelopsis heterophylla</i> S. et Z.	포도과 개머루
Tiliaceae <i>Grewia biloba</i> var. <i>parviflora</i> (BUNGE, ) HAND.	피나무과 장구밥나무
Theaceae <i>Camellia japonica</i> L. <i>Eurya japonica</i> THUNB. <i>Eurya emarginata</i> (THUNB.) MAKINO	차나무과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우목사스레피
Elaeagnaceae <i>Elaeagnus macrophylla</i> THUNB.	보리수나무과 보리밥나무
Araliaceae <i>Kalopanax pictus</i> (THUNB.) NAKAI	두릅나무과 읍나무
Primulaceae <i>Lysimachia clethroides</i> DUBY	앵초과 큰까치수영
Symplocaceae <i>Symplocos paniculata</i> MIQ.	노린재나무과 검노린재
Oleaceae <i>Ligustrum obtusifolium</i> S. et Z.	물푸레나무과 쥐똥나무
Apocynaceae <i>Trachelospermum asiaticum</i> var. <i>intemedium</i> NAKAI	협죽도과 마삭줄
Asclepiadaceae <i>Cynanchum paniculatum</i> KITAGAWA	박주가리과 산해박
Verbenaceae <i>Caryopteris incana</i> (THUNB.) MIQ.	마편초과 총꽃나무
Labiatae <i>Isodon japonicus</i> (BURM. ) HARA	꿀풀과 방아풀
Scrophulariaceae <i>Melampyrum roseum</i> var. <i>ovalifolium</i> NAKAI	현삼과 알머느리밥풀
Campanulaceae <i>Codonopsis lanceolata</i> (S. et Z.) Trautv. <i>Adenophora radiatifolia</i> HARA	초롱꽃과 더덕 총총잔대
Compositae <i>Aster hispidus</i> THUNB. <i>Aster scaber</i> THUNB. <i>Chrysanthemum boreale</i> MAKINO <i>Artemisia princeps</i> var. <i>orientalis</i> (PAMPAN ) HARA <i>Atractylodes japonica</i> KOIDZ. <i>Cirsium japonicum</i> var. <i>ussuriense</i> KITAMURA	국화과 갯쑥부쟁이 참취 산국 쑥 삼주 영강취

### 3) 육상 동물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전체조류는 2종 6개체가 기록되었다. 관찰된 조류 중은 바다직박구리, 가마우지가 조사되었다. 가마우지의 관찰시기 및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번식가능성의 징후가 높다고 판단된다. 포유류는 간조 시 내륙과 연결되는 갯벌을 통해 인근에서 서식하는 들고양이 등의 고양이과와 기타 설치류 및 개과의 육상동물의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표 8).

표 8. 출현 조류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i>Monticola solitarius</i> <i>Phalacrocorax capillatus</i>	바다직박구리 가마우지

산의도는 경사가 급한 섬으로 상록수림과 초지가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였고 채집이 어려운 종들은 카메라를 통한 촬영과 육안관찰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4여종이 확인 되었으며, 홍줄노린재, 방아깨비약충, 꽃무지류 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 지정 특정종인 방아깨비가 발견되었다(표 9).

표 9. 출현 곤충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i>Graphosoma rubrolineatum</i> (Westwood)	홍줄노린재
<i>Acrida cinerea cinerea</i> (Thunberg)	방아깨비약충
<i>Cetoniidae</i> sp.	꽃무지류

#### 4) 해양생물

조간대기질은 암반이며 암반에는 타포니와 갈라진 틈이 있어 미세서식처를 제공한다. 해변에는 쉼어구가 있다. 산의도 주변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낚시꾼이 왕래하며, 인위적인 영향으로 자연성이 없어 생태계 자연성은 하급이며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로 판단된다. 상부에는 총알고둥, 좁쌀무늬총알고둥이 우점적으로 분포하며, 암반 틈새에는, 갈고둥, 군부, 거북손, 고랑딱개비 등이 출현하였다.

중부에는 해수가 고인 곳에는 갈색꽃해변말미잘, 군부가 서식하며, 암반틈새에는 검은 큰따개비, 고랑딱개비, 바위게, 애기삿갓조개, 애기두드럭배말, 대수리가 출현하였다. 특징적인 우점종은 출현하지 않았다. 산의도에서는 총 12종의 해안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자포동물 1종, 연체동물 8종, 절지동물 3종이었으며, 출현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10).

표10. 산의도에 서식하는 해양무척추생물

학 명	국 명
Phylum Cnidaria Class Anthozoa Order Actiniaria Family Actiniidae <i>Anthopleura japonica</i>	자포동물문 산호충강 해변말미잘목 해변말미잘과 갈색꽃해변말미잘
Phylum Mollusca Class Polyplacophora Order Neoloricata Family Chitonidae <i>Acanthopleura japonica</i>	연체동물문 다판강 신군부목 군부과 군부
Class Gastropoda Order Archaeogastropoda Family Patellidae <i>Cellana toreuma</i>	복족강 원시복족목 삿갓조개과 애기삿갓조개
Family Acmaeidae <i>Lottia kogamogai</i>	흰삿갓조개과 애기두드럭배말
Family Neritidae <i>Heminerita japonica</i>	갈고둥과 갈고둥
Family Littorinidae <i>Granulilittorina exigua</i> <i>Littorina brevicula</i>	총알고둥과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Order Neogastropoda Family Muricidae <i>Reishia clavigera</i>	신복족목 뿔소라과 대수리
Order Basommatophora Family Siphonariidae <i>Siphonaria japonica</i>	기안목 고랑딱개비과 고랑딱개비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Order Thoracica <i>Policipes mitella</i> <i>Tetraclita japonica</i>	절지동물문 갑각강 완홍목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Order Decapoda <i>Pachygrapsus crassipes</i>	십각목 바위게

조간대는 펠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는 급하고, 파도의 영향을 약하게 받는 곳, 외양성이다.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녹조류 1종, 갈조류 3종, 홍조류 4종의 총 8종이 동정되었고 주요 우점종은 녹조류의 구멍갈파래 갈조류의 지층이, 툫, 뜸부기 홍조류는 불등풀가사리, 작은구슬산호말, 풀가사리, 서실 출현하였다.

#### 다. 무인도의 활용 자원

도서 지형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중앙에 모래 및 자갈사변과 특이한 형태암석이 발달되



산의도 전경

어 있으며 2개의 해안동굴이 발달되어 있다. 갯바위 낚시터가 존재하며 도서 주변의 전망권이 아름답고 해상 풍치 감상을 위한 크루즈 관광 상품개발이 가능하다(사진 9).



작은 모래사변

## 6.2 후광리 간암도

### 가. 일반현황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산104에 속해 있으며, 좌표는  $34^{\circ} 40' 03.6''N$ ,  $126^{\circ} 01' 11.1''E$ 에 위치한다(그림 13). 면적은  $84,072m^2$  으로서 산의도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육지와와의 거리(면사무소와의 거리)는  $6.92km$ 이다. 30년 전에는 한가구가 임시 거주하여 밭을 일구면 보리나 기타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한다. 주변 해역은 주로 김양식장으로 되어 있다(표 11).



산의도의 해식동

표 11. 간암도의 이용현황

사용목적	사용자	위 치	면 적( $m^2$ )	면허번호
양식장	장병어촌계	하의 장병 간암도	200,000	11418
	장병어촌계	하의 장병 간암도	80,000	11266

사진 9. 산의도의 해양생태관광 자원 (크루즈여행)

## 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 1) 지형경관

간암도는 섬의 높이 약 28m, 길이 약 500m 정도의 규모로 십자형태의 모습으로 비교적 완만한 순상지형을 보인다. 목본류를 포함한 식생이 발달하고, 주 구성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 특징으로 완만한 해식에, 5×20m<sup>2</sup> 크기의 해식대지, 다양한 크기의 타포니, 절리가 발달하여 있다. 해안은 국지적으로 역질 해변이 발달되고 대부분 암반으로 구성되며, 자갈은 원마도가 아원형에서 원형 정도로 원마도가 좋은 편이다. 또한 해안 주변에는 양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 각종 폐어구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사진 10). 지형경관 종합평가는 이용가능 등급이다.



사진 10. 간암도의 경관과 주요 지형

## 2) 식생 및 식물상

본 무인도서의 주요 식생은 40년생 내외의 곰솔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락의 구분종은 곰솔이며, 식생의 높이는 11m 내외이고, 군락의 식피율은 95%로 군의 형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섬의 현존식생도는 곰솔군락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관찰된 목본류는 곰솔, 산벚나무, 분꽃나무, 누리장나무, 예덕나무, 졸참나무, 우묵사스레피,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자귀나무, 소사나무, 팔배나무, 졸참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청미레덩굴, 사스레피나무, 이스라지 등이 우점하여 나타났고, 초본류는 억

새, 해국, 솔새, 밀사초, 김의털, 갯장구채, 갯쭉부쟁이, 등대풀, 애기풀, 머루, 고사리, 산박하, 계요등, 땡땡이덩굴, 고비, 천문동 등 29과 47속 44종 7변종 총 51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이 지역은 식생과 식물다양성 측면에서 준 보전지역으로 사료됨.

표12. 출현 식물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Osmundaceae <i>Osmunda japonica</i> THUNB.	고비과 고비
Pteridaceae <i>Pteridium aquilinum</i> var. <i>latiusculum</i> UN DERW.	고사리과 고사리
Pinaceae <i>Pinus thunbergii</i> PARL.	소나무과 곰솔
Graminaceae <i>Elymus dahuricus</i> Turcz. <i>Festuca ovina</i> L. <i>Zoysia sinica</i> HANCE. <i>Setaria viridis</i> ( L. ) BEAUV. <i>Imperata cylindrica</i> var. <i>koenigii</i> (Retz.) Pilg. <i>Miscanthus sinensis</i> var. <i>purpurascens</i> RENDLE. <i>Themeda triandra</i> var. <i>japonica</i> MAKINO	벼과 갯보리 김의털 갯잔디 강아지풀 띠 억새 솔새
Cyperaceae <i>Carex boottiana</i> HOOKER et ARNOTT.	사초과 밀사초
Juncaceae <i>Juncos effusus</i> var. <i>decipiens</i> BUCHEN.	골풀과 골풀
Liliaceae <i>Hemerocallis lilioasphodelus</i> L. <i>Lilium tigrinum</i> KER-GAWL. <i>Asparagus cochinchinensis</i> MERR. <i>Smilax china</i> L.	백합과 골잎원추리 참나리 천문동 청미래덩굴
Betulaceae <i>Carpinus coreana</i> NAKAI	자작나무과 소사나무
Fagaceae <i>Quercus serrata</i> THUNB.	참나무과 졸참나무
Caryophyllaceae <i>Melandryum oldhamianum</i> for. <i>roseum</i> (Nak.) T. Lee	석죽과 갯장구채
Menispermaceae <i>Cocculus trilobus</i> DC.	방기과 땡땡이덩굴
Rosaceae <i>Rosa wichuraiana</i> CREP. <i>Prunus sargentii</i> RENDER. <i>Prunus japonica</i> var. <i>nakaii</i> (LEV. ) RENDER.	장미과 돌가시나무 산벚나무 이스라지
Leguminosae <i>Albizzia julibrissin</i> DURAZZ. <i>Indigofera kirilowii</i> MAX. <i>Pueraria thunbergiana</i> BENTH.	콩과 자귀나무 땅비싸리 취
Polygalaceae <i>Polygala japonica</i> HOVTT.	원지과 애기풀
Euphorbiaceae <i>Mallotus japonicus</i> MUELL. ARG. <i>Euphorbia pekinensis</i> RUPR. <i>Euphorbia helioscopia</i> L.	대극과 예덕나무 대극 등대풀

학 명	국 명
Anacardiaceae <i>Rhus chinensis</i> MILL.	욱나무과 붉나무
Celastraceae <i>Euonymus japonica</i> THUNB.	노박덩굴과 사철나무
Rhamnaceae <i>Rhamnus davurica</i> Pall.	갈매나무과 갈매나무
Vitaceae <i>Vitis coignetiae</i> PULLIAT.	포도과 머루
Theaceae <i>Eurya japonica</i> THUNB. <i>Eurya emarginata</i> (THUNB.) MAKINO	차나무과 사스레피나무 우묵사스레피
Elaeagnaceae <i>Elaeagnus umbellata</i> THUNB. <i>Elaeagnus macrophylla</i> THUNB.	보리수나무과 보리수나무 보리밥나무
Ericaceae <i>Vaccinium bracteatum</i> THUNB.	진달래과 모새나무
Primulaceae <i>Lysimachia clethroides</i> DUBY	앵초과 큰까치수영
Symplocaceae <i>Symplocos paniculata</i> MIQ.	노린재나무과 검노린재
Verbenaceae <i>Clerodendron trichotomum</i> THUNB.	마편초과 누리장나무
Labiatae <i>Isodon inflexus</i> (THUNB. ) KUDO	꿀풀과 산박하
Rubiaceae <i>Paederia scandens</i> ( LOUR. ) MERR.	꼭두서니과 계요등
Caprifoliaceae <i>Viburnum carlesii</i> HEMSLE.	인동과 분꽃나무
Compositae <i>Carpesium abrotanoides</i> L. <i>Aster hispidus</i> THUNB. <i>Aster scaber</i> THUNB. <i>Aster spathulifolius</i> MAX. <i>Chrysanthemum boreale</i> MAKINO <i>Cirsium japonicum</i> var. <i>ussuriense</i> KITAMURA	국화과 담배풀 갯속부쟁이 참취 해국 산국 영경취

### 3) 육상 동물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전체조류는 2종 5개체가 기록되었다. 관찰된 조류 종은 알락할미새, 동박새가 조사되었다. 또한 호랑지빠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식생대는 침엽수림이 발달하여 수관층에서 백로과 조류의 휴식이 예상된다. 포유류는 간조 시 내륙과 연결되는 갯벌을 통해 인근에서 서식하는 들고양이 등의 고양이과와 기타 설치류 및 개과의 육상 동물의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사진 11).



전체전경



해안형태



전경

사진 11. 간암도에서 조류들이 서식 혹은 채식할 수 있는 경관

표13. 출현 조류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i>Motacilla alba leucopsis</i>	알락할미새
<i>Zosterops japonicus</i>	동박새

간암도는 경사가 완만한 섬으로 소나무림과 상록수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채집하였고 채집이 어려운 종들은 카메라를 통한 촬영과 육안관찰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9여종이 확인 되었으며, 애매미, 굴뚝나비, 아시아실잠자리, 푸른부전나비, 밀잠자리, 방아깨비 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 지정 특정종인 방아깨비가 발견되었다.

표14. 출현 종 리스트

학 명	국 명
<i>Meimuna opalifera</i> (Walker)	애매미
<i>Minois dryas bipunctata</i> (Motschulsky)	굴뚝나비
<i>Ischnura asiatica</i> (Brauer)	아시아실잠자리
<i>Celastrina argiolus ladonides</i> (De L' Orza)	푸른부전나비
<i>Orthetrum albistylum</i> (Selys)	밀잠자리
<i>Acrida cinerea cinerea</i> (Thunberg)	방아깨비

#### 4) 주요 해양 생물

조수웅덩이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해안에는 쓰레기와 폐어구가 관찰되어 생태계 자연성은 중급이다. 본 섬은 주변 섬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반폐쇄적인 내만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부역에는 총알고둥(460개체/m<sup>2</sup>)이 1m 정도 폭으로 서식하며, 그 아래로 좁쌀무늬총알고둥(140개체/m<sup>2</sup>)과 두드럭총알고둥(340개체/m<sup>2</sup>)이 혼서하여 나타나고 있

다. 암반조간대 중부로 오면서 갈고둥(660개체/m<sup>2</sup>)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중부역에는 참굴(540개체/m<sup>2</sup>) 군집이 약 3m 폭으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참굴 군집에는 좀털군부(16개체/m<sup>2</sup>), 고랑딱개비(160개체/m<sup>2</sup>)의 어린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중부역의 암반표면 및 갈라진 틈새에는 갯강구, 군부, 눈알고둥, 대수리, 애기배말, 애기두드럭배말, 애기삿갓조개, 개울타리고둥, 구멍밤고둥, 피뿔고둥이 서식하며, 조무래기따개비의 밀도는 높지 않다. 간암도에서는 총 16종의 해안무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연체동물 15종, 절지동물 1종이었으며, 출현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15).

표15. 출현 해안무척추동물 리스트

학 명	국 명
Phylum Mollusca Class Polyplacophora Order Neoloricata Family Chitonidae Acanthopleura japonica	연체동물문 다판강 신군부목 군부과 군부
Family Acanthochitonidae Acanthochitona achates	가시군부와 좀털군부
Class Gastropoda Order Archaeogastropoda Family Patellidae Cellana toreuma	복족강 원시복족목 삿갓조개과 애기삿갓조개
Family Acmaeidae Patelloida pygmaea pygmaea Lottia kogamogai	흰삿갓조개과 애기배말 애기두드럭배말
Family Trochidae Chlorostoma turbinata Monodonta labio confusa	밤고둥과 구멍밤고둥 개울타리고둥
Family Neritidae Heminerita japonica	갈고둥과 갈고둥
Family Littorinidae Granulilittorina exigua Littorina brevicula Littoraria scabra	총알고둥과 좁쌀무늬총알고둥 총알고둥 두드럭총알고둥
Order Neogastropoda Family Muricidae Rapana venosa Reishia clavigera	신복족목 뿔소라과 피뿔고둥 대수리
Order Basommatophora Family Siphonariidae Siphonaria japonica	기안목 고랑딱개비과 고랑딱개비
Class Bivalvia Order Pterioida Family Ostreidae Crassostrea gigas	이매패강 익각목 굴과 참굴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Order Thoracica Chthamalus challenger	절지동물문 갑각강 완흉목 조무래기따개비

조간대는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는 완만하고, 파도의 영향을 약하게 받는 곳, 내만형이다. 분류군별 출현종수는 녹조류 중, 갈조류 6종, 홍조류 4종의 총 10종이 동정되었고 출현종은 갈조류는 지층이, 툫, 바위수염, 모자반, 고리매, 패 홍조류의 풀가사리, 도박, 서실, 불등풀가사리가 출현하였다(표 16).

표16. 출현 종 리스트

학명	국명
<i>S. thunbergii</i>	지층이
<i>Hizikia fusiformis</i>	툫
<i>G. tenax</i>	풀가사리
<i>Myelophycus caespitosus</i>	바위수염
<i>Pachymeniopsis elliptica</i>	도박
<i>Chondria crassicaulis</i>	서실
<i>Myagropsis myagroides</i>	모자반
<i>Gloiopeltis furcata</i>	불등풀가사리
<i>Scytosiphon lomentaria</i>	고리매
<i>Ishige okamurae</i>	패

#### 다. 관광 자원

간암도는 공룡모양의 바위와 많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으로 해안에 자갈사변이 발달되어 있다. 갯바위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고 해송이 잘 발달하여 해상 자연 휴양림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 7. 하의면의 생태자원 활용방안

### 1) 역사문화, 생태교육의 중심지

하의도는 후광리에서부터 어은리에 이르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 대야도와 능산도 등 유인도 등과 어울려 마치 유럽의 영국 같은 모양이다. 하의도에는 높지 않은 지형과 갯벌, 해초류, 그리고 낙지 등의 먹을 것이 풍부하다(사진 12). 또한 옥도를 비롯하여 대야도, 신도 등 유인도에도 아름다운 숲과 해안가, 해수욕장 등 생태관광의 주요 테마를 다 갖추고 있다. 현재 김대중 모실(올레)길이 총30.4km 구성되어 있다. 길을 걸으면서 숲과 마을, 그리고 해안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하의도에는 대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마을이 있고, 마을에는 방풍림, 당숲 등 마을숲이 있다. 또한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숲과 갯벌을 이용하여 휴양과 생태를 생각하는 하의도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마을별로 역사성, 생태성의 특성과 이미지를 고려하여 “휴양 섬, 정원 섬(Garden Island)”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야도와 신도에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옥도는 하의면에서 생산하는 낙지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옥도낙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이 갯벌로 둘러싸여 있는 옥도의 특성도 있지만, 신안군 자은, 안좌, 장산, 신의, 하의, 비금, 도초 등의 인근 유인도와 8개의 물길로 연결되어 예로부터 팔구포(八口浦)라 전해져 올 만큼 영양분이 풍부한 바닷물의 교류에 의하여 갯벌생태계가 매우 우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옥도를 비롯하여 다른 유인도에도 전통적인 음식과 아름다운 풍치를 느낄 수 있는 민박과 숙박이 가능한 가족단위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의면과 주변 유인도의 종합적인 관광형태는 소규모의 가족단위(family tour)로 진행하면서 대통령생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주변 갯벌생태계에서 갯벌체험을 즐기고, 또한 무인도에서의 낚시와 해조류 채취 등을 통하여 자연의 중요성을 느끼는 관광이 좋겠다. 하의면에서 보았던 해조류 음식이나 옥도에서의 낙지 요리는 지역 토착음식(local food)로서 재조명 받아야 할 것이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사진 13).



사진 12. 하의면 덕봉정의 해조류 요리



사진 13. 옥도 낙지 요리

## 2) 옥도: 팔구포와 낙지

옥도는 위치상 신안군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부터 이곳은 해상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다. 자은, 안좌, 장산, 신의, 하의, 도초, 비금 등의 유인도에서 옥도를 거치

는 물길에 따라서 옥도는 팔구포(八口浦)라고 하였다. 팔구포라는 것은 8곳의 포구가 있다는 뜻으로 각 포구마다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팔구포의 의미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낙지의 이미지는 매우 유사하다. 옥도의 낙지는 하의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팔구포”와 “낙지”는 옥도를 떠오르게 하며 상징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옥도는 일제시대부터 군사용 관측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적 규모에서 신안군의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모니터링 시스템을 옥도 관측소 자리에 두면 어떨까 한다. 끝으로 갈마산, 망피산, 젓산, 마을숲, 고래등, 우물터, 포구(팔구포), 갯벌(낙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옥도 8경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3) 신도와 대야도

신도와 대야도는 하의면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송림으로 경관이 매우 우수한 관광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신도의 경우, 매우 뛰어난 지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안경관과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과 접근성 부족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신도의 경우는 과거 1990년대 불미한 사건 이후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무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도해국립공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에는 마을에 안태골마을회관이 있어서 적절하게 개조하여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수욕장을 향하는 해변길을 걷다가 안태골마을에 들어서면 노거수와 대나무숲(이대숲)을 지나면 몽돌해변이 나타난다(사진 14, 15). 우수한 생물상,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 그리고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역사와 문화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관광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의면의 신도와 대야도는 보물의 섬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4. 신도 안태골 대나무숲의 산책



사진 15. 신도 안태골 자갈 해변의 풍경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2010. 『2010무인도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Ⅲ)』. 도서문화연구원.
- 유환수, 유경아, 오강호, 유영석. 2006. 하의도(荷衣島) 부근의 지질. 『한국도서연구』 18(2): 179-186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Ⅱ 선사유적

장대훈

목포대박물관 특별연구원

1. 조사 개요 38
2. 선사유적 40
3. 활용방안 45

## II 선사유적

### 1. 조사 개요

신안군 하의면은 우리나라 서남부 해역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륙지역인 목포로부터 57.9km 떨어져 있다. 하의면은 총 9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의도(본섬)·능산도·대야도·소장병도·옥도·신도 등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하의면은 지난 수년 동안 유·무인도서 간의 대규모적인 간척사업을 통해 한 개의 본섬으로 조성되었으며, 동편 인근에는 신의면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편에는 도초면이, 남편에는 진도군 조도면이 인접해 있어 주위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1. 하의면의 위성지도

1) 최성락, 1985, 「신안군 장산도(長山島)·하의도(荷衣島) 조사보고 : 장산도·하의도의 유적, 유물」, 『도서문화』 3, 도서문화연구소.

하의면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조사는 지난 1985년도에 1회 시행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진행된 바가 없다.<sup>1)</sup> 다만 하의면이 속해있는 신안군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가 지난 2008년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신안군편”이 발행되면서 고고, 역사, 건축 등 다양한 분야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2)</sup>

신안군 일원에 대한 관심은 지난 1954년 “국립중앙박물관 서해도서조사팀”에 의해 대흑산도 일원을 조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역사, 고고 이외에도 사회, 언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괄적인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결과 대흑산도의 신석기시대 패총을 비롯하여 지식묘군, 상라산성 등 수 많은 고고학유적이 파악되었다.<sup>3)</sup> 그 후 1966~67년에는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가 남해도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신안군 내의 주요 유적들이 확인되었는데 패총 5개소, 지식묘군 5개군 35기, 장산면에서 백제석실분이 조사되었고, 대흑산도에서 패총이 일부 시굴조사되었다.<sup>4)</sup> 1975년에는 임자도의 패총과 지식묘유적이 확인되었고, 1981년에는 압해도의 지식묘<sup>5)</sup>, 입석, 패총 등이 조사된 바가 있다.<sup>6)</sup>

1982년에는 서남해안 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현 도서문화연구원)에 의해 압태도<sup>7)</sup>, 장산·하의도<sup>8)</sup>, 안좌도<sup>9)</sup>, 지도<sup>10)</sup>, 흑산도<sup>11)</sup>, 압해도<sup>12)</sup>, 비금도<sup>13)</sup>, 자은도<sup>14)</sup>, 임자도<sup>15)</sup>가 연차적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고고·역사·민속·언어·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6·1987년에는 신안군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sup>6)</sup>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2)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3) 국립박물관, 1957, 『서해도서조사보고』, 을유문화사.

4) 김원용·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5) 최몽룡, 1980, 「임자도의 선사유적」,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6) 이영문, 1982, 「신안 압해도의 선사문화」, 『향토문화』 7, 향토문화개발협의회.

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3, 『도서문화』 1.

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5, 『도서문화』 3.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6, 『도서문화』 4.

10)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7, 『도서문화』 5.

1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도서문화』 6.

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0, 『도서문화』 18.

1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1, 『도서문화』 19.

1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도서문화』 21.

15)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4, 『도서문화』 24.

16)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7,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8년에는 그동안 신안지역에 대한 조사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도서문화연구소 주최로 개최되기도 하였다.<sup>17)</sup>

특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신안군 면 단위의 단계별 조사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현 도서문화연구원)를 중심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압해면, 비금면, 흑산면 편”이 발간되었으며, 2005년도에 “도초면, 안좌·팔금면 편”, 2006년도에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편”이 발간되었다. 이번 조사는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 하의면 편”으로 그 조사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 2. 선사유적

〈표1〉 선사유적 목록

번호	명칭	위치	연대
1	대리 동편지석묘군	하의면 대리 동편마을	청동기
2	대리 돌개목지석묘	하의면 대리 돌개목마을	청동기
3	어은리 패총	하의면 어은리	미상
4	대리 칼산고분	하의면 응곡리 전광마을	삼국시대
5	대리 사두고분	하의면 응곡리 전광마을	삼국시대
6	대리 벼락바위고분	하의면 응곡리 벼락바위마을	삼국시대

하의도의 선사문화는 지난 2008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최근의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패총, 삼국시대 고분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된 유적들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뚜렷한 유물과 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의면을 포함한 신안군 내의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은 일부 유적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유실되거나,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하의면의 경우 주변 섬들이 한 개의 본섬으로 통합(간척)되는 과정에서 해안가에 위치한 수많은 유적들이 유실되거나 마을의 발달로 인해 상당수의 유적들이 지정학적으로 중복되면서부터 훼손된 것으로 살펴진다.

반면 하의도 본섬을 동편에서 감싸고 있는 신의면의 경우 이 일대에서 대규모적인 삼국

시대 석실분(상서고분군 50여기)이 존재하고 있거나, 안좌면은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어 인접한 주변 섬들과의 관계를 함께 풀이하여 이 지역의 선사·고대문화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신안군 일원의 전반적인 선사문화를 살펴보면 그 속에 속해 있는 하의면의 숨겨진 선사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안군 일원의 선사문화는 섬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석기시대~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까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현재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조사를 통해 압해면 전역에서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바가 있다. 압해면은 하의면의 북동쪽 40여 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이 일대의 동서리, 학교리, 북룡리 등지에서 수습되었으며 이들 유물은 석영제의 석기로 여러면석기, 짚개 등이 확인되었다.<sup>18)</sup> 이것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내륙을 떠나 섬에 대한 탐험과 새로운 거주지 개척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비단 압해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신안군 일원, 즉 하의면에도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겨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신안군 외해에 위치한 흑산면 대흑산도 패총을 비롯하여 하태도 패총, 가거도 패총, 우이도 패총, 어의도 패총 등이 알려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용기문토기, 압인문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전의 조사 기록에서만 일부 확인 될 뿐 이들 유적들은 대부분 유실, 훼손되어 그 흔적들이 잘 남아 있지 않다.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들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생활유적의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마을 정착과 관련된 주거지 유적들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과 문화상을 파악하기에는 힘들다. 다도해의 풍부한 해상자원을 생계전략으로 활용하면서 인접한 도서지역을 왕래한 증거들은 이 시기에 활발한 해상활동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들은 향후 하의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석묘를 들 수 있다. 신안군 지역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약 140여기로 그 형식은 남방식에 속하며

1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8, 『제5회 도서문화 심포지움 : 서남해 도서지방의 문화적 성격』.

18) 이현중, 2000, 『압해도 선사유적의 신발견』, 『도서문화』 1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상석의 장축방향이나 군집방향이 대체로 주위의 자연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물들은 압해면 복룡리유적에서 유구석부 19점, 마제석부 8점, 대팻날 2점 등을 비롯하여 60여 점의 석기와 많은 미완성석기들이 출토되어,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 석기제작소의 중심으로 추정되고 대규모적인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신의면에서도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어<sup>19)</sup> 청동기시대에는 섬 곳곳에 그들의 흔적들을 남겨 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하의면 일원은 2개소의 지석묘유적들이 확인된 바 있지만 원형을 찾기 어렵고 유물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조사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기철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신안군 일원에서 패총유적이 5개소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토기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유물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유물들은 대체로 타날문토기편과 함께 무문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 보이는 철기시대의 경질무문토기편도 있다. 이 시대 역시 신안군의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한 해상활동이 빈번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이 시대의 유적이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현재까지 하의면 일원에서 발견된 유적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 유적들은 기존에 조사 보고된 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2008)들의 탐방과 새로운 유적을 찾기 위한 지표 조사를 병행하며 시행되었다.

## 1) 대리 동편지석묘군(하의면 대리 동편마을)

대리 동편마을은 덕봉산(87.1m) 남동쪽 산기슭과 평지에 자리한다. 기존 조사에서 마을 내에 4기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1호 지석묘는 김장근씨 맥(225번지) 앞마당에 있는데, 수년전 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워두었다. 2호 지석묘는 김심배씨 맥(225번지) 뒷밭에 있는 것으로 상석의 크기는 장축 212cm, 단축 140cm, 두께 76cm이고 형태는

---

19) 정영희·최미숙, 2002, 「고고유적조사보고」, 『신안군 신의면 하태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사진1. 대리 동편지석묘군 전경



사진2. 대리 동편지석묘군 근경

타원형이다.

장축방향은 남-서인데, 하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호 지석묘는 윤양신씨 댁(229번지) 뒷밭에 있는 것으로 상석의 크기는 장축 230cm, 단축 120cm, 두께 60cm이고 형태는 장방형,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하부가 보이는데 지석들이 있고 판석재가 주변에 흩어져 있다. 4호 지석묘는 정화수씨 댁(199번지) 담장에 있다. 한쪽은 길가로 나와 있고, 다른 쪽은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상석의 크기는 장축 228cm, 단축 190cm, 두께 75cm이고, 형태는 장방형,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4호 지석묘는 유실되고 1·2호 지석묘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조사(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1985)에서는 ‘대리 지석묘군’이었으나 행정명에 따라 ‘대리 동편지석묘군’으로 정정하였다.

## 2) 대리 뜯개목지석묘(하의면 대리 뜯개목마을)

유적은 대리에서 후광리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조사에서는 길 우측에 1기의 지석묘가 비스듬히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현재는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상석과 하부 구조가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조사(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사진3. 대리 뜯개목지석묘 전경(목포대학교 박물관 2008)

1985)에 의하면 상석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 285cm, 단축 214cm, 두께 60cm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상석 바로 옆에 직경 80cm 내외의 둥근 지석이 2개 놓여 있었다고 한다.

### 3) 어은리 패총(하의면 어은리)

이 유적은 어은마을 중심부를 지나 언덕에 올라서면 넓은 해변이 눈에 들어오는데 해변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패총이 위치한다고 보고된바 있다. 이 유적은 처음 조사될 당시 타날문토기로 보이는 작은 파편 1점과 소성도가 높은 단지의 파수편(把手片) 1점, 얇고 작은 조약돌이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패각이 노출되지 않아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유적의 훼손 또는 유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4. 대리 칼산고분 전경(목포대학교 박물관 2008)

### 4) 대리 칼산고분(하의면 응곡리 전광마을)

응곡리 전광마을 서쪽으로 ‘전광들’이라 불리는 간척지가 펼쳐져 있다. 마을에서 ‘전광들’로 나있는 소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제1호저수지’가 있다. 저수지의 서쪽에는 소위 ‘칼산’이라 지칭되는 낮은 구릉이 있는데 기존조사에서는 이곳에서 길이 3~5m정도, 높이 1m 이내의 고분이 산재되어 있고, 군데군데 도굴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사진5. 대리 사두고분 전경(목포대학교 박물관 2008)

1985). 그러나 현재는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 5) 대리 사두고분(하의면 응곡리 전광마을)



사진6 대리 벼락바위고분 전경(유실)

응곡리 전광마을 서쪽으로 ‘전광들’이라 불리는 간척지가 펼쳐져 있다. 전광마을에서 ‘전광들’로 나있는 소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보면 ‘제1호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둘레로 산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사두고분은 ‘제1호저수지’의 제방 북쪽 끝에 속칭 ‘사두’라는 구릉의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길이 8.2m, 폭 3.6m, 높이 1.4m로 남-북 방향이다. 현재는 봉분위에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으며, 정상부에 지름 40cm의 둥근 구멍이 뚫려있다.

### 6) 대리 벼락바위고분(하의면 응곡리 벼락바위마을)

면소재지에서 벼락바위마을 쪽으로 1km정도 가면 길 우측에 김해김씨 선산이 있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이 선산에 길이 15m, 폭 10m 정도의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당시 고분은 봉토가 이미 깎여 나갔으나 그 윤곽이 뚜렷하여 장축방향이 남-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민묘 외에는 고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1985).

## 3. 활용방안

하의면에서 현재까지 발견되어 보고된 유적은 6개소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이중 1개소만이 유적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경작 등의 이유로 이동되어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호하다. 하의면 일원은 본래부터 선사문화자원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마을들이 위치한 입지에 상당수의 유적들이 중복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을 염두 해 볼 수 있다. 현재 하의면 일원에서는 유적의 발견예가 희소하지만 추후의 조사에서 유적들의 발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마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토지와 각종 사업, 형질변경과 같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인해 유적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유적조사와 신발견된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추후 하의면 내에서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적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조치가 요구된다. 보존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의 관리와 향토사에 대한 의미 있는 노력,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외에도 학술발굴 및 긴급조사발굴들을 통해 하의면의 선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이를 자원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의면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되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신안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면단위의 소규모 유적군들에 대한 개별적인 홍보와 관광자원의 개발보다는 해상루트를 통한 통합적인 연계관광이 요구된다. 신안군에 산재해 있는 청동기 시대 문화(지석묘)권 탐사나 초기철기시대(폐총)의 문화를 주제로 한 여행 등 각종 테마성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유적의 분포와 유적의 현 상태, 추후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실행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문화자원의 부재로 인해 자원화방안이 모색될 수 없다면 이를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선사해양문화체험이다. 하의면 일원의 곳곳에 발달한 저평한 구릉지대 또는 해변 등을 개발하여 선사시대체험장을 조성,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선사문화체험은 각종 선사시대 아이템(석기, 토기)을 개발하여 이를 체험화하게 되는데 하의면 일원의 전통적인 어로체험(갯벌체험)과 생태체험과 연관 지어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행정기관의 지원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협조, 선사체험을 이끌 수 있는 인력 등이 요구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선사체험 양성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마을주민들에게 전수하여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원용 · 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국립박물관, 1957, 『서해도서조사보고』, 을유문화사.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3, 『도서문화』 1.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5, 『도서문화』 3.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6, 『도서문화』 4.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7, 『도서문화』 5.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8, 『도서문화』 6.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8, 『제5회 도서문화 심포지움 : 서남해 도서지방의 문화적 성격』.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0, 『도서문화』 18.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1, 『도서문화』 19.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도서문화』 21.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4, 『도서문화』 24.
-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7, 『신안군의 문화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정영희 · 최미숙, 2002, 「고고유적조사보고」, 『신안군 신의면 하태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목포대학교 박물관.
- 이영문, 1982, 「신안 압해도의 선사문화」, 『향토문화』 7, 향토문화개발협의회.
- 이헌중, 2000, 「압해도 선사유적의 신발견」, 『도서문화』 1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최몽룡, 1980, 「임자도의 선사유적」,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성락, 1985, 「신안군 장산도(長山島) · 하의도(荷衣島) 조사보고 : 장산도 · 하의도의 유적, 유물」, 『도서문화』 3, 도서문화연구소.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Ⅲ 역사유적

최성환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및 목록 50
2. 역사문화자원 현황 51
3. 역사문화자원 활용 현황과 과제 67
4.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68



### Ⅲ 역사유적

#### 1. 조사개요 및 목록

하의면은 1969년 신안군이 무안군으로부터 분군(分郡) 되었을 때 하의면으로 독립하여 면단위 행정구역이 되었다. 당시 하의면은 하의본도와 상태, 하태 3도로 구성되었으며, 출장소가 개설되었던 상대도와 하태도가 1974년 신의면(新衣面)으로 독립하면서 현재는 하의본도와 주변 부속 섬으로 하의면이 이루어져 있다.

하의도는 하의3도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로서 성격이 매우 강하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어, 일부 관광객들과 추모객들이 생가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4월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이 개관 되었으며, 현재 하의도 일대에 고 김대중 전대통령을 추모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역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지표상에 남아 있는 유적들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 하였다. 하의3도 농민운동 관련 유적, 고 김대중 전대통령 관련유적, 하의도 재야학자 김연 관련유적, 옥도 일본해군기지 관련 유적 등이 하의면을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도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팔구포 해군기지 관련 유적과 송씨 고택 및 사당 등은

새롭게 재조명되는 유적들이다.

하의도에 현존하는 역사문화 분야의 유적 목록은 표1과 같다. 선사와 민가, 민속 등과 관련된 유적은 별도의 조사 분야로 분류하였다. 유적의 선정 대상은 역사성과 보존 및 활용성이 고려되었다. 문중 제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화자원 지표조사 시에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의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김해김씨 제각을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표조사에서 파악된 유적은 아니지만, 1928년 하의면 농민조합 발회식에서 사용된 선언강령규약과 당시 사용된 로고에 대한 소개를 첨부하였다.

표1. 하의면 역사유적 목록

번호	명 칭	위 치	연 대	비 고
1	덕봉강당(德鳳講堂)	대리	1953년	향토자료22호
2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비군(碑群)	대리	근대	
3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후광리	근대	향토자료23호
4	옥도 이호준 선정비	옥도리	1873년	농민운동관련
5	옥도 일본해군 팔구포방비대 터	옥도리	일제강점기	
6	옥도 근대기상관측 시발지(始發址)	옥도리	1904년	
7	옥도 일본해군 목욕탕 석조 및 우물	옥도리	1904년	
8	옥도 송씨종가 고택 및 사당	옥도리	일제강점기	
9	피리사지(皮里寺址)	어은리	조선시대	
10	김씨 제각 및 선산	대리	1936년	고 김대중 문중
11	김연 고택	대리	1932년	
12	하의면 농민조합창립 관련 문서 2건	일본	1928년	농민운동관련

## 2. 역사문화자원 현황



그림1. 초암 김연 영정

### 1) 덕봉강당(德鳳講堂)

**소재지** : 하의면 대리 145(동편마을)

**유적현황** : 하의도 대리마을은 한때 300~400 가구의 집들이 들어섰던 대규모 마을로 ‘덕봉산(87.1m)’ 남동쪽 산기슭과 평지에 자리하고 있다. 덕봉강당은 하의도의 큰스승인 김연(金鍊, 1883~1999)과 관련된 유적으로, 덕봉산의 동쪽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김연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이 시대의 마지막

유학자 중 한 분이다. 높은 학식과 절개, 효성을 겸비하여 하의도는 물론 인근 지역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평생을 유학에 심취하여 학행일치를 몸소 실천한 김연 선생은 1883년 5월 8일 하의면 대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현찬(顯贊), 혹은 공빈(公彬)이라 했고, 자(字)는 석연(錫鍊), 호는 초암(草菴)이라 했다. 김연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국치를 당하자, 우리나라 서남해의 가장 끝인 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산중으로 은거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힘을 쏟았다. 하의도보다 더 먼 바다에 위치한 절해고도로 은거해야 했던 그의 행동에서 지조를 중시하는 유학자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김연은 가거도의 '가무작지(可舞作地 혹은 歌舞作地, 회룡산 선녀봉)'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거도에 사는 고영빈·고병익 등과 교류하였다.

가거도로 은거한 지 8년이 지난 1912년에 이르러서야 김연은 하의도 향림(鄉林)들의 요청에 못 이겨 다시 고향인 하의도로 돌아왔다. 이후 선생은 봉람제(鳳覽齋)라는 서당에서 후학을 지도하는데 열중하였다. 선생의 훌륭한 학문과 인품이 널리 알려지자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청해왔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하의도에 지금의 초등학교인 하의공립보통학교가 생긴 것은 1934년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하의도 주민들은 대부분 이 봉람제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수학하며, 김연 선생에게 서당식 교육을 받았다.

후학을 지도하는데 열중하던 김연 선생의 유일한 취미는 경서와 전적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당시 학문을 익히는데 필요한 서적이라면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에까지 연결하여 수많은 고서(199종 1,176책)를 평생 동안 모았으며, 이를 모두 외우다 시피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김연 선생에게 배움을 청하기 위해 하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이에 감복한 제자와 인근 유림들은 1953년 선생의 집 후원(대리마을의 덕봉산 아래)에 덕봉강당을 세웠다. 현재도 이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김연 선생의 증손인 김도미 씨가 관리하고 있다. 일생을 학문과 후학양성에 노력하던 김연 선생은 1959년 77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선생의 저술은 문집 7권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아들인 고(故) 김춘배 옹이 필사하여 만든 것이며, 1989년에는 이를 한권으로 묶어서 『초암선생문집』이라는 영인본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김연의 문집 가운데 그의 창작물로 이루어진 1권부분이 신안문화원에서 국역되어 『초암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학술자료집이 2009년에 발간된 바 있다. 신안군에서는 2001년도에 고서적 등 초암선생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을 덕봉강당 바로 옆에 건립하였다. 한편 2009년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개관을 기념하여 생전의 마지막

막으로 고향 하의도를 방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덕봉강당에 들러 자신의 스승인 김연 선생의 영정 앞에서 참배한 바 있다.



사진 1. 김연의 덕봉강당 건물



사진 2. 김연 유물전시관 풍경

## 2)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비군(碑群)

**소재지** : 하의면 대리 농민기념관

**유적현황** : 하의도 대리에 건립된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은 거친 바다를 건너 척박한 토지를 일구어 만든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수 백년 동안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온 하의3도(하의도·상태도·하태도) 농민들의 투쟁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하의3도 농민운동의 역사는 멀리 정조 때의 세도가에 대한 항쟁에서부터 가깝게는 멀리 미군정에 대한 항거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섬이라는 특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불합리한 사회체제에 대해 저항의 함성을 높였던 신안 농민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기념관 옆 마당에는 하의도 역사와 관련된 5기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표2.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 내 기념비 현황

비 석 명	관련내용	년대	규모(cm)		
			높이	너비	두께
辯護事務員南主事萬雄永世不忘碑	변호사 사무원	1912년	143	45	17
辯護士木尾公虎之助永世不忘碑	일본인 변호사	1912년	160	56	20
行郡守金公東佑永世不忘碑	토지분쟁 당시 8대군수	1912년	126	47	16
通政大夫敦寧府都正權公在燦永世○○○	하의도 궁장으로 주민 궁휼	1903년	137	46	14
善大夫文公...	미상	1885년	112	45	15

이 중에서 하의도 농민운동의 역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총 3기이다. 토지탈환운동 발생 당시 섬주민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2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궁핍한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세워진 위치의 우측부터 그 건립내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 사무원 남만웅(南萬雄) 영세불망비**

- 건립시기 : 1912년 6월
- 건립사유 : 정명공주 8대손 홍우록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일본인 변호사의 사무원과 관련된 것이다. 하의3도 농지 소유권이 농민들에게 있음을 확인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농민들이 성금을 건립하였다.

**변호사 고노오 토라노스케(木尾虎之助) 영세불망비**

- 건립시기 : 1912년 6월
- 건립사유 : 정명공주 8대손 홍우록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일본인 변호사와 관련된 것이다. 하의3도 농지 소유권이 농민들에게 있음을 확인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농민들이 성금을 건립하였다.

**지도군수 김동우(金東佑) 영세불망비**

- 건립시기 : 1912년 6월
- 건립사유 : 김동우는 하의3도가 지도군에 속해 있던 시절, 홍우록이 하의3도 농지의 자기소유 토지대장 발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농민들의 입장을 지켜준 군수이다. 그 후유증으로 면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 농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하였다.

**권재찬(權在燦) 영세불망비**

- 건립시기 : 1903년 6월
- 건립사유 : 1900년대 초 하의도에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던 당시 하의도 지역 공장의 도장으로 파견되어 있던, 권재찬이 주민들의 참상을 보고 구휼에 힘쓴 공로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문응두(文應斗) 영세불망비**

- 건립시기 : 미상
- 건립사유 : 대리 마을에서 동네 제사지낼 때 황소 한 마리를 내놓아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건립하였다. 현재는 비문의 훼손이 심하여 정면부분의 글씨가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이 비들은 원래 대리에 있던 것들이 1997년 옹곡 선창장(1구 서쪽 284)에 옮겨졌다가, 기념관 건립에 따라 현재의 장소로 옮겨진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일본인을 기리는 내용의 비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한제국기에 하의3도의 땅은 홍씨가에서 내장원으로, 내장원에서 다시 홍씨 가로 넘어갔다. 이에 하의도민들은 대표를 뽑아 1909년 경성지방법



사진 3.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내 비군

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일본인 변호사 고노오토라 노스케(木尾虎之助)의 도움으로 3년 동안 재판을 벌인 끝에 승소하였다. 하의3도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그의 은덕을 기리고자 이 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였음에도 민간에서의 한일교류 상황과 우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내의 공덕비들은 농민운동의 역사와 관련하여 직접 남아 있는 유형적인 문화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하의3도 농민운동과 관련된 문화유적으로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하의3도 농민운동에 대한 개관

하의도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투쟁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하의3도 농민 항쟁의 씨앗은 1623년 선조의 딸 정명공주에게 하의도 토지의 일부(20결)를 절수해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명공주가 풍양 홍씨 집안에 시집가면서 하의3도 땅 20결은 홍씨의 4대손까지 세미를 받아먹게 되었다. 5대손 홍상한은 1729년 그 땅을 반환해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새로 개간한 논밭 140결에서까지 결세를 걷어갔다. 권리를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항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의도의 농토는 홍씨들의 손에서 조병택·백인기-정병조-우콘 곤자에문-가미나미 신조-도쿠다 야시치-신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졌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진정과 소송, 소작료 불납운동 등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광복이 된 후에도 토지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제헌국회에서 1950년 2월 13일 무상환원을 결의해 1956년 비로소 불하형식으로 농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94년 누락된 등기처리가 이루어져 하의3도 농민들의 기나긴 제 땅 찾기 투쟁은 333년 만에 일단락 지어졌다.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박찬승이 정리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의도의 농지탈환운동의 뿌리는 인조 초년 선조의 딸 정명공주에게 하의도의 땅 20결을 절수해준 데 있었다. 당시 하의도는 임진왜란 이후 토지가 개간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아직 양안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 토지 20결을 정명공주방이 절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도민들은 한말 이후에 이

땅은 무토사패지, 즉 민전의 결세 수조권만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유토, 무토로 구별하여 사패하기 시작한 것은 숙종21년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인조 초년 당시에는 아직 유토·무토 등의 구별이 없었다. 정명공주방은 20결을 절수받았고, 이는 소유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절수는 개간되지 않은 땅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농민이 개간한 땅을 절수받은 것이어서 다른 땅보다 적은 도조를 받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씨가는 18세기 초, 즉 경종대 즈음 하의3도의 땅이 더 개간되어 150여결에 이르지 이를 모두 자기들이 사패받은 땅이라고 우겨 민전에서도 도조를 받아가기 시작했다. 당시 민전에서는 이미 관에 전세와 대동미를 내고 있었는데, 흥씨가에서 도조를 다시 거두어가게 되자 도민들은 이를 일토양세(一土兩稅)라고 부르면서 한성부에 송사를 내었지만 패소하였다. 하의3도 토지문제는 영조대에 조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으나 흥씨의의 세도로 인해 시정되지 못하였다. 정조대에는 윤세민 등 2명의 대표가 한양에 올라가 신문고를 두들겨 국왕에게 직접 진정서를 올려 국왕으로부터 도조(賭租) 수취 금지에 대한 어제문(御製文)을 받기도 하였으나 다시 흥씨의의 무고로 인해 윤세민들이 귀양을 가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세기 들어 흥씨의의 세도가 약화된 틈을 타 1870년 도민들은 다시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하소연하여 24결 외 120결에 대해서는 절대 도조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24결에 대해서도 1결에 백미 20두씩만 거두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궁내부 내장원경 이용익이 전국의 국방전 관련 토지를 모두 색출하여 내장원 소속으로 만들 때 하의3도의 땅은 모두 내장원 소속으로 되어 버렸다. 여기에는 흥씨의의 24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용익이 실각하고 이완용이 득세한 1908년에 이르러 흥씨가 가운데 흥우록이란 자가 하의3도의 땅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을 갖고 이완용에게 접근하여 그로부터 하의3도의 땅이 모두 흥씨의의 소유라는 허급증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몰랐던 하의3도민들도 1908년 내장원에 속한 하의3도의 땅을 되돌려 달라고 임시재산청리국 등에 진정서를 내 요구하였다. 그런 가운데 흥우록이 보낸 차인들이 하의3도에 들이닥쳐 도조를 요구하고서야 하의3도 사람들은 흥우록이 허급증을 받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의3도민들은 도조 수납을 거부하였으나, 지도군수 경찰 등이 반 강제로 도조수납을 강요하여 결국 일단 군수를 통해 도조를 내고, 흥우록을 상대로 1909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도민들은 경성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경성공소원에서는 하의3도의 땅은 하의3도민의 것임을 확인하고 흥우록은 도민들에게 이미 거두어간 도조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흥우록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땅을 조병택과 백인기에 팔아넘겼고, 이들은 다시 정병조에게 팔았으며, 정병조는 다시 일본인 우콘 곤자에몬(右近權左衛門)에게 팔아 넘겼다.

우콘(右近)은 하의3도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자신의 토지매입이 헛일이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나섰다. 그는 재판에서 하의3도민 대표로 나섰던 이들, 특히 박공진을 매수하였다. 박공진은 도민들에게 이번 재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지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이 아니라고 도민들에게 말하고, 다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도민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상대도의 박씨 일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이에 서명하여 목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결국 우콘(右近)의 각본대로 재판부를 비롯하여 경찰 등 관헌의 강제화해 요구로 이어졌다. 화해란 우콘(右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콘(右近)이 도민들에게 영소작권을 부여한다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도민들, 특히 부녀자들은 박공진 등의 배신행위를 알고 분노하여 우콘(右近)에 협조한 이들의 집에 몰려가 이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목포경찰서에서는 수백명에 달하는 경찰병력을 하의도에 파견하여 주민 백여 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후에도 도민들에게 화해를 강요하였고, 도민들은 목포경찰서와 재판소에 몰려가 항의를 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 결국 도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에 굴복하여 화해조서에 서명함으로써 우콘(右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콘(右近)은 화해시 하의3도에 저수지와 도로를 만들고, 학교와 병원 등을 세우는 등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땅을 다른 일본인에게 넘겨 결국 오사카의 도쿠다야시치(徳田彌七)의 손에 들어갔다. 도쿠다(徳田)는 농장을 인수한 뒤 전 육군중위와 헌병보조원등을 사무원으로 고용하여 도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소작료를 강요하였다. 또 그는 우콘(右近)이 지주일 때에 체납된 소작료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소작료를 체납하는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가차압을 서슴지 않았다. 도쿠다(徳田)농장측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하자 도쿠다(徳田)는 친일 테러단체인 상애회를 동원하여 도민들을 굴복시키려 하였다. 1924년 8월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은 상태도에 들어와 도민들을 모아 놓고 폭행 등 갖은 행패를 다하면서 강제로 소작계약서에 날인을 받아갔다.

이즈음 하의3도민들은 더 이상의 소송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되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예 도쿠다(徳田)로부터 땅을 되사버리자는 쪽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23년경부터 김응재가 중심이 된 이 운동은 매입자금 문제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도쿠다(徳田)농장측은 소작인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용 소작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소작회 간부들의 자금 유용 등으로 소작회는 얼마 가지 않아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과 토지매려(土地買戻)에 실패한 하의3도민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도쿠다(徳田)측에 저항하였다. 1928년 결성된 하의농민조합이 그것이었다. 하의농민조합은 당시 오사카에서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던 최용도·고장명 등이 일본인 사회운동가로서 일본농민조합 특별위원인 아사이 겐즈이(朝日見瑞) 등과 함께 하의도에 돌아와 아사이(朝日)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토지소유권의 회수보다 일단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권익 옹호에 더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투쟁방향을 선택하였다. 한편 도쿠다(徳田)측은 하의농민조합을 분쇄하기 위해 상애회의 박춘금을 다시 하의도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하의도민은 예전과는 달랐다. 농민조합측은 박춘금에게 하의도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도민들은 박춘금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박춘금은 무사히 풀려나기는 하였으나 약간의 구타를 당하였고, 그는 목포로 도망해와 경찰에 하의도민들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경찰은 하의도에 들어가 농민조합 간부들을 체포하였고, 결국 이 사건으로 10명이 옥고를 치렀다. 당시 하의농민조합은 일본농민조합에 격문 등을 보내 지원을 기대하였고, 일본 노농운동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한 응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하의도민들의 조직적인 투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출처 - 박찬승,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 자료집, 신안군, 1999)

### 3) 고 김대중 전대통령 생가

**소재지** : 하의면 후광리 100·121(원후광마을)

**유적현황** : 하의도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후광(後廣) 김대중(金大中)이라는 거목을 낳은 고장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25년 하의면 후광리 원후광에서 아버지 김운식(金雲植)과 어머니 장수금(張守錦)사이에서 3남 2녀의 장남

으로 태어났다. 그의 호인 후광은 태어난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어릴 적 김연(金鍊)선생에게 한학을 배웠으며, 하의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12세에 목포로 이주하게 된다.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서 다섯 번에 걸친 죽을 고비와 6년간의 감옥살이, 55차례의 연금, 10년의 망명생활 등 고통의 세월을 겪어냈다.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그의 민주화운동과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과 삶이 인정되어 2000년 12월 10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생가는 목조초가 2동으로 1999년 종친들이 복원하여 신안군에 기증하였다. 복원된 생가는 6칸으로 안채와 창고 1동, 화장실 1동 등의 부속채와 헛간 등이다. 생가의 목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살던 어은리 마을 주민의 집을 다시 사들여 해체한 다음 기둥 등 주요 목재를 이용하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 최근에는 추모관이 추가로 조성되어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추모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생가의 앞쪽으로 천일염 전시관과 하의도 전통소금 생산 방식인 화렵식 염전이 복원되어 있어 탐방로와 함께 도서지역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4. 고 김대중 전대통령 생가 본채 풍경



사진 5. 고 김대중 전대통령 추모관 내부

#### 4) 옥도 이호준 선정비

**소재지** : 하의면 옥도리 장치마을 초입

**유적현황** : 하의면 옥도리 선착장에서 장치리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는 조선후기 전라관찰사를 지낸 이호준(李鎬俊)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觀察使李公鎬俊令德善政碑'라 새겨져있고, 비의 뒷면에 공의 행적에

대해 4언 절구로 기록되어 있다. 비의 뒷면에 ‘崇禎紀元後伍癸酉夏伍月日’ 이라 새겨진 것으로 보아 1873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규모는 높이 119cm, 너비 44cm, 두께 18cm이다.

옥도는 하의도와 인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후기 당시 하의도의 농민들은 호조에 납부하는 전세와 대동미 외에도 홍씨 일가에도 납부하는 일토양세(一土兩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농민들은 당시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이중결세의 부당성을 탄원했다. 이에 대해 이호준은 홍씨 일가에 부당한 세미 징수를 금지시키고, 일부 결세액은 인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호준의 선정비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선정비는 암태면(1873년), 안좌면 자라리(1872년), 신의면 상태서리(년대미상 유사 시기 추정)에서도 확인된다. 특정인물의 선정비가 4곳 데나 세워져 있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이다. 당시 신안군 여러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토지수탈과 이중과세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섬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한편 구전에는 이호준은 매국노 이완용의 양부인데, 이완용이 득세하자 그에게 아부하려는 친일관료들에 의해서 이 비들이 건립되었다는 설도 전해오고 있다.



사진 6. 옥도 관찰사 이호준 영덕선정비

## 5) 일본해군 옥도 팔구포방비대 터

**소재지** : 하의면 옥도리 장치마을 일대

**유적현황** : 현 하의면에 속한 옥도는 팔구포(八口浦) 해역의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섬이다. 옥도(玉島)라는 지명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섬의 모양이 ‘옥(玉)’자처럼 생겨서 ‘옥도(玉島)’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는 ‘구슬도(球瑟島)’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옥도는 조선시대부터 목포진(木浦鎭)의 8군데 요망대(要望臺) 중의 하나였다. 그만큼 옥도가 서남해안의 바닷길에서 차지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구한말에 일본은 옥도의 주변 해역을 팔구포라 부르며, 일본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

용하였다. 목포가 개항된 1897년 이전(1894년 청일전쟁시기)부터 일본 해군의 근거지로 이용하였고, 특히 러일전쟁시기에는 일본해군전함의 급수지이자 집결지로서 옥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옥도에 설치된 일본해군기지를 ‘팔구포방비대(八口浦防備隊)’라 불렀다. 그 근거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기록한 『목포지(木浦誌)』 『목포부사(木浦府史)』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군사적인 내용은 일본정무국 주관 기밀문서철인 “일러전역시(日露戰役時) 한국(韓國)에서 제국(帝國)의 군사경영(軍事經營) 일건(一件)”에 실려 있다. 이 문서철에는 1904년 1월부터 1906년 8월까지 러일전쟁기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경영에 대한 기밀 내용이 묶여져 있다. 총 195건의 문서가 연도별로 편철되어 있는데, 1910년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도서지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침탈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중 1904년 2월 옥도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1906년 1월 사이에 33건의 문서가 팔구포 일본해군기지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해군이 이곳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지리적인 특성상 지역의 해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팔구포’라는 지명이 유래되게 된 데서 옥도가 지니는 해상 지리적 장점을 알 수 있게 한다. 팔구포는 옥도를 기점으로 주변에 8군데 물길이 열려있어 외양 및 시아 바다로 통하게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덟 개의 물길(水道)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방 도초도와 수치도 사이의 수도, ②수치도와 사치도 사이의 수도, ③사치도와 기좌도 사이의 수도, ④동방 반월도와 옥도 사이의 수도, ⑤남방 옥도와 장병도간의 수도, ⑥하의도와 능산도 사이의 수도, ⑦능산도와 대야도 사이의 수도, ⑧서방 대야도와 도초도 사이의 수도”

(출처: 농상공부수산국, 《한국수산지》3권, 318쪽)



사진 7. 일본해군 팔구포 방비대 터 모습



사진 8. 러일전쟁 당시 사용된 일본해군 우물



사진 9. 소멸되기 전 팔구포해군정 우물 모습(1936년 조성)



사진 10. 팔구포 옥도 일본해군기지 경계표석 (해군기지터 마을길 옆에 방치됨)

옥도에 팔구포방비대가 설치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나 주요 기능은 물과 관련된 것이다. 옥도의 식수사정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러일전쟁 때 일본함대가 팔구포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급수지로 선정되어 당시 9개의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전한다. 일본함대는 이곳에서 항해와 전투를 위한 물을 공급받았다.

현재 옥도에는 이곳이 일본해군기지였음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남아 있다. 선착장에서 약 400~5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치마을에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했다는 큰 우물이 남아 있다. 또 그 주변에 1936년에 조성하여 “八口浦海軍井”이라고 표기해 놓은 우물이 최근까지 현존하고 있었다. 최근 “八口浦海軍井”은 마을에서 냉동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노출된 우물 콘크리트 부분이 헐리게 되었다. 우물의 지하부분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어 복원은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이 일대가 일본해군기지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인 일본해군기지 경계표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사각형 돌기둥(세로 122cm, 폭 32cm) 모양에 “大日本帝國海軍用地”라고 표면에 새겨져 있다. 일본해군 경계표석은 현재 마을길 모퉁이 바닥에 눕혀진 채로 남아 있다. 그 형태는 현재 자은면 은암대교 주변에 세워져 있는 일본해군 경계석과 흡사하다. 일본 해군은 옥도와 유사한 시기에 자은 용소 지역을 급수지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두와 거리가 멀어서 활용성이 떨어졌다. 그 대신 바다와 인접하고 수질이 좋은 옥도 장치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옥도는 러일전쟁시기 일본 해군의 중요 거점으로 사용된 사적지로서의 의미가 크다. 일본이 옥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했고, 러일전쟁시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만으로 100여 년 전부터 이 일대 섬이 지닌 활용가치가 높았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옥도 일

본 해군기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논문 '최성환,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옥도 팔구포방비대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3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1'을 참조하기 바람)

## 6) 옥도 근대 기상관측 시발지(始發址)

**소재지** : 하의면 옥도리 고래등 일대

**유적현황** :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군사 행동에 있어서 전략적 필요에 따라 만주와 우리나라의 요지에 임시 기상관측소를 설치했다. 목포, 부산, 인천, 용암포, 원산, 성진의 6개소에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었고, 당시 작전상의 중요지점인 목포의 서남방 해상에 자리한 옥도에는 제2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었다. 1904년 3월 22일부터 근대적인 방식의 기상관측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의 시초가 된다. 러일전쟁이 끝나자 1906년 4월 말 옥도 기상관측소는 목포로 이전하여 지금의 목포기상대로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사진 11. 옥도 최초 근대기상관측소 터

옥도가 최초의 기상 관측지였음은 현재 목포기상대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관측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측야첩(觀測野帖)』을 비롯하여 목포기상대에는 1904년 옥도 임시 관측소 시절의 원본 기록들이 지금까지 보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옥도가 국내 최초의 근대기상 관측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주민들이 '고래등'이라고 부르는 언덕 부분이 옛 기상대 관측지이다. 현재는 빈터만 남아 있다.

비록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였지만, 근대 기상관측의 최초 시발지가 된 땅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기상청에서는 근대 기상관측 100년을 기념하여, 옥도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옥도가 너무 외진 곳이라는 접근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고 말았고, 대신 기념석은 목포 기상대가 있었던 유달산 노적봉 인근에 세워졌다. 역사를 기념하는 일에서도 낙도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 12. 옥도 일본인 목욕탕 석조



사진 13. 일본 목욕탕 석조 옆 우물

## 7) 옥도 일본해군 목욕탕 석조 및 우물

**소재지** : 하의면 옥도리(기상대로 가는 길 중간부분)

**유적현황** : 팔구포의 중심인 옥도에는 일본인 목욕탕이라는 불리는 석조 유적이 현존하고 있다. 가로 9m, 폭 240cm의 크기이고 석조 안에는 지금도 물이 담겨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일본인 목욕탕으로 활용된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옥도에는 러일전쟁기 전략적 활용을 위해 '팔구포 방비대'라 불리는 일본해군기지가 설치되었었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이곳에 있던 기상관측소 등은 목포로 옮겨졌지만, 일본해군관련 시설들은 이후 시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이 일본인 목욕탕 석조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성된 생활유물로 일본 해군들이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의 우측에는 산기슭으로부터 흘러서 형성된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다. 밭 주변을 둘러싼 축대 아래 옹기로 덮여진 채 보존되고 있는데, 지금도 물이 마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양이 많고 수질도 좋다고 한다. 옥도에 존재했던 일본해군인 팔구포 방비대와 관련된 이색적인 유적이자, 일제강점기 생활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높다.

## 8) 옥도 송씨종가 고택 및 사당

**소재지** : 하의면 옥도리 옥도길 85(옥도 마을회관 옆)

**유적현황** : 하의면 옥도는 현재 여산(礪山) 송씨(宋氏)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송씨들이 옥도에 들어온 것은 1680년 무렵 해남 우수영으로부터 송시극(宋時極)이라는 인물



사진 14. 옥도 송씨 종가 고택 풍경



사진 15. 옥도 송씨 고택 사당 건물

이 입도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옥도 마을 회관 옆에는 주민들이 송씨 종가라 부르는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 본 고택은 1870년에 건립된 것으로 지붕 등 일부 시설들이 개량되어 있지만, 작은 섬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한옥 건물로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송씨 종가 고택에는 뒤편에 사당이 별채로 조성되어 있다. 이는 유교식 제례 문화가 전통가옥 구조에 반영된 사례로 섬마을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례이다. 종가집으로서의 위상과 섬주민들 역시 유교적 제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9) 피리사지(皮里寺址)

**소재지** : 하의면 어은리 피리마을

**유적현황** : 피리마을에서 남쪽으로 450m 정도 떨어진 '절바우'라 불리는 야산(66.9m)



사진 16. 건물지 주변에 잔존 석축 흔적



사진 17. 건물지 주변에서 발견된 자기편



사진 18. 하의도 김해김씨 문중 제각



사진 19. 하의도 김해김씨 선산

정상부에 암자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남아 있다. 건물지는 정상부에 위치한 바위를 천정부로 사용하고 그 안쪽에는 상·하면이 편평한 할석을 바닥전면에 깐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또한 건물지 앞으로는 석축이 쌓여져 있다. 석축은 상·하면이 편평한 할석을 사용하여 쌓고 빈틈은 소형할석을 끼워 넣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6m, 높이 1.5m 정도이다. 유물은 건물지 주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절터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기록이나 구전자료가 불분명하여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유적이다.(출처: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문화유적분포지도, 2006).

## 10) 김해 김씨 제각 및 선산

**소재지** : 하의면 대리

**유적현황** : 하의도 대리의 대표적인 성씨이자, 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관련된 김해 김씨 문중제각과 선산이다. 웅곡에서 후광으로 가는 도로변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현 제각은 1936년에 건립된 것이며, 정면 3칸 규모에 좌우에 마루 공간이 확장되어 있고 맞배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공간이 있으며, 하의도 문중 제각 중 대표적인 장소이다. 제각의 바로 위편으로 하의도 김해 김씨 선조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묘비에서 오랜 역사의 흔적을 살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석상들이 묘역에 조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김광성(金光聲)의 묘비 하단부에는 이 묘역의 배열도가 '圓空皆殤'이라는 글씨와 함께 새겨져 있다. 특정 문중의 제각과 선산이지만, 하의도가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며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다.

## 11) 김연 고택

**소재지** : 하의면 대리 145(동편마을)

**유적현황** : 하의도의 유학자이자, 큰 스승이었던 초암 김연의 고택으로 대리마을 덕봉강당 아래에 현존하고 있다. 근대 개량형 한옥으로 정면 8칸의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건물의 중앙에 제사와 광 기능을 하는 공간이 별도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 상량문에 의하면 건립은 1932년이고, 1952년에 중수된 것으로 보인다. 김연 고택은 건물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좋아 덕봉강당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현재는 김연의 손자인 김도미씨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사진 20. 초암 김연의 고택 풍경



사진 21. 가옥 중앙부 내부 제사공간

## 12) 하의면 농민조합 창립관련 문서 및 문양

**소재처** : 일본 오사카 호세이(法政)대학 오히라사회문제연구소

**관련내용** : 일본 호세이(法政) 대학 오히라사회문제연구소(大原社會問題研究所)에는 오사카 노동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보존되어 있다. 그중 1920~30년대 조선노동자 조직 관련 자료 중에 하의면 농민조합과 관련된 2편의 문서가 남아 있다.

하나는 “하의면 농민조합발회식 선언강령규약”이라는 명칭의 문서이다. 이 문서는 하의면 농민조합 창립대회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927년 12월 30일 창립”이라고 적혀있으나, 문서 내부 선언문에는 “1928년 1월 2일 하의농민조합창립대회”라 되어 있

다. 내지에 선언문, 강령, 규약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표어로 “우리 하의삼도소작인이여 단결하자”, “우리 소작인은 무기(武器)농민조합을 지키자” 등이 사용되었다. 이 문서표지에는 농민조합의 상징으로 사용된 문양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농사에 사용되는 쟁기와 벼 이삭을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2. 하의면 농민조합 창립시 사용된 로고(1928년 1월)

다른 하나는 “조선하의도 토지소유권 회수 동맹창립대회”라는 명칭의 문서이다. 관련연대

는 1928년 5월 10일이다. 하의삼도 토지탈환운동의 전개과정 중에 1928년 토지소유권을 회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운동이 진행될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내지에는 선언, 강령, 규약, 결의안, 주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편의 관련 문서는 하의3도 농민운동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1999년 발간한 『하의 삼도 토지탈환운동 자료집(신안군, 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이다. 목포MBC에서 2010년 11월 29일 방영한 <HD특별기획-하의도 토지항쟁 35년사 ‘땅은 목숨이다’>의 제작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어 필자에게 제보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1920년대 후반 하의면농민조합의 활동사항과 일본 노동단체들과의 연대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 하의3도 농민들은 “합리적인 소작쟁취, 농민들의 문화적 생활 쟁취” 등을 위해 소작인들의 단결을 고취하면서 농민조합을 통한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3. 역사문화자원 활용 현황과 과제

#### 1) 역사문화자원 활용현황

하의도는 하의3도 농민들의 300여 년에 걸친 토지탈환 역사와 관련된 사적지로서 성격이 매우 강하고, 한국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어, 일부 관광객들과 추모객들이 생가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2009년 4월 하의3도 농민운동기

념관이 개관하였으나, 하의도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성 부족과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노벨평화공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어, 하의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세부적인 활용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하의도 역사문화유적 활용을 위한 과제 및 잠재력

-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고향마을로서 역사적 전통과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 높음.
- 하의도의 역사적 전통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이미지와 부합됨.
- 하의도를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상징화하고, 유적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리마을과 후광마을의 경관과 유적 활용. 마을을 연결하는 길(ROAD)과 문화접목 필요.
- 김대중 대통령 관련 유적지의 정비. 친숙하고, 체험형 공간으로 발전.
- 농민운동기념관의 활성화. 전문 인력의 배치와 체험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

## 3)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

- 대리 마을의 경관 보호 및 옛 민가 복원, 대리 마을길 안내도 설치 등.
- 농민운동기념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편의시설.
- 대리마을 골목길, 당마당 정비, 대리당 정비 및 진입로 개설, 안내문 설치.
- 팔구포 일본해군기지 관련 유적 정비 및 안내문 설치.
- 옥도 근대기상관측의 시발지 기념비 건립(기상청에 권장).
- 옥도 역사의 길 조성, 옥도를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

# 4.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 1) 하의도 평화학교 건립 및 운영

### (1) 개요

- 위치 : 하의면 일대
- 목적 :
  -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평화학교를 건립 운영함.
- 기본계획 :
  - 김대중의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평화학교를 건립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 하의도 방문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킴.
  - 하의도의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발전시킴.

### (2) 필요조건

구 분	주요내용
평화학교 교실	평화학교를 운영할 교실 건물 확보(신축 혹은 리모델링).
운영 매뉴얼 제작	평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외부 체험객을 대상으로 운영. 김대중의 삶, 하의도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 탐방, 염전체험 등
인력양성	하의도 평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외부 전문가 및 현지주민 활용).

### (3) 추진방향

- 하의도에 지속적인 외부 방문객 유치 및 김대중 평화정신의 선양을 위해 평화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함.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부 체험객을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 김대중의 평화정신과 관련된 교양강좌를 비롯하여 하의도의 문화를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 (4)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체험형 관광객 증대.
- 김대중 평화공원 활성화에 이바지.
- 지역주민들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기회 증대.

## 2) 하의도 평화 미술관

### (1) 사업개요

• 위치 : 하의면 일대

(농민운동기념관 부지, 혹은 노벨평화공원 부지, 신의면 등 고려하여 적지선정)

• 목적 :

- 세계적인 민중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의도 출신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평화미술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홍성담(1955년생)은 하의3도가 배출한 한국을 대표하는 민중미술가이다.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하의도 농민운동의 역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적 이미지에 매우 잘 부합되는 예술세계를 지니고 있음. 평화와 인권이라는 하의도의 지적 전통이 그를 통해 예술세계로 꽃피었다고 볼 수 있음.

- “예술가는 10살 이전의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내 예술의 모든 근원은 내 고향 하의도이다.”(홍성담 작가와 면담 중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을 지니고 있는지, 본인의 예술세계와 하의도의 역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본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기본계획 :

- 한국민중미술의 대표 작가인 홍성담의 작품세계를 모티브로 하여 평화미술관을 건립하여, 하의도농민운동의 역사, 김대중 노벨평화상의 이미지와 연계시킴.

### (2) 작가소개

1955년에 하의도(현 신의면 상태)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1979년 ‘광주 자유 미술인회’ 조직에 참여했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선전요원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 첫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1983년에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여 미술대중화운동에 힘써왔다. 1988년에 독일 행체 화랑 초대전을 출발로 수차례의 해외전을 가졌으며, 1989년 평양축전에 ‘민족민중 미술인 전국연합’이 공동 제작한 「민중해방운동사」 사진을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구속이후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판화전이 있었으며, 1990년 국제 엠네스티본부에서는 예술가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 그의 젊은 의식전, 삶의 미술전, 우리시대 30대의 기수전, 오

월미술전, 민중미술 15년 전, 동학 100주년 기념전 등 각종 단체전과 선전전에 수 십여 차례 참가하였다. (소개문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art500.arko.or.kr/hongsungdam>)

### (3) 필요조건

도입시설	주요내용
미술관	홍성담 작품전시실 및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관
체험관	판화 작품 체험 및 미술체험 공간

### (4) 추진방향

- 하의도의 평화적인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민중미술가 홍성담 평화미술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농민운동기념관 부지와 연계하여 미술관을 건립, 농민운동기념관 방문객 유치와 함께 체험공간으로 활용.
- 하의도의 문화를 예술정신으로 승화시킨 사례로서 홍성담 미술관을 독특한 문화관광 코스로 자리매김.

### (5) 기대효과

- 하의도의 전통문화와 평화적 이미지에 걸 맞는 문화기반시설로서 명소화.
-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 제공.
- 하의, 신의를 연결하는 예술센터로서 역할 수행.

## 3) 하의도 역사(평화)의 길 - “대리에서 후광까지”

### (1) 개요

- 위치 : 하의면 일대(대리~후광)
- 목적 :
  - 하의도의 역사적 전통과 역사인물, 문화유산 등을 연계하고, ‘평화’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역사의 길 탐방코스로 활용함.
- 기본계획 :

- ‘역사의 길’로 연결되는 탐방로 설정.
- ‘역사의 길’을 탐방하면서, 하의도의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을 다양하게 체험.
- 이야기가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

## (2) 필요조건

구 분	주요내용
탐방로 개설	로드 개념의 탐방코스 설정하고, 방문자가 동선을 따라 탐방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물(SIGN) 설치
탐방안내 관광지도	역사의 길 코스와 평화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메뉴얼을 작성하여 외부 체험객을 대상으로 운영. 김대중의 삶, 하의도의 역사와 문화, 문화유적 탐방, 염전체험 등
대리마을 골목길 정비	하의도의 상징인 대리마을 골목길 탐방로 정비 및 동선 설정
체험 포인트 설정	이동 동선에 따른 체험 포인트 설정 하의도 농민운동관련 사적지 설정

## (3) 추진방향

- 하의도 대리에서 후광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역사의 길 개설.
- “웅곡 선착장(하의도 농민운동 사적지)-대리 농민운동기념관-대리마을-대리마을 골목길-대리당샘-대리당-봉림제터-덕봉강당-김연유물전시관-대리에서후광마을길-후광염전-소금전시관-김대중 생가 및 기념관”을 연결하는 탐방코스.
- ‘평화의 길’, ‘농민운동의 길’과 같이 주제별 탐방로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
- 대리 마을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 (4) 기대효과

- 하의도를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로 명소화.
- 체험여행객의 증대 및 하의도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
-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특산품 판매 등.

## 4) 덕봉강당 서당스태이

### (1) 개요

- 위치 : 하의면 대리 덕봉강당
- 목적 :
  - 일제강점기 마지막 선비인 김연 선생의 유물전시관인 덕봉강당을 활용하여, 전통 서당체험 프로그램(홈스테이) 운영.
- 기본계획 :
  - 하의도의 재야학자 김연 선생의 유물전시관인 덕봉강당을 활용하여, 전통 서당체험 프로그램(홈스테이)를 운영.
  - 김연가옥, 덕봉강당, 유물전시관을 이용하면서, 주변의 대리마을과 농민운동기념관 등과 연계.
  - 덕봉강당 아래 김연 가옥 보존과 전승. 김연 가옥은 섬마을에 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근대 한옥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 (2) 필요조건

구 분	주요내용
김연 생가 보수(숙박시설)	김연 생가를 보수하여 서당체험객들의 기숙사 등으로 활용. 김연 가옥은 근대 개량형 한옥의 독특한 형태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훈장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서당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문 훈장 육성.
덕봉강당 홍보	하의도 지적전통의 상징인 김연 선생이 지닌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스승으로서 이미지 강조.

## (3) 추진방향

- 김연의 덕봉강당과 유물전시관을 활용하여 섬마을 서당체험 프로그램 개발.
- 근대한옥 건물인 김연 생가를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민박) 등으로 활용.
- 덕봉강당 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마을 체험, 하의도 전통문화체험 연계.
- 평화학교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체험객 확보.

## (4) 기대효과

- 역사유적을 활용한 하의도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의 확보.
- 섬마을 서당체험이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홍보 효과.
- 청소년 예절교실, 한문교실 등을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

## 5) 옥도 탐방길 개설 및 팔구포 투어(옥도 역사의 길 조성)

### (1) 개요

- 위치 : 하의면 옥도리 일대
- 목적 :
  - 하의면 옥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도시와 연결되는 해상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옥도 자체의 역사유적지와 마을길을 연결하는 모실길 개념의 탐방길 개설.
- 기본계획 :
  - 하의면 옥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8개의 물길이 열려 있다고 하여 이 일대를 팔구포로 불렀다. 그중 옥도는 주변 다이아몬드 섬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살려 일본 해군기지를 설치 운영하였다. 옥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팔구포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개발함.

### (2) 필요조건

구 분	주요내용
옥도 유적지 탐방로 개설	옥도 선착장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하고, 일본해군기지 · 해군우물 · 일본 인목욕탕 · 기상관측소터 · 망마산 · 갯벌탐방로 등을 연결하는 포인트 설정.
망마산 전망대 개설	옥도는 조선시대 목포진에 속한 요망대 중의 하나였고, 망마산에 전망대가 있다는 구전이 전해오고 있음. 망마산에 주변 도시를 살펴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개설함.
기념비 건립	일본해군기지터 및 근대기상관측소터에 기념비와 안내문을 건립함.
해상 유람 시설	옥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해상 유람시설을 설치하여, 해상투어 프로그램 운영.

### (3) 추진방향

- 일본 해군기지가 있었던 옥도의 역사유적과 마을길을 연결하는 탐방로 개설.
- “장치마을(일본 해군기지)→망마산 전망대→송씨 종가 고택→옥도 갯벌 체험장→일본인 목욕탕→기상관측소 터”을 하나의 탐방코스화.
- 옥도의 역사성과 지리적 장점을 살려, 옥도 선착장을 관광선부두로 개발.
- 옥도에서 시작해서 주변의 팔구포 해역과 도시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선 운영.

- 옥도를 휴양지로 개발하여, 팔구포 해역 관광거점으로 활용.

#### (4) 기대효과

- 역사유적을 활용한 작은 섬 개발 사례로 활용.
- 팔구포 해역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관광과급효과.
- 하의면 옥도의 이미지 상승으로 통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 6) 기타 활용방안

#### (1) 농민운동기념관 활성화(체험공간으로 전환)

- 하의도 농민운동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추가조성.
- 전문기관 위탁 혹은 학예사 배치 등 활성화 방법 필요.
- 현 기념관의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하의도의 생활문화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 하의도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
- 하의도 농민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활용. 1928년 하의도농민조합 창립 당시 사용했던 로고를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 관광기념품 등으로 개발.

#### (2) 고 김대중 전대통령 생가 및 추모관 활성화(체험기능 강화)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새롭게 조성된 추모관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장례식장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 추모관의 성격을 방문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체험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기능의 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처럼 마을 전체가 추모와 탐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함. 현재는 후광마을에서 생가만 방문 대상이 되고 있음.
- 기념품 판매장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들이 소비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3) 하의도 평화마을 조성(대리마을 활용)

- 대리마을은 하의도의 상징으로 마을 경관의 상징성이 매우 높음. 하의도의 대표적인 중심마을로서 경관과 골목길 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함.
- 대리마을의 경관, 복잡한 마을도로, 덕봉강당, 대리당 등을 연결하여, 대리 마을 전체

를 섬마을을 체험하는 테마공원으로 발전.

- 옛 전통민가를 몇 채 복원에서 전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대리마을의 원 서당터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한학을 배웠던 서당이 있는 장소인 봉림재 터에 대한 안내문 설치.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IV 민속사회

박종오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78
2. 공동체신앙과 가택신앙 80
3. 전통소금[火鹽] 생산방식과 의례 88
4. 세시풍속 92
5. 일생의례 100
6. 민속자원의 활용방안 113

# IV 민속사회

저자 <sup>1)</sup>

## 1. 조사 개요

민속(民俗)이란 한 민족이 삶을 영위해온 신앙, 풍속, 전설, 전승 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민속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연결고리임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행위나 믿음 따위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자연적 환경, 역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민속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 함께 투영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 민속은 일제 강점기에 미신이라는 명목으로 그 모습이 변질되거나 사라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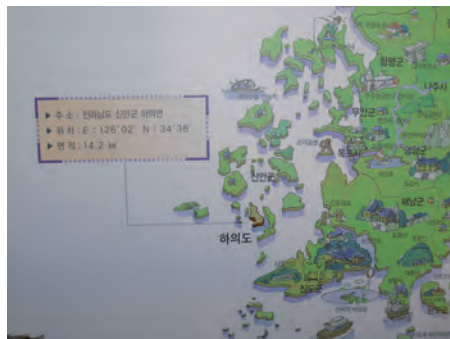


그림 1. 해의면의 위치

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현존하는 모습이 아닌 기억 속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나마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던 것들도 산업화와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더 이상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의도는 신라말기 풍수지리설에 능통한 도사가 전국의 지형을 답사하던 중 이 섬에 들렀는데, 지형을 보니 형태가 연화만개 형태이므로 연꽃과 뜻이 같은 연꽃 “하”를 머리에 쓰고, 음양설에 의거 음산(낮고 평탄함)하다 하여 옷 “의”를 써서 ‘하의’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1380년 나주 나씨가 처음 입도하여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하의도는 목포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7.6km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 동남쪽에 상태도와 하태도, 서쪽에 능산도와 신도, 북쪽에 저도 등의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이 글은 하의면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의면에서 이루어졌던 민속의례를 공동체신앙과 가택신앙, 전통소금생산방식과 의례, 세시풍속, 일생의례의 순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하의도의 현지조사 일정 및 제보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조사내용	비 고
1	2008.06.23~26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오류리, 어은리 일원	박종오 조화영	김해자(여, 1930년생) 이윤임(여, 1928년생) 홍영복(남, 1929년생)	공동체신앙 가택신앙 일생의례 세시풍속	도서문화연구원 공동학술조사
2	2009.04.19~20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웅곡리 일원	박종오	장영채(남, 1931년생) 우군기(남, 1929년생) 조궁기(남, 1926년생)	공동체신앙 전통소금 상장례풍습	개별현지조사 제1차
3	2011.01.04~05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능산리, 대림리, 오은리, 웅곡리 일원	박종오	김숙자(여, 1928년생) 김원인(남, 1937년생) 김이춘(여, 1940년생) 변순단(여, 1922년생) 우군기(남, 1929년생) 우덕후(남, 1952년생) 우예순(여, 1930년생) 이판구(남, 1935년생) 조궁기(남, 1926년생)	공동체신앙 일생의례 세시풍속 가택신앙	개별현지조사 제2차

## 2. 공동체신앙과 가택신앙

### 1) 공동체 신앙<sup>1)</sup>

#### (1) 응곡리 북포마을 당제

응곡리는 마을의 생김새가 곰의 모양과 흡사하다하여 “곰자리마을” 혹은 “곰실마을”로 불리다가 현재는 응곡리라고 부르고 있다. 본래는 지도군 하의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전광리, 북포리를 병합하여 응곡리라고 해서 무안군 하의면에 편입되었다가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북포마을은 마을 뒤쪽에 포구가 형성되어 있어 일명 “뒷개”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이 마을의 제당은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음력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지냈는데, 1950년경에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제당의 돌담 등이 거의 유실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다.

〈표 1〉 사회민속 - 공동체 신앙 목록

번호	명 칭	내 용	비 고
1	응곡리 북포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 흔적만 남아 있음.	1950년대 당제 중단
2	어은리 언동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이었던 원형 돌담이 남아 있음.	1980년대 당제 중단
3	어은리 세꾸미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 흔적이 남아 있음.	1980년대 당제 중단
4	어은리 피리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하루에 지냈으며, 돌담의 원형이 남아 있음.	1980년대 당제 중단
5	오림리 유호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은 흔적만 남아 있음.	1950년대 당제 중단
6	오림리 봉도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은 흔적만 남아 있음.	1980년대 당제 중단
7	오림리 신촌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지냈으며, 제당이 남아 있음.	2000년대 당제 중단
8	대리 동편마을 당제	입춘과 추분 후 다섯 번째 戊일에 춘제(春祭)와 추제(秋祭)를 지냈음.	2004년 당제 중단
9	능산리 능산마을 당제	매년 봄에 육물과 해물을 당집에 차리고 제를 모셨음.	1950년대 당제 중단
10	능산리 신도마을 당제	음력 정월 초사흘에 마을 야산에 위치한 제당에서 지냈음.	1970년대 당제 중단

1)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 (2) 어은리 언동마을 당제

어은리는 하의도 최초로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마을 앞에 독을 쌓아 이루어진 동네 즉, 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언굴” 혹은 “언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이 까마귀가 엮드려 숨어있는 형국이라 하여 어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언동마을은 마을모양이 고기모양이라 하여 처음에는 어동이라 부르다가 이후 언동으로 불렸다고도 한다. 언동마을의 제당은 마을 뒤편 당산이라 부르는 양산의 정산부에 있다. 이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에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산신제)를 모셨지만, 1980년대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당산 정상부에는 제당이었던 원형 돌담이 남아 있다.



사진 1. 어은리 언동마을 제당 흔적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2. 어은리 새꾸미마을 제당 흔적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3) 어은리 세꾸미마을 당제

세꾸미 마을은 처음에 유동이라고 부르다가 이후 셋구미, 세꾸미 등으로 불렸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흘에 당제를 모셨다. 마을의 공동 의례라 하여 남·여 구별 없이 집안 끼리 번갈아 가면서 음식을 준비해 제를 모셨다. 1980년대 중반에 제의가 중단되어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마을 뒤편의 야산에 제당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 (4) 어은리 피리마을 당제

피리마을은 난을 피해 살던 곳이라 하여 ‘피섬’ 또는 ‘피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당제를 모셨다. 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450m 정도 떨어진 ‘절바우’라 부르는 곳으로 현재 돌담의 원형이 남아 있다. 당집은 ‘ㄱ’자형의 담장 안에 위치한 기와집으로 담장과 당집은 훼손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당제는 중단되었다.

### (5) 오림리 유호마을 당제

오림리 유호마을은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에 마을 서쪽에 위피한 야산에서 제의를 모셨다. 제를 모시기 위해서는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한 남자 2명을 선발하여 제를 지내기 3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제가 끝난 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 당제는 1950년대에 중단되었고, 제당은 흔적만 남아 있다.



사진 3. 오림리 유호마을 제당 흔적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사진 4. 오림리 봉도마을 제당 흔적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6) 오림리 봉도마을 당제

오림리 봉도마을은 마을 뒷산의 형상이 별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력 정월 초사흘에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제의를 모셨다. 당제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남자 2명을 선정하여 제를 지내기 3일 전부터 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다. 제는 초사흘날 새벽에 모셨는데, 198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고, 제당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사진 5. 오림리 신촌마을 제당 흔적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7) 오림리 신촌마을 당제

오림리 신촌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오림리 신촌마을은 새로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마을에서 동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야산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제당에서 제를 모셨다. 당제를 지낼 때는 마을에서 깨끗하다고 여기는 남자 2명을 선발하여 3일 전부터 제지낼 준비를 하였다. 제는 초사흘날 새벽에 모셨으며, 2000년대부터 중단하였다.

### (8) 대리 동편마을 당제

동편마을은 처음에는 청도동이라 부르다가 1916년 큰 마을 또는 대리라 개칭하였고, 후에 마을의 동편이라 하여 이름 붙였다. 이 마을은 한 때 3~400가구의 집들이 들어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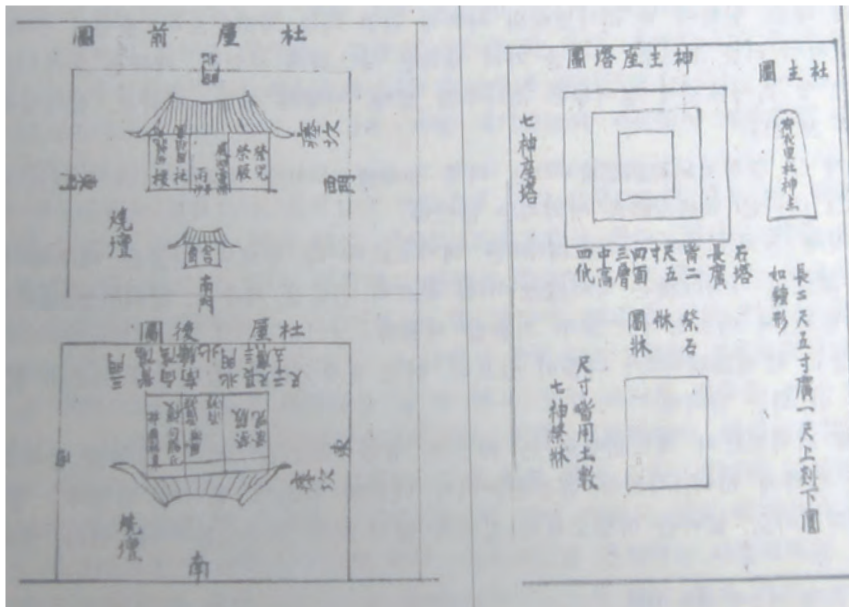


그림 2. 대리 당집과 신상도(『草菴金鍊』, 신안문화원, 57쪽)

대규모의 마을로 덕봉산 남동쪽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당집은 원래 덕봉 동쪽에 있었는데 오래되어 건물이 무너지고 담장이 허물어져 1940년 여름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분수에 따라 비용을 대고 7월에 터를 정한 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완공을 본 건물이다.<sup>2)</sup>

이 마을에서는 입춘과 추분 후 다섯 번째 戊일에 춘제(春祭)와 추제(秋祭)를 지냈다. 당신은 모두 7신을 모시고 있는데, 주신은 “하의덕봉산후토신(荷衣德鳳山后土神)”이다. 두 번째 신은 “후직신(后稷神)”으로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다. 세 번째 신은 “구룡신(句龍神)”으로 용신을 말한다. 구룡신은 염제의 11대 손이라고 하는데, 능히 온 천지를 다스리며 땅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초암(草菴) 김연(金鍊)의 ‘리사제도기(里社制度記)’에 남아 있다. 신안군문화원, 『草菴金鍊』, 2009, 58~60쪽 참조.

을 분별하여 식물의 성장을 도와주는 신이다. 네 번째 신은 “주조기신(周祖棄神)”인데, 주나라의 시조신으로 모든 인간의 조상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는 “풍백(風伯)”으로 바람을 다스리는 신을 말하며, 여섯 번째는 “우사(雨師)”로 비를 관장하는 신을 의미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운사(雲師)”로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의미한다.<sup>3)</sup>

마을 사람들은 대리 신이 영험하여 가뭄이 없이 농사가 잘되고 병충해도 없다고 믿는다. 대리당으로 불리는 당집은 정면 삼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맞배지붕형상이다.



사진 6. 대리 당집 전경  
(『박종오, 2008년 6월 24일, 하의면 대리』)



사진 7. 당집 안에 모셔진 신격들  
(『박종오, 2008년 6월 24일, 하의면 대리』)

### (9) 능산리 능산마을 당제

능산리 능산마을은 마을 뒷산이 능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는 1950년대까지 당제를 모셨다. 제당은 마을 주민들이 ‘당숲’이라고 부르는 마을 남쪽 끝에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모시는 신은 능산마을 전체의 신인 ‘능산산신(陵山山神)’이며 제는 보통 오름제 3일, 내림제 3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봄에 육물과 해물을 당집에 차리고 제를 모셨다.



사진 8. 능산리 신도마을 제당이 있던 야산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 (10) 능산리 신도마을 당제

능산리 신도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마을에서 남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 제당에서 제를 모셨다. 마을에는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 7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제를 진행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중단되었다.

3) 이윤선, 「하의도 대리당제(大里堂祭)의 전통과 변화의 함의(含意)」, 《한국도서연구》 18-2, 한국도서(섬)학회, 2006, 97~101쪽.

## 2) 가택신앙

가택신앙은 집이라는 건물 자체를 신체로 하거나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 사는 가족의 행·불행에 관계하는 신들에 관한 신앙을 말한다. 각각의 처소에 좌정한 신들은 거기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개량사업이나 신축 등을 통해 집의 구조가 바뀌고, 기독교 등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택신앙의 모습을 찾기는 거의 힘들어졌다. 아래의 내용은 현존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에서 모셨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사회민속 - 가택신앙 목록

번호	명 칭	내 용
1	성주	집안의 가장 큰 신으로 신체는 단지 형태.
2	지앙	큰방에 모시며, 신체는 단지 형태.
3	삼신	아이를 낳은 후 일곱이레 동안 방안에 모심.
4	조왕	부엌에 있으며, 종발이를 신체로 삼음.
5	철룽	집 뒤 안이나 우물 옆에 오가리 형태로 모심.
6	대문신	대문 앞에 있다고 믿는 신.
7	업	재물을 모아 주는 신.

### (1) 성주

성주는 말 그대로 집을 이루는 신으로 집집마다 모두 모셔지고 있다. 즉 성주는 한 집 안에서 가장 큰 신인 것이다. 때문에 상량을 하거나, 낙성을 할 때 혹은 이사를 갈 때 성주를 제일 먼저 모신다.

성주는 성주단지라 칭하여 대청에 모시는데, 큰 향아리를 신체로 모신다. 그 향아리 안

에는 나락을 가득 담고, 그 위를 흰 백지로 덮은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이 성주단지 안에 있는 나락은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주는데, 그 해 첫 수확을 한 나락을 담아준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나락은 찢어서 가족끼리만 밥을 해 먹는다.

성주를 모시는 경우는 제사 때, 명절 때, 집안 식구들 생일 때 제일 먼저 성주상을 차린다. 성주는 하나이므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물 한 그릇, 나물, 떡 등 준비한 음식 모두를 조금씩 차려놓는다.

## (2) 지앙

지앙은 큰방에 모시는데, 조상님들을 모신 것이라 한다. 지앙은 큰방 윗목 한쪽 구석에 나무판자로 선반을 맨 후 그 위에다 작은 단지를 놓아 신체로 모신다. 이는 자손이 잘되도록 모시는 것인데, 쌀이나 천조각 등을 넣어두는데, 집안에 따라 넣어두는 물건이 다르다고 한다.

## (3) 삼신

삼신은 집 안 식구가 아이를 낳은 세이레, 생일, 명절 때 모셔진다. 명절 때는 ‘지앙상’, ‘지앙밥’이라 하여 성주상 밑에 짚을 깔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물 한 그릇 간단하게 차려놓는다.

집 안의 산모가 애를 낳은 그때부터 세이레나 일곱이레 동안 이레마다 삼신을 안방(산모가 있는 방) 윗목에 모시는데, 이때는 성주를 대신하여 삼신을 모신다.

삼신을 모시는 형태는 구체적인 신체 없이, 안방 윗목에 삼신상을 차려 모신다. 아이를 낳게 되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빌면서 삼신상을 차리는데, 먼저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으며, 상에는 물, 미역, 쌀을 놓는다. 이 삼신상은 사흘이 지나면 치워버리지만 일주일 후에 상을 치우기도 한다. 그리고 이레마다 세이레 혹은 일곱이레 동안 삼신상을 차리는데, 물 미역국, 밥을 차려 놓으며, 삼신에게 올리고 나서 나중에 산모가 그 음식을 먹는다.

## (4) 조왕

조왕신은 부역을 지키는 신인데, 조왕님, 조왕신, 등으로 불린다. 조왕신은 부역에 있는 가마솔 위나 부뚜막 위에 종발이를 놓고 이를 신체로 모신다. 이 종발이에는 매일 새로 길어온 물을 떠서 모시는데, 이는 집안이 좋거나 자손이 좋아지라고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부역에서 조왕을 모시는 것을 ‘조왕 공 들인다’고 한다. 새벽 일찍 새로 물을 갈아주는 것은 그만큼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 (5) 철룽

집 뒤 안에 있는 신을 일컫는 말로 신체는 오가리와 같은 단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형태는 없지만 그곳에 있다고 믿기도 한다. 무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철룽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보통 집의 뒤꼍이나 혹은 우물 옆이다. 철룽을 모시는 이유는 가내의 평안과 가족의 무병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보통 정화수를 떠 놓아 집안 자손이 잘되기를 비는 곳인데, 선달 그믐날과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등에 밥을 해 차려 놓고 특별히 비손하기도 한다.

### (6) 대문신

대문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는 신체는 없고, 다만 집 안에 들어오는 대문에 있다고 믿는 신이다. 이 대문에 있는 신은 다른 신들이 집에 들어 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선달 그믐날에 밥을 해서 차려 놓는다. 이는 집안 들어오는 신을 위한 것이다.

### (7) 업

업이란 그 집안의 재산을 모아주는 신인데 이 신들은 주로 터에 생긴 모양을 보고 동물에 비유해서 업신을 섬긴다. 또는 직접 구렁이나 두꺼비 등의 동물을 신의 예우를 해주며 보호해준다.

집안이 망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업이 보이는데, 업이 보일 경우 밥을 해 바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비손한다. 만약 업이 나간 경우에는 그 집안이 망한다고 믿는다.

### 3. 전통 소금[火鹽] 생산 방식과 의례<sup>4)</sup>

하의도에는 상대도·하태도를 마주보는 해변에는 많은 염전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 기준으로 146.0ha의 염전을 보유하고 있다.

하의도에서 행했던 화염에 대한 조사지는 현재의 후광 1리로 예전에는 덕남리라 불린 곳이다. 이곳은 한국전쟁 전후까지 화염을 생산하던 곳인데, 당시 40여 가구가 소금 생산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후에 빨감 확보의 어려움과 함수를 얻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전통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천일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표3〉 사회민속 - 전통소금생산 방식 목록

번호	명칭	내용
1	염전 갈기	염전 만들기과 갈기
2	함수 얻기	섯판을 만들어 함수 얻기와 옮기기
3	소금 굽기	염막에서 소금 굽기
4	소금판매와 의례	소금 판매 방법과 관련 의례

#### 1) 염전 갈기

하의도에서 화염을 생산에 필요한 함수를 얻기 위해 갯벌을 논처럼 만드는데, 이를 염전이라 부른다. 염전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갯벌을 막아 제방을 설치하고, 수문을 만들어 해수(海水)의 유입과 차단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제방 안쪽 갯벌을 논처럼 만든 후, 그 사이사이에는 물길을 만들어 해수를 담아 두었다.



그림 3. 하의도 화염 염정지

4) 이 부분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외에 소금전시관 운용에 관한 논문에서도 생산방식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박종오, 「하의도 화염생산 방식」, 『소금과 새우젓』, 윤형숙 외, 민속원, 2010.

박종오, 「전통 소금생산 전시 시설의 운용」, 『호남학 연구』 47, 전남대 호남학 연구원, 2010.

염전은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크기가 크면 5~6명이 한 염전에서 일 한다. 염전 주인은 자신이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며, 매매가 가능하다.

화염은 음력 2월부터 시작하는데, 함수를 추출하는 데는 보통 15일 정도 걸리며, 비가 오거나 날이 꺾으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보통은 4번 정도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염전을 갈아야 하는데, 염전의 흙을 소를 이용해 갈아준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썬레인데,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것과 생김새는 같지만, 갯벌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밑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 염전은 하루에 두 번 정도 갈며, 염전의 흙이 마르면 다시 갈아주는데, 이를 3번 정도 행한다. 이 때 염전은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쪽박을 이용해 갯골에 있는 바닷물을 염전에 지속적으로 뿌려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소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샅을 주고 빌리는데, 소를 하루 빌리면 보통 소금을 한번 구울 수 있을 만큼의 함수를 소 임자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말린 흙은 거래를 이용해 한 곳으로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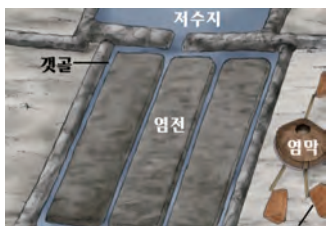


그림 4. 하의도의 염전



그림 5. 염전 갈기



그림 6. 마른 염전 부수기

## 2) 함수 얻기

염전 갈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흙이 잘 말랐다면 함수를 받을 섯판을 만드는데, 이를 '섯 드린다'라고 한다. 섯판은 잘 말린 흙으로부터 함수를 얻어 내기 위한 장치이다. 하나의 염전에 많게는 20개 정도의 섯판을 만드는데, 염전을 일정한 너비와 깊이로 파고 그 안에 보릿대를 깎는다. 섯판 옆에는 다시 둥그런 구멍을 파 놓는데, 이를 옹기라고 부른다. 옹기는 섯판의 바로 옆에 파며 바닥을 발로 밟아 다져 놓는다. 이 섯판과 옹기 사이를 보릿대로 연결해 놓는데, 옹기는 함수가 모이는 장소이다.

첫판 위에 잘 마른 흙을 얹은 후, 올린 흙 주변을 벽처럼 쌓아 둔다. 그 위에 갓골의 물을 떠 부으면 농축된 함수가 옹기 속으로 보릿대를 따라 흘러 내린다. 이렇게 흘러내린 함수는 송진 콩알 크기로 만들어 나무에 줄을 묶은 것을 이용해 염도를 측정한다. 송진이 빨리 올라오면 염도가 높은 것이고 천천히 올라오면 염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옹기에서 모은 함수는 물지계를 이용해 염막 옆 됴병으로 옮기는데, 개인 것이 따로 있다. 이곳은 염막으로 함수를 옮기기 전에 예비로 저장해 두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들치지 않도록 짚으로 덮어 둔다.

### 3) 소금 굽기

염막은 염분(鹽盆)을 걸어 놓고 소금을 굽는 곳으로, 보통 3 ~ 4평 정도의 크기로 만든다. 이 염막은 주인이 따로 있는데, 염막 주인이 직접 소금을 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염막을 만들 때는 땅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없는 사람들은 빌려서 소금을 굽는다.

염막을 만들 때는 여러 개의 통나무를 원추형으로 엮어 골격을 만들고, 회(灰)를 넣고 다져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이렇게 기본 골격을 만든 후 지붕과 벽면은 짚으로 엮은 이엉을 둘러치며, 윗부분은 하늘이 보이도록 가운데를 개방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아궁이에 불을 뿜 때 연기가 나가는 환기통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염막 안에는 소금을 구워낼 가마가 걸려 있는데, 이는 드럼통을 잘라 이어 만든 것이다. 드럼통을 잘게 자른 후 철못을 이용해 중간을 이어 큰 가마를 만든다. 불을 지필 아궁이 위에 건너질이라 하여 4개의 나무를 서로 연결한 후 이곳에 갈고리와 줄을 이용해 6군데를 묶어 가마를 고정시킨다. 예전에는 굴이나 조개껍질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든 후 이를 가마로 만들어 사용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굴이나 조개껍질로 만든 가마는 오래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금을 굽는 도중에 가마가 터지는 경우도 생긴다. 가마가 터지게 되면 소금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소금물이 사람에게 튀면 자칫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염막 안에는 우물뚝병이 있는데, 이는 개인 뚝병에 보관한 함수를 소금을 굽기 위해 염막 안으로 두레를 이용해 옮겨 저장해 두는 곳이다. 우물뚝병에 저장된 함수는 쪽박을 이용해 가마에 옮겨 붓는다. 또한 이곳에는 수채뚝병이라 하여 완성된 소금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물 빠질 구멍을 만들어 놓아 소금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하

였다.

염막 주인이 먼저 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려 굽는다. 이 때 들어가는 나무는 각자 개인이 장만하여야 하는데, 하의도에 있는 산 임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배로 사와야 한다.

가마에 들어가는 함수의 양에 따라 불을 때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화력을 높였다가 어느 정도 소금이 내리기 시작하면 화력을 줄여야 한다. 소금이 천천히 만 들어지기 시작하면 소금개비를 이용해 가마 가장자리로 만들어진 소금을 긁어낸다. 긁어낸 소금은 소쿠리를 이용해 수채뚝병에 내려놓으면 소금에 남아 있던 물기가 빠지면서 마르게 된다. 한 솥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소금을 구우면 소금이 40kg 포대를 기준으로 많을 때는 13~4개 정도 나오는데, 솥이 많은 경우 10번 정도까지 구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30~40개의 소금이 나오고 염막 주인에게는 사용세로 30가마 정도를 주고 100 가마니 정도를 갖는다.



사진 9. 염막을 복원해 놓은 모습  
(박종오, 2008년 6월 24일, 하의면 후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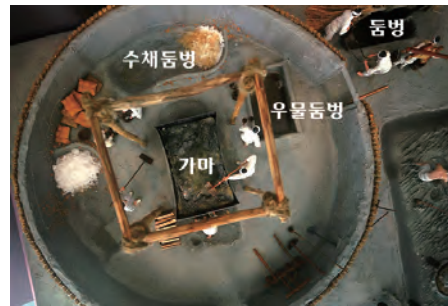


그림 7. 염막을 복원해 놓은 모습  
(박종오, 2009년 4월 19일, 하의면 후광리)

#### 4) 소금 판매와 의례

생산된 소금은 소금을 사기 위해 섬에 들어 온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고, 상고선이 오면 넘겨주기도 한다. 때로는 염막 주인이 한가마니에 얼마 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사서 팔기도 한다. 그렇지만 생산자가 직접 소금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산된 소금은 개인이 배를 이용해 육지로 나가 파는데, 목포나 나주 혹은 영산포 등지로 나간다. 목포까지는 보통 하루 정도 걸리는데, 날 굶으면 여러 날 걸리기도 한다. 소금은 비쌀 때는 쌀과 맞바꾸기도 할 정도로 가격이 좋았다고 한다. 화염을 만들 때는 전매를 하지 않았고, 천일염으로 전환했을 시기에 전매를 행했다.

염전에는 명절 때와 처음 소금을 내릴 때 제의를 모신다. 명절 때는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집에 상을 차리기 전에 먼저 염전으로 가서 제를 모신다. 이때는 남보다 먼저 제를 모시면 좋다고 하여 새벽 일찍 나가는데, 돼지머리와 명절을 쇠기 위해 장만한 음식, 그리고 술을 가지고 간다. 제물은 염막과 물 뚝병에 차리는데, 음식을 차린 후 절을 올리는 식으로 행한다. 제를 올리기 위해 장만한 돼지머리는 셋등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다. 처음 소금을 내릴 때에도 돼지머리와 간단한 주과, 그리고 술을 장만하여 제를 모시게 된다.

염전이 많은 사람들은 1년에 얼마씩 임금을 정해 놓고 일꾼을 데리고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염에 소요되는 막대한 땀감과 일꾼 부족 등으로 인해 차츰 자염을 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자염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염전이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면서 자염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 4.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며 해마다 농사력에 맞추어 관례(慣例)로서 행하여지는 전승 행사를 의미한다. 산업화 이후 전통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주일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예전의 생활양식은 급격히 해체 되었고, 세시풍속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풍속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조사 내용은 현존하는 풍속과 더불어 과거에 행했던 자료를 총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글은 편의상 세시풍속을 음력을 기준으로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기술한다. 봄철의 세시풍속은 다만, 24절기에 대해서는 날짜에 맞춰 음력 날짜와 상관없이 함께 기술하였다.

### 1) 봄철의 세시풍속

#### (1) 설

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정월 초하루' 혹은 '설날'이라고 부른다.

〈표 4〉 사회민속 - 세시풍속 목록

번호	명칭		내용
1	봄철 세시풍속	설	설상 차리기와 음식 장만
		십이지일	십이지일 관련 금기
		정월대보름	대보름 상차리기
		정초속신	정초 운수 보기와 액막이 방법
		2월 1일	하리달 풍속
		영등내림	비 영등과 물영등
		입춘	입춘 부적
		경칩	경칩 속신
2	여름철 세시풍속	삼진날	삼진날 속신
		초파일	공들이기
		한식	산일과 씨앗 파종
		곡우	곡우물 먹기
		조구심리	조기 선영상에 차리기
		단오	단오 속신
3	가을철 세시풍속	유두	유두 상차리기
		칠석	칠석 상차리기
		백중	백중 휴식
		추석	추석 상차리기
4	겨울철 세시풍속	중구	낙지 먹기
		시제	선영 시제 모시기
		동지	팔죽 속신
		그믐	수세(守歲) 속신
		공달	산일 등 공달 속신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하여 새 옷을 갈아입는다. 설빔은 베를 짜서 만들어 주는데, 보통 하루에 1벌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차례 상은 그믐날 밤 12시가 넘으면 차리거나 1일 새벽에 차리는데, 술, 떡국, 과일, 생선, 나물 등을 올린다. 떡국에는 석화를 넣기도 하고,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는다.

술은 청주를 사용하는데, 보통 집에서 만들어 사용한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과 술밥을 만든다. 술밥은 꼬두밥을 찌서 만드는데, 꼬두밥에 누룩을 섞어 큰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담은 항아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놓아두면 일주일 정도 돼서 술이 만들어진다. 술이 만들어지면 용수를 집어넣어 그 안에 담긴 맑은 술을 제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담긴 술밥으로 소주를 내리기도 하는데, 술 안에 술밥을 넣은 후 불을 때면서 천천히 저어준다. 술밥이 끓기 시작하면 그 안에 대접을 넣어두고, 솥뚜껑을 반대로 덮는다. 솥뚜껑의 오목한 부분에 물을 부은 후 불을 계속 때주면 솥뚜껑에 이슬이 맺히고, 맺힌 이슬이 술 안에 넣어둔 대접 안에 모이는데 이것이 바로 소주이다. 술밥을 채에 놓고 물을 부어주면 막걸리가 되는데, 이는 설에 집에 세배를 하러온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쓰인다.

콩나물은 시루에 기르는데, 바닥에 대야를 깔고 그 위에 나무로 삼발이를 만든 후 시루를 놓는다. 시루 안에는 삼베를 깔아 구멍을 막은 후 그 위에 콩을 놓아두고 일주일 정도 물을 뿌려주면 콩나물이 자란다.

새벽이 되면 떡국 대신 메밥을 지어 올리고 차례를 모시게 된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차례로 세배를 올린다. 세배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곶감 등을 주며, 어른들은 음식과 막걸리를 대접한다.

세배가 끝나면 성묘를 가고, 오후부터는 마을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곶감 등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음식과 막걸리를 대접한다.

설에 하는 놀이로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 윷놀이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남자 아이들은 연날리기, 제기차기를 하였다.

## (2) 십이지일

- **쥐날** : 초저녁에 불을 켜면 쥐가 성하다고 하여 이 날은 불을 켜지 않는다.
- **소날** :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날 일을 하면 소가 밭작물을 먹어버린다고 여긴다. 또한 이날 칼질을 하지 않는다. 칼을 다루면 소가 쟁기질 할 때 보습이 부러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개날** : 이날은 일을 하지 않는데, 이날 일을 하면 개가 보리밭에 굴러서 1년 농사를 망친다고 여긴다.
- **용날** : 우물에서 물을 길지 않는다. 물을 길으면 모판을 만들 때 비가 온다고 여긴다.
- **뱀날** : 이날 일을 하면 뱀이 달라 들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또한 뱀이 나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수수깥에 머리카락을 달고 “진대 낫자, 배암 낫자”라는 말을 하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 후 집 밖에 내다 버린다.
- **말날** : 장을 담그면 좋다고 하여 장을 담근다.
- **닭날** : 닭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헤치지 못하게 막는다.
- **돼지날** : 이날 일을 하면 더위를 많이 탄다. 또한 이날 비느질을 하지 않는데, 비느질을 하면 손가락이 애린다고 한다.

## (3) 정월 대보름

음력 정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한다. 이날은 아침에 상을 차리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오곡밥을 차린다. 오곡밥에는 쌀, 보리, 팥을 넣고 고사리, 콩나물, 두부 등을 차린다. 이날 차리는 상은 집안의 지양상 뿐만 아니라 뒤 안의 철룽과 마당 입구의 문신에게도 간단하게 상을 차린다.

두부는 콩을 갈아 집에서 직접 만드는데, 먼저 콩을 물에 담가 불린 후 이것을 맷돌에 간다. 이렇게 갈린 콩을 체에 놓고 거른 후 솥에 끓인다. 이 때 간수를 떠다가 따뜻하게 덥혀서 그 위에 뿌려주면 잠시 후 콩물이 응결되기 시작하면서 두부가 만들어진다.

- **달구경** : 동네 산에 올라가 가장 먼저 달을 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재수도 좋다고 여긴다. 이날 달이 낮게 뜨면 농사가 잘되고, 높이 뜨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
- **더위팔기** : 아침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아무개야 내더우” 혹은 “내더우”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잘 넘기게 된다고 여긴다.
- **소밥주기** : 아침에 소에게 밥과 콩을 쥐서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농사가 잘되고, 콩을 먼저 먹으면 콩 농사가 잘된다고 여긴다.
- **논두렁 불 지르기** : 저녁에 나무를 훑쳐다가 불을 피우는데, 불길의 높이 올라간 쪽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긴다.
- **새내기 퇴치** : 정월 보름에 새내기가 못나오게 원새끼를 꼬아 피마주대에 묶은 후 새끼 줄에 숯, 고추, 머리카락을 꽂아 끌고 다닌다. 뒤에 있는 사람은 “지내 땀자(때리자)”, “배암 땀자(때리자)”하면서 끌고 다니다 버린다.

#### (4) 정초 속신

정초에 마을에 계시는 유식한 어른들이나 한학자분들을 찾아가 그 해 운을 보았다. 그 해 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맥이를 하는데, 나물과 밥을 차려서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해변 가에 나가 비손을 한 후 물에 던진다. 이렇게 하면 그해 자신이나 자식에게 들어올 나쁜 액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행위는 14일 밤이나 보름날 밤에 행한다.

#### (5) 2월 1일

2월 1일은 ‘하리달’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은 각 가정에서 콩을 볶아 먹는다. 이때는 콩

뿐만 아니라 보리도 함께 볶아 먹는데, 집에 있는 솔뚜껑을 얹어 그 안에 콩과 보리를 넣고 볶는다.

콩을 볶을 때는 손 그을음이 일지 않게 볶아야 하는데, 마당 가운데에 짚을 놓고 양판에다 물을 떠 놓은 후 “할머니, 하늘에서 비를 쥐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편히 해주쇼”라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 (6) 영등내림

2월 15일에 영등이 내리는데, 비 영등이 내리면 농사에 좋고, 바람 영등이 내리면 소금에 좋다. 바람 영등할머니가 온다고 마당에 물을 떠 놓고 빌며 밥을 해서 마루에 차려 놓는다. 2월 초에 바람 영등이 내리면 농사에 안 좋고 비 영등이 내려야 좋다고 여긴다.

## (7) 입춘

입춘은 양력 2월 4일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글귀를 써서八字 형태로 집 대문이나 천장, 기둥에 붙였다. 그것을 붙여놓으면 독경한 것이나 똑같다고 해서 붙여 놓았는데, 예전에는 마을 어르신들께 말해서 붙여 놓았으나 지금은 절 같은데 가서 부락을 하여서 붙인다.

## (8) 경칩

경칩 때는 산에 올라가 미룡알(개구리알)을 주워 먹는데, 신경통에 좋다고 여긴다.

## (9) 삼진날

삼진날은 강남에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다. 이 날 들어 나가 흰나비를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는 등 상복(喪服)을 입을 운이라 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 반대로 호랑나비를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하여 길하게 여긴다.

## 2) 여름철의 세시풍속

### (1) 초파일

4월 8일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절에 찾는다. 돈과 쌀 등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식구 수대로 연등을 달고 왔다. 또한 집안 식구들의 무병과 성공을 염원하면서, 절에서는 탑돌이 놀이를 하는데 소원을 빌었다.

### (2) 한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이날은 음식을 장만하되 상을 차리지 않았고 남너노소 없이 친구들 간에 음식 장만한 것을 가지고 산에 가서 먹고 논다. 이 때 씨앗(수수, 호박, 옥수수 등)을 뿌리면 잘 낫다고 여기며, 집안에 따라서는 산일을 하기도 한다.

### (3) 곡우

4월 곡우에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뱀씨를 담그고 밥, 반찬 등을 성주 앞에 차린다. 이날은 곡우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한다.

### (4) 조구심리

조기가 나올 철이 되면 그해 잡은 조기와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님께 올리는데, 이를 조구심리라 한다. 조기는 자신이 직접 잡은 조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놔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이때도 장을 봐서 간단하게 제물을 장만하는데 집안 형편에 따라 장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차린 제물은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 (5) 단오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인데, 이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쉰다. 쭉뚝을 이용해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철 더위를 타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아침에 상추 앞에 맺힌 이슬을 받아다 아이들을 씻겨주면 그 해 여름에 땀띠가 나지 않고, 버짐이 없어진다고 여긴다.

## (6) 유두

6월 유두날은 마루에 조상, 성주님께 밥을 차려 놓는다. 돼지고기, 시루떡, 콩나물, 밀문지 등을 장만하고 온 동네가 쉬었다.

## 3) 가을철의 세시풍속

### (1) 칠석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상을 차려 놓고 밀문지를 붙였으며 온 마을이 쉰다. 또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르기도 하고, 조상님께 음식을 장만하여 상을 차리기도 한다.

### (2) 백중

백중은 칠석보다 더 크게 쉰다. 이날은 성주상을 차리고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고 쉰다.

### (3) 추석

추석 전에는 별초를 하는데, 팔월 초열흘까지는 끝내야 한다. 이를 ‘이발 한다’고 이야기하며 ‘묘가 이발을 해야 절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추석에는 지양상과 철룽, 대문 등에 상을 차린다. 제사상은 다양한 과일과 햇곡식을 준

비하는데, 특별히 송편을 만들어 차린다. 송편은 둥그런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는 판, 콩 등을 채워 넣는다.

아침 일찍 차레를 모신 후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게 된다. 성묘를 한 후에는 마을에 모여 술을 마시거나 윷놀이 등을 하면서 논다.

#### (4) 중구

9월 9일은 중구라 하는데, 이날은 “낙지 환갑”이라 하여 낙지를 잡아다가 삶아서 먹는다. 가을 준비가 바쁠 때는 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4) 겨울철의 세시풍속

#### (1) 시제

10월에는 농사가 다 끝나고, 농사를 지어서 가장 곡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낱을 받아 시제를 지냈다. 보통 시제를 모실 때는 문중에 있는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여기에서 나온 곡수를 가지고 제물을 장만한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요일에 낱을 잡아 지내는데 자식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참석이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동지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도 부르는데 팔죽을 만들어 먹는다. 팔죽은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팔을 삶아 거른 물에 끓인다. 붉은 색깔이 귀신을 쫓은 축귀력이 있어 술가지에 묻혀 마당, 담장 등에 뿌리기도 한다. 동지는 애기 동지와 노인 동지가 있는데, 애기 동지일 때(10일 경)는 시루떡이나 팔떡을 먹고, 노인 동지 일 때(20일 경)는 팔죽을 먹었다고 한다.

팔죽을 벽에다 뿌릴 때에는 “설보다 중한 동지가 들었으니 가정을 편히 해주쇼”라고 빈다. 또한 팔죽 열 두 그릇을 떠 놓고 물기가 마른 정도를 봐서 명년 농사철 날씨를 예지해 보기도 한다.

### (3) 그믐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장만을 한다. 이 때 청소를 하면서 빗자루를 이 날 밤에는 불을 켜놓고 자지 않는데 이것을 수세(守歲)라고 한다. 또한 설을 쇠기 위해 각종 음식을 장만하는 날이기도 하다.

### (4) 공달

공달은 계절과 음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한 달로서 달이 없는 달이다. '윤달'이라고도 불리며 이 달은 평년보다 한 달이 더 있는 달로 4년마다 있다. 이때는 집수리, 이사, 수의 등을 장만한다. 그러나 공달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 5. 일생의례<sup>5)</sup>

(표 5) 사회민속 - 일생의례 목록

번호	명칭	내용	
1	출산의례	기자의례	공 들이기, 지앙맞이
		태아의 성 예지	태몽, 배 모양 보기
		태중금기	음식 금기, 행위 금기
		출산준비 및 출산	출산 준비물
		출산 후 의례	급졸, 태 버리기 등
2	혼인의례	성장기 의례	백, 돌, 아이 팔기 등
		혼전의례	중매, 사성보내기, 택일 등
		결혼식	혼례상, 함 들이기 등
		신행	신행 방법
3	죽음의례 및 초분관행	재행	재행 방법
		임종	임종 지키기
		혼백부르기 및 사자상	혼백 부르기와 사자상 차리기
		습과 염	습과 염 방식
		장례준비 및 상여매기 연습	장례 준비와 밤달애
		발인	발인 방법
		장지	장지 만들기
4	제사의례	반혼제 및 탈상	반혼제 및 탈상 관련 의례
		초분	초분 방식
		기제사	기제사 방식
	차례	차례상 차리기 방식	

5) 하의도의 일생의례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이미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에서 조사 정리한 바 있다. 이종철, 선영란, 오미순,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의 신앙 민속」, 『도서문화』 3,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 1985.

## 1) 출산의례

### (1) 기자의례(祈子儀禮)

아이가 없는 집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행하는 방법으로 집에서 공을 들이거나 혹은 해안의 깨끗한 곳을 골라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또한 지앙맛이라 하여 단골을 집으로 불러 들여 굿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특별히 행해지지는 않는다.

### (2) 태아의 성(性) 예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거나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미리 예지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태몽이라 한다. 이 태몽을 통해 아이의 성별을 예상하기도 하고, 아이의 운명을 점치기도 한다. 태몽은 임신부가 직접 꾸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등 가까운 사람이 대신 꾸주기도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태아의 성별을 미리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태몽과 뱃속의 아이가 노는 모습을 통해 점쳐보는 방법이 있다.

먼저 태몽에 의해 성을 구별 할 때에는 꿈속에서 오이나 참외, 가지와 같이 모양이 긴 과일이나 심성이 강한 호랑이가 나오면 태어날 아이를 아들이라 여기고, 수박, 사과 등과 같이 둥근 과일이나 토끼처럼 온순한 성격의 동물이 나오면 태어날 아이가 딸일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또한 임신부의 배 모양으로 성별을 점쳐보기도 하는데, 보통 임신부의 윗배가 볼록하게 부르고 전체적으로 배의 모양이 뾰족하게 앞으로 나오면 딸을 낳고, 아랫배가 부르고 전체적으로 항아리처럼 두루뭉술하게 양쪽 옆구리로 배가 부르면 아들을 낳는다고 본다.

지금은 태아의 성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태몽을 통해 아이의 성별이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믿어 태몽을 중시 여기고 있으며 또한 임신부의 행위나 노는 모습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하여 가끔 시켜 보기도 한다.

### (3) 태중금기(胎中禁忌)

임신이 확인 되면 임신부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여러 가지 행위를 조심했는데, 이는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임신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임신 기간에 가장 금하는 것은 죽음과 대면하는 일인데,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부가 상가(喪家)에 출입하거나 문상을 금할 뿐만 아니라 상가에서 가지고 온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문상을 다녀온 사람과도 만나지 않는다. 또한 짐승의 죽음도 부정하게 여겨 임신부가 가축을 잡는 모습을 보거나 살생(殺生)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 산달[産月]에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도 임신부가 먹지 못하도록 한다.

임신 중에는 지양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는데, 특히 산달에 지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타인(他人)과 말을 섞거나 밥을 함께 먹으면 지양이 서로 충돌하여 임신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본다. 그래서 산달에는 가족 중에 출산을 하고 세이레나 일곱이레가 지나지 않은 산모가 있는 사람이나 다른 임신부와는 함께 방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음식을 했을 때 특히 산모가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리고기이다. 이는 태어날 아이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붙어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가오리도 먹지 않는데, 이는 태어날 아기의 피부가 꺼칠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은 계속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산달에만 조심한다고 한다.

지금은 임신 중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여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게 한다.

### (4) 출산 준비 및 출산

산달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데, 배냇저고리, 미역, 실, 가위, 짚 등이 그것이다. 배안에 저고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히는 옷을 말하는데, 실로 옷고름을 만든다. 기저귀는 집안 어른들이 입던 흰옷이나 흰 치마를 이용해 만든다.

짚은 아이를 출산 할 때 산모가 방에 깔고, 삼신상을 차릴 때 바닥에 깔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통 자기 집의 것을 준비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사다 놓아야 한다.

진통이 오면 안방에 짚을 깔고 출산에 들어간다. 예전에는 짚을 깔았지만 그 후에는 밀가루 포대 등을 깔았다고 한다. 아이를 낳을 때는 양수가 터지면 속옷을 모두 벗고 보통은 쪼그린 자세로 낳는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누워서 낳은 것이 편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출산을 할 때는 시어머니나 집안 어른이 애 낳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를 산파라 한다.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하는 난산인 경우에는 단골을 데려와 비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삼신상을 미리 차려 삼신에게 아이가 빨리 나오도록 비손한다.

삼신상을 짚 한주먹을 상 밑에 깔고 그 위에 상을 놓은 후 쌀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미역을 길게 올려놓는다. 이 때 올린 미역은 첫국밥을 해 먹을 때 사용된다.

지금은 보통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짚 같은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의 옷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원 후 삼신상을 차려주기도 한다.

## (5) 출산 후 의례

아이는 태어나면 미지근한 물로 씻기고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린다. 탯줄은 아이의 배로부터 아이의 팔 길이만큼 된 곳을 묶고 가위로 자른다. 이때 가위는 불에 소독을 한다. 또한 급하게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로 끊기도 한다.

태반은 한 참 후에 나오는데, 보통은 방에 깔았던 짚자리와 함께 놓아두었다가 3일 후 태우거나 물에 띄워 버린다. 태울 때는 집에서 손 없는 곳을 선택해 태운다. 그런데 간혹 간혹 종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가 아이가 아플 때 약으로 사용한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등 병에 걸리면 탯줄을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효험이 있다고 하며,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마른 탯줄을 갈아 물에 개어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삼신상에 차려놓았던 미역과 쌀로 첫국밥을 해 먹는다. 이 때 첫국밥은 남에게 주지 않고 산모가 다 먹어야 태어난 아이가 복 있게 산다고 믿는다. 삼신상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이레마다 차리는데 보통은 세이레까지 차리지만, 손이 귀하거나 부잣집에서는 일곱이레까지 차려준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아 만드는데, 아들인 경우 고추, 숯을 달고 여자인 경우에는 짚 뭉치를 줄 가운데에 달거나 짚뭉치와 솔가지를 함께 달기도 한다. 이렇게 금줄을 다는 이유는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삼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금줄은 세이레가 지나면 걸어서 한쪽에 세워 놓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를 입히는데 이 때 옷고름은 실을 꼬아 만든다. 배냇저고리

는 따로 보관했다가 시험이나 송사가 있을 때 당사자 몰래 몸에 지녀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산모는 출산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3일이 지나면 목욕과 빨래를 한다. 보통 3일이나 5일이 지나면 바깥출입을 하고 집안일을 한다. 출산 후 수일이 지나도 젖이 나오지 않거나 유량(乳量)이 적은 경우에는 산모가 빨리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특히 돼지 족(足)을 고아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 한편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해 젖이 잘 나오기를 빌기도 한다. 반대로 젖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젖을 짜서 굴뚝에 버린다. 산모가 구유졌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를 빨아 주는데, 보통은 숨었던 젖꼭지가 빠져 나온다고 한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집안의 향렬에 따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지어주며, 귀한 자식인 경우 따로 작명가에게 부탁하여 이름을 지어오기도 한다.

## (6) 성장기 의례

백일은 아이가 태어난 지 백 일째 되는 날로 집에 상을 차려 집안 식구들끼리 식사를 한다.

돌은 아이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의례이다. 이 때 차리는 상을 돌상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장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돈, 실, 쌀 등을 올려놓는다.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을 잡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여긴다.

이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해서 돌리는데, 동네 사람들은 떡 바구니를 돌려주면서 그 안에 쌀이나 돈을 넣어 주고, 혹은 명(命)이 길라는 의미로 실을 감아 돌려주기도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명이 짧다고 하는 경우 단골이나 점쟁이를 통해 공을 들이는 데 이를 ‘판다’고 한다. 쌀이나 옷을 단골 혹은 점쟁이에게 해주고, 대신 이들은 아이의 명이 길어지도록 공을 들인다.

## 2) 혼인의례

### (1) 혼전의례(婚前儀禮)

혼인을 해야 하는 일정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20살 이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은 대부분 중매에 의해 것이었는데, 이 때 결혼을 주선한 사람을 ‘중매쟁이’라 하는데, 보통은 집안 어른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일단 맘에 드는 총각이나 처녀 혹은 혼처가 생기면 중매쟁이를 통해 중매를 넣거나, 중매쟁이를 통해 중매가 들어오면 상대방을 탐색하게 된다. 총각 집과 처녀 집의 부모는 암암리에 각각 상대방 처녀나 총각을 만나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중매가 들어오면 선을 봐서 맘에 들면 약혼 사진을 찍기도 하고, 혹은 같은 마을에서 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궁합을 보는데, 궁합이 좋지 않으면 없던 이야기로 하고, 서로 좋으면 남자 측에서 신부 집으로 사주단자를 보낸다. 사주단자에는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봉투와 함께 신부의 옷을 한 벌 보낸다. 신부 측 어머니를 이를 받아 성주 단지에 올려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사성이 오면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사주와 맞추어 좋은 날로 택일을 하는데, 반드시 신부 집에서 날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신랑 집에서 사성을 보낼 때 이미 택일을 하여 사성과 함께 알리기도 한다.

결혼 날짜가 잡히면 신랑과 신부 집에서는 각각 혼수를 준비하는데, 집안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며 옷과 이불, 시부모님 이불 정도를 준비한다.

## (2) 결혼식(結婚式)

결혼식은 신부 집 마당에서 치루는 것이 보통이다. 신랑은 결혼식 당일 신부 집으로 오는데, 가까운 거리면 신랑이 사모관대를 차려 입고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평상시 차림으로 걸어온다. 이 때 신랑의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등이 함께 오는데 이를 상각이라 한다. 상각과 함께 함을 진 함진아버와 친구들이 함께 온다. 함 속에는 당일 신부가 입을 옷과 함께 폐물들이 들어 있다.

신랑이 마을에 도착하면 일정한 집을 택하여 잠시 쉬게 한 후 신부 측에서 먹을 것을 내오고, 신랑은 여기에서 혼례복으로 갈아입는다.

식장은 신부 집 마당에 꾸며지는데, 비가 오는 경우는 대청에 꾸미기도 하고, 차일을 치기도 한다. 절구통을 거꾸로 얹어 양쪽에 놓은 다음 그 위에 큰 떡메나 상을 올려놓는다. 그 곳에 암탉과 수탉을 각각 한 마리씩 올려놓고 촛불을 켜다. 또한 팔, 콩, 쌀을 각각 그

릇에 담아 올려놓고, 과일, 떡 등을 함께 차린다.

함이 들어오면 신부 어머니나 혹은 집안사람들 중 유복한 사람이 받는데, 함 속에는 신부의 옷과 폐물 등이 들어 있다.

식의 순서는 보통 신랑이 입장하면 신부가 나오고, 맞절을 한다. 다음으로 술을 따라 신랑이 절반을 마시면 신부에게 나머지 절반을 건네주어 마시게 한다. 그리고 다시 절을 한다. 이 때 신랑과 신부는 처음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게 된다.

결혼식 때는 이웃, 친척들이 쌀이나 김치 혹은 콩나물을 길러 그것으로 부조를 했다. 식이 끝나면 보내준 그릇에 음식이나 술을 담아 돌려주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큰방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첫날 밤을 보낸다.

### (3) 신행

첫날밤을 신부 집에서 보낸 다음날 아침 신랑은 장인장모께 문안 인사를 드린다. 이 때 신랑은 신부 집에서 새로 장만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첫날밤을 보내고 보통은 그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떠나는데, 이를 ‘첫질’이라고도 한다. 섬 내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튿날 바로 신행을 갈 수 있지만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경우에는 물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 초야를 치르지 않고 당일로 신행을 가기도 하고, 혼례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신행을 가기도 한다. 또한 가풍에 따라 좋은 날 신행을 가기 위해 신행 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부잣집인 경우 신부가 신랑 집에 바로 가지 않고 1년 정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묵힌다고 한다.

신행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신부가 장만한 혼수와 이바지를 가지고 가는데, 장만한 그릇마다 쌀이나 잡곡을 담아 쥐서 부자로 살기를 기원한다. 신행을 행할 때 신부의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이 신부의 상각으로 따라간다. 신행을 할 때는 보통 가마를 타고 가며, 집안 아이들이 이불 등을 메고 따라가기도 한다.

신부가 시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여 신랑 집으로 가면 준비해온 음식으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 이때는 아들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대추와 밥을 던져 준다. 시댁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식사 준비를 한다. 이 때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시부모가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행한다. 보통은 3일 정도 한다.

#### (4) 재행

재행은 신부가 다시 친정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신행을 한 후 며칠이 있으면 행하거나 1년 농사를 지은 후 추석 명절 때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정집에서 며칠씩 머물 수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시택으로 되돌아온다.

### 3) 죽음의례 및 초분관행

#### (1) 임종

사람이 죽기 전에 미리 그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 있는데, 흔히 ‘혼불’이라고 하는 불덩이가 집에서 나간다. 이 혼불 꼬리가 짙쪽하면 남자, 혼불이 동그라면 여자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혼불이 멀리 가서 떨어지면 좀 더 오래 살고 가까이 떨어지면 그 해에 죽는다고 믿으며, 혼불이 날아간 방향으로 시신이 간다고 한다.

사람이 죽을 기미가 보이면 보통은 자신이 기거하던 방이나 안방에 모시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 이때는 머리를 북쪽에 놓는데, 죽음의 여부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얼굴을 귀를 대보아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죽음을 확인하면 가족들은 곡을 하며,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딸은 멀리서 급하게 왔다는 의미로 마을 밖에서 곡을 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온다.

#### (2) 혼백 부르기와 사자상

죽음을 확인하면 고인이 평소에 입었던 옷 중에서 웃옷 한 벌을 들고 밖으로 나가 이름 성명을 부르며 지붕에 던져 놓는다. 이는 초상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웃옷은 입관할 때 내려 관 속에 넣는다. 마을사람들은 지붕에 던져져 있는 옷을 보고 상이 난 것을 알게 된다.

사자상은 집 대문 앞에 차리는데, 간단히 밥과 과일 등을 올려놓는다. 이는 고인을 저승

으로 데려갈 저승사자를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고인을 저승까지 잘 인도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습과 염

임종이 확인되면 칠성판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널빤지를 이용해 만들며 이를 칠성판이라고 한다. 먼저 방바닥 위에 짚 뭉치로 여러 군데 받침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는다. 시신이 굳지 않도록 눕힌 다음 삼베로 일곱 군데를 묶는데,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하여 힘껏 묶어야 한다.

이렇게 시신을 방에 모신 다음 방문을 닫고 방문 앞에는 상을 차린다. 상은 삼실과일과 향불을 피워 놓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올려놓는다. 이때부터 문상이 가능하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켜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말하고, 염은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것을 말한다. 습을 할 때는 쭉뭉이나 맹물로 시신을 목욕시키는데, 주로 자식들이 행한다.

시신을 씻기고 나면 수의로 갈아입힌다. 수의는 평상시에 준비해 놓기도 하지만 상이 나면 급하게 만들기도 한다.

염은 습을 한 시신을 싸서 묶는 소렘과 이를 입관하는 대렘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행하고 있다. 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대렘이라고 하는데, 관의 비어 있는 공간을 평소에 입던 옷으로 채워 넣는다.

대렘을 마치면 관에 못질을 하는데, 고인을 보지 못한 자식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는 관 뚜껑에 못질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나무로 받을 만들거나 가마니로 시신을 싸기도 하였다고 한다.

### (4) 장례준비 및 상여 매기 연습

상주는 보통 큰아들이 맡으며 큰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작은 아들이 맡는다. 아들이 죽어 없는 경우에는 손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를 대신 해 장례를 준비할 사람은 집안 어른이 맡는데, 장례 전반적인 일을 주관하고 음식준비, 부고장 돌리는 것 등을 지시한다. 부고장은 집안에 넣지 않으며 보통 대문에 꽂아두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놔둔다.

수의와 상복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집은 베를 떠다가 옷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한다. 음식은 이웃 사람들 혹은 상포계원들이 와서 도와주며, 명정이나 공포, 상여 등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상인들이 짚을 지팡이를 준비하는데 보통 대나무로 만들고 손잡이는 벽지로 감는다.

상복은 상주인 경우 굴건을 쓰고 왼새끼를 짜서 머리와 배 부분을 묶는다. 다른 자식들은 보통 머리에 두건을 두른다.

상여는 상두계원들이 만드는데, 백지를 사다가 물을 들여 꽃을 만들었다. 상여 틀도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한다.

발인하기 전날 상가 집에서 상여를 매는 연습을 하는데, 상여가 나가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발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상가 집에서는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상여소리꾼은 마을에서 잘하는 사람이 맡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 (5) 발인

발인은 보통 죽은 지 3일에 행하는데 유해가 장지를 향해 집을 떠나는 절차를 말한다. 발인을 할 때는 관을 들고 방에서 나오는데, 이때는 복숭아 나뭇가지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문 앞에 바카지를 놓아 이를 깨고 나오기도 한다.

관을 방에서 들고 나온 후 마당에 안치하고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집을 떠나는데, 평소 고인이 자주 다니던 곳을 돌고 마을을 떠나기 전제를 한 번 더 모시는데 이를 거리제라고 한다. 이 때 문상 온 손님을 새로 받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장소를 정해 차일을 쳐 놓기도 한다.

상여가 마을 입구를 벗어나면 여자 상주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 또한 상여가 나가면 지붕에 던져두었던 옷을 내려 태워버린다.

## (6) 장지

시신이 묻힐 장지는 미리 상두계원들이 가서 자리를 마련해 두는데, 풍수지리를 봐서 좋은 자리를 보기도 하고, 선산이나 자기 집 땅에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뒤틀자리가 정해지면 땅을 파기 전에 산신제를 모신다. 이 때 음식은 상갓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간단하게 차린다.

관이 묘소에 도착하면 상여를 분리하고 관만 땅에 묻는다. 관을 땅속에 넣은 후 관 위

를 공포로 닦아내고 명정을 덮는다. 이 때 사용한 공포는 상여를 태울 때 함께 태운다.

하관을 하면서 지방으로 영기를 만들어 상여가 나갔던 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되돌아온다. 땅과 봉분의 높이가 같아지면 평토제를 지낸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봉분을 만들고 상여나 고인의 옷가지 등을 태운다.

## (7) 반혼제 및 탈상

묘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집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따로 영기를 모실 제청을 만들어 놓는다. 평토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는 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 온다. 집에 돌아온 상주는 제청에 지방을 모시고 반혼제를 지낸다. 반혼제를 모신 다음날 제우를 지내고 3일 쯤 지나면 삼우제를 모신다. 이때부터 탈상 때까지 초하루, 보름, 그믐날 상을 올린다.

3년 탈상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 1년 탈상이나 49제를 지낸 후 탈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 (8) 초분<sup>6)</sup>

초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돌을 깔아 적당한 높이로 만든 다음, 그 위에 관을 올리고, 그 주위를 이엉으로 덮은 후 용마름을 해 정리한다. 멀리서 보면 마치 초가집처럼 생겼다. 그 위를 밧줄로 묶어 비바람에 용마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맨다.

이렇게 초분을 만든 후 매년 이엉이나 용마름을 새로 해 만들어 올리는데, 초분으로만 만들었을 뿐 그와 관련된 행위는 매장 했을 때와 차이가 없다.



사진 10. 낭고지에 있었던 초분  
(박종오, 2008년 6월 25일, 하의면 낭구지)

6) 하의도의 초분관행에 대해 필자가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Jong-O Park, 「“Cho-bun”, An Anthropogeneous Landscape in Haei Island, Southwestern Korea」, 『Landscape Ecology in Asian Cultures』, Hong, S.-K.; Wu, J.; Kim, J.-E.; Nakagoshi, N. (Eds.), Springer, USA, 2010.

2008년 조사에서 낭구지라는 곳에서 초분 1기가 조사되었다(2009년 조사 때는 이장되어 없어진 상태였다). 이 초분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묻혀 있는 사람은 박O애(여, 1920년생)이다. 초분은 높이 90cm, 넓이 90cm, 길이 230cm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초분처럼 이엉과 용마름을 엮었으며, 밧줄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하의도에 남아 있는 이 초분은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초분과 모양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땅에 파고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하의도에서도 행하지 않던 방식이다.

보통 초분을 만들 경우에는 관을 평평하게 놓기 위해 비탈진 부분을 돌로 쌓아 수평으로 만든다. 그런데 하의도에 남아 있는 이 초분은 바다에 돌을 쌓아 수평을 맞추는 대신 땅을 파서 기울기를 맞췄다. 이는 초분을 만들 때 소요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분을 만드는 수고스러움을 덜고자 행한 방법이다.

이 초분은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 해 운수가 좋지 않아 협의를 하여 만들었으며 이후 새로 뗏자리를 잡아 정식적으로 묘를 만들 계획이다. 근래에 한국에 남아 있는 초분들의 조성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 자손들의 운수와 관련되어 이야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의도의 초분도 자식들의 운수가 맞지 않아 초분으로 만든 경우인데, 운수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즉 묘를 만들면 살아 있는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하여 땅에 매장하지 않고 초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세심히 관찰해 보면 이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묘를 쓸 땅을 구하지 못했거나, 묘를 쓸 때 소용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단 초분으로 가짜 묘를 만든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



사진 11. 하의도에서 상여가 나가는 모습(박종오, 2009년 4월 19일, 하의면 후광리)

가 생길 때 진짜 묘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하의도에 현재 남아 있는 초분은 그 만드는 방식이나 목적이 전통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제사의례

##### (1) 기제사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 부르며 대상을 지낸 일 년 후부터 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가 기제사이다. 지역에 따라 또는 집안에 따라 음식을 차리고 제를 모시는 방법이 다르다. 기제사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음식을 준비하여 자시에 제를 모신다. 기제사는 고조부까지 4대 조상을 모시며, 그 윗대 조상은 묘제로 모신다.

제사를 모실 때 사용하는 지방은 한지에 붓을 사용하여 만들고, 제수는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기본 과일 등을 성의껏 준비한다.

진설 할 때는 신위 앞에서 메와 국을, 둘째 줄에는 탕을, 셋째 줄에는 전이나 고기류, 나물을, 넷째 줄에는 과일을 놓는다. 그러나 이는 집안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전날에 음식을 장만하여 그날 밤 자시(子時)에 모신다. 진설을 하고 제 지낼 준비를 하는데 보통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를 지내는 순서는 분향강신 - 초헌 - 개반, 삼시 - 독축 - 아헌 - 종헌 순으로 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으로 음복을 한다. 또한 장만한 음식을 조금씩 떼어 내어 집 밖에 버리는데, 이는 잡귀들을 위한 것이다.

제사에 참석한 집안사람들은 보통 쌀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는데, 제사 음식을 담아 돌려준다고 한다.

또한 제삿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는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기도 하는데, 이를 '단자'라 한다. 단자는 음식 바구니에 필요한 음식을 적어 어린아이 편에 보내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집에서 그 바구니에 필요한 음식을 담아 보내는 것이다.

제사를 모신 다음 날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준비한 음식으로 아침을 대접한다고 한다.

## (2) 차례

명절날 집안에 모셔진 4대의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라 한다. 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아침에 지내며 그 대상은 기제사를 모시는 분들이 해당된다. 제물은 기제사와 다를 바 없지만, 설날에는 밥 대신 떡국이 올라가고, 추석 때에는 송편을 올린다. 제를 지내는 차례는 기제사와 같지만, 절은 한번만 올리고 축은 읽지 않는다.

## (3) 시제

5대조부터 묘제를 모시는데, 이를 시제라고도 한다. 시제는 보통 10월에 지내는데, 날을 정해 지내며 조상의 묘에 자손들이 모여 지낸다.

제수와 경비는 문중 소유의 전답에서 나온 돈으로 해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를 정해 돌아가면서 제를 준비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내는 차례는 기제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초헌은 유사나 문중의 어른이 맡아서 한다.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골고루 나눠준다. 이 때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한다.

요즘은 묘에 가지 않고 제각에서 시제를 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각은 원래 시제를 모시기 위한 음식을 장만하고 시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잠을 자던 곳이었다. 간혹,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제각에서 제를 모셨었다.

요즘은 시제 날짜도 자손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 공휴일에 잡는 경우가 많다.

## 6. 민속자원의 활용 방안

- 1) 단절된 공동체 의례의 복원 유도 및 운영 자금 지원
- 2) 전통 건물 복원을 통한 가택신앙 전시 및 관광 자원화
- 3) 전통소금 생산 시설의 관광자원 활용 / 산업화 방안 모색
- 4) 민속 경험자의 가이드 활용

## 1) 단절된 공동체 의례의 복원 유도 및 운영 자금 지원

- **현황** : 하의도에서 행해졌던 당산제는 주민들의 이주와 고령화, 과학화에 따른 미신 치부 등의 이유로 단절되었다. 이러한 당산제는 마을 사람들을 통합하고 살아 있는 민속현장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
- **문제점** : 그러나 복원을 하더라도 이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유지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하의도에서 행해졌던 모든 당산제를 복원시킬 것 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몇 개의 마을에 의사를 타진 한 후 이를 복원할 수 있다면 복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방향** : 먼저, 복원화에 따른 제비(祭費)나 참여 인력에 대한 일정 경비를 군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제를 운영할 주체에 대해 당산제의 지속적 운영이 갖는 의미와 자긍심 등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 2) 전통 건물 복원을 통한 가택신앙 전시 및 관광 자원화

- **현황** : 하의도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가택신앙은 주택개량과 기독교의 유입 등으로 인해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택신앙은 집안,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원하던 전통 풍습이기에 이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 **문제점** : 다양한 가택신앙은 각기 그 형태와 처한 장소가 다르다. 마루와 방안, 그리고 부엌, 마당 등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건물로서의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 가옥을 복원 하고 이곳에 전시하는 것이 좋다.

- **방향** : 하의도에 있는 전통 주택 복원사업은 건축분야에서도 제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단순히 복원된 건축물만을 전시하는 것은 관리적 측면이나 운영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원된 주택은 민박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곳에 가택신앙의 신체들을 전시하고 방문객을 상대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전통소금 생산 시설의 관광자원 활용 / 산업화 방안 모색

- **현황** : 현재 김대중 대통령 생가 터 앞에 하의도에서 행했던 화염 생산 시설물이 복원되어 있고, 이곳에 전시공간을 함께 만들어 두었다. 이곳의 진입로에는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활용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문제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시물은 상주 인원이 없어 관람객들의 필요에 의해 볼 수 있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한 단순히 전시물만을 복원하여 놓았기 때문에 관광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일정 정도 이를 실제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 **방향** : 소금 전시물의 실질적 가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경비 및 인원 배정 등은 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 청년회에 위탁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진입로에 위치해 있는 천일염전을 체험 교육장으로 함께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머물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하의 전통소금과 천일염을 연계한 소금 상품 브랜드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서 실제 판매까지 병행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4) 민속 경험자의 가이드 활용

- **현황** : 보통 민속자원을 공유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은 실제 복원되거나 운영되는 민속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 민속자원 복원 계층이며 교육계층이어야 한다.

- **문제점** : 하의도에서 행해졌던 민속 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유지하며,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를 공유했던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생생한 현장적 개념과 경험적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고령의 나이, 언변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 **방향** : 민속을 공유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칭)하의도 민속가이드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들은 자원 혹은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일정 전문가 교육을 통해 가이드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양성된 분들을 관람객이나 민박, 혹은 전통 민속 프로그램의 가이드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 활용은 일정 금액의 지급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무보수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교통비 지급 혹은 품위 유지비 지급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문화 지킴이로서의 자긍심도 고취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신안군지』, 신안군지편찬위원회, 2000
- 『한국인의 가정신앙-전라남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 『草菴金鍊』, 신안군문화원, 2009.
- 『한국인의 일생의례-전라남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박종오, 「전통 소금 생산 전시 시설의 운용 : ‘하의 소금전시관’ 을 대상으로」, 『호남학연구』 제47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2010.
- 윤형숙 외, 『소금과 새우젓』, 민속원, 2010.
- 이종철, 선영란, 오미순, 「신안군 장산도 · 하의도의 신앙 민속」, 『도서문화』 제3권,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85.
- 이윤선, 「하의도 대리당제(大里堂祭)의 전통과 변화의 함의(含意)」, 『한국도서연구』 18권 2호, 한국도서(섬)학회, 2006.
- Jong-O Park, 「“Cho-bun”, An Anthropogeneous Landscape in Hauli Island, Southwestern Korea」, 『Landscape Ecology in Asian Cultures』, Hong, S.-K.; Wu, J.; Kim, J.-E.; Nakagoshi, N. (Eds.), Springer, USA, 2010.
- 신안군청(<http://www.shinan.go.kr/>)
- 신안문화원(<http://www.sinanculture.net>)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V 어로문화

김경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1. 조사 개요 118
2. 어로문화자원 목록 119
3. 어로문화자원 현황 121
4. 생애사를 통해 바라본 어로문화 135
5. 어로문화자원 활용방안 151



# V 어로문화

## 1. 조사 개요

신안군의 다른 섬처럼 하의도에도 너른 간척지가 있어 농업인구가 많지만, 하의도의 대표적 특산물은 바다와 연안 갯벌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의도와 옥도의 낙지는 그 명성이 자자하며 천일염, 전복, 톳, 김,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전복의 경우 연간 160여 톤을 생산하는데, 이는新安군 생산량의 22%로 대표적 전복 산지인 흑산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한다.

하의도는 총 58개의 도서로 이루어졌는데 본도 외에도 옥도, 장병도, 문병도, 개도, 대야도, 능산도, 신도, 장재도가 유인도(9개)로 주민들이 거주하며, 나머지 49개의 무인도가 있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129.8km이며, 갯벌의 면적은 18.7km<sup>2</sup>이다.

하의도의 갯벌은 크게 하의도 북쪽의 장병도와 후광리 사이의 '큰빨'과 옥도 남쪽으로 신의면까지 길게 형성된 '옥도빨'로 구분할 수 있다. 갯벌 외에도 암반으로 이루어진 연안인 샷갯바위 일대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도해변 등 다양한 형태의 연안을 가지고 있어 해양생물종다양성이 뛰어나며 이를 이용하는 어로방식과 음식문화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하의도의 특징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하의도의 갯벌과 어로문화를 중심으로 자원화가 가능한 내용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갯벌을 이용해 살아온 주민들은 바다와 갯벌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자연 대상을 자신들만의 지식과 경험체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체계화된 방식을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지식과 경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준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실에서,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면서 인간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토착지식의 발굴과 적용에 있다고 하겠다. 그 내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하의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2. 어로문화자원 목록

하의도의 어로문화자원을 정리하면서 먼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진 연안 지역을 구분해 보았다. 하의도는 갯벌과 암반, 사구가 고루 잘 발달되어 생물종다양성이 무척 높은 곳이다. 해양생물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고유한 환경을 선호하고 그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연안환경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역주민들도 독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오면서 다양한 해양 동식물을 생산하고 채취해 왔으니 그 각각의 문화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식처의 다양성은 생물종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생물종의 다양성은 인간문화의 다양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갯벌과 연안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해당 지역과 연계해 갯벌과 연안생산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이해도를 높였다.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교통문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말한다. 특히, 섬에서 다시 섬으로 연결되는 곳은 그만큼 어려움이 크다. 하의도에는 본섬을 제외하고도 유인도가 8개가 있는데 가까운 섬을 중심으로 나루터가 잘 발달되었다. 1983년 이전까지는 '하의3도'라고 해서 하의도와 상태도, 하태도가 하의면에 속해 있었다.

과거에 활발했던 나루터는 하의도-상태도, 하의도-하태도, 그리고 하의도-능산도 코스에 해당된다. 오랫동안 연안의 항로를 이용해 온 하의도 주민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나루

터를 통해 정리해 두었다. 나룻배를 어떻게 운영했으며, 어떻게 물길을 효과적으로 거슬러 다녔는지에 대한 경험을 배울 수 있다.

바다 시장이라고 부르는 ‘파시’도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적인 의미가 커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문화도 몇 가지를 포함시켰다. 더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기록을 했으며, 다른 곳에 따로 음식문화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산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동초를 이용한 인동청주, 인동막걸리도 이곳에서 소개한다.

구 분	자 원	개 요
갯벌연안	큰 뺨	후광리와 장병도 사이의 너른 갯벌로 낙지, 칠게, 김 생산으로 유명. 큰뺨을 가로지르는 노두길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음. 김대중 생가와 연계 프로그램 가능
	옥도뺨	옥도에서 신의면까지 남쪽으로 길게 형성된 갯벌로 길이와 넓이, 경관측면 면에서 신안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 낙지와 굴, 김 생산지로 유명. 옥도역사 문화유적과 연계가능
	삿갓바위	피섬선착장 남쪽에 위치한 연안으로 삿갓모양과 로봇모양의 암반이 넓게 분포함. 각종 해조류와 굴이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물 관찰(생태체험가능)에 매우 적합한 곳임
	신도해수욕장	하의도 서쪽에 위치한 유인도로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은 경관이 아름답고, 각종 패류가 생산되며, 사구에는 다양한 염생식물이 서식함. 국립공원에 포함됨
나룻터	능외나루	하의도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당두선착장과 능산도를 연결하는 나루터. 현재도 이용되고 있음
	벌섬나루	하의도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봉도선착장과 신의면 기동마을을 연결하는 나루터로 현재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연도교 공사가 착공됨
	거북바위나루	하의도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구암선착장과 신의면 상태를 연결하는 나루터로 현재는 폐쇄된 나루터임. 옹곡에서 연결됨
파 시	봉도꽃게파시	1960년대 말 꽃게어선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꽃게어장 쇠퇴로 사라짐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문화	낙지연포	낙지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식초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드는 하의도 특유의 음식임
	전복회, 전복죽	대표적인 고급 패류로 회나 죽을 만들어 먹는데, 인삼을 넣은 전복죽은 회복기 환자에게도 좋은 건강식
	갈파래국	마을공동체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로 돼지뼈와 함께 오랫동안 삶는데 그 맛이 일품임
	바위웃우무	바위에서 채취한 바위웃으로 우무를 만든 다음, 각종 양념을 넣은 양념장을 뿌려 만드는 음식
	물, 톳, 미역 등	기타 각종 해조류는 슬로푸드, 건강식으로 각광 받고 있음
	인동청주, 막걸리 <sup>1)</sup>	인동초 꽃과 다양한 약초,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누룩으로 빚은 맑은 노란색의 인동청주와 인동막걸리

1)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주류)은 아니지만 따로 하의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소개함

### 3. 어로문화자원 현황

#### 1) 갯벌과 연안

##### (1) 큰빨과 옥도빨

‘큰빨’은 하의도와 진절(장병도) 사이에 있는 넓은 갯벌지역을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큰빨은 길이가 3~4.2km에 이르며, 평균 폭은 2km에 이른다. 큰빨의 남쪽은 매우 미세한 펄인 펄갯벌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쪽 장병도로 갈수록 모래가 일부 섞여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장병도 가까이에선 굴도 번성하고 있다.

원후광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큰빨 서쪽으로 무인도인 대죽도와 소죽도가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간조시 두 섬 사이가 모래톱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큰빨 동쪽에도 무인도인 내황도(일명 노랑섬)가 있는데, 2001년 장병도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갯벌 중간에 위치한 이 섬에 철탑을 세워 전선을 연결했다. 큰빨은 후광리 지역주민들과 장병도 주민들이 주로 낙지채취나 김양식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옥도빨은 옥도와 신의면 북쪽 ‘치섬’에 이르는 남북 최대 길이 5km, 최대 폭 1.8km에 이르는 빨이다. 간조시 드러난 옥도빨은 면적이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신안을 대표할 수 있는 갯벌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도빨은 옥도와 장병도 주민 뿐만 아니라 하의본도와 멀리 목포에서 온 주낙배들이 야간에 낙지잡이 장소로 이용한다.

장병도의 한 노인은 큰빨과 옥도빨을 한마디로 정의해 그 특징을 나타내 주었다.

“빨이 좋기가 하의 큰빨이 더 좋습니다. 말하자면 밥으로 하면 하의도 큰빨은 찰밥이고, 옥도빨은 뭍쌀밥이지라.” (장병도 거주, 이태관, 85세)

흰쌀밥도 좋지만, 찰쌀은 훨씬 더 향기롭게 맛있지 않은가. 이 두 갯벌은 그렇게 최상의 평가를 받으며 지금도 나란히 마주보고 누워있다.

##### • 다양한 이름의 갯골 이름들

주민들은 넓게 드러난 ‘갯등’에 대해 자세히 구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갯골에 대해서는 민감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인식하는 큰빨 갯골들의 이름을 보면 ‘맨물개’, ‘칠리지개’, ‘큰맛개’, ‘작은맛개’, ‘사머릿개’ 등이다. 옥도빨에는 ‘집앞개’, ‘갈머리개’, ‘솔개’, ‘간담개’, ‘구렁개’, ‘성지개’, ‘뚝병개’ 등이 있다. 주민들에게 갯골을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 갯벌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의미 외에도 위험을 감지해 그로부터 회피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완전 간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낙지를 찾아다니며 갯골을 넘어 다니기도 한다. 갯골은 경사가 있고, 미끄럽지만 물이 빠져 바닥을 볼 수 있어 주의한다면 건너다닐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갯골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는 시각적으로 갯골의 바닥을 볼 수 없어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발이 빠지는 정도도 달라져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어떤 코스를 이용해 육지로 걸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여러 ‘개’들의 위치와 특징, 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사진1. 큰빨에 추진되었던 노두길(장병도)



사진2. 물이 빠진 갯골을 건너는 낙지잡이 주민

### • 큰빨을 가로지르는 노두길 조성공사 중단

7~8여 년 전 큰빨을 가로지르는 2.1km의 노두(도로)가 계획되고 추진되었으나 곧 사업이 철회되고 그대로 중단되었다. 당시 장병도 주민들에 의해 ‘수동이 사업’이라고 불렸던 이 계획은 장병도 출신의 군의회 의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갯벌보전 정책에 정반대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노두길은 지금도 원후광마을과 장병도 남쪽 소장병도 ‘우끝’에 그대로 남아 있다. 본도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약 200m를 건설했고, 장병도는 약 70m를 건설한 뒤 중단된 상태이다. 장병도 주민들은 그토록 원했던 본도와의 왕래길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반면 본도 주민들이 갯벌을 훼손하게 될 노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똑같이 큰빨의 생태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장병도 주민들과 본도 주민들 사이에는 이처럼 분명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본도 주민들에게는 노돛길 중간에 물이 소통하도록 터널을 만들더라도 인공구조물이 만들어지면 흔히 다른 지역에서 보았던 것처럼 갯벌에 큰 변화가 밀어 닥칠 것이란 걱정을 했다. 마침 당시 중앙정부도 갯벌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안군 일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두 건설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노두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장병도에 거주하는 주민 15호를 위해 그렇게 큰 토목공사를 벌일 필요가 있었을까?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노두는 갯벌현장체험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갯벌을 보전하게 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무분별한 갯벌매립이 가져오는 환경파괴의 기념물로 활용할 수 있다.

## (2) 샷갯바위와 신도해변

피섬선착장 남쪽에 위치한 샷갯바위 일대 암반지역은 독특한 경관을 보유하면서도 각종 해조류가 서식하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장소이다. 간조시에만 드러나는 일대의 넓은 바위에는 갈파래, 듬북, 툇, 가사리, 굴, 고둥 등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고, 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이용한다면 건강식이자 영양식인 로컬푸드(Local Food), 슬로우푸드로 활용할 수 있다

샷갯바위 근처 암반에는 로봇이 누워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도 있어, 로봇바위 명명식을 하고 널리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이곳은 갯벌과 차별되는 암반해양동생물을 관찰하는 해양생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사진3. 간조시 드러난 샷갯바위



사진4. 샷갯바위 근처에 '로봇바위'가 누워있다.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신도에는 800m 길이의 모래해변 해수욕장이 넓게 펼쳐져있다. 하의도 유일의 해수욕장으로 해변의 사구에는 다양한 염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엽낭게와 달랑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 가능한 곳이다. 봄철에는 개미지옥을 만들어 먹이를 포식하는 명주잠자리 유충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로 활용가능하다.

## 2) 갯벌생물과 해조류 채취

### (1) 낙지와 통어리

하의도를 대표하는 바다생물로는 낙지를 들 수 있다. 하의도 낙지는 대표적으로 큰빨과 옥도빨에서 대부분 가래(삽)와 ‘뚜껑(묻음)낙지’ 등으로 잡는다. 야행성인 낙지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해 철계를 미끼로 한 낙지주낙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관찰되지만 하의도 주민들은 여기에 종사하지 않는다. 다만 목포를 비롯한 인근에서 야간이면 큰빨과 옥도빨 위에서 주낙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토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이용해 낙지를 포획하기 때문에 하의도 낙지는 다른 지역(예, 압해도나 무안지역)의 낙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하의도 낙지는 크기도 비교할 수 없이 굵고 크고 그만큼 값도 비싸다.

무안군이나 압해도 낙지가 한 접 당 5~6만원을 할 때도 하의도 낙지는 1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하의도 낙지가 비싼 이유는 물론 낙지 크기가 큰 탓이다. 유독 하의낙지가 비싼 값을 받는 것에 대해 하의낙지가 다른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주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제기한 중금속 낙지 파동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결국 중금속이 검출된 낙지가 중국산 낙지로 판명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였다.

흔히 가을철에는 세발낙지가 제철이라고 낙지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도에서는 여전히 굵은 낙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역 어민들은 낙지가 1년에 두 번 산란을 하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비취 이야기한다.

“내 젊어서부터 이날 평생까지 낙지를 잡고 있는데 낙지 저것이 어떻게 해서 1년

이면 종자가 두 번 생기는지 모르겠어. 한번 생긴 것이 아니라 일년이면 두 번 생겨요. 말하자면 겨울에 큰 낙지는 여름낙지거든요. 그런데 또 (겨울에) 잔낙지가 있습니다. 큰낙지하고 작은 낙지가 종자가 틀립니다. 큰낙지는 초여름에 생긴 것은 더 굵고, 가을에 생긴 것은 더 작습니다. 그란디 가을낙지는 다 커도 잘아. 여름에 생긴 낙지가 크고, 낙지는 같은 낙지인데, 생기는 때가 틀려요. 여름하고 가을하고. 여름에 생긴 것은 금년에 음력으로다가 4월달이면 거미만씩해요. 4월금(그믐) 오월달이 되면 먹을 만큼 커집니다. 요즘에는 엄청 굵습니다. 머리가 주먹만치 큼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생긴 것은 커다란 것이 요만큼씩 해요. 그것은 많이 커도 요만큼씩밖에 안되요.” (장병도 거주 이태관 옹, 85세)

장병도에는 잡아둔 낙지를 일시 보관하기 위해 ‘낙지통어리’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는 것 보다 장점이 많다. 통어리는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바구니로 약 20년 전까지 목포나 인근 어촌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수족관의 탄생으로 사라진 어구가 되었다. 통어리가 여전히 낙지보관용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2001년으로 당시까지 전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 원시적인 방식의 통어리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어리를 바다 속에 넣어두면 대나무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과 유기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낙지가 훨씬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사진5. 장병도에서 사용하는 낙지통어리



사진6. 큰빨에서 낙지 잡는 지역주민

## (2) 전복

흔히 전복은 맑은 바닷물에서만 산다고 알려져 있어 완도나 흑산도 같이 갯벌이 없는 곳에 주로 전복양식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하의도 부속도서인 장재도의 한 주민이 일본을 방문해 갯벌지역에서 전복양식하는 사례를 보고 돌아와 1997년 하의도에 처음 전복양식을 도입했고, 2001년 전복해상가두리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됐다.

하의도가 전복양식에 유리한 것은 전복의 먹이가 되는 미역과 다시마가 연중 생산된다는 점이다. 완도의 경우 다시마가 봄철에 집중 생산되고 여름 이후에는 생산량이 떨어져 가공된 다시마를 사료로 제공한다. 이에 반해 하의도는 수온이 따뜻해 미역과 다시마가 연중 생산되어 가공하지 않은 다시마를 먹이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갯벌의 영양이 풍부해 갯벌 속의 다양한 무기질(예컨대, 게르마늄 등의 영양소)을 다시마가 섭취함으로써 이를 먹고 자라는 전복의 맛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동일 종류의 육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하의도산 전복을 선호하고 있다.

하의도 전복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껍질이 얇으며 살이 통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 부경대 김태용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해수가 맑은 남해안(예컨대, 완도 인근해역)의 경우 낮에는 전복이 먹이활동을 중단하고 어두운 밤에만 먹이활동을 한다. 그러나 갯벌로 인해 해수 탁도가 높은 하의도 연안의 경우는 해수가 낮에도 탁하고 어두워 전복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먹이활동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의도 전복은 타지역 전복보다 kg당 최고 1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여전히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현재 하의도에만 30가구 이상이 전복양식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160톤의 전복을 생산해 9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사진 7. 하의도에서 생산된 전복



사진 8. 하의도 최초의 전복가두리양식장(장재도 김해산 소유)

### (3) 김

하의도에서 김이 양식된 것은 1950년대로 알려졌다. 현재 김면허 양식장은 265ha에 달하며, 연간 40만속을 생산해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의도 김은 대부분 지주식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맛이 좋으며, 특히 옥도는 맑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질 좋은 김이 생산되고 있다.

김생산은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그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1년 내내 김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을에 김 포자를 심고, 배양하며, 김발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다. 한번 수확을 하면 다시 김이 자라는 시간이 20일에서 25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꼴로 물김을 수확하는 셈이다. 이렇게 3월이나 4월까지 김생산을 한 후 다시 한해를 준비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

하의도에는 김공장을 통해 마른김을 제품으로 생산하기도 하지만 물김을 출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공장에서 가공할 경우 가공료, 선박운임,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면 톤 당 수입이 1,5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힘들게 10,000속을 생산하더라도 총 수입은 1,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물김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4) 각종 해조류 외

무인도와 연안 바위에는 각종 해조류들이 자라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간단한 도구나 손으로 채취해 바로 이용하거나 건조한 후 연중 이용하고 있다. 하의도 연안에는 갈파래, 톳, 바위웃(독웃), 모자반(물), 듬북 등 다양한 해조류가 자란다.

독웃(바위웃)과 갈파래는 7월과 8월에 주로 성장하므로 그때 대부분 채취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 채취한 해조류를 잘 말렸다가 밀봉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위웃(독웃)의 경우 잘 말린 것은 1kg당 4만원에 거래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는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자반(물)은 주로 겨울에 채취하며, 봄철에 잘 말렸다가 연중 먹을 수 있다. 자연산 모자반도 있지만 능산도 일대에서는 대규모 양식에 성공해 겨울철 가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생산된 모자반은 부산이나 진도의 가공공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역과 다시마는 대규모로 양식을 하며 대부분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상품

화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과거 유럽과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seaweed(바다쓰레기)’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맛과 효능이 알려지게 되면서 ‘sea vegetable(바다채소)’이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오랜 세월 우리지역에서 이용되어온 해조류는 건강식이자 대표적인 지역음식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조류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도서 지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갈수록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

### 3) 나룻터의 유래와 역사

하의도에는 무동력선 시절부터 능피나루, 별섬(뽕섬)나루, 거북바위나루 등 3개의 나룻터가 운영되었다. 현재는 거북바위나루만 제외하고 두 곳에서 여전히 동력선을 이용한 나룻배가 운영 중이다.

능피나루는 능산도와 하의 본도인 대리 당두를 연결하는 나룻터로 현재까지 정기적인 나룻배가 운영 중이다. 사공은 늘 능산도 주민들이 맡아왔으며 1972년경 무동력선이 동력선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나룻배가 무동력선이었을 때는 ‘배질’(배운전)이 익숙한 사람이 사공을 맡았다. 혹시나 서로 사공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마을 회의를 통해 한사람을 사공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나룻배를 운영하는데는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가령, ‘선박에서 수명이 다한 부속이나 부품은 동네에서 비용을 대지만, 사공의 실수로 인한 손해는 사공이 맡는다’, 또는 ‘매년 나락 두말씩 사공에게 엿가로 제공한다’ 등이었다. 현재 능피나루에서 사공은 맡은 이는 2년간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끝나면 마을 주민 중에서 다른 사람이 새로 맡아서 할 수가 있다.

별섬(봉도)나루는 하의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봉도와 신의면 기동마을을 연결하는 나루로 흔히, 하태나루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봉도에 목포-하의간 여객선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당시에는 하태도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하의 응곡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도 매일 나룻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신의면 기동마을의 여성 노인이 현재도 비정기적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이곳은 하의-신의간 연도교 공사가 완공될 경

우 나룻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거북바위나루는 신의 상태와 하의 거북바위를 연결한 나루터로 1970년대 동력선의 등장 전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그 후 쇠퇴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는 하의도 옹곡에서 신의 상태 당머리까지 연결되는 철부선이 있어 이 나루터를 대신하고 있다.

## (1) 옛가의 의무

하의도 세 곳의 나루터에서는 사공이 배를 가지고,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했으며, 하의도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이 이처럼 어느 나루터의 배나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옛가’라고 하는 비용을 보리나 나락으로 매년 봄과 가을 사공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의본도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 능피나루 사공에게는 능산 주민은 물론 하의 본도의 대리1구, 2구, 후광리 1구, 2구 주민들이 옛가를 제공해야 했다. 벌섬나루 사공에게는 봉도, 오림, 피섬, 어은 주민들과 (신의면) 하태도 주민 전체가 옛가 제공 의무를 졌으며, 거북바위나루는 옹곡 1, 2, 3구 주민들과 (신의면) 상태도 주민 모두가 옛가 제공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옛가로 제공하는 쌀이나 나락의 양은 세대마다 사정에 따라 달랐으며, 설령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하거나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지는 않았다.

사공들은 옛가 외에도 외지인들을 태워주거나 가외의 일을 통해 별도의 수입을 얻을 수도 있었고, 마을에서도 그 정도는 배려해 주었다. 이 때문에 사공들은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옛가가 사라지고 없으며, 벌섬나루의 경우에는 개인이 도선비만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능피나루의 경우 운영비 전액을 신안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 (2) 사공의 토착지식 - 골물과 건지를 이용한 나룻배

밀물은 하의도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올라가고 썰물 때는 해류흐름이 반대로 진행된다. 즉, 썰물은 북에서 남으로 해류의 흐름이 진행된다. 하의도와 신의도 사이 수로입구에 위치한 봉도의 경우 밀물에 밀려드는 해류가 곧장 수로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바위나 곳에 부딪쳐 되돌아 나오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주민들은 ‘골물’과 ‘건지’로 구분해 인식하고 있었다. 즉, 밀물이나 썰물 때 자연스런 그대로의 큰 흐름으로 이것을 ‘골

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골물이 어떤 연안의 장애물(곶, 만)에 부딪히게 되면 반대로 되돌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건지'에 해당된다. 골물과 건지 사이는 '뒤건지'로 주민들은 '들끓는 물'이라고 표현하며, 이곳에 배가 들어갈 경우에는 배가 빙글빙글 회전하게 되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물의 흐름이 센 사리에는 두 나루터 간에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때는 건지를 이용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 다음 골물에 배를 밀어 넣어 골물을 타고 내려오면서 목적지로 힘차게 건너다녀야 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물의 흐름이 센 사리 때 나루터 간을 건너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봉도는 가거도와 목포를 오가는 풍선배와 소규모 동력선들이 중간에 기항하는 곳이었다. 가거도에서 만재도를 지나 하의도에 가까이 오면 그때 처음으로 배를 접안하고 물이나 술을 공급받아 다시 항해를 하던 길목이었다. 이 배들은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들어오지 않는 좋은 '석'자리를 찾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바로 '덜정머리 끝'이나 '다순기미'였다. 이곳에만 들어오면 '뉘'라고 불리는 '너울과도'와 '나미'라는 울렁거림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봉도는 천혜의 피항지, 나루터로 유래가 깊은 곳이다.

#### 4) 봉도꽃게파시

하의도 남쪽 봉도에 꽃게 파시가 형성된 것은 1970년대부터다. 당시 봉도는 목포와 하의도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종착지였으며,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인근 바다에서 꽃게를 잡은 어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이 필요로 하는 기름과 의류, 술을 제공하는 가게가 등장하게 되었고, 파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선들이 집중된 것은 꽃게축양장 활성화 때문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꽃게가 출하될 때는 값이 무척 싼다. 하지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꽃게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가령, 여름철 백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꽃게를 열 마리 넘게 사던 것이,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세 마리 1kg에 7~800원까지 올랐다. 불과 4개월만에 30배 이상의 시세가 나는 것을 본 한 지역주민이 염전 저수지에 꽃게를 넣어두고 키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넣어둔 꽃게의 약 30% 정도만 회수할 수 있었는데, 곧 8~9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것이 최초의 꽃게축양장이 되어 성공하자, 인근에 축양시설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꽃게어선들의 수입도 높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꽃게축양장을 직접 운영해 꽃게를 받아야 키웠다가 판매했지만, 곧 선주들의 요구로 축양장 주인은 축양장만 빌려주고 관리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꽃게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가령, 100마리를 축양장에 넣어두고 선주는 나중에 50마리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축양장에서 자라는 꽃게 생존율이 60%일 경우 축양장 주인은 10%의 이익을 얻고, 80%의 생존율일 경우에는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떠한 방식이든 꽃게 배들이 봉도를 찾아오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큰 이익을 달지 않고 이와 같은 거래를 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봉도일대는 자연스럽게 꽃게파시가 형성되었고, 대형냉동고를 비롯해 몇 곳의 가게들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파시에서 볼 수 있는 술집이나 식당은 없었고 가게에서 술을 사서 먹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유지되던 시장은 1985년경 꽃게어장의 쇠퇴로 꽃게생산량이 급감하자 어선들이 폐업하게 되면서 파시는 급격하게 몰락하고 말았다.

현재는 당시에 운영되었던 냉동창고와 가게 건물 등 몇 개의 건물만이 당시의 번성했던 봉도꽃게파시의 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사진 9. 봉도꽃게파시 당시의 냉동고



사진 10. 봉도에서 당시 술을 팔던 가게

## 5)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문화

### (1) 낙지연포

하의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은 단연 낙지라고 할 수 있다. 큰빨과 옥도빨에서 잡히는 낙지는 크기가 크면서도 부드러워 인기가 높다. 낙지를 이용한 요리가 다양하지만 하의도에 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요리로 ‘낙지연포’를 들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연포탕’이라



사진 11. 낙지탕탕이



사진 12. 낙지연포

고 해 뜨겁게 끓인 요리인 ‘탕’을 먹는데, 이곳에서는 낙지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 찬 물에 식초와 각종 양념을 넣어 시원하게 먹는다.

주민들은 “부드러운 낙지를 계속 끓이면 질겨지는데 왜 오래 끓이냐”며 식초국에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한다. 시원한 낙지연포는 숙취해소에 특히 효능이 좋다.

## (2) 전복

하의도에서 전복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향후 하의도를 대표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전복은 패각을 분리해 전복살과 내장을 회로 먹기도 하지만, 전복죽으로 먹는 것도 맛있다. 전복죽은 찹쌀과 모실을 1:1 비율로 씻어 물에 불린 다음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전복 내장을 볶아낸다. 냄비에 불린 쌀과 전복내장, 전복살, 인삼, 대추 등을 넣고 7배의 물을 붓고 문근히 끓인 후 소금 간을 한 후 먹는다.

## (3) 갈파래국

여름철 갈파래가 생산될 때 채취해 잘 말려두고 필요할 때마다 된장과 함께 넣어 끓여 먹으면 좋다. 특히 마을공동행사 때나 명절, 애경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로 돼지고기(돼지뼈)와 함께 삶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돼지뼈가 물러질 정도로 삶아도 갈파래는 물러지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워져 더욱 맛있게 된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함께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13. 지주식 김양식장에서 김채취



사진 14. 능산도에서 햇볕에 갈파래를 말리고 있다.



사진 15. 갯바위에서 자라는 갈파래



사진 16. 갯바위에서 자라는 들북

#### (4)바위웃우무

바위에서 채취한 바위웃을 두드려 잔돌을 제거한 다음 찬물에 잠길 정도로 넣고 약한 불로 1~2시간 저은 후 체에 밭여 국물을 받아두면 바위웃우무가 된다. 굳은 우무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 다음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깨, 마늘, 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 후 바위웃우무 위에 끼얹어 내면 된다. 가족행사나 농사철 인부들에게 간식으로 내주면 인기가 좋다. 변비에는 최고의 특효약이다.

#### (5)모자반, 툇, 미역 등

모자반(일명 '몰'), 툇, 미역 등은 연안 바위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일부는 양식을 통해 대량생산을 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몰이라고 부르는 모자반은 능산도에서 대량 양식을 해 판매하는데 부산이나 진도 가공공장으로 판매가 되기도 한다.

툇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해조류로 툇장조림이나 콩나물과 함께 무쳐먹기도 한다. 과



사진 17. 바위웃우무



사진 18. 인동청주



사진 19. 조세로 물을 채워하는 여성



사진 20. 통통마디(함초)를 이용한 다양한 로컬푸드 개발 가능

거에는 보리쌀과 함께 툇밥을 해 먹기도 하는 등 구황식품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밖에도 갯벌 상부에 위치한 곳에는 다양한 염생식물이 자라는데 특히 함초라 불리는 통통마디는 다양한 한방효능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함초를 이용한 함초탕 수육이나 함초고추장을 만들어 지역특산품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 6) 인동청주, 인동막걸리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에서 그의 향기를 떠 올릴 수 있는 것은 비단 생가뿐만 아니라 노란 인동초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름에 걸맞게 겨울을 이겨내고 노란 꽃을 피워낸 것을 보는 것도 놀랍고 감동적이지만, 맑고 노란 빛깔의 인동주를 보면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지역에서 토착적인 방식으로 빚어낸 인동주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피는 인동초 꽃 외에도 당귀, 계피, 감초, 삼지구엽초를 넣고, 직접 재배한 쌀로 누룩을 만들어 빚는다. 인동막걸리의 윗부분은 맑은 노란색의 인동청주가 되고, 아랫부분의 인동막걸리는 짙은 노랑 빛

을 띤다. 하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토속주이면서도 현행법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애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동주 외에도 인동꽃차도 맛과 향이 좋아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에게 판매될 수 있다.

## 4. 생애사를 통해 바라본 어로문화

### 1) 박행순 선생의 생애사

- 일 시 : 2010. 12. 18(토) 오후8시-9시30분
- 장 소 : 하의면 봉도 자택
- 대 상 : 박행순(73세)

윗마을, 유희리에서 태어났어요. 오림2구죠. 거긴 바다 없어요. 제가 나이로 그냥 계산해서, 27살 때 부터 바다 일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당시 해태를 했어요. 해태 해가지고 한 4-5년 됐던가 해서, 잘되고 해서 여유가 생겨서 여기(봉도) 끝애다 집을 짓게 됐어요. 여기 살면서 해태도 하고, 미역포자 배양도 하고, 그 당시에 다시 마가 없었기 때문에 미역하고 김만 조금 하다가, 여기가 원래 여객선 정착지입니다. (배들이) 전부 다 닿았어요.

#### 봉도 꽃게 파시의 시조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1970년대일거요. 배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드라고요.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들이 이 바다에서 꽃게를 잡아오는데, 여기가 나리끝이고 그러기 때문에 팔다 못 팔면 객선으로도 보내고, 사람들이 빈번이 오고, 꽃게가 가을에 막 나오면 굉장히 싸요. 지금 돈으로 해서 지폐인데, 백원에 열 몇 마리씩 합디다. 그 당시에. 열세마리씩. 아, 그런데 그놈이 조금 있다 보면은 1킬로에 200원, 300원으로 올라갑디다. 한 마리에 50원씩 해서 7-80원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비싸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중에 눈 폭폭 오고 깊은 시안이 닥치면 더 올라가요. 1킬로에 7-800원까지 올라가요. 두 마리나, 세 마리에.

그래서 그놈을 보고, 저 놈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값이가 좋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염전이 있으니, 염전 저수지에 길러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오는지 봤더니, 한 30%가 살아남습니다. 그대로 방치했더니, 그런데 나중에 30%만 나와도 괜찮다 했는데, 차츰 하니까 개선돼 가지고, 7-80%, 8-90%가 나오네요.

시세 더 주고 사도 암놈을 사다가 넣어두면 시세가 올라가니까. 숫놈을 그렇게 안 올라가고. 그것이 일종의 축양업인데, 축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염전이 10여정이 있었는데 염전 저수지가 적고 하니까 염전을 팠어요. 장비를 갖고 팠어요. 포크레인을 2대를 사다가 툄로 쪽 팠어요. 밖에다 막고, 나 외에도 딴 사람들도 더러 했어요. 그것이 한참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꽃게배 선주들)이 잘 안 팔라고 해요. 잡는 사람들이. 잘 안 팔라고 해요.

그래서 와리로 한 것이죠. 받아주면 얼마를 살려 준고 하니. 예를 들어 10킬로를 받으면 5킬로를 내 주기로 하고, 그러면 죽어 불고, 7킬로가 남으면 2킬로가 남잖아요. 8킬로가 살면 3킬로가 남고. 쉽게 말하면 전당포처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축양장에 와서 맡긴다는 거예요. 파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키웠다 나중에 받을란다. 그래 가지고 몇 개 회사가 붙어가지고 서로 사오고 그러니까, 나는 양어장이 원래 염전이 10정 되고, 나머지가 2정 해서 12정, 밖에 땅까지 하면 15정 정도 됐을 것이요. 우리 땅에다 다 이용을 못하니까, 회사들한테 빌려주고 빌려준 값을 적당히 줌 받았죠.

나는 왜 축양장을 유치하려고 했냐면, 선구점도 했지만, 기름, 주류라든지, 피복 같은 뻐사람이 필요한 것을 많이 대 줬기 때문에. 장사가 됐기 때문에 배를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파시가 된 거예요. 많이 되니까, 많을 때는 한 30척씩 들어 옵니다. 매일 들어와요. 밤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매일같이, 한 10여년 나마 그런 짓거리를 했을 것이요.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했어요. 그것을 보고 파시라고 했지요.

### 배석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다

60년대에는 내가 알기로는 배가 조금 들어왔고, 꽃게배가, 그리고 대개 배가 영세했어요.

(당시에 배가 들어온 이유는 여객선으로 널려고 들어온 것인가요?) 첫째는 여객선이 다니니까 편리한 점이 많았겠죠. 객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고, 내가 장사를 한 것은 60년대 부터 했는데, 우리에게 물건을 구입하러 많이 들어왔어요.

(60년대는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장사는 죽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파시비슷하게 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잘잘한 2층집들 있습디까.

(그 2층 집들이 장사한 집들인가요? 선생님은 기름, 피복을 했고, 술을 팔거나 식당은?) 옆에 집들이 했어요. 잠은 재워줬지만 여관은 아니였지요. 식당은 서너집이 했을 것어요. 몇 집 안했어요.

(식당 겸 술집이요?) 예, 우리가 소주 도매업을 했어요. 하의도에서 많이 팔 때는 한 3천 상자를 팔디다. 열대짜리 보해 나무상자에 들어간 소주가 3,400상자까지 팔립디다.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술이 다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와요?) 예, 보해양조하고 조선맥주하고.

(그러면 연도를 한 번 따져볼까요? 30살이라고 하면 43년 전이죠, 60년대 말이에요.) 그러겠소. 우리가 장사를 하고 나서 바로 파시가 형성됐으니까.

(그 당시에 동네사람들은 장사를 안했어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꽃게배들 때문에 장사를 하신 건가요?) 실은 장사라는 것이 배도 들어오지만은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합디다. 객선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객선은 언제까지 다녔습니까?) 안다닌지가 20년도 안됐을 겁니다. 15년도 안됐겠소. 우리가 부도난 뒤에도 배가 죽 다녔으니까. 면이 분리되면서.... 철부선 다니면서 여기에 안다녔어. 내가 알기로는, 농협 철부선 다니기 전에는 계속해서 다녔죠.

(그 당시에 옹곡은 그래도 큰 곳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배는 여기보다 안 닿았죠. 거기는 객선이 정박도 안하고, 별배 안 닿았어요. 지금이 배들이 많이 닿제, 여가 항상 배가 많이 다녔죠. 지형적으로 여기가 '석' 이에요.

여기는 정등이 바다인데, 배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등해. 예를 들면 시하해. 여기가 시하해예요. 저 너머가 만호해. 그러지요. 바다 이름이.

(여기는 정등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해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래로 배석이 없어요. 진도 서망 쪽으로 올라오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배석이 못돼요. 물이 써 버려요. 그리고, 이 안에 가 배석이 있어요. 북서풍이 불면 의지할 수 있어요. 여기가 특 터진 곳인데 여가 배석자리가 못돼요. 도초 아래쪽에도 없고, 도초하고 비금 사이에 서남문대교라고 있죠. 거기가 배석자리가 돼요. 그 다음에는 배석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소흑산도 있지 않습니까, 소흑산도 배가 목포에 들어갈려면 반드시 여기에 왔어요. 우리 선조도 소흑산도에서 왔습디다만, 여기서 쉬어 갈라고, 석이 없으니까. 우리 선조도 소

흑산도에서 왔지만, 그런 자리는 다 부락이 있어요.

(가거도에서 와서 멈췄다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깁니다. 이 안쪽에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덜경머리 끝.

(그런데 여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여가 집이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가 우리 산 섬이 아납니까? 여가 또 (가거도 배들이) 섰었어요. 여기도 집이 있었어요. 우물도 있고,

(여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는 다순기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로 여기 덜경머리 끝에 섰었어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물도 있고, 막걸리도 마시면서 쉴 수 있었던 곳이죠?) 옛날에는 풍선 아납니까. 소흑산도가 여기 있고, 올라오면, 만재도가 있습니다. 만재도가 지 나올 때 만재도 바다. 매무리섬이라고 매물이 바다. 그리고 인자, 그 사람들이 배질을 할 때, 코스가 지그재그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야 있어 불고 목포로 향했죠. 아주 있어 불고 가죠. 여기만 들어와 불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배질을 했죠.

(그래서 봉도가 큰 역할을 했네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소흑산도 배들이 닿았어요.

(서른 살 때 동력선으로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는 풍선을 못 봤어요. 웃마을에 살았으니까 못 봤는데, 내가 살 때는 동력배지만 소흑산도 배가 간혹 왔어요.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만, 깜깜해, 잠자고 있으면 깨요. 눈 비비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오면 대개 콜라 같은 것, 소주 같은 것을 주라고 하죠. 그 당시에 가게를 막 할 때니까. 한번은 잠자고 일어나서 사이다 콜라가 전부 이홉짜리 병에 담아 팔 때입니다. 그것이 저 뿔이나, 장 담는 것 있죠. 간장원료 그 이름이 뭐요? 그 놈을 빼 줬단 말입니다. 그놈이 끈끈해요. 그것을 먹고 나서 본께, 그 병이드란 말입니다. 그란디 그 사람이 그것을 마시고 나서면서 “아따 싸하네...” 그 사람이 간 뒤로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그 사람도 술김이라, 술 먹고 술 깰라고. 그 당시에 이름이 카멜... 뭐라고 써있었을 것이요.

내가 이 밑에가 가게였거든요. 밖에서 전방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죠. 술 먹고 속 타니까 주라고 한 것이제. 나는 주고는 그 사람이 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지요. 나가고... 하하하. 참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워요.

그 사람들은 보통 30명에서 40명씩 실어요. 예, 목포 간 사람들, 신고 갔다고 신고 오는 것이죠.

(가거도에서도 올 때도 사람이 사는 데가 처음이고, 나갈 때도 마지막이니까 들리고 그랬군요?) 만재도 같은데는 안 들르고, 그 바다를 경유해서 지그재그로 오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들리고, 물 타고 올라갔다 물 타고 내려가니까. 물이 비슷하게 맞은 데는 아조 노래 부르고 다니지요. 물이 몇 물 오면 온다고 그러죠. 자기들 말로.

(가거도에서 여기까지 풍선으로 얼마나 걸린답니까?) 그 당시에는 빠르면 하루 낮이면 옵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와요?) 배는 봤는데, 앞이 푹 찼라진 뱀데. 잘 와요. 여기는 좋은 석이 아니에요. 하늘바람 불면. 요런데가 아주 좋은 석이죠.

(석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나요?) 바람 불면 뉘가 안 들어오는 곳. 물결이 안 들어오는데, 파도가 안 들어오는데, 뉘가 안 들어오는 곳. 그런 곳이 배석자리다. 올렁거리는 나미가 안 들어오는데, 너무 높아도 안되고.

(여기는 무슨 나루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하태나루터라고 하지요. 여기서 팽야 빨섬나루터라고 그랬죠. 이 섬 이름이 봉도죠. 벌-섬이라고 그러지요. 벌봉자를 써갖고. 원래 이름은 그렇게 안돼 있고, 내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내로. 여기 사람들이 봉도로 바꿨어요. 여기는 내도리.

### 나루터와 나루운영의 토착지식

배석자리라는 말은 잘 안쓰는 말인데... 하태나루터하고 거북바위나루터라고, 그라고 상태나루터. 거북바위나루터가 있어요.

(당두 끝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닭머리라고 그랬어요. 닭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땅머리라고 했지요. 여기는 능산하고 장재 가는 나루터고요.

(개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개도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도는 사람 산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나루터가 얼른봐도 네 개는 뵈겠네요. 지금도 나루터가 있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저 건너서 70대 아주머니가 하고 있어요. 어른이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같이 타고 다녀봐서 알지.

(주로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여기하고 여기 여객선 타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쪽으로 꼭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다니고. 신의면에는 중간배가 있어요. 12시30분에.

목포 나가는 놈이. 그런데 하의도가 중간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주로 나루타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농협도 저 건너에 있으니까. 여기(거북나루)가 훨씬 먼저 없어져 부렸어요. 이 나루(하태나루)는 옛날부터 신의 하의가 한 면으로 있을 때부터 다녔어요. 100년 이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돈 안 받고 다녔어요. 나락한말씩 내면서, 엿가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료로 다니죠. 돈 내고.

(그때도 신의사람이 했어요?) 신의사람이 했어요. 항상 저 건너 사람들이 했지요. 여기 사람이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부인의 이야기- 네, 친정이 신의면인데, 우리 오빠들이 81세나 됐거든이라. 그때 저 건너 신의면에 학교가 없어서, 신의면 사람들은 나루를 이용해서 면사무소 있는데, 옹곡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라.)

(그때는 걸어 다녔을 것 아니에요?) 차도 없고. 걸어서 와서 나루를 타고, 또 걸어서 학교에 가고. (딸을 가리키면서) 애들도 어렸을 때 옹곡까지 걸어 다녔어요.

저 건너서 여기에 와도 물살이 쌀 때는 사리에는 30분씩 걸려요. 물때가 좋고 바람이 안 불때는 빨리 가지만, 많이 걸리면 30분이면 가. 썰물과 민물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저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로 못 오고, 쪽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못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 물이요 든물과 쓸물이 대개 보이면, 요 지방에서는 동남쪽에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올라오면 이 물이 구석구석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갓은 다 반대예요. 이놈이 올라간다면 가는 다 내려와요.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는 내려오고,

(올라가다 부딪혀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건지라고 그러죠. 건지, 이것은 골물,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뒤건지라고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 노질해서 건너 다녀요. 물이 차고 뒤건지라고 해요. 물이 뒤짚어진다고 해서.

(들물은 골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뒤건지는?) 대개 골물 따라 땡겨요.

(배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건지에서는 잘못하면 뱅뱅 돌아요. 제자리걸음을 해요. 잘 젖어야 그 자리를 헤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다 노 저어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배 타고 다닌 사람들은 뗏마고 큰배고 간에, 선장이 필요 없지만, 그때는 그래서 선장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선장이 필요한 이유죠. 예를 들면 정면에서 바람이 와도 그냥 올라가요. 배가 돛달고, 지그재그 갈지자로. 그냥, 돛 달고, 돛을 비스듬히 달고. 그것은 무슨 원리를 이용하냐면, 옆으로 바람이 딱 채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 선장이 꼭 필요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키를 잡고 다닌다. 그 당시

에는 진자 모르면 고생하고 다녔죠. 사람들이.

(나루를 이야기할 때 건지하고 골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그냥 유래 정도만 쓸려고 했는데 안 쓸 수가 없네요)

글안하면 못 건너다녀요. 뺏드시는 못 다녀요. 건너다닐 때 들물 때 이리 한참 올라가요. 요만치나, 그 다음에 골물에 딱 빠져놓고, 힘차게 건너가요. 이 건너에서도 갓은 내리니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붙어요.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배질을 하지요. 옛날에는 무동력일 때는 안 그러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물하고 건지를 구분할 수밖에 없구나) 안 그러면 고생을 하지요.

(이게 만약에 이 사이가 굴곡이 없었다면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지요. 그런데 다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나룻터가 생긴 것입니다. 나루터 위치는...

(여기가 들물이고, 여기가 썰물이죠?) 물을 보면 그냥 알아요. 배에서 물을 내려다 보면 아 저놈은 올라간다. 저것은 내려 간다 다 알아요.

### 꽃게파시의 종료

배들이 계속 다니라고. 그라고 우리가 대일무역도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드라도, 배가 계속 오라고. 그런데 난중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게가 발이 엉덩하잖아요. 그물에 다 걸려 부러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것이 다 걸려버려요. 이 앞에 바다에서, 그래서 자원이 완전히 고갈돼 불드라고요. 자원이 만나니까.

(꽃게 배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했습니까?) 바로 이 밑에서 잡았지요. 밖에, 매물바다 안쪽에서 잡았지요.

거기서 몇 십 년, 10년 이상 해 버리니까 고갈돼 붙어요. 그란디 인자 나잖아요. 지금은 통발로 잡아요. 그러니까 싹쓸이는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그물로 싹쓸이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배를 한 30척이나 이렇게 대 쫓다가, 그 배들이 인자 안된게 우리집다 배를 다 두고 그냥 가분 것이여. 우리 집에 놔 두고 간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즈그 집 앞에다 두고 서울로 가버려요. 당신이 배 찾으쇼 하고 가부러요. 적으면 삼사천만원, 적으면 이삼천만원인데 그 배가 몇 십척이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중에 그 배는 꽃게를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중간한 배들이거든요. 왜그

러나면 밖에 나가서 소위 고대구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배들이 예요. 잘면 10톤 이쪽 저쪽 클라스들. 커야 20~23톤되는데 어디 가도 행세 못할 배들이죠.

나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부렸제. 86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85년부터 배들이 거의 포기하고 올라가 부렸어요. 꽃게가 안 잡히니까.

빛을 저 부렸죠. 나 여기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버는 대로 염전도 사고, 뚝도 사고 장만해 가지고, 아까 15헥타 된다고. 그래 갖고 그런 것 장만한 것이 다 남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제방사업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나 하고 둘이.

### 손으로 제방을 막은 부부

예산 없이, 이 사람이랑 둘이서, 순노동력으로.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되부렸어요. 한 7-8년 걸려 막았는가. 몇 년이 걸려서 막았어요. 그것이 안되니까, 내가 막은 자리가 원래 여기 이것 막고,

(여기 국토방조제라고 써 있네요) 네 여기는 잘잘한 애들 데리고 막았어요. 나 서른 살때, 여기는 한 50살 때. 남의 제방 막아주고. 여기 한나 막았어요. 1차, 전부해서 한 5개나 막았겠네요. 그런 제방을.

(이것을 막으려면 일단 수입이 없이 돈 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순 힘으로만 만들었 다니까요. 미역, 다시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상이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것이요.

(이 당시에 여기를 막으면 여기서 어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도 해야 하잖아요?) 아무도 안했어요. 우리가 거기에다 정치어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못하지요. 피리마을 간테 실로암이라고 거기 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건물이 다 우리 것이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다가 원을 막은 거지라. 응, 식 초공장. 그 밑에 건물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전부 우리거라니까요.

바닷가에서 자연돌을 주워 가지고 스티로폼 배를 크게 만들어갔고, 물이 썼을 때 갯가애가 돌이 있잖아요. 굵은 돌이, 그것을 걸어 놓고 실어놔, 그러면 물이 들면 뜰 것 아니요. 그러면 원독에다 부리고 부리고...

신안에서는 최고 깊은 제방이여. 물이 안써요 조금에는 전혀 안써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썼냐면 그 당시 솔잎혹파리가 유행해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벤거예요 힘하나

안들이고, 운반만하면 가져다 썼어요.

어떻게 하나면 처음 한 식으로 했어요. 멍석질을 깔아 놓고 그 위에다 다시 질른 거예요. 그래갖고 줄을 걸어 놓고,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더 삼단으로 해 놓으니까 제방이 됩디다. 그래갖고 물을 막았어요. 물이 못 들어오게. 인자는 제방이 되었다 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서 새우를 길러야 쓰겠다 했는데, 회사도 떨어져서 없고. 그런데 계속 해서 파도가 들어오니까 흙을 뽑아내요.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스티로폼을 만들어다가, 돌을 실어다가. 인자 세멘트를 모래하고 섞어서 가루처럼 인거예요. 세멘트를 발라놓고 돌을 놓고, 타우루식이예요. 그런데는 삼으로 깎아 버리고, 그렇게 해 놔는데, 걸리지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2년간이나 한 후에 새우와 우럭을 넣었는데, 파라피온 태풍이 왔어요 그래갖고 유실이 되부렸어요. 밑에만 남고 싹 깎아져 부렸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채환 군의원한 분이, 그 동생한테 나 이렇게 되부렸네. 그랬더니, 아 그래라,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이라도 받아야지라, 해서, 그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제방보상이 한 1억이나 줬을 것어요. 그것도 값으라고 일부 주고. 그리고 생물피해, 그 안에 새우하고 우럭하고 피해를 받은 것이 더 많데, 한 2억 받았을 것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방을 만든 것이예요. 지금은 좋아요. 어느 정도.... 그런 도중에 한 3년간 돌을 실어 날랐을 것어요. 3년간. 그래서 손이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 부렸어요. 자고나면 이 사람하고 나가서 했으니. 인부는 생각도 못하고,

(여기 방조제는 소유는 선생님 것이죠?) 아니지요. 국가방조제지요. 면허만 가지고 하지요. 원래부터 내가 막을 때 내가 교회 장로요. 교회 다니면서 막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습디다. 내가 막아도 내 재산으로 안 만들고 사회에 내 놓는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했으니까 이행을 할거요.

(법으로는 막는 사람이 소유하지요?) 네 그러지요.

## 2) 이태관 선생의 생애사

- 일 시: 2010. 12. 18(토) 오전 9시~오후1시
- 장 소: 하의면 장병도리 이태관 자택
- 면 담: 이태관(85세)

## 진절의 두 섬을 막아 염전을 만들다

옛날에는 이 땅에서 나온 식량으로 다 못 먹었어. 아조 풍년이 들면 겨우 살까. 아 그러면 겨우 살제. 이 앞에 건너섬이라는 데가 물이 들면 갯물이 지나다녔는데, 물이 나가면 노두라고 돌을 주워다가 놓고 독 닫고 다녔는데, 이 마을에서 옛날에 주 들어 가지고, 그 원을 막았습니다. 이쪽 막고, 찌쪽 막고.

언제 막았는지는 지금 똑똑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결혼 후로 (막았지라). 그래서 인자 말하자면 이 부락 사람들이 '주' 라고 한나 둘 사람이 29호면은 다 하나씩 가입하거나 두 사람씩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뭘로 이용을 했냐면 염전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 건너, 저 건너에서 한 8정 그렇게 되었어요. 그란디 둘로 나뉘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 부락에서 농사라도 많이 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주에 얼마씩 해서 사서는 가지게 되어 결국 한사람, 두 사람 것이 되볼드만. 싸게 팔아 부렸지. 일을 해 가지고 주를 가진 거지요.

주로 나눠서, 염전 하나에 몇 사람씩. 결국 몇 사람한테 다 넘어 가드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 막고, 저기 방죽구미 거기 막고, 여기 한 반데 막고, 세 번 다 내가 들어서 일을 해서 막았는데 한반데도 못 샀어. 전부 남의 사람들한테 갔어. 찌쪽 염전은 김00씨라고 하의 본도 분인데, 그 양반이 노임을 담당을 했는데, 그 양반이 사업이 잘 안되야분께 노임도 못 받아 불고 말았제. 그런께 남 좋은 일만 하고 말았제.

##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

살면서 어디 객지에 나가봤지만, 돈을 번다고 스무살 적에 아니, 열아홉살에 일본에 갔어요. 이 사람 스물살 때인데, 결혼한 그 해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도 그때에 대동아전쟁 한창 때라 못 갔어요. 그런데 모집, 한창 폭격질 할 때, 일본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게, 그 전에 일본가 한 몇 해씩 있다 온 사람들이 일본의 당꼬 뜯는데, 그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집을 하러 와서 가게 됐는데, 그러데 우연히 가고 싶어서 음력으로 10월달 그때만 하드라도, 미영베로 옷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한 벌 포개 입고 일본을 간다고 그런께, 말은 들었는데 모집 배가 몇 월 며칠날 하의도에 와서 피섬이라는 데서 모집인원을 신고 일본에 간다고 하드라고. 그래서 이 부락에서도

여러 명이 갔지. 그래서 우리는 밀선으로 모르게 들어가는 것이제. 보니까 배가 요새로 하면은 한 3-40톤 되는 어선, 고기잡이 배. 그 배가 요리 내려가든만, 배 내려간 데를 보고 옷을 두 벌 포개 입고서야 나 일본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제라. 꿈인지 생인지 모르제. 이 사람한테도 간다는 말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하의 본도를 갈라면 빨로 땡깁니다. 빨로 건너가. 피섬이라는데가 하의 본도인데 여기 빨 가상에서 상당히 멍니다. 리수로 하면 한 4-50리나 될까, 더 되겠소.

하의본도까지는 빨로는 10리 안될겁니다. 그때만 하드라도 안 맥히고 물이 활용할 때여, 그 섬으로 건너가서, 저 너머에서 밭을 걷고 건너가지라.

그래서 피섬이라는데를 가서 보니까, 가서 본께 저 아래 바닥에 닿았다고 그래요. 알개는 못 간께 천상 숨어야 할 것 아니요? 가에 짜간한 배로 왔다 갔다 내왕을 하든만요. 나보다 세 살 네 살 더 잡순 분이 즈그 형님네들이 두 분이 모집해 가입을 하고 그 형님은 가입은 안했는데 나랑 같이 가서 보니까 배로 천상 오늘 저녁에 뜬다고 하는데, 낮에 올라야 쓰겠습니다. 낮에 몰래 올랐어. 보니까, 고기잡이 배라서 칸칸이 여러 칸이 많해요. 그래서 칸에 가서 숨어갖고 있어. 둘이서. 소화 20년에 해방되지 않았소. 그 1년 전이제. 그래서 내나 일본에 가서 처음에 완도에 가든만. 인원파악을 해도 위에서 모집한 사람만 센께. 우리는 고기 담는 칸에 숨었다 이 말이며. 완도 가서는 같이 나와서 활동을 했제. 어디 퍼다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싶어서. 그 당시에 잠수함 때문에 밤배질은 못한다고, 완도 가서 하룻밤 자고, 대마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본에 들어갈 때는 할 수 없이 밤에 들어가든만. 새벽 3시, 4시나 됐을 텐데 느닷없이 딱 하더니 한쪽으로 궁글러간 것 같습니다. 아 잠수함이 공격하는 구나 다 죽었구나 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일본 하관 시모노세끼라고 하는데 축강을 뺑 둘러 쌓는데 이 축강 끝으로 갈고 들어가 부렸어. 넘어가분께 축강 안에가 배가 섰든만. 거기서 나중에 도꼬야마시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가 와서 인부를 실어가고, 그래갖고 가서 일본에서 사는데, 그때부터 한달이나 있었을까. 뭇일을 하나, 그 당꼬가 쇠로 지었는데 12,000동, 8,000동 짜리를 뜯는거여. 그 쇠를 쓸라고. 그런데, 기름을 담은 당고가 수 백개가 있는데, 그 당꼬에서 기름을 도라무에 빼서 담아서 굴을 파고 그 안에다 재든만. 그리고 당꼬 빈 것을 뜯는거여. 그리고 한달쯤 있으니까 미국사람들이 와서 폭격을 하요. 맨 처음에는 도꼬야마시라는데가 일본에서 셋째 가는 데라든만. 폭격을 하면 일본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든만. 하루는 작업하는 현장에다 폭결질을 하는데 장병도 사람들은 안 다쳤지만, 하의도 사람들이 여럿

죽었어라. 그때는 어느 때냐면 시안지내고 4-5월 될 때는 미국비행기가 꼭 떼로 오는데 네 대씩 네 대씩 들어오는데, 아까 B29라고 했소, 큰 비행기들이 들어오는데, 막 폭격을 하고 지나가면 또 뒤따라와요. 폭격해버리면 그 현장이 전부 당고가 기름 담아진 것은 하나도 폭격을 안 맞아서 살았지. 기름 안담아진 것만 주로 부셔졌으니까.

정신이 있어야지라, 한 몇 번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어. 당꼬에가 떨어지면 그 뒤 굴에 있는 우리는 몽팡 다 타 죽어버리제. 묘하게 안 죽고 살아 나와서, 여기 있다가는 죽은게 남은데로 가자고 해서 도망을 가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폭탄이 떨어져서 이 흙이 마당만큼이나 흙이 파지는데 그 밀려든 흙에 죽든만.

(어머니 일본에서 오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깜짝 놀랐지라. 전쟁통에 살아서 왔은께. 이런데 있는 사람이사라 뭐 고생이다. 불속으로 다닌 사람이 고생이제.

나중에 고향에 와 있다가 인천으로 가서 고기잡이 배 타고, 저 연평도 그런 바다에도 다니고, 저 말하자면 동지나바다, 가거도 같은데, 그런데 남지나 바다까지도 나가고, 12톤 배를 타고, 목포 배였어요. 우리 사촌형님이 한일조선소라고 공장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선소에서 12톤 짜리 배를 지어서 조기흘림 배를 지어서 인자 집에서 놓고 있었는데 불르데요. 가보니까 배를 가지고 조기잡이를 나가라고 그때만 해도 가라지...가라지 한 마리에 3원, 4원 할 때...

막 잡아오면 도방으로 넘기제, 마리당. 가라지는 고등어처럼 생겼는데, 훨씬 맛이 있고, 지금은 많이 못 보겠습니다. 전부 일본으로 수출 가분다고 그래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가라지도 천신을 못해요. 조기작업 하면 참치, 상어, 각종 고기들이 잡혀요. 가라지도 잡히고, 꽃게는 다 퍼서 바다에 버려 부러요.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고등어와 가라지의 차이는?) 가라지가 훨씬 맛있어요. 고등어는 더 푸르고, 양쪽 옆 등이 비닐 가시가 있는데 고등어는 그것이 없지요. 가시가 비늘 같어. 그것은 가라지는 맛이 더 쫄깃쫄깃해서 맛이 좋지라. 고등어는 더 무르고, 살이. 그러니까 맛이 덜하지라. 그것은 지금도 일본으로 다 수출해 부러요.

### 하의도와 장병도 사이의 큰빨과 어로활동

우리 철 알면서부터 이 빨을 ‘큰빨’ 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이면은 음력으로다 9월, 10월 약 2개월간 문저리 망둥어라고 아시지요. 그것을 잡는 주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낚시를 150가락, 100가락을 가지고 옆에 너댓살씩 먹었을 적에 우리 발로 한

밭 반에다가 낚시를 채우거든요. 이깍은 갯지렁이 잡아다가 낚시에다 끼워가지고 해어름에 저녁에 갖다가 갯벌에다가 뺏질러 놓는다. 아침에 일찍 동 틀만 하면은 다시 물이 빠져서.

밤에는 전기도 없으니까 어두워지기 전 물때에 나가서 뺏대 놓고 아침에 걷으면 운절이가 낚시마다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농어도 물고, 감생이돔도 물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물고, 이렇게 큰 가오리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농어 그런 것이 두 어마리씩 문 때도 있고. 망둥어 주낙이지라. 20살 가치이까지 했어요.

주로 음력 9월, 10월에 주로 망둥어 주낙을 했어라. 또 말하자면 갯주낙이라고 있어요. 갯벌위로 가다가 몇 십발씩 가다가 훑아 놓습니다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주낙도 물이 들면 부표를 띄워서 하는데, 필요 없어요.

갯주낙은 주로 요즘에 그 고기가 여기 바닥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물망둥이라고, 미에기라고도하고, 똥굴똥굴하게 생겨가지고 물경물경합디여. 그것 많이 물고, 간재미 많이 물고, 장어, 봉장어라고 그것도 많이 물고, 그런데, 그것은 가다가 농어도 물고, 그런데, 설 쇠고 2월, 3월 그리고 또 동지 넘고 물망둥이 잘 물거든요. 동지선달에 정 2월, 3월에 하지요. 그러는데, 요즘은 김발을 해 버리니까 그것을 못해요. 김발에 마장을 해버리니까 안돼. 이깍은 뭇로 하나면 문저리 고걸 많이 쓰지라. 잘라서 쓰는데, 그것을 문저리를 어떻게 잡느냐면 요즘에는 갯벌에 가서 낙지 파듯이 파요. 파서 잡고.

아까침에 갯주낙은 낙지를 끼워 넣으면 간재미 이것이 안물고, 장어. 망둥어는 각종 고기가 다 문디, 농어, 간재미가 무는디, 낙지에는 간재미가 안 물어요.

낙지는 또 뭇을 하나면은 죽상어를 잡을때 봄에 한달간, 죽상어가 요새 한 20키로, 십 몇키로 되는 놈이 상당히 굵게 이런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서 그것을 잡을 때 미끼를 낙지를 통째로 써요. 살아있는 것을.

지금이야 그렇지 옛날에는 낙지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안했고, 뺏그지에 가서 외버터라고 합니다. 외줄. 줄도 한 20발, 근 30발, 우리 발수로 그렇게 된 놈을 바다로 던져놔요. 물이 많이 빠질 때. 물끝에다가. 멀리 던져나 그러면 그 뒷날 낚시 5개 정도를 놔두면 두 마리도 물때도 있고, 한 마리도 물고 그래요.

낚시에 낙지대가리를 줄로 묶어놔요. 낙지가 살았으니까. 그냥 놔두면 나가 불지라. 그러면 죽(상어)이 물면은 다시 해야지라. 줄은 뺏에다가 대막가지에다 꽃아 놔야지라. 질러 놔야지라. 한발씩이나 뺏 속에 들어가게.

그 낚시는 우리가 손오로 만들어 쓰거든이라. 귀하거든이라. 쇠 좋은 것으로 만들

어서 불에다가 구워서 담김질을 해다가 놔야 안 썩지요. 안그러면 썩어 나가버려요.

음력으로 3월금, 4월 보름 딱 두 살, 한달간. 그때 산란으르 하러 들어와요. 산란을 해 버리면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는 저 위로 올라가요. 거기서 먹다가 음력으로 가을 9월, 10월이 되면은 내려와요. 그러다가 날이 추워지면 내려가 버려요.

그때는 주낙질을 안해요. 그때는 썰등으로 높이 올라와 버려요. 그 고기가. 봄판에는 썰등에 안 올라오고, 끄지에서만 놀거든요. 그런데 빠져 내려올 때는 끄지에 안 붙고 물이 올라오면 바로 등으로 올라와버려요. 여기서 어장을 하면은 버꺼리 어장에 들어요. 그런게 올라온지 알지라.

(왜 죽상어를 잡어요?) 그것이 상뺨 하나 뿐이에요. 맛은 없는데, 그것 보고, 살이 많고, 후미지다고 할까. 양념 많이 해서 굽든지, 찌든지 하면 먹음만 하거든요. 회판을 하든지. 물을 팔팔 끓여서 한두불 비비면 껍질 깔깔한 것만 벗겨져요. 그것을 보고 죽상어 지화라고 합니다. 지화만 지워버리지요. 바로 해 먹지요. 막 먹어요. 뺨가 상뺨 하나 뿐이여. 그 다음에는 다 살이여. 그러니까 살이 많아제. 고기는 별로 맛이 없는데, 후미진 맛. 풍부하다, 입안에 넣으면 꼭 찬다는 말이죠.

(장병도에 낙지 잡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칠팔명, 안 땡기니까 그러지 다 잡을 줄은 압니다.

(옥도뺨과 큰뺨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언제나 물론하고, 요 큰뺨에 낙지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뺨은 하의면 전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포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뭍시기를 하기 때문에 아조 역수로 많이 낙지를 잡아 내지라. 우리도 금년에는 옥도를 안 가봤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옥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옥도뺨도 목포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의본도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목포 사람들은 매일 배가 두 척, 세 척이 옥도 저 너머 그 섬이 뵙니다. 꾸자리라고 그 근처에서 잡아요. 옥도가 장병도 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하의 큰뺨이 낙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만 해도 이 건너로 많이 다녔어요.

뺨이 좋기가 하의 큰뺨이 더 좋습니다. 말하자면 밥으로 하면 하의도 큰뺨은 찰밥이고, 옥도뺨은 몹쌀밥. 낙지가 하의큰뺨 낙지가 더 굵습니다. 발은 옥도낙지가 더 길고, 하의도 큰뺨 낙지가 더 자릅니다. 큰뺨낙지는 사람 살찐 것처럼 통통하고, 옥도뺨은 사람 야윈 것처럼 가늘어요. 뺨이 더 좋기 때문에 낙지도 그렇습니다.

바탕에 따라 후광리쪽하고, 중간치하고, 섬 가까이하고 낙지가 틀려. 여기서 여기 큰뺨이여도 더 크고 적고 그렇습니다. 장병도쪽이, 꿀적개비도 장병도쪽이 더 많고. 후

광쪽으로는 꿀적개비가 더 적고, 옥도도 많은데가 있고, 없는데 있고.

### 낙지와 낙지잡이에 대한 토착지식

(선생님은 내년 봄에는 또 낙지 잡으러 가셔야지요?) 가야지요. 그런데 잘 살면 금년 살란가 모르겠소. 내 생각이 그렇게 들고, 몸도 많이 안 좋습니다.

낙지 저것이 참 이상스러운 물건이여라. 내 젊어서부터 이날 평생까지 낙지를 잡고 있는데 낙지 저것이 어떻게 부하를 하고 어떻게 해서 1년이면 종자가 두 번 생깁니다. 한번 생긴 것이 아니라 일 년이면 두 번 생기고, 말하자면 지금 큰 낙지는 여름낙지거든요. 잔낙지가 있습니다. 큰 낙지하고 작은 낙지가 종자가 틀립니다. 큰낙지는 초여름에 생긴 것은 더 굵고, 가을에 생긴 것은 더 작습니다. 큰낙지, 작은낙지. 그런데 가을낙지가 다 커도 잘아. 여름에 생긴 작지가 크고, 낙지는 같은 낙지인데, 생기는 때가 틀려요. 가을하고 여름하고.

여름에 생긴 것은 금년에 음력으로다가 4월달이면 거미만씩 해요. 4월금 오월달이 되면 먹을 만큼 커집니다. 요즘에는 엄청 굵습니다. 머리가 주먹만치 큼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생긴 것은 커다란 것이 요만큼씩 해요. 그것은 많이 커도 요만큼씩밖에 안되요. 두 번 생기는데, 한해는 낙지가 많이 생기고, 한해는 적게 생겨요. 한해는 서고, 한해는 안서거든요. 한해는 종자가 많고, 한해는 귀하고, 적고.

그와는 반대로 가을낙지는 큰낙지는 가을에 귀했는데, 가을에 종자는 많습니다. 명년에는 큰낙지는 많은데 가을낙지가 귀해. 연년이 바빠요. 한해는 서고 한해는 안서고 그래. 그렇습니다.

여름낙지, 가을낙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자 시기만 틀리제, 생긴 모양은 똑같애. 그런데 더 크고, 덜 크고가 다르제. 철이 다르고.

11월달에 낙지를 잡을 때 잡히는 것이 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낙지는 아니다. 여름에 생긴 것은 그것보다 이합이라고 합니다. 낙지 새끼가 될 것인데, 쌀밥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만큼씩 컸어요. 그런데, 가을종자라는 것은 명년 2월, 3월에 알이 생깁니다.

산란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산란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명년 시후로 음력으로 1월, 2월 이때에 산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자여도 여름 종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하지 않든만요. 더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요즘에 낙지를 보고도 흐리 구멍으로 들어가부러요. 그러면 눈이 어두운게 막혀져 부러서 몰라요. 보고도 놓혀 부러요. 요즘에, 앞전까지 땡기면서 하루 큰놈도 잡고, 작은 놈도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마리, 여나문 마리씩 잡기도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잡았죠. 100여마리, 7-8마리 잡았는데, 금년에는 100마리를 잡아보지 못했어라. 60마리까지. 금년에는 워낙 낙지가 귀했으니까. 그리고 낙지 저것을 한 20살 먹었을 때부터 낙지 잡을 수 있었는데, 낙지가 구녕을 뚫고 사는데 구녕을 다 몰라. 낙지가 날마다 그리 다니면서 보는데 아무런 사는 기척이 없는데, 그런디 약 한 달이나 지나면 그런데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부룻이 생긴다든지.... 궁기를 뚫은다든지. 낙지는 아무리 잘 잡는 사람들도 낙지 궁기를 못 본답니다. 거기가 이깁 구녕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낙지 삼으로 재끼면 고 밑에 금방 낙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어느 때 알게 드나면 금년 음력으로 5월 달부터 낙지를 잡았으면 처음에 낙지가 짹짹 짹짹 했을 때는 알게 들었는데, 중간쯤 되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지가 요 음력으로다가 8월달까지 되면 아주 깊이 들었지요. 그때는. 그러면 전부 가서 따개낙지라고 말입니다. 낙지 구멍을 파다가 말하자면 물이 없는데가 있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낙지가 살만한 곳이라고 여겨지면, 거기다가 좋게 원구녕만 찾아서는 뽕을 그려놔요. 뽕로 이렇게 퐁글퐁글하게 따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딱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놔다가 말하자면, 1시간 2시간 지나서 물이 그런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 가만가만 가서, 그런디 그것이 사람이 가만히 가도 귀가 밝은 놈은 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못 잡지요. 그런게 가만히 가서 열린 다개를 들셔요. 그러면 가만히 있죠. 그러면 담지요. 그것을 따개낙지라고 하지요.

(보통 가래를 들고 나가지만 따개낙지를 몇 개씩 잡기도 하세요?) 요새는 힘 없고 하니까 다개낙지를 여러 개 잡지요. 음력 5월달부터서 9월까지도 따개낙지를 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하누바람이 가다가 부요. 싸게. 하누바람이 자주 불지라. 그러면 낙지가 읊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깊은 구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살짝 살짝 몸만 감춘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룻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구녕이 없어도 뽕이 색깔이 틀리게 나요. 그런 것은 가래로 딱 찍어내면 있어요. 그것보고는 올믈낙지(읊은 낙지)라고 하거든요. 읊은다는 것은 앵키는 것이여. 깊은 구녕에서 나와서 얇은 구멍에 가만히 몸만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날 가면 없는 데가 구녕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것이 요즘에는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삽니다. 요것이 동지달 눈

이 와부렸으니까, 눈이 오기 전에는 나와서 주로 기, 화랑기라고 청살기, 꽃기, 이것을 먹는데, 날이 추워지면 계도 안 나와불고, 낙지가 구멍 안에서 안나옵니다. 빨 속에서 살고 있겠지요. 그러면 음력으로 동지달 아납니까. 선달 정월 1월달까지 3개월 간은 추우니까 안나옵니다. 빨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요. 명년에 따수와지면 궁기를 다시 뚫습니다. 궁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삽니다.

5월, 6월, 7-8 밤에 불낙지도 합니다. 옛날에는 기름불로 했는데 요새는 전기로 하는데 밤에 불낙지, 두물때, 세물대 주로 합니다. 몇십접씩, 일곱 여덟분씩 잡는 것을 두 사람이 사서 보내는 거네요 회낙지는 부인네들도 가고 하다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팔라고 많이 잡제. 이녁이 먹을라고 하는 것 보다는.

## 5. 어로문화자원 활용방안

### 1) 큰빨과 옥도빨을 활용한 갯벌체험

#### (1)개요

- 위치 : 큰빨 - 하의도 북쪽 후광리와 장병도 사이  
옥도빨 - 하의도 옥도에서 남쪽 신의면 기도 사이
- 목적 : 생명의 섬, 평화의 섬에서 역사 문화답사 외에도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함. 생물종다양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갯벌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 (2)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갯벌생명평화학교(가)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2박3일 동안 갯벌생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명과 평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학교
갯벌보전기념비 조성 과 탐방로	후광리와 장병도를 연결하려던 계획이 중단된 방조제 입구에 작은 '갯벌보전기념비' 를 조성해 갯벌보전의 역사를 기록, 방조제는 탐방로 활용가능
물새탐조(Bird watching)	갯벌에 의지해 먹이를 먹는 도요새와 물떼새류, 기타 맹금류를 관찰하기에 좋은 곳으로 탐조객들의 탐조포인트로 조성

### (3)추진방향

- 갯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의미를 담고 갯벌과 평화를 주제로 한 가장 공신력 있는 방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중요한 사례로 큰뿔을 살리기 위해 중단된 공사현장은 의미가 큼. 작은 기념비를 통해 갯벌보전의 의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음
- 방조제는 갯벌체험시 탐방로나 탐조대 설치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함
- 신안지역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갯벌이므로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주요한 지점이 됨. 육지부에 모델이 될만한 탐조대를 설치하고 탐조객들을 유치할 필요 있음

### (4)기대효과

- 신안군 하의면의 위상 재고(예: 갯벌보전의 섬, 생명평화의 섬 등)
- 생태관광과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기체류를 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함
- 김대중 평화공원 활성화에 이바지함

## 2) 삿갓바위와 신도해변의 암반, 사구생태체험

### (1)개요

- 위치 : 삿갓바위 - 하의도 남쪽 피섬선착장 인근  
신도해변 - 신도해수욕장 일대
- 목적 : 다양한 해안경관을 가진 곳으로 갯벌과 달리 암반과 사구에는 고유의 생물종들이 서식해 이들을 관찰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탐구함

### (2)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갯벌생명평화학교(가)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2박3일 동안 사구, 암반 생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명과 평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학교(갯벌과 연계 가능)
신도사구와 숲 생태체험활용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신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사구와 배후 숲이 잘 조성되어 해양레저스포츠와 더불어 생태와 문화 교육장으로 활용

### (3)추진방향

- 갯벌과 함께 다양한 연안환경을 보유한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의미를 담고 갯벌과 평화를 주제로 한 가장 공신력 있는 방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한 도서 생태체험장으로 적극 활용
- 인근 봉도와 연계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함

### (4)기대효과

- 샛갯바위는 관광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며 단순히 낚시포인트로만 알려져 있는데 독특한 경관과 다양한 해양생태계로 인해 다채로운 체험교육장 제공
- 지역주민들의 어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가능해 향후 도농직거래 계기 마련
- 하의도 방문객들이 유인도 본도에 한정해 머물지 않고 부속도서로 연결해 방문지를 확대함으로써 체류형 생태관광의 모범적인 사례 창출

## 3) 나룻터의 보존과 활용방안

### (1)개요

- 위치 : 서쪽의 능피나루, 동쪽의 거북바위나루, 남쪽의 봉도나루
- 목적 : 나룻터에 얽힌 다양한 사연들을 남기고 기록한다. 섬들간의 상호관계와 문화차이, 교통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밀물과 썰물에 따른 해류의 흐름을 이용해 적응해온 삶의 방식을 배우고 체험한다.

### (2)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나룻배타기 체험	동력선과 무동력선 2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체험선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하루사공 노젓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추진방향

-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이동방식인 나룻배와 나루터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은 표식이 필요함
- 나루가 섬과 섬 사이의 좁은 수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류의 흐름이 다른 곳에 비해 센 편임. 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노젓기 체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4)기대효과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머무는 관광모델 창출
- 본도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도서로 방문지를 확대하며, 각 도서별 특성에 맞는 먹거리, 볼거리를 개발해 관광인프라 확대
- 동, 서, 남쪽의 세 나루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문지와 체험프로그램 확보

## 4) 봉도 꽃게파시와 수산물 직매장 운영

### (1)개요

- 위치 : 하의도 남쪽 봉도 선착장 일대
- 목적 : 꽃게(해양자원)가 풍부하던 시대의 파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해양자원이 풍부할 때 인간의 문화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줌. 소규모 마을 공동 수산물 직매장 운영

### (2)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봉도꽃게파시	봉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과거 꽃게파시의 역사를 작은 조형물과 기념비로 남겨 역사를 기록해 둔다.
수산물 직매장	봉도 인근에도 전복과 다시마, 미역, 각종 해조류를 비롯해 어류들이 생산되고 있음. 봉도 마을공동체가 소규모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3)추진방향**

- 봉도나루터와 연계해 역사적인 꽃게과시의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음
-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의도와 연계관광이 진행될 경우 하의도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 되므로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휴식공간 및 마을공동 수산물 직매장 지원

**(4)기대효과**

- 하의도 남쪽의 새로운 역사명소로 부각시켜 하의도 관광의 새로운 지평조성
- 인근 해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을거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직매장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경제 활성화 기여

**5) 해조류를 이용한 음식문화 보급****(1)개요**

- 목적 : 하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로컬푸드를 접하고 즐기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함

**(2)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로컬푸드 보급 운동전개	식당에서 쉽게 지역 고유의 방식으로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하고 널리 보급함
우리음식연구회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보급운동 조직으로 강화시켜, 하의도의 향토음식을 꾸준히 발굴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3)추진방향**

- 지역주민단체인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하의도 고유의 토착음식 발굴 및 상품화 연구

- 발굴된 토착음식을 식당과 민박집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인동청주와 인동막걸리가 토속주로 인정받아 주민들이 직접 주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 (4)기대효과

- 주민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서 지혜를 얻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
- 방문객들에게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해 하의도 관광에 새로운 의미 부여
- 하의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VI 구비전승

홍순일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조사 개요 158
2. 조사 내용 159
3.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220



# Ⅵ 구비전승

## 1. 조사 개요

현지조사는 하의도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남 신안군 하의면(2008.06.23-26, 2010.12.10-11, 2011.01.04-05)에서 홍순일이 현지조사한 후, 채록은 2008년의 자료는 김세인, 이유리가 하고, 2010년의 두 차례 자료는 김세인이 했다.

채록시 제보자가 말하는 대로 기록하되, 조사자가 묻는 부분은 [ ], 또는 굵은체로 표시를 하고, 한 두 단락(내용단락)마다 소제목을 붙이게 했다(A와 B, A의 B 등의 방식임). 소제목의 시작부분이나 끝부분에서 색깔을 달리하여 주제어(구비전승물, 마을, 민속공동체 등)에 관한 민속문화정보를 명시하게 했다. 그리고 각주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채록 중 느낀 점이나 수정보완할 점을 적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제보자별, 구역별, 주제별로 유형화한 후 주제별로 소개된다. 주제별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되는데, 하의도의 구비전승자원과 관련하여 하의도의 이야기(설화, 무속신화, 생애담 및 경험담), 하의도의 민요·판소리(웅곡마을의 민요·판소리, 대리마을의 민요), 하의도의 언어(인지어, 속신어, 속담), 하

의도권 구비연행자와 민요공동체 산다이,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와 한소리회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하의도민의 어로·농경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요공동체 속의 구비전승물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고자 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하의도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고자 했다.

이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하의면 편)”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의 압해도, 비금도, 흑산도, 도초도, 안좌도, 팔금도, 지도, 증도, 임자도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고, 이후에도 계기가 된다면 신의도, 장산도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 2. 조사내용

### 1) 구비전승자원 목록

구비문학 분야에서 조사한 하의도의 구비문화자원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일 시	지 역	조사자	제보자	제보내용
1	2008.06.23.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선착장, 미성식당(점심), 하의면사무소 (웅곡리 247-3)	홍순일 이유리	추점봉(남,56)	-면장의 문화산업과 행정(문화재, 생업, 일자리창출, 관광, 면사무소, 김대중대통령과 하의도, 얼굴바위, 지명, 상여소리, 복분자), 47분58초와 24분22초
2	2008.06.23.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1리 미성식당(저녁)	홍순일 이유리	추점봉(남,56)	-섬의 성격규정, 17분9초, -출항민의 실태, 43분48초, -문화자원의 활용, 6분13초
3	2008.06.24.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1리 233	홍순일 김세인	김원인(남,75)	-당할머니이야기, 35분26초 -초분, 대바구, 10분20초 -하의3도, 28분21초 -항로, 17분 -나루터, 6분48초
4	2008.06.24.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2리	홍순일 김세인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4)	-연자방아 외(산다이), 37분49초

번호	일시	지역	조사자	제보자	제보내용
5	2008.06.24.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홍순일 김세인	이홍채 (남,69,1940)	-주특기는 판소리, 39분44 -이홍채(남,69) 아들 이창운(남,39) 인사, 58초 -소리와 한풀이, 7분5초 -생애, 12분41초 -한소리회의 운영, 40분58초와 22분54초 -가족사진, 2분52초
6	2008.06.2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홍순일 김세인	이홍채 (남,69,1940)	-농민운동기념관의 연자방아 사설, 1분24초
7	2008.06.2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홍순일 김세인	이홍채 (남,69,1940)	-사철가(처음 녹음못함), 흥보가 매맞으러 가는 대목, 신넛노래사설, 산다이, 18분2초 -산다이, 6분11초 -제34회 남도문화제 단체사진설명, 5분57초 -마을의 대화출전사, 9분41초 -판소리고수(서장식)에 대한 평가, 12분 -이동 전 인사말(산다이 녹음 실패), 9분6초
8	2008.06.2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중앙교회 가는 길	홍순일 김세인	김모음(여,78)	-도깨비이야기, 17분7초
9	2010.12.10 (16:31)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봉곡선착장	홍순일 김세인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큰바위얼굴유래 01분05초
10	2010.12.10 (16:33)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봉곡선착장	홍순일 김세인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생애소리노래비(전승유래,남도문화 재출전개요(우수상),작품설명), 06분42초
11	2010.12.10 (18:57)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홍순일 김세인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 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12	2010.12.10 (20:57)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홍순일 김세인	이홍채(남,71)	-마을소리 · 농악강습 12분30초
13	2010.12.11 (11:46)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홍순일 김세인	이판구(남,77) 이범숙(남,65) 심순례(여,49)	-사자바위 54분28초
14	2010.12.11 (12:43)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홍순일 김세인	이판구(남,77) 이범숙(남,65) 심순례(여,49)	-농로길 05분59초
15	2010.12.11 (13:10)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홍순일 김세인	이범숙(남,65)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13:10(01분44초), 13:12(00분48초), 13:15(03분43초), 13:32(01분05초), 13:33(02분27초), 13:40(01분33초), 13:51(03분39초), 14:24(05분34초)
16	2010.12.11 (19:41)	전남 목포시 산정동 농협중앙회 목포 2호광장지점 근처 김연예국악원교습소	홍순일 김세인	김연예(여,67) 장명자(여,59) 신광용(남,71) 송중광(남,70) 곽춘자(여,70)	-하의도-목포 김연예 남도민요,판소리(삼월 삼진날,육자배기,자진육자배기,삼산은반락, 개구리타령,성주풀리,진도아리랑,동백타령( 중머리),단가여화세상) 71분43초

번호	일 시	지 역	조사자	제보자	제보내용
17	2010.12.11 (21:03)	전남 목포시 산정동 농협중앙회 목포 2호광장지점 근처 김연예국악원교습소	홍순일 김세인	김연예(여,67) 장명자(여,59) 신광용(남,71) 송중광(남,70) 박춘자(여,70)	-하의도-목포 김연예 남도민요,판소리(단가강상풍월,수궁가, 심청가,흥타령,농부가) 29분12초
18	2011.01.04 (11:0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홍순일 김세인	송경환(남,44)	-고래등(고래목) 00분23초
19	2011.01.04 (15:12)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홍순일 김세인	아무개(남,미상)	-반란군이야기 01분31초
20	2011.01.04 (15:26)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홍순일 김세인	아무개(남,미상)	-당집 01분13초
21	2011.01.04 (15:34)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홍순일 김세인	아무개(남,미상)	-설화(대장) 01분23초
22	2011.01.05 (11:01)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홍순일 김세인	이흥채(남,71) 김양단(여,66) 김이춘(여,72)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연자방아소리 28분37초
23	2011.01.05 (12:11)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홍순일 김세인	이흥채(남,71)	-소리의 특징 07분25초
24	2011.01.05 (12:29)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홍순일 김세인	김양단(여,66) 김이춘(여,72)	-섬의 문화활동가 01분51초
25	2011.01.05 (14:31)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1리 제갈권섭 · 강혜정씨택	홍순일 김세인	제갈권섭(남,미상) 강혜정(여,미상)	-바가지모양 05분22초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구비전승자원은 하의도의 이야기, 민요·판소리, 속담인 언어적 진술,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 산다이,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의 한소리회 등이다.

### (1) 하의도의 이야기(설화, 무속신화, 생애담 및 경험담)

우선 하의도의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설화(지명, 인물), 무속신화(당신화, 영험담), 생애담 및 경험담 등이 포함된다.

## 가. 설화

### 가) 지명설화

#### (가) 하의도

##### • 연꽃을 닮은 모양의 하의도<sup>1)</sup>

[하의도에 이런 큰 일몰이 나왔는데 하의도가 이래서 큰 인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연꽃마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의도가 연꽃같이 생겼다. [연꽃이 어떤 뜻이 있어요?] 인자 우에서 보면 연꽃같이 생겼다 이말이여.

##### • 바가지모양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sup>2)</sup>

[혹시 힘센 장군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는 여기 안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나가서 결혼하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가 섬 전체가 바가지모양. 그니까 외지에 나가야 돈을 벌어오고,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들이 많아. 하의도보면 다른 섬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나게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 송모나 옛날 어르신들 보면 섬 모양이 바가지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물이 들어오잖아요 바가지는. 그란디 그 놈을 펴야 돼. 바가지는 물을 찼다가 다시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 특히 작은개, 후광 이쪽으로가 더 그런 것 같애. 가서 보면 딱 바가지 모양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 나가서 부자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많데요. 나가서 부자된 사람이 있어요.

##### • 봉알바위(일명 양세바위) 이야기(오림리 이야기)<sup>3)</sup>

[사자바위나 범바위 이야기 많고 또 다른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 동네는

---

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지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2)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제갈권섭(남,미상) · 강혜정(여,미상) 제보, 조사내용 <바가지모양 05분2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1리 제갈권섭 · 강혜정시택, 2011.01.05(14:31)

아니지만 불알바위가 있잖아요. 거기를 쳐다보면 아들을 난다 해서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은 거기를 쳐다봐서 아들을 낳다고 그러데요. 거기는 오림리에요. 자식들을 못 낳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딱 그 형상이예요. 바로 봉알이여. 피섬도 정배엄마(28:32)가 90일 동안 당에서 공들여서 정배 낳았어. 그것은 실화예요. 김정오락씨라고 거기가 경오생인디 공들여서 낳거든. 딸만 낳고 못 난게는 거기가서 밤에는 꼭 물 떠놓고 빌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사진찍어 보면은 딱 불알 두쪽. 여기서 보면 집들이 딱 보이게끔 짓어서 아침, 저녁으로 공을 들였다고 그래요. 지금도 젊은 사람이 집을 짓었는데 거기를 보고 짓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짓었냐 하나까 아니다 해서, 그래서 거기가 아들이 셋이나 되나봐요 거기를 보고 짓어나서.

#### • 봉알바우 이야기, 당집에 제사를 지내고 아들 낳은 이야기<sup>4)</sup>

[저걸 왜 그렇게 불러요?] 봉알같이 생겼다고. [봉알바위?] 어, 사람 봉알처럼 생겼다고 봉알바우. [제가 듣기로 저걸 바라보고 집을 짓었다고, 그런 마음으로 짓었다고 그랬다네요?] 그랬다고? (중간 차소리 때문에 안 들림) [할머니는 안 빌어보셨어요?] 우리들은 안 빌어봤지라. 아들 못 난 사람은 당제를 지내기 전에 당을 깨끗이 지내든 아들난다고 그래갖고 난 사람 많아요. [당집에다 빌었어요?] 당집에다 금줄치고, 당집을 깨끗이 하고 소변 한번 봐도 손 씻고, 먹을 것도 못 먹제 똥도 안 싸야 된 게. 똥도 싸면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아들 난 사람 있어. [그 당집이 어디 있어요?] 요 너머에 있었는데 방죽함시로 밀어붙어. [부셔버렸어요?] 바우는 있어. 거가 집안에 가 밥 짓고, 떡 올리고 정월 달에 크게 제 지내고 잘못 지내면 큰일난다고. 지금은 안 지낸다. 방죽쌍으면서 없애붙어. 바우는 그대로 있어.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우리집은 저 위에 있제. [할머니는 여기 언제 시집오셨어요?] 22살에 왔제. 지금 74살이요. [친정은 어디예요?] 후광이요. 옛날에는 온 사람들이 저기 간 게 총각 있드라, 처녀 있드라 해서 맺어줘. [그래서 오셨어요?] 네.

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판구(남,77) · 이범숙(남,65) · 심순례(여,49)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 이판구,이범숙,심순례 사자바위 54분2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2010.12.11(11:46)

4)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5분34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4:24)

### • 마을 이름 유래 이야기(피은섬, 피섬, 터진목)<sup>5)</sup>

어느 마을이나 다 전설이 있어요. 여기를 피섬이라고 했거든.

[왜 피섬이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원래 피은리여. 피할 피자, 초 은자, 마을 리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피리라고 했진라. 왜정 때는 가죽 피자를 썼어. 왜 그러냐면 우리마을에서 남쪽으로 나가면은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산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움푹 찢라진 ‘터진목’이란 데가 있어요. 왜정 때 그 안에서 농사 짓고 논 만들어서 짓고 그랬는디 십섬은 원래 물 속에가 있는 섬이라고 해서 십섬이라 그랬는디 왜 십섬이 아니고 ‘피’자를 썼냐, 일본놈들이 나락 빈데 칼 가지고 와서 사람들보고 전부 실어라고 해갖고 말 안듣는 놈은 칼로 모가지 치고 그래갖고 피가 많이 흘러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십피섬’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피가 터진 곳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터진목이라고 하고. 대동아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가 일본놈들이 그런 해적들이 많이 있었제라 그래갖고 칼 가지고 와서 짐승같은 것도 잡아가고 그랬지라.

### • 큰바위얼굴이 있는 피섬이야기<sup>6)</sup>

바다였제. 막아갖고 농사를 짓고 한 거제. [시피섬?] 시피섬(일반 주민들은 피섬이라고 부름) 바로 건너에 있제. [마주 보이는 것이요?] 어. 그란디 저것이 옛날에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이었단게. 그란게 좁은 골목을 두드려 막아갖고 농사를 지어먹고 그러지.

(나) 옥도

### • 고래등(고래목) 이야기

(고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넘어가자) 그래서 (여기를) 고래등, 고래바위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저기 앞으로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나) 인물설화

---

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판구(남,77) · 이범숙(남,65) · 심순례(여,49)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 이판구,이범숙,심순례 사자바위 54분2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2010.12.11(11:46)

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0분4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3:12)

## (가) 큰바위얼굴

• 얼굴바위 이야기<sup>7)</sup>

[어르신 여기 토박이시잖아요. 사자바위 이야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얼굴바위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전에는 얼굴바위라해도 그렇게 생겼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PR하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 근디 다른데서 무슨 바위 하니까 그렇게 내논거여. [그럼 자꾸 PR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진찍고 한 것 보면 여기 사람들이 찍은 것이 아니라 먼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찍은 거여. 찍어 놓고 보니까 얼굴같다 해서 얼굴바위라 했제.

• 김대중 대통령 관련 이야기(주민들의 생각,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sup>8)</sup>

[김대중대통령 고향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를 참에 할 때 다웁게 집도 좋게 하고 했었음 쓸건디 못하게 하니까. [왜 못하게 해요?] 김대중씨가 생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것도 어렵게 한 거여. [하의도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스럽제. 물론 자기 고향사람이고 대통령이다보니까 자기 이름이라도 남기게끔 빛을 해놔으른 쓸건디 그런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해. 많이 모여 있으면 자랑스럽다 그럴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 한화갑이가 나쁜 놈이여. [왜요?] 화갑이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하지 마라 할 것이여 어쩔 것이여.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게 화갑이가 저번에 국회의원 떨어져블고 인자 여기다 힘 못 써.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 아쉽기만 하고 가만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뭐를 남길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제. 별도여 그건. [뭘 남기기를 원해요? 하의도 사람들은 뭘 원해요?] 생각을 다시 짓자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러니까 침에 잘 짓던지, 지금이라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목포서 아침 배로 왔다가 얼마나 놀다가 오후 배로 나가블잖아요. 그

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런디 여기 오면 하루 저녁이라도 잘 수 있게끔 되어 되고. 그래야 하의도에도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먹을 것 싸와서 쓰레기만 여기다 버리고 가고. [혹시 김대중대통령 관련해서 전해오는 이야기 있어요? 어떻게 자라왔다 그런] 자라기는, 여기서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 밖에 안 다녔어. 안다니고 목포서 나가갖고 목포 북교 초등학교 나와서 옛날에는 목포 제일중학교, 목포 상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나왔어 인자. 거기 나와갖고 배 운수사업을 했어. [목포 나갈 때는 어머니까지 가족이 다 나간 거예요?] 작은 엄마가 있었어. 작은 엄마가 가서 갈쳤든가 그랬을 거여. 큰 엄마는 여기서 농사 짓고. [그럼 김대중씨는 작은 엄마한테 태어난 거예요?] 아니, 큰 엄마. [김대중씨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참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대통령이 되고 난게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작은 엄마가 다른 여자하고 틀리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드라고. 작은 엄마 아들인가? 작은 엄마 아들인갑네. 원래는 저기 봉도 거기가 옛날에 배들이 많이 닿고, 거기가 술집도 많이 있고, 그런디 대중씨 아버지가 한량이여. 노래도 부르고 북도 치고 그런 한량이여. 그 술집에 가갖고 여자가 있는게, 오면은 여자가 고향이 봉도인디 저 진도 그. 아, 장씨. 가사도 장씨인디. [작은 엄마가요? 친정이?] 어. 여기 하의도로 시집왔제. 시집을 와서 못 살고 여기 고모인가 여기 와서 살았어. 저기 봉도서. 즈그 고모네 집에서 있으면서. [누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엄마가. [외가쪽 고모네?] 어. 있으면서 술집서 일을 했던 모양이여. 말이 그러더라고 소변을 보면 향아리 깨진 소리가 난다고. [작은 엄마가?] 작은 엄마가. 그래서 대중씨 아버지가 그 여자를 했던 모양이여. 그랬는디 데려다가 지금 생가있는데. 원래 생가가 원뚝쪽으로 좀 돌아서 있어. 바다쪽으로 더 나간데 거가 있었어. 거기다가 집을 짓어서 거기서 술장사를 했어. 대중씨 엄마가 그랬고. 그러다가 거기서 좀 벌어들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간 거제. [지금 지서 놓은데요?] 어. [엄마는 틀린 점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한량이여. [다른 점은 없었구요?] 다른 점은 없어. [그럼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여기 있고 엄마하고만 나갔던 모양이네요?] 그랬던 모양이여. 그때 우리는 어리니까. 그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인자 막 나서 잘 모르겠다. 인자 국회의원 나오고 한게 하의도가 고향이네, 일중 나왔네 한게 알제.

• 사자바위, 범바위, 절바위, 노적바위 이야기(사자바위에서 얼굴바위로 바뀐 이야기)<sup>9)</sup>

사자바우라는 것은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뒤틀어나면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범바위라는 것이 있어요. 범바위가 앞 발이 딱 벌어져있고, 동네에 있으니까 옛날에 동네사람들이, 어르신네들이, 우리 조상들이 앞에 담을 쌓았다 해가지고 담이 있어서 동네에서는 안

보이는데 범바위가 있고 사자바위라는 것은 우리가 대강 알기로는 당할머니가 돌아가서 가지고 사자로 변신되어가지고 사자바위가 돼서 우리 부락을 위해서 범바우, 범을 잡아먹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굴바위가 나온 것은 하의도에 큰 사람이 나오기 위해 생겼다 그런 소리도 있고, 김대중선생님을 말한 것이죠. 저기 절바위라고 하는 데도 중이 살았어요. 그 안에다가 기와집을 짓어놓고 살다가 그 우계가, 돌 우계가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중이 물길러 바위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은 뒤에 집이 헐어져서 없어져갔고 기와장이 지금도 파면 나와요. 그런데 조선 때 것이여서 이보다 더 두꺼워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확실한 것을 아실라면 현장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을 얘기를 해보면 그놈이 딱 엮여져요.

[딱 엮어진다는 말씀은 뭐예요?] 순서가 딱딱 맞아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까 절바위, 범바위, 절골바위 내용들이 엮어져나간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옛날에는 틀림없는 거 시기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범이 앞밭을 이라고 있으니까 앞밭을 막은 것도 실제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 우리동네에서 앞밭이 안보이도록 쌓아버렸어요. 앞밭을 벌리고 동네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를 돌로 막았제. 그리고 절바위라는 것도 중이 여중이 살았답니다. 여중이 죽으니까 부락에서 당할머니라고 해갖고 당할머니로 모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갖고 내려오는 얘기가 그래서 중년까장(04:26) 당할머니라고 해갖고 당제를 올리고, 지금도 가면 쌓아져있어요. 뽕 돌려. 그래갖고 크닥시런 바우가 있는데 바우 밑에가 보면 팽팡하게 돼있어. 거기다가 밥 해놓고 그전에는 거기 참솔이 있었었제라. 솔나무 밑에다 밥 해놓고 언제든지,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또 횡수하고 맞아야라, 나이하고 맞아야라 밥 해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당할머니라 해서 당할머니죠. 밥 해놓은 거기가 우리들이 한 열댓 살 됐것구만 그때 짓었어요. 그전까지 살아갖고 있어 건물은. 아직은 안 자빠지고 있네요. 그런데 시국이 이렇고 되어버리니까 귀신이나 이런 것을 누가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그라제. 옛날에 당은 동네마다 다 있었제. 다 있어도 당 거시기를 짓어놓은 데는, 제사 모시라고 건축을 해놓은 데는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래. 애초에 사자바위로 알려져 왔고 그 전설이 있다가 지금 해안도로를 쪽 냈잖습니까, 해안바위를 내면서 얼굴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옛날부터 얼굴바위는 긴가

9)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판구(남,77) · 이범숙(남,65) · 심순례(여,49)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 이판구,이범숙,심순례 사자바위 54분2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2010.12.11(11:46)

민가 희미하게 생각했다가, 사자바위로만 알려졌다가 해안도로를 내다보니까 얼굴바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잘 생겼어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어도 하의도같이 얼굴바위가 잘 생기고 중엄한 곳은 정말 없어요. 좀 형태만 있고 얼굴만 있는데 여기 얼굴바위는 얼굴이 잘 생겼다고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고 “이런 곳은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뽕작가서 보면 암것도 없어,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얼굴바위가 제대로 되어버려. 옛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솔나무 베고 할 때도 그냥 바위라고 생각했지, 얼굴바위라고는 생각을 안했제. 저것을 해안도로를 내면서도 몰랐던 것 같어. 사진을 찍고 하면서 안 것 같어. 우리들은 사자바위만 알았지 얼굴바위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사자바위로만 알았지. 그런데 요쪽 섬은 노적바위라고 했잖아요. 요쪽 바위, 떨어진 섬이 노적바위라고 했어요. 거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노적바위라고 했어요.

[왜 노적바위라고 했는지 듣고 싶은데요] 형태로해서 옛날 영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꼭 노적같이 지붕위에다 올리고 해갓고 되얏다고 노적바위라고, 거기를 잘 못 올라다녀요. 아무도 못 올라다녀요. 독이 버글버글 해 갓고 발을 디디면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

• 사자바위, 범바위, 얼굴바위(김대중 대통령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내용)<sup>10)</sup>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사자바위를 범바위라고 부른 거죠?] 범바위하고 사자바위하고 틀리제. 범바위하고, 사자바위하고, 절바위하고 다 틀리지.

[그럼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되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사자바위는, 당할머니가 우리부락에서 독 위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사자형국으로 된 사자를 범바위, 범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이겼다 그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언제 들으셨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들었던 소리제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으셨어요?] 그렇지. 어제 절바우라고 있드라고 거기 여중이라고 여중이 살았다 그래서 또 여중이 물을 길러가서 거기서 떨어져 죽어갓고 거시기한게

1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판구(남,77) · 이범숙(남,65) · 심순례(여,49)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 이판구,이범숙,심순례 사자바위 54분2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2010.12.11(11:46)

1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신안군 하의면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큰바위얼굴유래 01분05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봉곡선착장, 2010.12.10(16:31)

12) 신안군, 「새롭게 조명된 하의도 큰바위 얼굴 전설」, <<연합뉴스>>, 2009.04.29(11시44)

당에다 모셔갖고 당할머니로 모셨단다 그런것도 들어서 안 거고. 또 범바위는 범이 앞발을 벌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범이 마을을 향해서 앞발을 벌리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잘 죽는다 해가지고 가서 뚜드려 막은 것도 전설이구만. 그것은 사실, 실화제. 또 얼굴바위가 뜬금없이 튀어나오지 않고 얼굴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겼는데 우리 김대통령 얼굴이 오죽 부담스럽소 그래서 바우도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대통령 나왔다는 말도 있고. 김대통령이 죽으니까 얼굴바위 위에 있는 작은 나무가 죽었어. 그래서 따라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 신기한게 막 처음에 농협에 찍어진 얼굴바위는 눈썹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눈썹이 빠져버니까 좀 덜 멋있거든요. 빠져버니까 또 김대통령이 별세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자.

• 하의웅곡선착장 농협건물에 걸려있는 하의도 큰바위 얼굴의 유래<sup>1)</sup>

물위에 연꽃이 떠있는 모양이라 하여 하의도라 불리는 섬입니다. 하의도 하면 큰 근·현 대사를 잇는 큰 인물인 김대중 전대통령이 태어나 태자리를 묻은 고향입니다. 이곳 하의도에는 대위의 덕봉산, 오림리 망매산과 어은리의 사람 얼굴 모양을 한 큰바위 얼굴이 피섬마을 뒤편에 있습니다. 하의도를 대표하는 명승지 중 범상치 않은 큰바위 얼굴은 행정지명 상 대점으로, 하의도 주민들은 일명 사자바위라 하여 큰 인물을 상징하는 큰바위 얼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관련 예로부터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전설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 신안군, 새롭게 조명된 하의도 '큰바위 얼굴' 전설<sup>2)</sup>

신안군, 새롭게 조명된 하의도 '큰바위 얼굴' 전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9.04.29 11:44

신안군 하의도에는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큰바위 얼굴"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하의도 피섬(어은리)마을 뒷산에 고승이 암자를 짓고 덩치 큰 수사자를 키우며 수도에 정진하였는데, 피섬(어은리)이란 마을 이름이 암시 하듯이 하의도에서 오지중의 오지인 산골 로써 들짐승도 많았지만 피섬(어은리) 앞산에 큰 범이 살면서 자주 출몰하여 가족은 물론 인명까지 해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수사자와 마을 젊은이들이 스님의 지휘 아래 범을 사생결단으로 공격하여 범은 생포 하였지만, 수사자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스님 또한 중태에 빠졌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마을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18일 만에 운명하였고, 수사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다 죽었다.

마을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며 의롭게 죽어간 사자와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친 스님을 양지 바른 곳에 안치하기로 결정하고, 관을 땅에 묻으려 할 때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사천왕이 내려와 스님과 사자를 바위섬에 안치하라는 부처님의 명을 받고 왔다면서 사체를 안고 사라졌다.

사람들이 뒤를 쫓다보니 하늘에서 "때가되면 온천지를 평안케 할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란 소리와 함께 사천왕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다. 이곳 주민들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후세에 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김대중 전(前)대통령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의면 주민에 의하면 이 같은 전설은 입소문으로 전해져 큰바위얼굴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 • 대장<sup>13)</sup>

[어렸을 때부터 장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대장?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 송씨 중에 입도한 할아버지가 절충장군이었잖아. 해남 사시다가 거시기로 들어오셨잖아. [어떤 분이세요?] 기억이 안나는데 절충장군이 요즘으로 말하면 소장이나 된다던데요. 요 옥도 들어온 그 할아버지네 아버님이 절충장군이어갓고 해남에 묘있고 그러잖아. 해남 왕산면에. 그니까 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송씨가 드세갓고 다 나가블고 한 게, 늦게 들어온 우리도 살지.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나가블고.

### 나. 무속신화

#### 가) 하의면 대리

#### • 하의면 대리 당할머니이야기<sup>14)</sup>

1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아무개(남.) 제보, 조사내용 <설화(대장) 01분23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2011.01.04(15:34)

14)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김원인(남,75) 제보, 조사내용 <당할머니이야기, 35분26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1리 233, 2008.06.24(화) 00:00

## \* 6·25때 다친 사람이 없는 이야기

[대리 당제와 관련된 영험담이랄까, 안 모셔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모시면 더욱더 마을이 융성하고] 그런게 당제를 노인들이 깨끗하고 마음이 현명한 분이 산을 보면서 산진이가(?-04:54) 당제를 모셨거든요. 그 양반이 아주 철저히 당제를 모셨어요. 그런 덕택인지 몰라도 6·25때 우리 마을에서도 출정을 많이 했죠. 젊은 사람들이 출정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습니까. 이 부락에서는 다친 사람이 없고 전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이 명산이고 제사를 훌륭하게 잘 모셨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고 그래요.

## \* 과거 당이 있던 곳, 당할머니 영험

[어떤 분이 시라던가요? 할머니를 모시는데 할머니는 마을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강하니까 늘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설은 듣는 바가 별로 없고. 뭘 얘기가 있었나면은 본래 당이 저쪽이 있었어요. 저 뒷산으로 가면 무시무시한 큰 바위가 있는데, 둥근 바위가 있어요. ‘봉덕바위’라고. 바로 그 앞에 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당터가 움푹하니 집터가 남아 있거든요. 나 어렸을 때 구경을 했었다. 옛날 초가집 움막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당이 있었는데, 거가 당이 있을 때 당할머니가 어떻게 영험하던지, 저 아래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게 오면 벌을 받고 그랬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옛날에 국가에 관로인이 말을 타고 오다가 품행이 단정치 못해서 그랬던가 말을, 말뚝을 이렇게 뿔 양채(?-10:29) 낳았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 \*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소나무 이야기

[그럼 아까 이야기 하셨던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옛저녁에는 빠졌는데 저기 소나무 있잖습니까, 논 가운데에 소나무가. 저기가 소나무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세 개가 있었는데 옛날에 지서리가, 명칭이 지서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게 지서리라는 것이 결국은 지해부, 지해부라고 해서 명칭을 했는데, 그 섬이 마을에서 보이면은 마을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나무 같은 걸 심어야 마을에 해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나무를 세 그루를 심었던. 세 그루인지 몇 개인지는 몰라도, 나 어렸을 때는 세 그루가 있었거든요. 세 그루가 주루룩 있었는데, 한 그루를 누군지는 몰라도 목 매달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목 매달아 죽은 나무가 약이 된다고 해갖고 다 쪼개 가브렸어. 그라고 두 나무가 살았는데 나무가 오래 돼갖고 가운

테가 구멍이 뚫어져갔고 거기서 (다음 말이 잘 안들림-12:44). 그 나무가 태풍인가 와서 쓰러져갔고 없어져블고 지금 한 그루가 남아있는데. 지금 서쪽에가 두 나무가 있는데 고놈은 요쪽으로 기울고 저놈은 저쪽으로 기울고 그래요. 하여간 이상히, 자연히 위 위치이지만 저놈은 요렇게 기울어서 했다고 들어요. 이렇게 해갔고 생명이 살고 있죠.

**\* 바위가 굴러오다 소나무에 부딪혀 멈춘 이야기**

[최근에 새로 만든 이야기라든지 누군가가 지어냈다는 이야기라든지 의심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고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당 뒤에 바위가 많이 있었거든요. 뱀을 잡기 위해서 바위를 건넜는데 바위가 울것다(16:00-차 지나는 소리가 겹침). 지금도 당 뒤에가 무시무시한 바위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바위가. 그란디 바로 당 뒤에서 굴러와갔고 당 뒤에가 울타리가 돌로 쌓여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란디 나무가 울타리를 넘어서 당으로 이렇게 왔는데, 당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둥이 이렇게 섰는데, 동쪽 쪽으로 제일 가쪽 기둥을 받혔어요. 받혀갔고 기둥 받힌 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갔고 돌이 옆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마당 구석쪽에 있는 큰 소나무, 그 소나무를 받혀가지고 밑으로 안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그 소나무가 없어서 바위가 마을로 내려왔으면 큰 피해를. 집이 무너졌으면 몇 채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을 거예요. 아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란디 돌이 당 가에 받히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큰 소나무에 부딪치면서 거기서 멈췄죠. 그런 신기한 일이 근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당할머니가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죠.

(당 뒤에 있던 바위가 굴러오다 당 동쪽 가에 있는 기둥을 박고 방향을 바꿔서 소나무에 걸침. 그래서 굴러오는 것이 멈춤.)

**\* 당제 이야기<sup>15)</sup>**

[이선생님이 이 마을에 살면서 당제 지내는 것 보셨어요?] 우리 어려서는 지낸 것 같아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지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지내요?] 40년, 1940년 정도까지만 지낸 것 같아요. [후에는 안 지내고요?] 내가 알리로는 안 지냈어요. [어느 분을 모시요?] 이 산 바로 우에게 당이 그전에 있었어요. 돌로 쌓아갔고 당이 있어서 우리도 잘 안 들어갔어요. 놀아도, 안산. [꼭대기에 당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인자 터만 있지 둘은 다 부락에서 집 담같은 것 쌓으면서 가져가블고 없어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도 돌로 담만 쌓아놨제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무만 서

있제. [집이잖아요?] 돌로 쌓아논 것이 집이제. [지붕도 없구요?] 지붕도 없제. [나무 하나가 있고] 나무도 여러 나무가 있어. [그럼 당축이죠?] 네. [나무가 있고 그 주위를 돌로 쌓았어요?] 네.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지내는 것은 못 봤어요. 안예다 상 차려서 음식 올리고 지낸 것 같아요. [마을에서 당제를 지낼 때면 누굴 모셔요?] 당할아버지를 모셨을 테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혹시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비가 안 올 때 불을 피웠어요. 비오라고 나무같은 것 가지고 가서 불을 피웠어요. [불은 나무가 있는 빈 공터에 가서 장작불처럼 피웠어요?] 네. [왜 불을 피웠을까요?] 비 오라고. 우리만 피우게 아니라 동네마다 다 피워요. 불을 피우면 올 때는 비가 와요. [그렇게 하면 비가 왔어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불을 피운다고 비가 오고 그랬거여.

## 나) 하의면 옥소리

조사자는 당집 터만 확인했다.<sup>16)</sup>

### 다. 생애담 및 경험담

#### • 연자방아 이야기<sup>17)</sup>

[전해오는 민요, 그러니까 연자방아놀이라든지 이런 것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연자 그것은 초대 노인회장님이 전국대회 나가서 장려상도 받고 그랬어요. 노래 유래를 내가 알아요. 응곡2구에 노래 잘 부르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신안 문화원에 등극되었고 그래요. ‘이흥채입니다. 거기가서 연자방 물어보면 잘 알거요. [연자방아 그제 노랜가요?] 옛날에 했던 고것을 가미해갖고 회장이 작사를 했죠. [회장님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것하고 짬뽕됐다고 봐야제. [아까 말씀하셨던 1대 회장님이 작사를 하셨어요?] 김상배씨가. [이쪽으로 잘 하셨어요?] 실력갑니다. [그럼 노인회장님은 대리 1구에 사셨던 거구요?] 네. 그때 당

1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 김양단(여,66) · 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자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2011.01.05(11:01)

1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 김양단(여,66) · 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자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2011.01.05(11:01)

1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김원인(남,75) 제보, 조사내용 〈당할머니이야기, 35분26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1리 233, 2008.06.24(화) 00:00

시 노인회관이 하의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가 아니고 하의면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의면 노인회이기 때문에 2대 때 하의면 노인회장, 나도 하의면 노인회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됐었구요?] 그렇죠. [연자방아가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요때 대회 이름이 뭔가요? 언제 적 정도?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5~6년 됐죠. 5~6년 더 돼야 할 것 같아요. [왜 연자방아가 전해올까요?] 그때 전국대회에서 초대 노인회장님이 과업을 해가지고 요쪽에 사람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출전을 한 것이지라. [다른 지역에도 연자방아가 있겠지만 여기에 연자방아 노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연자방아가 있었으니까 있었을 테제. [연자방아가 벼를 찢는 거잖아요?] 벼를 찢는 거죠. 연자방아가 2구 노인회관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부자집에 있던 것을 그쪽에다 옮겨서. 연자방아가 맷돌 원리여 그래서 소로 돌리고 그랬답니다.

#### • 하의면 대리 도깨비이야기<sup>8)</sup>

##### \* 교회 다니는 걸 도깨비가 방해한 이야기

그래갖고 또 그런게는 “니가 누구냐? 이리 나와라 나랑 싸움하자, 나는 하나님 딸인디 감히 니가 덤비나” 그러고 일어나서는 땡땡 굴러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 땡기게 할라고 방해를 놓았제라. [그게 첫 번째 겪으신 거예요? 두 번째도 있으시다면서요?] 여런 번 겪었어요. 첨에는 기도원 있는 데서 살았어요. 거가 동네가 댓가구 살았어요. 그랬는디 방죽 파갖고 들어가브러서, 거기서 땡길 때도 그라고, 거기서 땡길 때는 논 두렁으로 땡기고 그랬제. [할머니, 저쪽에서 오는 데 어떻게 방해를 했어요?] 요렇게 아랫도리를 걷어브렀지라. 신체도 뵈도 안 한디 논 쪽에서. 옛날 개국 때 일본놈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라. 여그 원등이 무서운 데라야. 옛날에 불도 없을 때 밤에 땡기믄 쫓겨다닌 사람도 많고 얼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라. 교회 못 다니게 할라고 그랬었어요.

##### \* 도깨비 만난 이야기, 원둑에서 일본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예전에 새벽에 교회 나가면 많이 겪었어요. 요즘은 안 글죠. [겪었던 얘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저기서 겪으셨다고요?] 네. 새벽기도를 나온 디 방해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방해를 해요?] 눈에 보이면 내가 쫓은 디라. [어떻게 보였어요?] 눈에 보이믄 검은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물로 차박차박 걸어오믄. 나는 요렇게 올라오고 저 밭 땡이로 가고 그러면은 막 내려다보고 거시가 한 정도믄 내가 쫓아내려가고 “저것 때려 죽여본다”그러믄 거기서

사라져버제.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든 다 대단하다 글제. [그런 모습을 한 도깨비를 쫓은 거지요?] 그러지라. [또 다른 겪은 얘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밖에 안 겪었어요. 그렇게 연방 오면은 그렇게 확 뒤에다가 벼락치게 갖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뒤 돌아보면 암 것도 없고 그러라. 그래도 가제. 꼭 그런거 난데서 나오고 그래라.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나 만나제 아니면 만날 필요도 없고. [할머니 아까 일본사람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제국 때 일본사람들이 들어와갖고 저 원둑에서 죽었다 [누가 죽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요?] 모르제. 죽었다고 말만 들었제. [한국 사람이 죽었나?] 아니제. 지그들끼리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거그서 자꾸 도깨비 난다고, 거기서 나서 연방 눈에 띠고 그런다고 했잖어. [그 도깨비를 할머니가 만나신 건가?] 몰라. [아까 난 데서 또 난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 홍가(?)들 맨 밑에. 저 홍가들 편상 맨 밑에. [거기도 운곡 2구예요?]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마을이 운곡이죠?] 네. [그럼 할머니가 만났던 곳이 저기 진봇대 있는데?] 저기 하우스 있소? 하우스 있는데 저기서도 그런 것이 잘 나요. 지금은 그런 것 없어 사방에서 불 켜게.

• 하의면 어은마을 절바위 설명, 당제지낸 설명<sup>19)</sup>

[이게 절바위라 했죠?] 네. 절이 살았다고 해서. [어디요?] 저 가운데 담 쌓아논 앞에 돌을 들어가면은 돌이 자연 그대로 침대가 되었어요. 중이 거기서 자고 그랬어. [그럼 저 왼쪽에서 첫 번째 바위하고 두 번째 사이에 뭔가를 쌓아놨죠?] 그렇지. 마을에 안 보이게. 돌이 앞밭 딱 벌리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고 해가지고 영감네들이 돌로 가려서 막아버렸제. 마을을 위해서. [평평한 바위는 어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라니까. [그럼 쌓은 데도 거기구요?] 네. 쌓아논데 그 앞에. [그럼 범바위는] 여기는 옛날 기와 같은 것이 깨진 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할머니가 살았다는 말이 맞고.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당제를 모신 거여. 깨끗한 사람한테 시키제. 그럼 한 3~4일 거기서 살다가 내려오고, 밥 해 먹고 그랬지. [언제부터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랬지. [그건 해마다 지냈죠?] 해마다. [당제 지낸다고 하나요?] 당제. 해마다 하제. 지금은 모시지 않았어요. 요 모퉁이 돌아가면 제 모시는 집이 있어.

1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김모음(여,78) 제보, 조사내용 <도깨비이야기, 17분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운곡2리 중앙교회 가는 길, 2008.06.25.

19)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1분44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3:10)

• **당집, 제를 지낸 이유, 제 지내는 시기 등**<sup>20)</sup>

옛날에 손으로 하던 식으로 기와로 지붕이 올려져갖고 있거든. [그 당집이요?] 여가 그 집이여. 당집. [그럼 기와가 있던 집은요?] 요 앞에 있단게. [그런데 지금도 기와가 발견된다는 거죠?] 지금도 입혀졌어. 옛날에 할머니가 살던 집은 우리가 모르게끔 부서졌는데 지금도 파보면 기와가 있어. 기와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부락에서 여기다 당집을 짓고 당제를 모셨제. [언제부터요?] 우리 어려서부터 했제. [그 전부터요?] 그 전부터. 지내왔고 전설을 따라갖고 따라서 죽으니까 제사를 모셨고. [해마다 모셨어요?] 해마다 지내다가 안 지낸 지 10여 년 됐어. [해마다 몇 월 달에 지내요?] 정월 달에. 정월 초하루날 올라가면 초 나흘날까지 거기서 살다가 내려왔어. [누가 올라가요?]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 [남자만요?] 남자만. 서이. 세 사람이 올라가면 사흘 간 살아야돼. 오줌만 싸러 가도 전부 목욕을 다시 해야 되고. 제사를 모실라든 물을 얼로 뜨러댕겼냐든 저 위에 버드나무 있다고 거기에 좋은 샘이 있어 거기서 물을 길어 날려. [당신으로 할머니를 모셨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잘 모르제 우리들은. [할머니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건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 [그렇게 모시니까] 왜 모시게 됐냐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를 모신거지.

• **하의면 어은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곳. 사자바위를 중심으로 주변 섬 위치**<sup>21)</sup>

[옛날 여기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구요?] 네.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것이 전설인지 몰라도 가깝게 있다 해가지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 [어디서요?] 중국서. 왜냐면 중국 말고 가거도 안좌도란 데서, 우리 땅에서 닭우는 소리를 그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여(웃음) 여기도 한 몇 시간 안 뚜들몬 그라몬 안좌도는 가거든. [거기 좀더 지나가면 가거도가 나오죠?] 가거도가 나온다. 가거도 보다 좀 내려가야 중국이 나오지. [그럼 사자바위를 중심으로 10시 방향에는 진도, 조도. 1시 방향에는 흑산도. 가까이는 신도가 있고, 2~3시 방향에는 가까이는 대화도, 떨리는 지도] 어.

• **하의도 어은마을사람들의 고기 잡는 법(배로 가서 잡는 것,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처에서 잡는 방법, 각 계절에 따라 많이 잡히는 어종)(13:33)**<sup>22)</sup>

가면 맨 고구마 밖에 안취. [흑산도 가면?] 흑산도가면은. 그랬는디 지금은 얼마나 발전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흑산도 그 사이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에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으려고 흑산도까지 가고?] 그렇지. [그러면 고기잡으러 가면 언제

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제. [그럼 그때는 풍선배잖아요?] 풍선배. [그때 잡는 것 들은?] 그때는 조기가 많이 잡혔제. 멸치 그런 것은 못 잡고. 멸치는 조도쪽으로 붙어야 멸치가 나오고. 그리고 봄판에는 여기가 개승어가 많이 나와. 초봄에 개승어가 올라오면 무지무지하게 나와버려. 한 번 떴다 하면 몇 백 마리씩 잡는데 허리가 뿌러져볼라 그래. 날 새분다 날 새버려. [봄에는 개승어가 난다고 했구요. 다른 계절에는] 여름만 닥치면은 간 재미, 장어, 농어, 우럭 이런 것이 나오고, 가을만 닥치면 우럭이나 곁떡, 농어새끼 그런 것 들이 나오고. 사구사철 고기가 나오제. 날만 좋으면은. 그라고 바람 불어서 배가 못 나가 면 인자 목이 있어. 해안가 보면 목이 있어. 이섬에 저섬에 가차운데가. 그러믄 줄 빼갖고 그물을 이군데, 저군데 쳐놓다가 요쪽서 풀어주고 저쪽서 잡아댕개 아침에 와서. 그러믄 고기가 양껏 걸린다고 그놈을 이고지고 넘어가제, 경운기 타고 오고. 그란게 다른 부락에 는 고기가 안 나와도 우리 부락에는 항상 고기가 나오지. 봄이건 말건 바람이 불건 말건 고기가 항상 나와.

#### • 하의면 옥도 반란군 이야기<sup>23)</sup>

[어렸을 때요?] 17~18세 먹었을 때. (중간에 바람소리 때문에 안 들림) 여기가 옛날에 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놓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여기 층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바닥으로 얻어먹으로 들어가볼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의면 지서로 가갔고 막 주는 대로 싹. 이 사람들을 잡을라고 그래서 싹 잡혔어요. [전부 잡아서 총살시켰다고요?] 그랬다는 것 같은데 안 들림.

## (2) 하의도의 민요·판소리

다음에 하의도의 민요·판소리이다. 웅곡마을의 민요·판소리, 대리마을의 민요 등이다.

2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3분43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3:10)

2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1분05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3:32)

22)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범숙(남,65) 제보, 조사내용 <어은마을의 구비전승자원 02분2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2010.12.11(13:33)

2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아무개(남,) 제보, 조사내용 <반란군이야기 01분31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옥도리, 2011.01.04(15:12)

## 가. 하의면 응곡마을의 민요

### 가) 응곡마을 이흥채의 삶(가족)

첫째, 하의도 응곡마을 이흥채의 삶(가족)이다.

#### • 가족 관련 이야기-아들 이창운(남,39) 인사<sup>24)</sup>

[자제분은 아드님 말고 어떻게 두셨어요?] 3남 1녀. [저 아들이 몇 번째예요?] 막내. 네 번째. [다들 출가했을 것 같구요?] 네. [막내하고 같이 사시는 거네요?] 네.

[손녀를 두셨어요?] 네. [장남은 어디서?] 경기도 안산에 살아요.

[장남은 이름이?] 이창열 [나이가?] 46세. [둘째 아드님은?] 이창승, 42세. [어디 살아요?] 여기 살아요. 다른 동네. [하의도?] 네. 오림4리에 살아요. [따님은?] 목포 출가했어요. [이름이?] 이순희, 36세. [자제분 중에 국악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요. 음악은 다 좋아해요. [직접 종사하거나 공부하신 않구요?] 네. [아버지가 판소리를 배운 것도 한참 전인데 가족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지하나요?] 좋아하는 해요 다. [아버지 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들도 좋아하고?] 네.

#### • 가족사진 설명<sup>25)</sup>

[여기 따님 나이가?] 지금 46세인가. [사위 이름이?] 이승훈, 49세. [큰며느리는?] 이름을 몰라요. [지금 이때 사진이 2000년도 이니까 환갑지나고 다음 년도인가요?] 네.

#### • 제보자 가족 사항<sup>26)</sup>

---

24)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이흥채(남,69) 아들 이창운(남,39) 인사, 5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4.

2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가족사진, 2분5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4.

2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흥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지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2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흥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지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어르신은 여기 토박이신데 할머니는 어디 분이세요?] 하의도.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산례(여, 70세). [어르신보다 한 살 어리시구요?] 네. [여기 사시면서 결혼하신거네요?] 어. [자제는 몇 분?] 3남1녀. [자제분들은 섬에 없을 것 같은데] 둘이 나갔어, 둘째는 농사짓고 염전하고. 장남은 저기 안산가서 살아. [그럼 어르신 하던 일을 받은 거네요?] 어. [그럼 장남하고 둘째아들. 그럼 셋째는요?] 셋째는 딸. [넷째가 막내지요?] 막내. [여기 사는 자제분은 막내하고 따님?] 아니 딸을 목포서 살고. [둘째 아드님이 여기서 농사 짓구요?] 아니 여기는 막내고 살고 둘째는 오림서 살아요. [거기서 염전 농사짓구요?] 어. [그럼 장남은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하셨어요?] 중학교까지 나왔제. [고등학교는요?] 목포. 문태고등학교 나왔어. 목포대학교 다니다가. [둘째 아드님은요?] 여기서 중학교까지 나왔어. [장남은 뭐하세요?] 지 사업해. 뭘 전기 엔진 뭘 한 모양이여. [따님은 언제 나갔어요?] 딸은 섬에서 안 태어났어. 목포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 여기서 살다. 초등학교만 여기서 마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목포에서 다녔어. [대학교는 안 가구요?] 어. [그러다가 시집간 거예요?] 어. [사위는 뭐하세요?] 사위는 전기, 냉장고 같은 거 고치고 한 모야이더만. [막내 아들은 여기서 뭐 하세요?] 농사, 염전.

[농사하고 염전이 수입이 괜찮나요?] 염전은 수입이 괜찮고. 내가 그때 당시는 생각이 짧았던가 정부에서 농사를 권장하고 그럴 때. 그라고 그전에 농사를 많이 안 지어놔서 항상 나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농사에 애착이 있었어. 그래서 농사라도 지어봤으면 싫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침 그때 당시에 막내가 고등학교 나오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해태를 하고 있는데 해태가 안 되더라고. 생전 처음 한 게 안돼.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서 1년만 도와주고 나가라 했는디 그것이 한 번 잡아논게는 그게 안 되더라고 얼른. 그래 그때 당시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래갖고 농토를 장만하기 시작했제. 농토 장만하고 농기계 장만하고 그런게. 농기계 같은 것도 저놈 아니면 못 해. [농기계가 많다는 것은 종류가 많은 거죠?] 어. [뭘뭘 있어요?] 트랙터, 경운기, 콤팩트, 잘잘한 거시기에 딸려 있는 것이 여러 가지여. [그럼 짓는다고 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어. 그란디 그것도 안 맞는다고. 또 돈으로 받으면 얼른 주도 안 하고. [그럼 받아야죠?] 글제. 돈이 한 번에 나와야 된디 그러지 않고 조금씩 용돈쓰듯이 나온게.

#### • 제보자 다쳐서 수술한 이야기<sup>27)</sup>

[어르신 여기 토박이시죠?] 어.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동네 말고 능산리라고 있어요. 능산리에 있는 농기계를 갖고 와서 가을에

나락을 베려고 했었어요. 근디 여자들이 나락벤 통을 잘못 놔가지고 엎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아, 이걸 나 다음에 일이구나. 내가 다친 것은 나락을 베고 있는데, 낮 때 우리 경운기가 아니라 그쪽 경운기에 나락 벤 것을 30포대 정도를 실었어요. 사고가 날라 그런가 모른다 온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 거가 쪼깐한 저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난대예요. 거기를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옆으로 뛰어 내린다는 각오도 하고 올라가서 내려갈라 한디 세워놓고, 경운기도 부레이크가 두 개예요. 저속 레바가 있고 구라찌(?) 레바가 있고. 저속 레바를 넣으면 천천히 가요. 그 기아가 안 빠지면 괜찮은디 그런게 나는, 경운기 잘 안 탄 사람들은 그 레바가 안 빠지거든요. 근디 레바를 넣고 내려간디 레바가 퐁 빠져블더라고. 그래서 튀어나려야 겠다 해서 그 카브로 내려온디 그 카브 앞에는 굵은 소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치여블든 죽지.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뛰어 내렸어요. 근디 앞에 레바들이 작은게 있고 큰게 있는데 작은 레바들은 그 앞에 공간이 있는데, 짜툽게 없으니까 길게 요렇게 해서 있으니까 거기 옷자락이 걸려버렸어. 옷자락이 걸려서 경운기 뒷바퀴로 들어가붙어, 요 옆으로, 골반하고 허리 밑에. 그래갖고 굴러버니까 경운기는 앞에 가서 전부 외장창되어야블고 한참 있다 보니까 움직여는 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그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니까 좀 있다가 오더만. 근디 인자 객선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맞고. 근데 소변을 볼라하니까 소변이 안나와브러. 그래서 점점 소변을 본게 배는 점점 올라오고 두껍더라고 터질라고. 그래 119해서 헬기를 불러갖고 그때 목포 코롬방 병원이 있을 때, 거기에 내려달라니까 거기 헬기장이 없어서 못 내린다니까 그때 중앙병원 막 지서가지고 중앙병원에 내려주더만. 근디 거기도 MRI같은 검사만 하고 맨 물만 집어넣더만. 그러다 1시간 있다 즈그들도 안 된다 글더만. 할수없이 엠블런스타고 광주로 올라왔어. 응급실로 들어와서 한디. 거기도 바닥에 내놓고는 배를 뚫었어. 배를 뚫어갖고 한게 그때는 살것드라고. 그 높은 천장까지 쏘지더라고. 고놈을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나시고 그 후에 약 계속 드셨겠어요] 거기서 입원해 있다가, 3일 있다가, 거기서 부은기가 다 빠져야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 한 두어달 있어야 한다더라고. 광주에 있을 순 없고 해서 코롬방병원으로 내려왔제 2~3일 거기서 있다가. 코롬방병원에서 한 4개월 있었제. 내가 4월달에 수술했으니까 한 5개월 됐제. 또 수술할 때 된게 광주가서 수술했제.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더라고 수술이. 수술하고 보름 입원했다가 목포로 내려와서 호스끼고. 여기도 호스가 있었던가 몰라. 그놈을 빼버려도 안 오그라들게 근디 그때부터 소변이 잘 안나오더라고. 한 10여 년 있었는데 괜찮아지더만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도로 그런 기가 나오더

라고. 그래서 아프고 어쩔때는 소변도 잘 안나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잘 생각도 안 하고  
 우선은 관절같은 데가 아파버리니까. 그래서 안 아플라고 서울을 갔제. 위장이, 여기서 독  
 한 약을 먹어브니까 위궤양이 되야갔고 그래서 서울을 갔제. 서울가서 그런 것도 하고 거  
 의 싹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엉뚱하게 암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했  
 제. 천만원 주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거 수술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올해 11월 달인가.  
 [지난 달이요?] 지난 달에 했어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하셨어요?] 응. 거기서 계속 약을  
 갖다 먹제. 거기 다닌 지가 한 1년 3개월 됐구만. [그럼 계속 오고가시다가 지난 달에 수  
 술하신 거죠?] 그렇지. 거기서 약을 먹고 한지가 1년 3개월 됐제. [지금은 불편하지는 않  
 으시구요?] 많이 좋아졌어 인자. 지금은 관절이 안 좋으니까 걸을라면 힘드니까 그렇지.

## 나) 응곡마을 이홍채의 삶

둘째, 하의도 응곡마을 이홍채의 삶이다.

### • 생애담<sup>28)</sup>

섬에 살면서 초등학교 때 유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부모 덕택으로 초  
 등학교 5학년 때 목포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갑자  
 기 별세를 했어. 15살 먹었는데. 우리 형제가 6남매데 막내 동생이 6월달에 낳고 아버지가  
 8월달에 돌아가셨어. 내가 장남인데 동생들이 잘잘하지. 초등학생들만, 학교도 안다니 애  
 기들이 셋이 있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던 것으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이 썩대밭이 되분거야. 어머니가 “너 하나만 내가 동냥을 해서라도 갈치겠는디 니그 동  
 생들 땀에 안되겠다.” 학교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왔죠.  
 할 수 없이 들어와서 지게도 질 줄 몰랐는디 지게 지고 농사일을 했죠. [이때부터 농사일  
 을 계속 하셨어요?] 네. 농사일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  
 까. 옛날에는 바깥 제사를 3년 상을 모셨거든요. 그러믄 동네사람들, 형제간들이 다 와서  
 제사를 모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 옛날에는 3년 상을 밖에다 상방을 짓어놓고 [3년

2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소리와 한풀이, 7분5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4.

매일] 보름. 매일 모는 것은 모르겠지만 초하루, 보름 한 달에 두 번씩 상을 차려서 놓고. 그렇게 3년을 하고 보니까 아버지 3년 상, 할아버지 3년 상, 할머니 3년 상. 9년 간을 큰일을 치렀다고. 그리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곤 죽겠다고 나 혼자 벌어갖고 일을 하고 동생들 먹고.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리죽 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내가 소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연지방아소리 농요도 있었고, 토속 민요도 있었고 남도 민요도 있었잖아요? 그니까 이 세 가지를 나열하면 안 되죠. 왜냐면 토속민요 속에 농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토속 민요 속에 모찌는, 연지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남도 민요 속에 그 지역에 꼭 있지 않는, 즉 누구나 잘 부르는. 그러면 토속 민요도 있고 남도 민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죠. 그 지방에 토속 민요가 따로 있고 남도 민요는 공통적으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부르는 남도 민요예요. 지금 진도애가 남도 민요 대회가 있잖아요. [제가 방향을 바꿔서 상여소리만 듣고 끝낼게요. 이렇게 하고 장구치기 어렵죠?] 괜찮해요. 상여소리는 꼭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맞이고 주는 소리는 혼자 어렵죠.

• 생애담<sup>29)</sup>

머리에 붙여야 되거든. 근데 빠져브니까 그 시간을. [그래서 장단을] 장단에다 신경을 쓰제. 요거는 테이프 틀면 다 나온다. [지금 뭐하고 오셨어요?] 양파하고. [그게 12자루나 나왔어요. 한 자루에 얼마나 하나요?] 만 원해요. [그럼 벼농사도 지으시고, 지금처럼 밭농사, 양파 또 다른 것을 뭐하세요?] 염전. [하의도에서 염전을 많이 해요?] 예. [염전도 일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시작하는 때가 있죠?] 네. 일년에 한 3개월 쉬어요. 11~3월 한 5개월 쉬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4월부터. [소금도 출하할 때 20kg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담아서 할 때?] 티배가 30kg 티백. [30kg가 얼마에 나가요?] 지금 5천 4~500원 할거요. [그럼 이선생님이 하던 것을 아드님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네. 내가 객지 생활을 14~5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차가 정비를 또 했거든요, 하다가 도로 집으로 돌아와갖고 해태를 했어요. 김을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치워블고 내가 없이 어렵게 살아와서 농사에 한이 졌었어요. 그래서 남이 염전을 사도 나는 안 사고 농사에다 주력을 했죠. 지금은 농사갖고 이 모양이 되브니까 지금은 후회도 들어요. 그래서 아들도 잡아 놓은 것이고. [이제 전념하실 때?] 예. [이렇게 하다가 아드님한테 농사를 갖기 하자고 하셨을 텐데 왜 후회를?] 인자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럼 농사를 하다가 아드님한테 인계를 하고 모든 농사법을 알고 계시는데 뭐가 후회하는 맘이 드세요?] 농사법도

달라지고 세계적으로 농사가 무시되니까. 비료 값 오르지. 그 전에 내가 농사를 시작할 때는 농사가 괜찮았거든요. 객지에 나가서 남 밑에서 월급생활 하는 것보다 낫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을 것이여. 근디 농사가 무시가 되니까 잡아 놓은 것이 후회가 들어요. 나는 바래서 그런 것인디 지그가 후회스러운 것 같애. 그래도 어디 가서 월급생활하는 것 보다는 낫은데 그래도 힘드니까.

#### • 상 받은 것, 계절학교 수업<sup>30)</sup>

농요나 이런 것은 연습을 해야 한디 언제 할 거시기가 없잖아요. 해봤다가 자꾸 잊어버려져. 사설이 맥혀브러. 사람이 있어서 장단도 맞춰주고 내가 소리만 하면 그런테로 나오는데 맞을라, 장난칠라, 믹일라 그런게 잘 안돼. 이거는 장관상 받았을 때. [그럼 어제죠?] 2003년. [그럼 2006년 장보고 추모를 위한 국악 경연대회인데 판소리?] 네. [이때 고수는 누구셨어요?] 박금영이라고 진도. [그럼 소속이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 같이 농사 짓고 살아. [그럼 요때 같이 약속을 해서 연습도 하고] 모임이 있어서 같은 모임 회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말고 판소리 고법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모인 것이 있거든. 각 군마다. [그럼 신안군에] 신안군, 우리나라 각 시군. [그런 모임이 있으세요?] 네. [이 대회에서 입상하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상은?] 대상. 그니까 장관상이죠. 작년에 목포대 나갔어. [목대 오셔서 뭐 하셨어요?] 목대는 내가 작년에도 나갔고, 학생들 여름방학 때 신안 중학교 가서 2박3일 계절교실을 내가 했어. [내용이 뭐예요?] 민요.

#### 다. 웅곡마을 이흥채의 구비전승(소리)

셋째, 하의도 웅곡마을 이흥채의 구비전승(소리)이다.

#### • 신안문화원에서 하는 일<sup>31)</sup>

29)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생애, 12분41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08.06.24.

3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생애, 12분41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08.06.24.

3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주특기는 판소리, 39분44>,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 2리 36, 2008.06.24.

[문화원에 가서는 어떤 걸 하세요?] 토속민요, 문화원의 강사 내용이거든요. 신안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서 강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강사를 네 명 두고 있죠. 그래갖고 압해, 비금·도초 한 팀, 장산, 하의 네 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각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의는 선생님이 담당하시구요?] 네.

[압해는 누구신가요?] 압해는 김연예씨라고 그 분은 목포 분이예요. 진도 태생인데 지금 목포에 살고 있는데 압해에 강사가 없어갖고 그 분을 초청했어요.

[이 분도 토속민요를 하세요?] 토속민요도 하고 남도민요도 하고.

[비금·도초 담당하시는 분은요?] 비금·도초는 유점자씨.

[이 분은 굿하시는] 네.

[비금·도초에 사시겠구요?] 네.

[이 분이 담당하시는 것은?] 거기에 맞는 토속민요.

[장산도는요?] 강부자씨.

[이 분도 토속민요구요?] 예. 이 분도 무속인이예요.

[유점자 이 분도 그렇구요?] 네.

[이 분들은 굿은 안 하시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는 토속민요?] 네. 굿은 다른 데 가서 하지.

## • 농민운동기념관의 연자방아<sup>32)</sup>

### # <연자방아소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내 한 말 들어주소.  
늪은 도끼 찍은 것이 번등에서 떠오르고  
몇 번이나 거듭했나 천만으로 헤아릴까  
슬프도다 우리 인생 한 백년도 채 못 되니  
중광화초 추월야에 가는 거른 멈추고서(‘음’인데 ‘거른’)  
계수나무 가지 꺾겨 불로불사 약이던가  
달고리가 숨어감이 태초부터 이 밤까지  
억만으로 헤아릴까 빈손으로 오고감이  
늪은 도끼 찍은 것이 이슬로나 뿌려나 주소

〈후렴〉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

(중략)

• 사철가(처음녹음못함), 흥보가 매맞으러 가는 대목, 신벚노래사설, 산다이<sup>33)</sup>

\* 〈사철가〉-00:00~05:38

-조상현 사철가와 조금 틀림

=사철도 조금 틀리고, 음도 조금씩 틀림

-김순자 사철가

=목포에서, 65세 정도. 한 26년 전에 배웠음

=단가를 배우고 판소리를 배웠음

\* 〈흥보가 매 맞으러 가는 대목〉-06:59~12:24

여기까지가 매 맞으러 들어가는 대목이에요.

\* 〈벚노래〉-12:50~13:37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야~ 어기야~ 벚놀이 가잖다.

어기여차~ 어기야디여차~

어기야~ 어기야~ 벚놀이 가잖다.

인자 후렴을 내가 적어봤는데 [방금 전에 매 맞으러 가는 대목하고 매 맞으러 가는 대

---

32)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농민운동기념관의 연자방아 사설, 1분24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08.06.25.

3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사철가(처음 녹음못함), 흥보가 매맞으러 가는 대목, 신벚노래사설, 18분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08.06.25.

목인데 매 맞으러 가는 대목만 하신 거죠?] 지금 가는 대목이요.

\* 〈뱃노래〉-14:07~15:17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 가잖다.

만경창파~ 만경창파에 갈매기로 벅을 삼고 뱃놀이 가 놀자  
어기여차~ 어기야디여차~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 가잖다.  
낙도정랑에 배를 띄우고

오늘은 잘 안 되네. 내가 적어 논게 있는데 내가 불러주라 해갖고 대강 적었는디,

만경창파에 배 띄우고 출렁출렁 노를 저어라 달 맛이 가잖다.  
부딪히는 파도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 젓는 소리 처량도 하구나  
탄탄한 물결 위에 처량도 하구나. 요량한 소리는 애내성중어적이 분명허구나.  
달도 밝고 명랑헌디 어허야디야 고향 생각이 절로 나네

#### • 벼농사 지을 때 하는 소리<sup>34)</sup>

[벼농사 짓을 때 소리는 모심는 소리] 모심는 소리는 하지만은 가실(가을)에는 소리가 없어요. [모심고 할 때는] 그때는 소리가 있어요.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그런 것이 있죠. [어르신은 이런 것 지금도 할 줄 아시죠?] 예전에는 다 했제라.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는 했는데 논매는 소리는 배울라다 못 배웠제. 소리는 들었는데 못 했어. [

---

34)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김양단(여,66)·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지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홍채씨택, 2011.01.05(11:01)

35)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김양단(여,66)·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지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홍채씨택, 2011.01.05(11:01)

모찌는, 모심는 소리도 배워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들어서? 들어서 알제. 논매는 소리는 배울라고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못 배웠어. 노인 중에 잘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씨것구만. 이름은 잘 몰라요. 내가 여기로 시집왔는데 친정쪽에 있었어. 못소리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돌아가셨어. 혼자 할라든 힘 든디 주고 받아야 되거든. [모찌고, 모심고, 논매는 소리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따로따로 불러요. 전체를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 • 소리 가르친 이야기<sup>35)</sup>

[선생님이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연자방아소리 같은 걸 가르치려고 했었죠?] 예. 지금은 몸이 아파서 못 하지만. [어느정도 하셨어요?] 한 3년쯤 했어요. [그때 신안문화원에서 프로그램에 소리를 가르치신 건가요?] 예. [그럼 2008년부터 3년간 하셨어요?] 네. [어디서 하신거예요?] 기념관이 있어요. 또 노인다에 가서 하다가. 여름에는 기념관에서 하다가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니까 노인당에서 하고. [몇 명 정도예요?] 1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운곡리 사람] 딴 동네 사람. 대리도 있고, 운곡리하고, 어은리있고, 후광있고. [명단이 있어요?] 명단을 내가 안 잡았거든요. 여자들이라 지그끼리 총무를 정해서 했어요. 총무 이름을 몰라. 은곡 3구. [총무가요?] 네. [신안문화원에는 명단이 있겠네요?] 명단이 있죠. [그럼 시작하고 하는 것을 1년마다 모집을 해요?] 네. 1년마다 모집해요. 1기, 2기 그래요. [2008년도에 1기, 2009년도에 2기 해서 3기까지 하셨어요?] 네. [매년 10여 명이 모였구요?] 네. [보시기에 소리를 배우기만 하지 않고 배워서 가르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얼른 안 되더라고. [시도는 했어요?] 네. 여자들이 소리를 해야되니까 해도 얼른 못 받아들이드라고. [안타까우시겠네요?] 네, 받아서 전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 속으로는 안 좋았제. [안 좋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찾으셨을 것 아니에요?] 방법이 할라해도 여기는 시골이라 이걸 꼭 해야 것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곡이 딱 정해져갖고 인자 가사나 곡이 정해져갖고 가요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얼른 전달이 안 되더라구요. [매 기수마다 가르친 걸 또 가르치고 그러셨죠?] 네. [주로 뭘 가르치셨어요?] 도리깨소리하고, 연자방아, 모찌는 소리, 상여소리, 모심는 소리 그렇게. [도리깨 소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하는 것이죠?] 치면서 그때그때. [저번에 도리깨 소리 해주신 것 그거죠?] 네. [어떤 내용을 넣어요? 하실 때] 그때 봐서 생각대로.

(중간에 소리 받아줄 사람이 들어 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양감. [연세는요?] (중간 짤림) 2구. [결혼하시면서 여기 오셨어요?] 네. [몇 살 때 하셨어요?] 20살. [친정은 어디세요?] 여기 마을이에요. [결혼하실 때도 여기가 은곡 2구였었죠?] 네. [성함이?] 기이춘 [연세가?] 70요. [친정은 어디세요?] 후광1구요. [결혼하시면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자제분은 어떻게 두셨어요?] 2남2녀요. [다 컸죠? 출가하고?] 예. [김양감 할머니도 자제분은?] 6남매여라.

[이선생님, 오신 분들은 그때 소리 가르치실 때 배우셨던 분들이세요?] 예. [같은 기수에요?] 네. [2008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몇 년 도에 하셨어요?] 그 전부터 하긴 했는데. [소리를 하셨으면 이 마을에 사시면서 소리를 가르쳐 줄 기회가 있으셨어요?] 솔찬히 같았제라. [여기서요?] 예. [소리는 댁에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좀 하다 노인당에서 가르쳤제. [여기 집에서 가르칠 때도 아까 소리들을 다 했어요?] 네.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 모찌는 소리도 긴소리를 하다가 짧은 소리 하고 인자 그러제. 두 가지를 하제. 먼저 긴소리를 하고, 짧은 소리를 하다 모심는 소리를 하고.

• 하의도 소리의 특징<sup>36)</sup>

\* 〈하의도의 모찌는 소리〉

아하~~아~~노아~~~~  
어~~언~~데~~야~~어~~요~~  
  
이삭을 베어서 어데어데를 갔다가  
아하~~아~~노아~~~~  
어~~언~~데~~야~~어~~요~~

---

3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 김양단(여,66) · 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지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홍채씨택, 2011.01.05(11:01)

이때만 찾아서 돌아를 오네  
아하~~아~~노아~~~  
어~~언~~데~~야~~어~~요~~

아~~~라~~~언 디요~~  
아~~~라~~~언 디요~~

무헌데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아~~~라~~~언 디요~~

이때만 찾아서 돌아를 오네  
아~~~라~~~언 디요~~

저등에 어등에 갈디는 저 총각  
아~~~라~~~언 디요~~

모체만 받으면 내뒤만 따라라  
아~~~라~~~언 디요~~

어근해 안산에 비몰아 온다  
아~~~라~~~언 디요~~

여기까지가 짧게 했어요, 모찌는 소리고 이거는.

\* <하의도의 모심는 소리>

모심는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는 소리는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상사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이때만 찾아서 돌아를 오네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앞산은 점점 멀어를 지고요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뒤산은 점점 가차나 진다네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이 모를 심어서 논농사를 지어서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나라님께 진상을 허세  
아~~ 헤야~~ 어~로~ 상사디요

이게 모심는 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서는 짜롭게 하는데 일할 때는 그때그때  
맞춰서 일 끝나도록 해야제.

\* 〈하의도의 상여소리〉

어~~님~~어허~님자~언~~자~  
어이가~~ 넘자~~어화님~~

어~~님~~어허~님자~언~~자~  
어이가~~ 넘자~~어화님~~

(?)차 소리는 어디를 갔다가 인생만 죽으믄 찾아 오네

어~~넙~~어허~넙자~언~~자~  
어이가~~ 넙자~~어화넙~~

인제나 가시면 어느제나 올라요 오시는 날짜나 일러주오  
어~~넙~~어허~넙자~언~~자~  
어이가~~ 넙자~~어화넙~~

가는 날은 안다만은 오마는 날짜는 모르네

어~~넙~~어허~넙자~언~~자~  
어이가~~ 넙자~~어화넙~~

북망산천 멀다더니 저건네 안산이 북망일세  
어~~넙~~어허~넙자~언~~자~  
어이가~~ 넙자~~어화넙~~

어넙자 어화넙  
어넙자 어화넙  
어이 넙자 어화넙  
어이 넙자 어화넙

간다간다 나는 간다  
어이 넙자 어화넙

애수 간데를 모두 가네  
어이 넙자 어화넙

오늘 이길을 걷고 보면  
어이 넙자 어화넙

어느 시절에 다시 와서  
어이 넘자 어화넘

이길을 길을 꺼나  
어이 넘자 어화넘  
오늘 이시간 지나가면  
어이 넘자 어화넘

때짱으로 우를 삼고  
어이 넘자 어화넘

산새들과 벳을 삼아  
어이 넘자 어화넘

노는 것이 일생일세  
어이 넘자 어화넘

이런 식으로.

\* 〈하의도의 도리깨 소리〉

도리깨를 언제 군에서 물어보드만.

어~유~~해~~야 어유해야 어유해야 해야~~  
어~유~~해~~야 어유해야 어유해야 해야~~

이마당이 뉘마당인가 허이헤~~허허헤헤  
두 대풀어 기민주든 허이헤~~허허헤헤  
모동지네 마당일세 허이헤~~허허헤헤  
모동지네 마당에서 어~유~~해~~야 어유해야 어유해야 해야~~

보리고개 넘어간다 허이헤~~허허헤헤

이것이 긴소리가 인자

허유헤야~ 허유헤~

이마당이 누마당인가 허유헤야~ 허유헤~

모동지네 마당일세 허유헤야~ 허유헤~

이보리를 어서 찍어 허유헤야~ 허유헤~

어~유~~해~~야 어유헤야 어유헤야 헤야~~

어~유~~해~~야 어유헤야 어유헤야 헤야~~

지금 짧은 소리, 얼른 못 맞으니까.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계수나무 가지껌어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야

소리를 다 잊어버렸어. 2년 가까이 안 하니깐 다 잊어버렸어. [3년 전에 소리를 가르치기 전에 소리를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 도리깨소리 할 때는 91년돈가 됐을 거여. [그때부터 동네에서 하신 거예요?]네 [하신 동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침에 시작할 때는 남도문화제 나갈라고 시작 했제. 그때는 남자들이 거의 했었 거든.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현재 소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죠?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배울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서둘러서 해야돼. 그러믄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사람 오라하고

사정하고 그래서 하기가 힘들더라고.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모른다면 일부만 알고 전체를 모르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럴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근다고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할라면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일한다고 안 나와볼른 못 하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이나 군에서 하라고 해서 지시를 내려줘야 한 사람들도 따르고 그러제. 내가 해가지고는 안 돼. [관광객이 온다면 노래판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 하면 저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서로 연습을 해야 돼. 소리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배울 때는 어렵게 배운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적은 사람한테 꿋고 힘들고 애쓰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내가 하면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째 자세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

이런 생각도 했었어. 내가 몸이 좋으면 체험마을로 해갔고, 또 염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체험마을로 해갔고 이런 것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걸 할라고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 이흥채(남, 71) 하의도의 상여소리<sup>37)</sup>

순 서	나 일러를 주오
1. 상가집에서 괄문상 나오면서부터 시작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2. 상여 꾸미는 대목 - 영결 종천 축문 잠깐 예의	4. 상여 미는 대목 - 자 자 자
3. 상여소리 - 긴소리(중머리)	(메기는소리)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긴소리)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긴소리) 북만산천이 머다터니 저건너 앞산이 북만일세
(메긴소리) 불쌍하신 김씨망자 불쌍하시게도 가시었네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김) 가네가네 하시드니깐 영영 아주 가시네
(메긴소리) 인제가면은 언제나 올라요 오시만 날자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김) 자식들이 잘있거라 북만산천 나는간다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37)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 김양단(여,66) · 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 <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끼,연지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번지 이흥채씨택, 2011.01.05(11:01), 얻은 여소리 자료.

(메깅) 나없다고 싸우지말고 오손도손 잘살어라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허망허세 허망허세 우리인생이 허망허세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여보시오 상두군들 이네 한말을 들어보소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너도 죽으며는 이길요 나도 죽으면은 이길뿐  
 일세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헌디 너는 어디  
 로 행하는가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쉬어가세 쉬어틀가세 이자에서 쉬어가세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자 자 자 ~

(거리제) 잠깐 제사(거리제 모심)  
 (거리제를 잠깐 지내고, 상주, 제주 부름)

※거리제 음식 잠깐 관객들에게 나누어줌

(소리메깅)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초상일세 초상일세 돌아가신 명인이 초상일  
 세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자 자 자 ~  
 (후렴) 자 자 자 ~  
 (메깅) 오늘 이 길을 걸어나가면 어느년 어느때 여  
 러분들과 다시 걸어볼리나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상주들 울음

(메깅-하적소리) 하적이야 하적이로구나 새왕산 가  
 신다고 하직을 혀요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 자 자 자 ~  
 (후렴) 자 자 자 ~ 절 (앞사람들)  
 (메깅) 남녀노소 다잘있소 새왕산 가신다고 하직을  
 혀요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자 (메깅과 후렴 동시)  
 (메깅소리) 살든집도 다버리고 처자식도 다버리고  
 새왕산 가신다고 하직을 혀요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자  
 자 자 ~ 후렴 ○○자 ~ 절)  
 (메깅) 어넙어어넙차어이가리넙차너하넙  
 (후렴) 어-넙 어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늘어진중중머리) 허넙 허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  
 넙  
 (후렴) 허넙 허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소리) 동네남녀노소 다잘있소 북만산천 나는  
 가네  
 (후렴) 허넙 허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소리) 내가가면 아주면 아주간들 있을소나  
 (후렴) 허넙 허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소리) 슬프구나 우리인생 한백년도 채 못살고  
 (후렴) 허넙 허어넙차 어이가리넙차너하넙  
 (메깅소리) 춘광화조 추월야에 이슬로나 사라지네

(빠른중머리) 어넙차 너하넙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못가것네 못가것네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노자가 적어서 못가것네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황천길이라고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황천길을 가다가 보면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조상님도 만나뵈고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형제간도 만나뵈고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친구들도 만나고보면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노자가 적어서 못가것다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이다리를 걷고보면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저승가는 길이로세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어와세상 벗님네들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이네 한말 들어보소  
 (후렴) 어넙차 너하넙

(메깅) 이세상에 생겨났다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못해보고 못다한일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세상에 다시만나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후생에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이별없이 살어보세  
 (후렴) 어넘차 너하넌

※이때 상주가 십원을 노자돈 자리에 놓아줌. 소리는 계속 이어짐

(메깅-다리건너기) 자 자 자 자 ~  
 (후렴) 자 자 자 자 ~

(건너고 나서, 중중머리소리) 어-넌 어어-넌차 어이  
 가리넌차너하넌

(메깅-중중머리) 어넘차 너하넌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간다간다 나는 간다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이수건너 박노주가자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오늘 이 길을 걷고보면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연년히고 못온다네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극락이라 하는 것은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대장으로 우를삼고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산새들과 벗을 삼아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밤낮없이 노닐적에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이것이 바로 극락일세  
 (후렴) 어넘차 너하넌  
 (메깅) 어넘차 너하넌  
 (후렴) 어넘차 너하넌

#### 4. 산으로 올라가며 곱운반

(메깅) 자 자 자 ~  
 (후렴) 자 자 자 ~

(평토제) 제사 - 상주는 곡

#### 5. (가래소리) 이영청가래야 어영청가래야

(메깅) .....하랴.....

### • 생애소리 보존회에 대한 이야기와 제보자의 생각<sup>38)</sup>

[생애소리 보존회도 있죠?] 보존회가 있는데 회비를 갖고 그러지 않으니까 있으나 마나. 회비가 없으니까 모일 수도 없으니까. 모이면 술 한 잔씩 해서 보내야 한디 회비가 없으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모임에서 소리를 보존한다든지 해서 해마다 공연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전에는 면에 행사 있고 하면 한 번씩 했는데 생애소리 갖고는 안 했어. 도리깨소리, 연자방아소리 그것 갖고는 그때 당시 했었는데. 생애소리 가지고는 그때 하고는 안

38)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했어요 아직까지. 근디 생애소리가 문제드라고 지금 한 거 보면 엉망으로 하거든. 그래서 저거라도 다음게 해냈으면 좋겠다 마음 속으로 그러지. 근디 마음대로 되야지 말이지. 또 다른 소리하고 틀려가지고 생애소리 하면 옆에 사람들이 듣기는 좋아하는데 싫어하거든. 묘하드라고. [그럼 엉망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동네 상가집 갖은 데를 다녔어요. 면에서만. 내가 바쁘고 몸도 그라고 그래서 안 다닌디. 남도문화제 하면서 보니까 그 테일로 그때 당시 상무란 사람이 150개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각 부락으로 돌려블고 주란 사람들 돌려블고 그래서 일만 나면은 테일만 틀어놓고 있는 거여. 근디 누가 배울 사람도 없어요. 그라고 이것이 소리가 짜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 아무나 해갖고는 안 되거든 얼른. [이것을 이어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할 사람들은 있는디 안 배울라고 해. 즈그 멋대로 할라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엉망진창이여.

• **제보자가 생각하는 하의도 소리(진도, 해남과의 연관성), 학원을 다니게 된 이야기<sup>39)</sup>**

[생애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번에 내가 들은 소린디, 진도 상여소리라 그러드라고. 진도상여소리는 내가 안디 틀려요. 우리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장단이 들어간디 그 사람들은 육자배기로 해서 소리가 나가거든. 6박으로 해서 소리가 나가는데, 소리가 틀리거든. 보면 목포쪽 소리들이, 목포는 신안사람들이 거의 가서 살잖아, 본토백이들이 별로 없잔하. 그러니까 신안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의 하는 소리여. 중간에 조금씩 틀려도 비슷비슷한 소리여. [목포소리가요?] 응.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여소리하고 농요하고는, 지금 신안에 남아있는 농요하고는 그게 어디서 소리가 나오냐면 해남, 진도서 넘어 온 소리여요. 거의가 하의도에서 산 사람들 선조들이 해남, 진도를 거쳐서 여기로 온 거여요. 그 전에 해남, 진도를 많이 다녔어. 그래서 진도 사람들도 여기와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 진도소리여요. 근디 판소리는 아니지. 농요같은 것은 거의가 진도 소리하고 비슷비슷해. [그럼 배스한 것은 왜 그럴까요?] 부르는 사람, 창자땀에 그랫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열이 배웠어도 시켜노면 거의가 딴 소리를 해, 음이. 음이 틀려지제. 우리도 학원에 가서 똑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디 부를 때 보면 자기 음으로 이상하게 부르드라고. [그럼 농요같은 게 비슷한 것은 진도사람들이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39)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지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여기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 사람들도 와서 놀 때 부르고 한 것이 거기서 많이 따온거여. [근데 그냥 놀러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집을 온다든지] 시집을 읊로 많이 왔제. 그 사람들이 퍼트린거여. [그 당시에는 시집을 올라면 배로 다녔제. 서로 오고가고. [진도 옆 조도에서도 많이 왔어요?] 같은 진도여. 진도군 조도면 이여. [지금도 진도 분들이 시집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도사람들하고 거래가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진도 사람을 많이 부르드라고. [무슨 일은 거거죠?] 주로 상가집들 소리. [지금도 하의도에서 장례치를 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내가 안 해브니까 소리 할 사람도 없고. 지그끼리 까딱까딱 하다가 가브러. 옛날에는 아침 9시 경에 상여가 나오면은 하루종일 점심먹고 놀다가 저녁 때 가서 묘 묻고 그랬는디 지금은 안 그래요. [아까 소리가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음이 다르고 태임으로 들어서 그렇게 말 씀하신거예요?] 아니여. 지 음이 아니다 이거여. [그러니까 선생님 소리가 아니라구요?] 나 하고 받은 판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받은 사람들이 한 소리르 받았지만 소리를 한거 보면 엉뚱하게 음이 틀려블드라고.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소리를 해야하는데] 그라제. 선생님 소리를 해야제.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들은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라보면 어찌나요?] 여기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갖고 소리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학원에 발 딛은 건 면에서 내가 처음이여. 그 전에는 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놀면서 귀로 듣는 것이제. 그리고 어느 동네든 간에 심하게 노는 동네는 노는 사람도 많고 다른 데서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요.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음도 안 맞제. 박자도 안 맞제. [그럼 선생님은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학원에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제.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서 소리 할라면 내 부락에서는 아무 소리나 해도 관계없지만 판데 가서 부르고 할 때는 음은 좀 틀리더라도 박자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그런디 그런게 어렵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원을 찾은 거제. [학원에 가신 것은 주로 판소리를 배우려고 가신 거죠?] 그러제. [민요는 예전부터 여기서] 여기 것을 해도 장단을 딱딱 맞춰야 해. 민요난 농요같은 것을 해도. 전부다. 장단이 안 맞으면 안 알아줘요.

[생애소리는 이후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난감하네요. 선생님이 직접하셔야 하는데] 맞아야제. 내가 맞음서 할라면 힘들어서 못 해. 목포가서 해야 돼. [거기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 [여기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서로 모여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현재 하의도에 선생님 소리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하의도에 생애소리는 이어갈 사람이 없네요?] 그런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 죽어블른 상여

소리도 끝이구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생애소리는 자료가 신안군에 있나 요?] 군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테잎에 있는 소리는 출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게. 출전하기 위해서 안 만들었어도 여기서도 비슷해요. 여기서도 상여소리 하고 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소리여.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사실이 좀 정리가 됐지. [나머지는 같구요?] 예.

• 제보자 과거의 하의도 모임, 신안문화원에서 하는 일<sup>40)</sup>

[어르신 지금 목포나가셔서 돈 주시고 배우고 하시는데 그건 개인 활동이예요? 관심이 있으셔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어. [소리 하시는 분들끼로 모임을 만들어서 목포에서 하시는데 그전에 하의도에서도 하셨어요?] 하의도에는 그전에 우리 나이 있었는데 전부 돌아가셔버렸어. 겨울에 일 끝나면 모여서 북도 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 다 돌아가셨어. [네 분은 누구세요?] 김은석, 강은상, 제갈제동.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세요?] 제갈제동. [나이가?] 68세. [강은상씨는?] 82세. [언제 돌아가셨어요?] 거기도 작년에 돌아가셨을까. [김인석] 82세.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5~6년 되얏구만. [김인석 이분은 뭐 잘 하셨어요?] 북 잘 쳤어. [강은상 이분은요?] 그분은 소리도 소질있고 북도 소질있고 사물도 소질있고 다 잘 했는디. [제갈제동은?] 북 잘 쳤어요. [이렇게 풍물 한 팀이셨어요? 모여서 뭘 하셨어요?] 판소리하든 장단치고, 배우고 싶은 것은 갈쳐주라 해서 배우고. 사물 같은 건, 사물을 할라고 했는디 얼른 잘 안 되더라고. 강은상씨기 다 해야 되는데 앞을 못 봐 그래서 안 되더라고. [선생님이 판소리를 하면 장단도 맞춰주고?] 어. [그럼 이때 뭘 많이 하셨어요?] 판소리, 민요. [민요는 상여소리 하셨어요?] 여기서는 상여소리를 함부로 못 한다니까. 남도민요. [사물은 풍물을 말하는 건가요?] 사물은 명절 때 좀 친디 앞을 못 본게 결궁을 못 다니니까 얼른 안 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신안문화원에서 하의도는 선생님이 하시고 다른 데는 누가 하시고 해서 큰 모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아파서 못 나갔는데 작년까진 했었어요. 올해도 한 모양이더만. [신안문화원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래요?] 각 면. 지방 농요나 민요나 그런 거 찾을라고. [그 지역의 소리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소리를 배우는 거죠?] 어.

40)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지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 신안문화원에서 하는 일, 마을 농악대 가르친 일<sup>41)</sup>

[전에는 모여서 소리하시는 게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제. [그게 뭐였어요? 명절 때 설날이나?] 명절이나 놀 때. 나이 먹고 하니깐 또 여자들도 있어야 맞아주거든. 잘 맞아줘야 소리도 잘 나온다. 잘 못 맞으면 소리도 안 나와버려. 문화원에서 한 것이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제.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나는 우리 부락이니까 모여서 일주일에 두 번씩. 작년까지 그렇게 했제. [그럼 신안문화원에서 계획을 해서] 원래는 우리 문화원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서 전국적으로 다 한거여. 전국 문화원이 다 한거여. 그래갖고 나는 그 전에 듣는 소리가 있어논게 뭘 하든 제일 잘 하제. 아는 사람이 소리하는 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소리하는 것하고 틀리제. [그럼 잊어버리지 않게 일주일이든 모음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근디 그렇게 할 사람이. 도시같은 서로 할라고 난리제. 시골에서는 그걸 안 할라고 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쳐줘도 안 할라고 해. 작년부터는 몸이 아퍼보게 못 해브렸제. 작년 봄까지 하고는. [신안문화원에서 선생님께 하라고 하셨을 때 댁에서 한 건가요?] 아니제. 회관이나 노인당이냐. [그거 할 때 몇 명이나 하셨어요?] 한 10명 정도 했제. 또 여러 곳에서 모이면 시간이 걸려버려. [저녁이요?] 저녁에. 저녁 먹고. 8시에 모이자고 하면 9시에 와붙고 해서 1시간이나 하제. [그렇게 몇 년을 하신 거예요?] 3년했을까, 1년했을까. [그렇게 했을 때 문화원에서 선생님께 무슨 대우를 해줬어요? 강사비?] 내가 차타고 다닐서 실어나르면 기름값도 안 나와. [어떻게 일정을 잡아요?] 날짜를 정하제. 일주일에 두 번씩. 화, 수요일. [그렇게 3년을 하신 거예요?] 어. [그때 가르쳤던 것은요? 도리개나 연자방아나?] 그런 것을 아니까. 맞을 줄은 아니까. 같은 모소리같은 것도 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거든. 근디 모찌는 소리는 전국에서 다 들어봐도 우리 소리가 없더라고. 듣기도 좋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소리가 좋았는디. 그것은 참 억울하더라고 그런 것은 남겨놓으면 좋을 건디. 그 소리도 나 죽어블른 끝이여. [그 소리 한 번 해 주세요. 짧아요?] 하자면 한정이 없제.

나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했어. 어려서 농악대 따라다닐서 소구놀이도 했거든. 또 작년 여름까지 했고 또 면에서 하의도 농악을 해보자고 해갖고 지금 여자들이 농악을 하고 있는디, 사물. 앉아서 하는 목포 갯돌 거시기 단체가 있어. 그래갖고 거기서 갯돌이 목포시하고 연결이 되어갖고 우리 신안에도 그 사람들이 연계가 됐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사물을 갈쳐놔어. 그래갖고 농악하고 천지차이제. 사물은 한두 차례 돌면 끝나블거든. 농악은 12가지가 있거든 12채라고 12가지 쇠를 돌려가면서 치거든. 근디 서투니까 사물친 것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한 석 달 갈쳤을까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왔어. 그니까 소리가

났다고 그러드만. 근디 그전에는 사물을 친계 장단으로 말하든 거의 4박자. 그러니까 듣기가 싫제. 벽구놀음도 하고 그래야 된디 할 줄을 몰라.

## 라) 웅곡마을 이흥채의 구비전승(소리 경연)

넷째, 하의도 웅곡마을 이흥채의 구비전승(소리 경연)이다.

### • 제34회 남도문화제 단체사진설명<sup>42)</sup>

[이 분은 누군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분은 문화원원장. 이 분은 유점자씨 부원장입니다. 이 분은 목포분인데요 강사로, 김명례씨. 그리고 이 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강강신씨. 이 분은 장영업 면장 부인인데 우리 단원이었고, 이 분이 최성환 사무총장. 이 분은 문화원 직원이고. 이 분들도 후광분들인데 단원이고, 저 분들도 후광분들인데 후광분들이 많아요. 이 분은 전광분이고 운곡 3구. 글고 남자분들은 확실히 잘 모르고, 그리고 여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기가 면 이장, 단장이고 이장직해서 단장이고, 2구 분이고. 글고 거의가 후광분들이예요 여 자분들. 여기는 우리부락 사람이예요. 여기는 대리분들. 여기는 전광분들 운곡3구 여자 분들이예요. 여기는 후광분들이고, 여기는 면 직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이고, 사람이 없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후광분들이고. [남자분은?] 여기는 군 직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대리 분이고. 아, 여기는 군 문화관광과 과장이예요. 옛날에 면장으로 있었고, 여기도 군 직원이고. 여기는 문화원 분들이고. 후광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곡 분들, 운곡 1구분들. 여기는 대리 분, 여기도 대리 분, 여기는 우리 총무역할을 했었고. [총무라면 남도문화제 나갈 때 총무를 했던] 예. 남도문화제 나갈 때 총무였어요. 여기는 후광분, 여기하고 여기 두 분은 어은분, 여기는 대리분, [총무 위에 회장은 누가 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회장과 총무 외에 같이 일했던] 여러 분들이 같이 했죠. [총무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금전관리, 간식비 나온 것.

4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71) 제보, 조사내용 <마을 민요 · 농악 강습 12분30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10.12.10(20:57)

42)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제34회 남도문화제 단체사진설명, 5분5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 2008.06.25.

[선생님은 노래 지도를 하고 훈련도 시키구요?] 네. [강은상 이 분은 지금도 계신가요?] 목포에 와 계세요. [이사가셨어요?] 아니, 집은 여기에 있는데 목포에 방을 얻어서 지금 목포에 있어요. 왔다갔다 그래요. [하의도는 이제 선생님이 소리지도를 하고 유점자, 김명례, 또한 분 있었죠?] 거그는 강부자씨 아니라 전산연. [그러니까 다르니까.] 예.

#### • 마을의 대회출전사<sup>43)</sup>

[남도문화제 나갈 때 총무 이름이 어떻게 되요?] 김정임. [나이가?] 65세. [남도문화제는 상시적죠?] 네. [그럼 제작년 총무는 다른 사람인가요?] 네, 딴 사람. [해마다 필요에 따라 정하구요?] 네. 해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4번차 나갔는다. 몇 년에 한번씩 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군 단위라 군에서 할 수 있는 면을 지정을 하죠. [작년에 나갈 때 주로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주로 하죠. 밤 8시에서 하면 11시, 12시 될 때도 있고. [기한은요?] 두 달. [비용은 나오나요?] 군에서 지원이 나오죠. [연습을 할 때 지원금이 나오나요?] 간식비가 나오죠. 200만원이었을까, 300만원이었을까. [입상 후에 약속한 지원금이 있나요?] 아뇨. 거기서 일등을 해야 전국대회를 나가죠. [거기서 일등을 하면요?] 대통령 상을 타죠. 그러면 문화제가 되죠. [대통령 상 밑으로 어떤 상이 있어요?] 총리사, 장관상. 총리상을 타도 문화제가 되요. 장관상은 안 되고. [문화회이나 군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제를 지정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것도 문화제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어요?] 네. [선생님은 연습하고 나가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4번 나갔어요. 남도문화제를 4번 나갔어. [언제인가요?] 91년도, 93년도인가, 2001년인가, 2007년. [침에 나갈 때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도리깨 놀이로 했어요. [다음에는?] 도리깨 연지방아. [세 번째는?] 강다리 잡이 [네 번째가?] 상여소리. [성적은 어땠어요?] 전부 다 3등 했어요. [도리깨 놀이하고 도리깨 연지방아하고 어떻게 달라요?] 침에 보리타작을 해갖고 그것을 연지방아에서 쪼는 과정. [그럼 처음에는 보리타작만 하시구요?] 네. [여기 도리깨 놀이를 도리깨 소리라고 하면 안되나요?] 그때 당시 소리라고 해야 했는데 놀이라고 했어요. 놀이하고 소리하고는 틀리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연출을 잘 해야 하거든요. 소리는 소리 위주로 보거든요. [강다리 잡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강다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동네 너머에서 많이 나요. [역전오면서요?] 네. [강다리 잡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

• 도리깨질 소리, 연자방아소리, 남도문화제 나간 이야기<sup>44)</sup>

[생애소리 말고 연자방아하고 도리깨 소리도 있었죠? 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대리 김상배씨라고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남도문화제를 알아서 거기 나간다고 모집을 하더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 마흔 뎃살 먹었을까 그때 여름에 모집을 했는데 나는 안 들어갔어. 나이 먹은 분들만 연습을 한다고 들어가서 한 두어달 하더라고. 나는 그 소리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보리치면 마당에 도리깨를 해놓고 공간을 만들어서 보리를 베다 말린 것을 거기다 놓고 도리깨질을 하거든요. 글른 도리깨질을 하면서 “해야~ 해야~”하는 소리만 들었제 딴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 어려서 따라다님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이 안 된다고 오라고. 근디 두어달 고생하면서 한 사람이 있는디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때 당시 나는 염전다니고 해서 바쁘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하루만 와서 보기만 하라고 해싼게 그래서 구경이나 할라고 갔는데 내가 들어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설을 적어진 것을 갖다주면서 조금만 한 번 해보소 그러더라고. 점심 먹고 있다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점심먹고는 내 나름대로 함 해봤어. 그러니까 쓰겠다고 전부 가라고를 안 해.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갖고 그 소리를 하게 됐제. [도리깨소리는 연자방아랑 함께 출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리깨소리만 출전했다가 너무 단조롭다 해갖고 그 뒤네는 연자방아를 거기다 넣제. 내가 청자를 했어, 소리는. [청자를 했다는 것은 사실도 만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도 만들고, 사실은 인자 그 영감보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영감은 여기 김상배님 한테?] 김상배씨한테. 그렇게 하고 소리는 내가 했고. [이게 남도문화제였죠?] 어. 대회도 가서 보니까 군에서 심사위원들한테 돈을 뿌려볼드라고. 그런게 안 되얏어. 도리깨소릴 첨에 할 때 여수서 한디 사람이 한 만명 이상이 모여갖고 있는데서 우리가 세 번째 했는디 그렇게 호응이 좋더라고. 그란디 영암 줄다리기에다 줘볼드라고. 우리가 그놈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갔으면 대통령상은 땀을 거여. 못타도 국무총리상은 땀을 건디. [도리깨, 연자방아소리가 왜 하의도에 많아요?] 지금 내가 거기 해도 여자들이 맞이기는 많이 해요. 먹일 줄은 몰라도. 거기 나다니 사람들은 다 맞을 줄 알제. [받을 줄 안다는 거죠?] 예. 맥이고 받고. 맥이기는 내가 맥이고. [이렇게 하는

4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마을의 대회출전사, 9분41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5.

44)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분들이 대리 사람들? 대 여섯부락 섞어졌어. 후광 1구, 2구. 대리 1구, 2구. 응곡 1, 2구. 어은 1구. 오림 1, 4구. 그렇게 들어갔어. [이렇게가 출전하신 분들이죠?] 예. [하의도에서는 뭘 도리깨질 하는 거죠?] 보리. 콩같은 것도 다 하잖아. [아까 김, 염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염전. [끓었을 때 염전을 많이 하셨어요?] 응. [고기 잡으로 가시지는 않았어요?] 어. [농사는요?] 조금씩 짓제. 벼농사, 밭농사. 먹을 만큼만. [하의도 응곡리 사람들은 뭐하고 지내세요?] 다 마찬가지로. [연자방아에서 쥘는 것은 곡식이죠?] 보리. 보리를 도리깨로 쳐갖고 알맹이가 빠지른 그걸 방아에다 넣가지고 쥘어야제 돌리면서. 하의도 도리깨는 다른 데하고 뭐가 틀리냐른 다른 데는 자리를 손으로 돌려서 만든디, 하의도 도리깨는 맞춰갖고 꼭지에서만 돌린다고 그래서 훨씬 대개 맞은다고. 심사들도 그걸 몰라. [돌린다는 말씀은 도구를] 전체를 돌려. 근디 우리는 우게 꼭지만 돌리쥬 도리깨 채를 꼭 잡고. [그러면 도리깨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비슷한디 그 사람들은 못 돌리드라고. [그렇게 돌려서 하면 뭐가 좋은가요?] 되게 맞아. 그래야 얼른 떨어지제 [잘 맞는다고요?] 어, 잘 맞아야 보리나 콩 같은 것이 얼른 떨어지제. [그때 사용했던 도리깨나 연자방아가 어디 있죠?] 만들어 썼어요. 연자방아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쓰던 연자방아가 대리애가 물렸었는디 고물 장사들이 와서 파가브렸어. 그런게 연자방아는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어. [그럼 고물장사가 파 간 것은 돌로 만든 거예요?] 예. [나무로는 어떻게 만들어요?] 둥그렇게 크게 만들어갖고 밀면 돌아가게끔. 그전에는 소로 끌고 그랬어. [연자방아로 출전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돌렸제. [사람이 소처럼 흉내를 내면서 한 건가요?] 어. [도리깨소리나 연자방아소리는 진도에서 온 게 아니고 하의도 것이었어요?] 어.

## 나. 하의면 대리마을의 민요

### •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7) 연자방아 외(산다이)<sup>45)</sup>

도착 및 이동하면서 연자방아소리 짙막하게. {우예순 할머니 전화-275-4160, 박형신(여, 87세), 박운례(여, 87세), 홍윤예(여, 85세), 서미달(여, 82세)}

[아까 노인회장님이 연자방아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왔었거든요, 연자방아가 있었는데

45)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4) 제보, 조사내용 〈#연자방아 외(산다이)〉, 37분 49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2리, 2008.06.24.

어디 갔어요?] 이 위애가 있어요. [웁기셨어요?] 네. [왜 웁기셨어요?] 우리가 집일 할라고  
내놔다가 가져가. 팔라고 해도 안 팔아 [왜요?] 우리 보관해 놔는데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럼 연자방아 소리도 하세요?]

\* <연자방아 소리>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으로 가~ 연자방아~

(집으로 이동 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춘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가세 가세 산천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춘풍호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가요를 부름 가사가 잘 안들려서 인터넷에서 가사 검색)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동실동실 달이 뜬다  
월출산 천왕봉에 보름달이 뜬다  
아리랑 동동 쓰리랑 동동 어헤야 데헤야 어서와 데야  
달보는 아리랑 임보는 아리랑  
(가요를 부름 가사가 잘 안들려서 인터넷에서 가사 검색)

\* <연자방아 소리>

방아야~ 방아야~ 연자방아로세 연자방아~

\* <이미자- 울어라 열풍>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 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군가 알려주나 기막힌 내 사랑을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 <마음약해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 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혼자 남은 이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 <아리랑 목동>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지랭이 동백꽃은 니 아무리 고와도  
동네방네 생각나는 내 사랑만 하오리까 아리 아리 동동, 스리 스리 동동  
아리랑 꽃 노래를 불러나 주게.

\* <밭일 하면서 불렀던 노래>-21:13~21:20

엄매 엄매 우리 엄매 뭣 할라고 날 낳았던가

날이든 날마다 일만하다 요모양 요꼴이 되야갓고 죽을 때가 되어서. 슬픈 소리는  
인자 임도 생각나고 그러믄.

말~ 만안 요 세상 한천초목도 잠들었냐~

우리 어매~ 우리 어매~ 우리 어매~ (22:39~21:59)

우는 소리는 잘 해요, 여기는. [제가 이 소리만 듣고 갈게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날 데려 가그라~ 날 데려 가그라~  
 산천초목 가는 입아 나를 데려 가그라~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넘어나 간다-22:35~23:10

\* <흥타령>-23:24~24:00

응~ 달에 내 사랑아~내 사랑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절씨구나 절씨구~  
 응~ 달에 내 사랑아~ 내 사랑 응가나(?-23:53) 저~ 절 까나 내 사랑이로구나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에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고갯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에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물레야 물레야 뽕뽕 돌아라 서리령 서리령 잘도나 돈다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에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경충(?-25:24)에 누구 맘을 죽으면은 앓나 (잘 안 들림25:31~25:38)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에헤에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이제 더는 없어. 오늘 종우네 하믄 좋것소만 [흥이 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건강하요. 근게 우리 아그들이 "어매 혼자 있지 말고 노인당에 가쇼. 우울증  
 걸리믄 큰일나요"그라제.

[김숙자할머니가, 그게 '흥글레'예요? 뭐라고 불러요?]

말~ 만안 요 세상 한천초목도 잠들었냐~  
 무정한 견인차야 우리 입을 실어다 내 움막에 실어다 놓고 가그라 (32:10~32:40)

\* 〈흥타령〉

저 나무 절벽이 두텁다고 하여도 (중간 35:06~35:10 다른 할머니 목소리 때문에 안 들림)

봄바람이 좋다 해도 (35:14~20 다른 할머니 목소리 때문에 안 들림) 속고 속고,  
아이고 아이고 내 시상아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리 될 줄을 누가 알까

### (3) 하의도의 언어(인지어, 속신어, 속담)

그 다음은 하의도의 언어이다. 여기에는 인지어, 속신어, 속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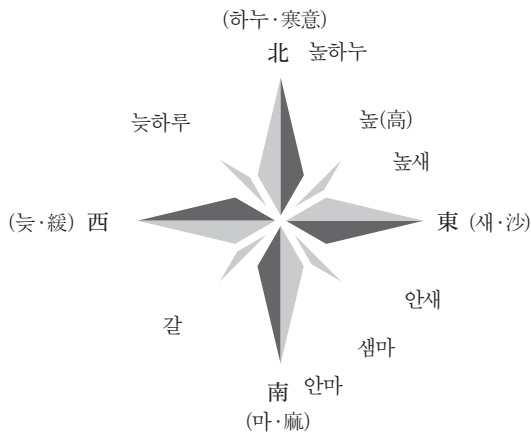
#### 가. 인지어

첫째. 하의도의 용어 중 토속인지어이다. 이것은 하의도사람들이 생업과 관련하여 형성한 언어이다.

#### 가) 하의도의 물때말(干滿술어)

- △ 일곱물 ~ 음력 1일, 16일(退水)
- △ 아달물 ~ 음력 2일, 17일
- △ 아홉물 ~ 음력 3일, 18일
- △ 열물 ~ 음력 4일, 19일
- △ 첫깎기(한깨기) ~ 음력 5일, 20일(折潮)
- △ 마지막 깎기 ~ 음력 6일, 21일
- ▲ 한 조금(첫조금) ~ 음력 7일, 22일(燥金 · 弱潮)
- ▲ 마지막 조금 ~ 음력 8일, 23일(下弦 · 半月)
- ▲ 무수 ~ 음력 9일, 24일(上水)
- △ 한 물 ~ 음력 10일, 25일
- △ 두 물 ~ 음력 11일, 26일
- △ 서 물(서무세) ~ 음력 12일, 27일(豐작釣)
- △ 너 물 ~ 음력 13일, 28일
- △ 다섯물 ~ 음력 14일, 29일
- △ 여섯물(사릿물) ~ 음력 15일, 30일(滿月 · 强潮)
- ※ 참물(들물 · 滿潮), 감물(썰물 · 干潮)

## 나) 하의도의 바람 이름



## 나. 속신어

둘째 하의도의 용어 중 속신어이다. 이것은 하의도사람들에 의해 기억되어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언어적 진술이다.

### • 날씨에 관한 이야기(옛날 날씨를 미리 아는 이야기)<sup>46)</sup>

[이번에는 일기예보를 기막히게 맞추는 얘기를 해 주세요] 저 십피섬 잔등에 구름이 올라오면 땀뻘 뒤로 비가 온다고. 비가 보통 옛날 사람들은 육십갑자가 있잖아요, 오늘이 11일 토요일로 달력에 을미로 나왔지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언제 비가 많이 오냐면 ‘술’자 들어갈 때, ‘술’자 들어가는 그 날에는, 끝에 ‘술’자가 들어간 일에는 70%가 비가 온다고 했어요. 확률로.

[또 일기예보 후시] 일기예보는 구름이 떠서 어느 쪽으로 가냐 해갓고 바람이 불고 주의보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한 것을 알지.

[지금 주의보가 어제 내렸죠?] 물이 많이 들고 많이 쓸 때 그때는 바람이 터져 그라믄

46)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판구(남,77) · 이범숙(남,65) · 심순례(여,49) 제보, 조사내용 <하의도 이판구,이범숙,심순례 사자바위 54분28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어은2리 경로당, 2010.12.11(11:46)

태풍주의보가 내리고. 언제든지 보면 여섯물부터 아홉, 열물까정 날씨가 언제나 그때 바람이 터져. 물이 씨면 바람이 씨게 나와. 돛달고 노 저어서 목포 간 배들이 그 물때 맞춰서 가고오고 그랬제. 사리밭에는 안 덩겨 배가 가면 잘 가제만 바람이 터질까 무선계 그러게 조금사리나 물이 얕찰 때 목포를 가고 소금 신고 돛 세 개 달고 목포가고 그랬제. 해가 질 때 그 무렵에 관청대 식으로 영감네들이 그걸 보제. 그것도 맞아. 아침에 무지개가 지고, 저녁에 무지개가 진디 그것도 말이 있어. 동에가 무지개가 지면 ‘뜰돋는 소리매지 마라(35:55)’ 그건 100% 비가 온단 것이여. 그리고 서에가 무지개가 지면은 ‘오름이도 방구 편다(36:03)’ 그라든 서쪽이 흰하니 벗어질 때, 그라고 다 그러제. 그라고 ‘봄것은 갑물드시고 가을 것은 비오듯이 한다(36:15)’ 남풍이 가을부터 희한하게 들어오는 것은 비가 올 확률이 높다. 봄에는 날을, 뭇 날을 자꾸 온도를 올리기 땀에 남풍이 들어온거지, 남풍이 들어와도 비는 안온다. 날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요, 해가 지는 걸 보고 구름이 싸고 들어갔다나 어쨌다나 내일 비 온다고. 그럼 뭇 이 날씨에 비오냐고 그러면 아침에 보면 비가 와요. 왜 그러냐 먼 아침에 보면 해가 불로 뜬 것 있지라 빨강계, 또 어쩔 때는 달같이 희번덕하게 올라 올 때도 있고, 해가 빨강계 올라오면 한정없이 가물것다고. 그것이 맞드라고요.

#### • 날씨<sup>47)</sup>

[옛날에는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는 구름 때나 바람 때를 보고 언제쯤 오겠구나 짐작을 하죠. 2~3일 보면서 짐작을 하제. 이 동네는 집집마다 차근차근 날씨를 받아가요. 비가 와도 모심고 다 해요. 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오면 밀치죠. 혼자 밀치든 전부 싹 밀쳐서 해가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했으면 내일은 다른 집 하고. 만약 오늘 우리 집을 못 했으면 밀차가제, 내일 할 집은 모레로 밀치제.

[어떻게 하면 비가 와요?] 아랫바람이 불면, 남풍이 불면 비가 내일이나 모레쯤 오것다 짐작을 하죠.

[구름은요?] 구름이 남쪽에서 올라오면은 오늘 저녁에나 비가 오것다 짐작을 하죠

[다른 것은요?] 그라고는 없죠.

#### 다. 구조어(속담)<sup>48)</sup>

셋째, 하의도의 용어 중 민속구조어이다. 속담과 수수께끼 중 속담에 관한 것이다. 이것

은 하의도사람들에 의해 기억될 뿐만 아니라 교훈과 감동을 주는 언어적 전술이다.

\* 서무 셋 날에는, 눈빠진 고기도 문다

-조금날에서 3일째 되는 서물에는 조석의 차가 심하지 않아 낚시가 잘 된다.

-본디 고기는 조금물씨에 섬 가까이 붙는 습성이 있다.

\* 샛바람에, 낚시 드리지 마라

-샛바람이란 동풍을 이르는 토박이 말로,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바람이다.

-이때는 이상이 악화되고 고기도 밑으로 가라 앉으므로 낚시를 포기하고 피항하는 것이 좋다.

\* 세전에 대꽃 피면, 멸치 풍년 든다

-대나무꽃은 겨울이 따뜻할 때 피는 경향이 있어서, 겨울철 기온이 높으면 수온도 높아지고 우기도 앞당겨져서 난류성 멸치어장이 빨리 형성되고 연안수를 따라 멸치가 몰려오는 경우가 많다.

\* 안천물에 고기 무는법

-안천물이란 들물을 뜻하는 이칭으로, 연안어류는 물이 돌 때 육지로 몰리는 습성이 있어서 낚시가 잘 된다.

\* 먼 배 가까이 보이거든, 그물 건어라

-저기압 때 바람이 줄고 공기가 습해지면서 공기가 맑아져 바다 멀리도 잘 보인다.

=이 징조는 파도와 바람의 전조일 때가 많으므로 즉시 피항하는 것이 좋다.

=저기압 때는 연못이나 시궁창, 웅덩이 등에 거품이 일어나기도 한다.

---

47)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김양단(여,66)·김이춘(여,72) 제보, 조사내용〈모찌는,모심는,상여,도리깨, 연자방아소리 28분37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웅곡2리 36번지 이홍채씨택, 2011.01.05(11:01)

48) 「3. 하의도의 생활용어」, 「V. 민속분야 자료」, 도서문화연구원 공동조사 자료집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하의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0.08. 92-97쪽.

\* 밤하늘 별 깜박이면, 큰바람 온다

별이 깜박이는 것은 흔들리기 때문이다. 대기기층이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큰 바람이 일어난다

\* 바다가 울거든, 갯일 치워라

태풍이나 열대성 저기압이 접근하면 속도가 빠른 긴파도가 해안에 먼저 도착해, 바다가 웅웅 굉음을 낸다. 날씨가 나빠질 징조이다

\* 비올 때 갈바람 불면 사공 춤춘다

갈바람은 서풍이다. 비는 동남풍이나 서남풍때 오는 법인데, 서풍으로 돌아서면 고기압이 다가서므로 날씨가 좋아진다

\* 새털구름은 마누라 얼굴 같다.

-새털구름은 석양과 일출 때 나타나면 날씨가 나빠진다.

=새털구름이 서쪽에서 동으로 날라도 악천후가 된다.

=북동쪽에 떠오르면 장마도 겹치고 날씨가 맑아진다.

=봄가을 새털구름은 맑은 날이 계속될 징조이다.

=이처럼 새털구름은 점치기가 어려워 마누라 얼굴 같다는 비유이다.

\* 열물넘은 중선배

-조금이 다가오는 열물이 지나면 조류의 움직임이 느려, 주로 안강망어업에 나서는 중선배들은 고기잡이가 되지 않아 볼 일 없어진다.

\* 이월 천둥, 조기몰아 올린다.

-2월의 태풍과 천둥은 바닷물을 뒤집어 영양염류가 많아지고 프랑크톤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땅밀을 기던 조기떼가 떠오른다.

=조기풍어가 가능하지만, 북서계절풍이 잦은 때이므로 기상에 주의해야 한다.

\* 하늬바람에 고기 모인다.

-북서풍인 하늬바람은 저기압상태에서 일어나므로 고기들이 연안으로 몰려든다.

=정치망 등이 재미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많다.

\* 갈매기 낮게 날거든 어장 걷어라.

-갈매기는 저기압에 낮게 날고, 높게 날면 고기압 때이다.

=알게 날면서 안절부절하면 날씨가 나빠질 징조이므로, 그물을 걷고 철수하는 것이 좋다.

\*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떤다.

-도지란 돌풍을 뜻한다.

-계절이 바뀌는 9~10월 돌풍은 한난기온차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남풍이 불면서 번개불과 함께 나타나 고기는 뜨지만, 배 사고가 많다.

\* 선구름 뜨거든, 배 돌려라.

-봄과 겨울철 더운 기운이 도는 날에, 서쪽에서 수직 뭉게구름이 뜨면 돌풍과 뇌성벽력이 일어난다.

=피선이 제일이다.

\* 아침무지개, 비 부른다.

-아침무지개는 서쪽에 비가 오고 있음을 뜻한다.

=편서풍이 불어 낮에 비가 온다.

\* 여름 아침안개는, 중대가리 깎는다.

-여름철 아침에 안개가 일면 고기압 중심부에 들어선 징조로, 낮에는 날씨가 좋아 햇볕이 따갑다.

\* 저녁 노을 지면, 외아들도 배에 태운다.

-저녁에 서쪽하늘에 노을이 일면 날씨가 계속 좋을 징조라, 외아들도 배에 내 보내도 안 심할 수 있다.

\* 여자얼굴 고운 것 하고, 바다얼굴 고운 것 믿지 마라.

-바다는 기상에 따라 수시로 얼굴을 바꾼다. 잔잔한 때일수록 태풍전조가 아닌가 기상 예보에 귀를 기울여라.

\* 햇무리·달무리 서면 갯일 걷어라.

-저기압 접근 징조로 24시간 이후 3일 이내에 틀림없이 비가 온다.

=달무리 사이로 별빛이 보이면 바람이 인다.

\* 하늘에 개눈 뜨면, 바람 인다.

-구름 속으로 개눈처럼 뚫린 구멍이 함께 생기면 상층기류에 이상이 일어난 현상으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므로 피항함이 좋다.

\* 5농 6숭, 5·6서대 준사철

-5월 농어, 6월 송어, 5·6월 서대. 사철준치는 맛있다는 말.

-5·6월 돔은 산란 후라 나무껍질 맛있고 가을되어야 제맛이 나며

=‘가을 전어머리 깨가 한되’라는 말은 제철이라 전어가 깨맛같이 고소하다는 말이다.

-봄망둥어 개도 안먹는다.

- 나비날면, 복먹지 마라
- 콩치는, 주둥이로 망한다.
- 도마 위에 고기가, 칼 무서워 하라
- 미역국 먹고, 천장 쳐다 본다.
- 명태 한 마리 놓고, 탄전 부린다.
- 복쟁이 잇갑 따먹듯,
- 달밤에 멀치 세듯,
- 써물에는 게나 고동이나,

#### (4)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와 민요공동체 산다이

---

49)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4) 제보, 조사내용〈연자방아 외, 37분49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2리, 2008.06.24.

50)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산다이, 18분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5(수) 00:00; 홍순일 조사·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산다이, 6분11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5.

한편,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와 민요공동체 산다이이다.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인 이흥채가 참여하는 민요공동체의 산다이에 관한 것이다.

• 우예순(여,82) 김숙자(여,84), 권삼덕(여,87) 외 산다이<sup>49)</sup>

[혹시 할머니 중에 산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산다이 근력 있을 때 하제. 다 죽었어. [지금은 그러신데 옛날에는 그렇게 노셨죠?] 젊어서는 일만 하고. [할머니는 하셨죠?] 산다이는 젊어서 했지 [여기 와서도 하셨어요?] 그러지라. [이 동네에서도 하시구요?] 암.

• 이흥채(남,69) 산다이<sup>50)</sup>

[산다이라고 아세요?] 여기는 산다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노는 것이 고요. [근데 제가 산다이라 하나까 뭔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산다이는 같이 모여서 노는 것을 산다이라 하잖아요. 왜 내가 산다이를 아냐면 가거도 가니까 가거도 산다이가 있더라구요. [그럼 들어서 아는 거도 여기는요?] 여기는 그냥 노는 거여. 분위기가 되면 놓고.

• 이흥채(남,69) 산다이, 총회이야기, 문화원 대회 이야기<sup>51)</sup>

[예전에 여기 사시면서 산다이 하셨죠?] 그거이 토속민요입니다.

[산다이에서 하는 소리가?] 네. 지금 가거도 가면 특이하게도 지금도 가거도 산다이가 있습니다.

[가거도 산다이에 참여해 보셨어요?] 네.

[언제 가셨어요?] 3년 전예요. 우리 문화원에서 탐방 가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면서, 총회하잖아요 총회하면서 이따금.

[총회 후에?] 예. 가거도 산다이, 각 면에서 나와서 조금씩 해요.

[그럼 각 면에서 한다면 가거도 산다이도 나오고] 예. 각 면 팀.

[면이라고 하면 신안군에 있는 13개 섬?] 예.

[13개죠?] 13개 섬에 1읍이죠.

51)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흥채(남,69,1940)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 39분44〉,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4.

[그럼 14개 팀인거죠?] 네.

[각 팀이 총회 후에 식사도 하고 한 후에 경쟁하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못 주죠. 한 5~7분.

[총회는 언제 있어요?] 2월달에 있을 겁니다.

[신안문화원에서 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아니, 그 자리에서 해요. 신안비치같은 데서 많이 했어요. 첨엔 그렇게 하다가 복잡하니까 민요팀들만 좀 해요. 민요팀이 5개월간 7~11개월 간 연습을 해야죠.

[연습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잊혀서 가는 토속민요를 찾아보자 그런 뜻이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국 각 문화원 대회가 있어요. 거기 출전도 해야 되고.

[출전해서는 대개 뭘 보여줘요?] 다른 문화원들은 한 팀이 짜져서 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니까 4개 팀이 따로 가지고 나가요. 우리는 4번을 공연을 해요, 4개 팀이. 한 팀은 등당개야, 한 팀은 물레야 등을 해요.

[등당개야, 물레야 말고 또 가지고 나가셨던 곡] 화(하로도 들림-25:10~20:20)중 내는 소리, 화종이라고 옛날 목화, 목화밭을 화종밭이라고 하거든요.

[화종밭 매는 소리?] 네.

[자기 지역에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데 해마다 하나씩 바꿀 것 아니에요?] 이 소리를 가지고 나가도 사람이 틀리잖아. 작년에 했던 사람은 못 하죠. 올해는 못 나가고, 새 사람이 배워갖고 나가고.

[꼭 곡이 안 바뀌어도?] 네.

[사람이 같으면 곡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 (5)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와 한소리회

끝으로,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와 한소리회이다.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인 이흥채가 운영하는 한소리회에 관한 것이다.

### • 이흥채(남,69) 한소리회의 운영<sup>52)</sup>

[지금 신안문화원의 민요, 아까 토속 남도 민요가 가사가 다 들어있던 말이죠?]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시다 보면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도 있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흥이 나야, 떠오르는 소리가 흥이 나야 즉흥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디 지금

상태로는 얼른 나오기가 어려워. [지금 요거 명단에 한마음회원이라고 했네요?] 어, 한마음회예요. [전부 수상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이모준 이분은요? 광주사시네요? 이분이 직전의 회장님이시구. 전부 고수예요?] 아니,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모준 이분은요?] 소리고 하고 북도 하죠. 교편잡다 퇴직하고. [김병남 이분은 완도분이네요?] 현 회장이요. [하시는 거는요?] 장사해요, 철물. [소리도 하시구요?] 북만. [이모준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 75세 되요. [김병남 이분은] 69세. [문호준 이분은 연세가?] 69세. [해남사시구요?] 네. [해남지부장? 한마음회 해남지부장이요?] 각 지방. 진도 지부장, 광주 지부장, 완도 지부장. 요렇게 다 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당신이 가서서 그 지역을 이렇게 활동을 해라?] 예. 무슨 일이 있으믄 이 사람들 연락하믄 회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되요. [그럼 이분 말고도 회원이 있으신가요?] 이 지부장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회원들이죠. [박금영 이분은요?] 진도. [연세가?] 65~6세. [이분은 북만 하세요?] 예, 북만. [오지수 이분은 연세가?] 54세 정도. [이 분은 광주사시고, 광주 지부장이시네요?] 네. 박금영이, 오지수, 문호준이 전부 국무총리상 탄 사람들이여. [다른 분들은 어떤 상을 받으신 거예요?] 장관상. [대통령상 받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오지수 이분은 북만하시나요?] 네. [함재권?] 진도. [연세가?] 한 60세 됐것네. [이분도 북만 하시구요?] 네. [사무국장이시면 한마음회 일은 다 하시겠네요?] 다 해요. 진도 국악협회 지부장도 하고 그래요. [지금 현재요?] 예. [박철함 이분은 완도분인데 연세가?] 56세인가. [이분은 북만하세요?] 네. 완도 국악협회 지부장. [지금 여기 쓰신 것은 완도 한마음회 지부장이죠?] 네. [장필식?] 원래 고향은 충청도 사람인데 진도 와서 살어. 거기도 총리상 탔어요. [장필식 이분은 연세가?] 한 60정도 됐어요. [북만 하시나요?] 네. 거기는 무속인 비슷하게 해요. 법사. [충청도에서는 법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법사라고 해요. [그럼 이 분이 진도 다시래기도 하시나요?] 다시래기 회원이여. [박효순?] 소리 한 사람이여. [연세가?] 52세 정도 됐을 것구만. [광주 사시구요. 북도 하시는 건가요?] 소리만. [소리만 하는데 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거기만 상을 못 받았어. 그 밑으로, 서이 못 받았구만. [박효순, 이정인, 임상옥?] 예. [이정인 이분은요?] 거기는 북이에요. [전부 남자분들인가요?] 아니, 이정인도 여자여. [박효순] 거기도 여자고. [위는 전부 남자분이시구요?] 어. [이정인 이분은 연세가?] 한 50 됐을 거요.

52)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 69, 1940) 제보, 조사내용 〈한소리회의 운영, 40분58초와 22분54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08.06.24.

[광주사시구요. 이분은 북을 하시나요?] 예. [임상옥 이분은?] 목포. [연세가?] 45세 정도 됐을 거요. [목포 지부장이네요? 한마음회?] 예, 한마음회.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 소리도 하고 북도 하고?] 예. [다른 것은요?] 사물. 풍물도 하고. [혹시 춤 추는 분도 계신가요?] 없어요. [박상태 이분은 연세가?] 한 50세 됐어요. [무안분이네요?] 거기는 그때 당시 무안에서 살면서 했었어. [지금은요?] 지금 목포 살고. [상은 받으셨겠어요?] 예. 장관상. [하시는데?] 북이요, 소리도 하고. 소리는 내가 갈쳐줬는데 수궁가를 완창을 했어. [선생님이 신안에 사시고, 함금선 이분은?] 진도, 여자분인데 거기는 소리. 장관상 받았어. [선생님은 상을 어떻게 북은 받으셨어요?] 북은 안 받고, 소리로 장관상 받았어. [함금선 이분은 연세가?] 66세 정도.

• 판소리고법모임(한마음회) 회원 주소록

순번	소 속	성 명	역 할	주 소	전 화	내 용
1	한소리회	임호중(남,75정도)		광주		전회장, 소리, 북, 교편 퇴직
2		김병남(남,69)		완도		현회장, 장사(철물), 북만
3		문후준(남,69)		해남		한마음회 해남지부장, 국무총리상
4		박금영(남,66)		진도		북만, 군도지부장, 국무총리상
5		오지수(남,54정도)		광주		북만, 광주지부장, 국무총리상
6		함재권(남,60정도)		진도		북만, 사무국장, 현진도국악협회지부장
7		박철암(남,56)		완도		북만, 완도국악협회지부장, 한마음회 완도지부장
8		장필식(남,60정도)	충청도→진도			북만, 국무총리상, 무속인=법사, 다시래기 회원
9		박효선(여,52-3)		광주		소리
10		이정인(여,50정도)		광주		북
11		임상옥(남,마흔댓)		목포		여러 가지(소리, 북, 사물=풍물), 한마음회 목포지부장
12		박상태(남,50정도)		그때 무안→목포		북, 소리, 장관상 이홍채의 수궁가 완창
13		이홍채(남,69)		신안		소리, 북(기본), 소리로 더 큰 상을 받고자 함
14		함금선(여,66)		진도		소리, 장관상

53) 홍순일 조사 · 김세인 채록, 이홍채(남,71) 제보, 조사내용 <이홍채(남,71) 생애소리,도리깨소리,연자방아소리 115분32초>,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2010.12.10(18:57)

## • 이흥채 수제자 주소록

순번	소 속	성 명	역 할	주 소	전 화	내 용
1	한소리회	박상태(남,50정도)		그때 무안→목포		북, 소리, 장관상 이흥채의 수궁가 완창
14		박애화(여,29)		신안군 하의면		초등학교 때부터, 소리

• 수궁가, 심청가 배운 이야기, 판소리 모임 이야기<sup>53)</sup>

[그럼 유달 판소리 교습소는 못 가지구요?] 거기는 작년에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작년 여름까지 다녔었어. [그럼 전부터 계속 소리하셨던 것예요?] 그렇지. [누구한테 소리를 배우신 것은 아니고?] 배웠제. 학원에서. [유달 판소리 교습소에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지. 저 2호광장 박금희선생한테 배웠제. [이분한테 심청가를 배우셨겠네요?] 수궁가하고 심청가. [작년 여름까지 박금희선생 한 분한테 수궁가, 심청가를 다 배우셨어요?] 아니, 수궁가를 완창해서 띠고 그라고 심청가를 시작했제. [그럼 심청가도 박금희선생한테 배우신건가요?] 심청가도 두 번. [심청가하고 수궁가를 박금희선생님한테요?] 네. [전에 판소리 하신 분들 목포에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판소리 모임이 조금 바뀐 것이 있나요? 운영이나 이런 것이] 바뀐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인자 북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근디 소리 한 사람이 없으니까 불러서 할라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다니는 친구가 목포에 있는디 나하고 놀러가자고 그래서 갔는디 소리를 하라고 해서 했었는디. 그 뒤로 나보고 회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여.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소리한 사람을 안 불러줬어. 명창들 불러서 한 2만원씩 써볼문 없제. 1년에 한 번이나 불러서 하제 없어. 원래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내가 소리한 사람 데리고도 가고. 그래서 회원 중에 소리 한 사람이 한 너댓 돼. 그래갖고 지금 돈이 천만원 정도가 모였어. 회비를 3만원씩 내. [그럼 3만원은 월 회비예요?] 예. [그럼 1년이면 36만원 정도 되구요?] 그러제. 회원이 15명 정도. [그럼 모임에서 바꿔서 다르게 해보자 하는 논의가 있나요?] 회의 때마다 나오는데 그게 맘대로 안되더라고. 물론 다 차이들이 있지만 모임에도 각 군별로 모임을 해놓으니까 군에서 오니까 아침부터 나와도 점심이 된다고. 한군데로 모일라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내도 얼른 잘 안되더라고. [이 모임이 판소리 뭐죠?] 판소리 아니라. 전남... 그것도 잊어버렸다. [전남 고수 뭐 이렇게 되나요?] 어.

## • 국악동아리회원 주소록

순번	소 속	성 명	역 할	주 소	전 화
1	국악동아리	강영자		연산주공	011-9433-0290
2		김연례		연산주공	011-9611-9622
3		박동님		산정동	061-272-4032 016-659-9254
4		박연님		현대산업(아)	061-272-2480 011-640-2480
5		박정심		연산주공	061-274-5609 018-314-5609
6		박정업		산정1동	061-274-4307 011-6822-4307
7		송안호		원산동	016-601-7733
8		심형임		일신(아) 276-1610	061-276-1610 010-2733-0664
9		이정화		신흥동 산성(아)	061-282-8823 018-618-0013
10		이준태		연산주공	061-273-4120 019-654-4120
11		이흥채		하의면	061-275-3526 017-611-3526
12		장삼례		보건소	061-276-6459 018-630-5928
13		장종이		대성동	061-272-4237 011-6631-4237
14		정일량		경동	061-242-6094 011-605-6094
15		최분례		만호동	010-2298-1723

## 3.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조사한 이야기, 노래, 언어, 산다이, 한소리회 등 구비전승자원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구비전승자원의 조사결과 및 의견

구비문학 분야에서 조사한 하의도의 구비전승자원은 구비전승자원은 하의도의 이야기, 민요·판소리, 속담인 언어적 진술,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의 민요공동체 산다이, 신안·목포

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의 한소리회 등이다.

그 결과 첫째 하의도의 이야기에서 설화(지명, 인물), 무속신화(당신화, 영험담), 생애담 및 경험담 등을 조사했다. 여기에서 어은마을사람들이 하는 스토리텔링을 보았다. 스토리텔링작가는 스토리텔링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야기를 통해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내용을 주기 위해서 역사문화원형을 토대로 해서 근거있는 이야기를 창작 내지 재창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성(眞正性)이 있어야 감동을 하고, 감동을 해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경, 2009.11.11(수)15:19-15:48:79-89). 그런데 어은마을사람들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하의도의 민요·판소리에서 옹곡마을의 민요·판소리, 대리마을의 민요 등을 조사했다. 하의도 옹곡마을에서 이홍채의 소리를, 대리마을에서 연자방아와 관련된 음성과 사진의 현지자료를 수집했다. 옹곡마을 이홍채(남,69)의 경우 삶(가족), 삶, 구비전승(소리), 구비전승(소리 경연), 대리마을 우예순(여,82)·김숙자(여,84)·권삼덕(여,87)의 경우 구비전승(소리) 등을 보았다. 이홍채를 중심으로 하의도사람들은 마을단위의 소리경연대회를 통해 섬의 농경문화의 특성을 드러내는 모찌는·모심는소리, 도리깨소리, 연장방아소리를 전승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소리도 전승시켰다. 특히 이홍채는 하의도 구비연행자로서 판소리를 통해 신안·목포권의 한소리회를 운영하여 소리의 질을 추구했다.

셋째 하의도의 언어(인지어, 속신어, 속담)에서 언어인 인지어, 속신어, 언어적 진술인 속담 등을 조사했다. 인지어 속에 토속지식이, 속신어 속에 기억할 지침, 구조어 속에 민속이 언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와 민요공동체 산다이에서 하의도권 구비연행자인 이홍채가 참여하는 민요공동체의 산다이를 조사했다. 민요공동체가 판소리의 한소리회로 외연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 이홍채의 소리에 대한 관심과 표준화에 대한 욕구가 반영되었다.

다섯째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와 한소리회에서 신안·목포권 하의도 구비연행자와 한소리회를 조사했다. 이홍채가 속한 한소리회의 회원은 광주, 목포, 완도, 해남, 진도, 신안 등 14명이고, 제자는 목포 박상태, 하의 박애화 등 2명이 있다. 또한 국악동아리 회원은 하의 목포 등 15명이 있다. 신안·목포권의교류망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 (2) 구비전승자원의 활용방안

하의도의 구비전승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하회탈놀이 외에 하회마을과 하회탈을 지정 하듯이<sup>54)</sup> 구비전승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통시키는 문화장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가. 구비전승자원(구비의 언어와 문학)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첫째,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환이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같고 다를 것을 추구해야 한다. 무형문화자원인 구비전승자원은 도서민 자체의 인식과 표현력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형문화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외화된 콘텐츠를 합성한다. 따라서 구비의 언어와 문학은 도서민의 삶과 문화가 되고, 거꾸로 도서민은 구비전승자원을 통해 언어와 문학생활을 확대재생산해 나감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더 나아가 도서지역민은 문화고속도로인 바닷길의 종합예술제의장에서 해양신격을 모심으로써 일생과 생산의 주기에 따른 의례를 거행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진술과 문학적 형상에 의한 미적 전유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이미지메이킹하는 것이다. 이 중심에 말의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것이다.

### 나. 구비전승자원(설화, 민요·판소리)의 전국적 네트워크화

둘째, 설화, 민요 등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해야 한다. 즉 전국적 네트워크화할 과정에서 경쟁적 구비전승물을 찾아야 하는데 구비전승물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효용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구비전승의 관점에서 해역·지역의 문화자원을 선정한다.

### 다. 구비전승자원(설화, 민요·판소리)의 DB화

셋째, 설화, 민요 등의 DB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구비전승 자료를 자원화하기 위해

---

54)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2007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DB를 구축해야 한다.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은 다도해문화정보 통합시스템(429), 한국 바다문화의 원형 당제(429-430), 전통 어로·어구 디지털화 등의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구비전승의 자원화는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 즉 위에 말한 지명, 도서민가, 인물, 기념관, 관광지, 선착장, 향로, 하의3도, 초분, 대바구, 나루터, 소금(천일염) 등과 연계해서 DB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비전승물의 아카이브 구축은 교육용, 연구용, 산업용, 세계유산등재용 등의 과급기대를 할 수 있다.

이번 제4차 “도서관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하의면 편)”(2010.07.28-2011.01.23)은 이전의 제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09.30), 제3차 지도·증도·임자도(2006.01.12-06.11)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고, 계기가된다면 이후에도 압해도, 자은도, 장산도, 신의도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사업의 일환으로, 공고하는 「디지털신안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 라. 구비전승자원의 교육·출판·문화콘텐츠·관광·축제적 활용

넷째, 구비전승자원의 각 분야의 활용이다.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삶과 교육현장에서 전통적 이야기문화가 단절을 막을 수 있다.

출판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화(이야기)는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속적 요소를 반영한 동화책의 출간이나 지역 특성을 살린 이야기 기행서의 기획 출간이 가능함, 마을의 독특한 내력담과 일화를 소재로 한 소설 작품의 창작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 시나리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 광고 등의 제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전설이나 민담 외에 갖가지 경험담과 일화까지도 포함된다. 설화와 경험담, 마을 내력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마을 민속과 관련하여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장면구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을민속의 일환으로 현장의 이야기 문화가 생생히 정리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장 문화체험 내지 축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신동훈 2010).

## 마. 생태적인 소리를 통한 도서민과 관광객의 정서 치료

다섯째, 이 작업에 치유적 효용론을 거론하는 것이다. 음악치료학이 각광받고 있듯이, 전통적 소리를 통한 정서의 건강성과 운율의 친생태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민요 전공학과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화와 구체적인 모델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창식 2010). 이 일은 면장에 의하면 하의도의 공기가 좋다고 했다. 감동의 소리와 결합하여 정서 치유를 가능케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옹곡마을 이흥채의 한마음회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명의 회원과 함께 광주, 목포, 완도, 해남, 진도,新安 등新安목포권의 교류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신동흔, 「설화(이야기)」,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278-307쪽.
- 이창식, 「민요」,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308-331쪽.
- 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2007 한국민속학자대회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 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VI 방언문화

이기갑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사 개요 226
2. 독특한 문화 관련 방언 228
3. 옛말을 보여 주는 하의도 방언 235
4. 바다와 관련된 하의도 방언 238
5. 활용방안 243



# VI 방언문화

## 1. 조사 개요

방언은 그 지역 토착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 왔던 언어이다. 그래서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정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 삶의 행태, 정서, 세상의 인식 방식 등을 통틀어 ‘문화’라 한다면, 방언은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하의도는 쾌속선을 타더라도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섬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하의도는 육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하의도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육지와 완전히 독립적일 수야 없었겠지만, 교통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못했을 옛 시절에는 육지와 교류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하의도는 이웃 섬들과 함께 독자적인 삶을 꾸려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외지인들은 1시간 여 동안 쾌속선을 타고, 또는 2시간 이상을 일반 배를 타고 하의도에 도착하면서, 육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배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육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의도만의 독특한 문화 양상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의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호기심과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의도 방언을 소개할 때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육지와 다른 하의도만의 독특한 방언의 존재이다. 하의도가 육지와 떨어져 있고 주로 인근 섬과 소통을 갖되, 육지와는 상대적으로 소통의 기회가 적었다면, 이런 양상이 언어에 반영될 것이기에, 육지와 다른 하의도의 독특한 방언이 있을 것이며, 이것들을 외지인에게 소개한다면, 그 이색적이고 독특함에 매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특히 하의도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방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하의도 방언이 육지에 비해 옛말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일이다. 언어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 차이 때문에 지역에 따른 방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육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사람들의 왕래 통로를 따라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지리적 장애물이 있을 경우, 언어 변화의 전파는 그곳에서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지리적 장애물을 경계로 한 양 지역은 언어 변화의 유무에 따른 방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언어 변화의 전파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리적 장애물로는 높은 산이나 사막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바닷길도 이러한 장애물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육지에서 생긴 언어 변화가 섬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마찬가지로 섬 지역에서 일어난 언어 변화가 육지로 퍼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로 섬 지역은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변해 버린 옛말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방언 자료들을 찾아낸다면, 하의도는 언어적으로 옛말의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문화의 전통적 모습을 고수하는 지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는 하의도 방언에서 바다와 관련된 독특한 어휘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일이다. 하의도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섬이라 하더라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지는 않은 곳이다. 그렇더라도 바다와 개펄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하의도 방언에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그러므로 하의도 방언에서 바다와 관련된 어휘들을 찾되, 이들이 인근 어업 중심의 섬 지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의도의 특징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외지인들에게 소개할 하의도 방언을 발굴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로 하의도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 주는 방언, 하의도의 언어적 보수성을 보여 주는 방언, 그리고 하의도의 해양 관련성을 보여 주는 방언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다.

## 2. 독특한 문화 관련 방언

### 2.1 친족어

#### (1) 동생/동승

하의도에서는 ‘동생’과 ‘동승’이 함께 쓰인다. 하의도의 고유한 방언은 ‘동승’으로 보이며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생’은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며 표준어의 영향을 받은 후대형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승’은 남자 동생뿐 아니라 손위 시누이가 손아래 올케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느 쪽이 표준어를 쉽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견해는 갈려 있지만, 적어도 ‘동생/동승’의 예를 보면 남성들이 더 표준어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씨아재비

하의도에서는 시동생을 가리켜 ‘씨아재비’라고 한다. 이는 시동생의 지칭어이며, 시동생을 호칭으로 쓸 때에는 ‘아잡씨/아자씨’라고 한다. ‘씨아재비’의 ‘아재비’는 옛말 ‘아자비’에서 온 말로서, ‘아자비’는 ‘앗-아버’로 분석되며, 이때의 ‘앗’은 ‘작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자비’는 원래 ‘작은 아버지’ 즉 숙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자 叔을 일러 ‘아자비 숙’ 또는 ‘아재비 숙’이라 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옛말 ‘아자비’는 전남 방언에서 /ㅂ/이 탈락되어 ‘아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하의도에서는 유독 ‘씨아재비’에 옛말 ‘아자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육지에서는 시동생을 가리켜 ‘시아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유어를 이용한 ‘씨아재비’가 시동생을, 그리고 한자어 媿叔이 손위 시아주버니를 가리키는 것은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높임의 뜻을 갖는데, 이 경우는 단순한 말맛의 차이가 아니라 친족 관계상의 상위 계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3) 아재

하의도에서는 ‘아재’라는 말을 사용한다. 오림리 정복기 할아버지에 따르면, 아이들 이름

을 붙여 ‘아무개네 아재’라고 하여 손아래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씨족으로서 항렬은 화자보다 높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 ‘아재’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아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육지에서 ‘아재’는 일반적으로 숙향의 위치에 있는 먼 친척을 가리키는데, 하의도에서는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쓰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말할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쓴다는 점, 그리고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점에서 육지와는 차이를 보인다.

#### (4) 아잡씨

하의도에서는 시동생을 호칭으로 부를 때, 또는 여자들이 동네의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아잡씨’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잡씨’와 ‘아자비’는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아자비’가 ‘앗-압-이’로 이루어졌다면 ‘아잡씨’는 ‘앗-압-씨’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때의 ‘압’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기원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말도 어원적으로는 ‘압’에 접미사 ‘-어지’가 붙은 말로 해석된다. 육지말에서 ‘아비’와 ‘압씨’는 말맛이 다른 말이다. ‘아비’는 보통 움라우트의 변화를 겪어 ‘애비’로 발음되는데, ‘아버지’보다는 낮추는 느낌이지만 부모가 떠느리나 손자들 앞에서 아들을 지칭할 때 흔히 이 말을 쓰므로 아주 낮춘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애비 어디 갔니?’라고 묻는 것이 이러한 용법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압씨’는 이보다 더 낮추는 느낌을 준다. “느그 압씨가 누구냐?”라고 어린애에게 묻는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화가나 있거나 아니면 상대의 아버지를 매우 비하하면서 지칭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의 ‘압씨’가 주는 이러한 비하의 말맛은 하의도의 ‘아잡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하의도의 ‘아잡씨’는 여자들이 동네의 남자 어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오림리의 강복기 할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네들은 동네의 남자 어른을 부를 때 ‘아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아잡씨’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잡씨’는 ‘아재’보다 더 높은 말맛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5) 시숙

시숙(媿叔)은 남편의 형님을 가리키는 한자어다. 그런데 하의도에서는 남편의 형님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의 남자 어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도 이 말을 사용

한다. 예를 들어 “시숙님 어디 갔다 오시요?”처럼 쓰이는데, 원래는 친족 관계에만 썼던 이 말을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혀 사용한 것이다. 섬처럼 좁은 지역 안에서 폐쇄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친족이 아니더라도 친족과 같은 유대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의 성격이 친족명을 확대 사용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육지에서도 당숙을 가리키는 ‘아재’의 의미를 동네 남자 어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의미로 넓혀 사용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시숙’을 결코 친척이 아닌 관계에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서 하의도의 ‘시숙’에 대한 사용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의도에서는 친족이 아닌 관계에까지 친족어를 넓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애초 가까운 친족 관계를 나타내던 말이 먼 친족 관계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촌’이란 말을 오촌 이상의 관계에까지 사용하는 것이 그런 예일 것이다. 즉 7촌, 9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숙향을 가리켜 ‘오촌 당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렬을 엄격히 따져 부르지 않고 가까운 관계의 친족어를 사용함으로써 가깝게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정복기 할아버지의 증언이었다.

진도에서도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 하고, 작은어머니나 큰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른다는 사실을 진도 지산면에서 확인한 바 있었는데, 이 역시 실제의 향렬 관계보다 더 가까운 친족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제보다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국 ‘친족어 → 비친족 관계’와 ‘가까운 친족어 → 먼 친족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모두 친족어를 엄격히 따지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가까움 또는 가깝게 느끼기 위해 확대 사용한 결과인데, 이러한 친족어의 확대 사용이 좁은 지역의 섬 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6) 숙모

숙모는 작은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하의도에서는 시숙과 마찬가지로 동네의 여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되, 높이는 말맛을 준다.

## (7) 아짐

‘아짐’은 원래 당숙모를 가리키던 말인데, 하의도에서는 동네의 여자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대개 아이들 이름과 결합하여 ‘아무개네 아짐’이라고 쓰인다.

### (8) 압씨/엄/엄매

‘압씨’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하의도 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지에서 ‘압씨’는 비하적인 말이지만 하의도에서는 그러한 말맛이 없다. 대체로 ‘아무개네 압씨’처럼 쓰이는데, 예를 들어 아이의 이름이 ‘화단’이면 ‘화단네 압씨’라고 하고, 이것을 줄여 ‘화단납씨’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압씨’에 대응되는 말은 ‘엄매’인데, 이것이 아이의 이름에 붙여 쓸 때는 흔히 ‘엄’으로 줄어들어 쓰인다. 그래서 ‘화단’의 엄마를 가리켜 ‘화단네엄’, 그리고 이를 줄여 ‘화단님’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의도의 ‘납씨/님’, 진도의 ‘나배/너매’ 그리고 거문도의 ‘남/님’ 등은 모두 접미사 ‘-네’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말 ‘압씨/어매’, ‘아배/어매’ 등이 결합된 뒤 축약을 일으켜 이루어진 말이다.

### (9) 오람/오랍씨

오빠를 가리켜 ‘오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의도의 전통적 호칭법이었다. ‘오람’에 대해 ‘오랍씨’는 높이는 말맛을 갖는 말이다. ‘오랍씨’는 ‘올-압-씨’로 분석되는 말이다. 어근 ‘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며, 여기에 붙은 ‘올’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으나, ‘올벼’의 ‘올’에서와 같이 ‘올압’은 ‘장차 아버지가 될’ 정도의 뜻은 아닐까? 이 ‘올압’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오라비’가 되고 ‘-씨’가 결합하면 ‘오랍씨’가 되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라비’의 변이형 ‘오래비’나 ‘오랍씨’가 널리 쓰이는데, 하의도에서도 ‘오랍씨’가 쓰인다.

‘오람’은 ‘올압’의 /ㅂ/이 /ㅁ/으로 바뀐 것이다. 왜 바뀐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 (10) 아잠

하의도의 전통적인 친족어 명칭 가운데 형부를 ‘아잠’이라 부르는 말이 특이하다. 한국

어 전체에서 형부에 대한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하의도의 ‘아잡’은 매우 독특한 성격의 낱말임을 알 수 있다.

‘아잡’은 옛말 ‘아자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아자비’는 원래 숙부를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하의도에서는 시동생을 가리키는 ‘씨아재비’에 원 모습이 남아 있다. 이 ‘아자비’에서 접미사 ‘-이’가 결합된 ‘아잡’(앗-압)의 /ㅂ/이 /ㅁ/으로 바뀌어 ‘아잡’이 되었고, 그 지칭 범위도 시동생이나 숙향의 항렬에서 형부로 바뀌게 되었다. 형부란 언니의 남편이니 형제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언니의 남편이란 점에서 친형제라 할 수도 없는 독특한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처제의 관점에서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니 오빠와 유사한 관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잡’의 끝소리 /ㅁ/이 오빠를 가리키는 하의도의 말 ‘오람’의 끝소리와 같음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 두 어형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유추에 의해 동일한 소리를 갖는 음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11) 동승애

여자가 손아래 동서를 가리켜 ‘동승애’라 한다. 전남의 육지 지방에서는 ‘동상아덕’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 ‘동상아덕’은 ‘동생의 덕’이라는 뜻일 텐데 이때의 ‘덕’은 택호에서 쓰이는 접미사로서 흔히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섬 역에서는 ‘-덕’이라는 접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동승애지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때의 ‘지섬’은 표준어 ‘지어미’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하의도에서는 이 ‘지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동승애’라고 부르는 것이다. ‘동승애’는 문법적으로 ‘동생의’라는 뜻일 뿐 거기에 ‘동생의 부인’을 나타내는 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씌으로써 ‘동생의 부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속격 표지 ‘-애’가 부인을 나타내게 된 셈이 되었다.

손위의 동서는 ‘성님’이라고 부른다. ‘성’이란 말이 원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쓰였던 용법을 이 말에서 찾을 수 있다.

### (12) 하랍씨/조부시, 함씨/함씨

할아버지는 하의도에서 ‘하납씨’ 또는 ‘하랍씨’라 하며, 할아버지를 높여 말할 때는 ‘조

부시'라는 말도 쓴다. '하납씨'는 물론 '한-압-씨'로 분석되는 말이다. '하납씨', '아잡씨' 등을 통해서도 하의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명칭이 '압씨'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 말이 육지와 달리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부시'는 한자어 '조부'에 '시'를 붙인 말이다. '조부'만으로도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인데 여기에 다시 '시'를 붙여 재차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부시'는 '하납씨'보다는 높은 말이 되었다. '조부시'에 붙은 '시'가 '하납씨'의 '씨'와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김씨, 홍길동씨처럼 이름이나 성에 붙는 '씨'와 같은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조부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의도에서는 이를 '씨'로 쓰지 않고 '시'로 발음한다는 점이다.

할머니에 대한 이 지역 명칭은 '함씨' 또는 '함씨'이다. '함씨'는 '한-엄-씨'에서 온 말이다.

## 2.2 택호

결혼한 여자나 남자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 이름 대신 부르는 명칭을 택호라 한다. 육지에서는 대체로 여자의 친정 명칭을 사용하는데, 만약 친정이 무안이면 '무안떡', 그리고 남자는 '무안 양반'이라고 부른다. '떡'은宅을 뜻하는 말 '덕'에 사이시옷이 결합한 말로서 '무안떡'은 '무안-스-덕'으로 분석되니 '무안의 덕'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하의도에서는 여자의 택호로 '덕'을 쓰지 않는다. '덕'을 쓰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정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의도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붙여 택호로 쓰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의 이름이 '화단'이면 '화단네엄', '화단네압씨'로 쓰거나 이를 줄인 '화단님', '화단납씨'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없을 때, 곧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절의 택호는 어떠한가? 이때는 친정 지명을 딴 택호를 쓴다. 예를 들어 '하태'(신의도)에서 시집 온 여자는 '하태수네'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태'는 친정명이고, '수네'는 이 지역의 독특한 표현이다. 여기서 '수'는 흔히 남자 아이의 이름에 붙는 접미사이다.<sup>1)</sup>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작명가에게 상의하거나 아니면 집안 어른들이 만들어 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데 섬 지역에서는 만이일 경우 어머니의

1) '수'는 전남의 서남부 지역에서 '피수' (=피보), '대갈수' (=머리가 큰 사람)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아들을 가리키는 '수'도 이러한 접미사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친정 즉 아이의 외가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이곤 하였다. 그래서 ‘하태’가 외가이고 아이가 아들이면 ‘하태수’라 하였고, 아이가 여자이면 ‘하탯니’라 한다. 이처럼 하의도에서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수’와 ‘니’(진도에서는 ‘니’가 아닌 ‘단’을 쓴다.)를 구별하였고<sup>2)</sup>, 이 접미사를 외가의 지명에 결합시켜 아이의 속명으로 삼았던 전통이 있었다. 이 속명은 나중에 호적으로 올리는 정식 이름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속명 ‘하태수’는 호적에서 ‘태수’라는 어엿한 이름으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아이의 이름이 정해지면 이제 그 어머니의 택호는 저절로 결정된다. ‘하태수네엄’이 되거나 이를 줄여 ‘하태수님’ 또는 ‘엄’을 생략한 ‘하태수네’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맏이가 딸이면 ‘하탯니네’라고 불리었던 것이다. 이러한 택호가 일반적이었으므로, 갓 시집 온 새댁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고, 더구나 아직 아들이 없을 시절일지라도 ‘하태수네’라는 무표의 기본 택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택호 방식은 한 동네에 사는 여러 여인들을 구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만약 빨래터에서 만난 여러 명의 여자들을 구별하려면 이들의 친정 명칭만큼 구별되는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서 시집온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하의도 대리에서 대리로 시집온 여자도 ‘대리수네’라고 부를 것인가? 이럴 때에는 ‘대리수네’ 대신 ‘본토수네’라는 택호를 갖는 것이 흥미롭다.<sup>3)</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의도의 택호 체계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첫째는 육지처럼 친정 지명에 ‘댁’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에 ‘네’를 결합한다는 점이다. 형태적으로는 ‘댁’과 ‘네’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친정 지명과 맏이의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따라 육지와 섬 지역이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아이의 이름을 아이의 외가 지명에 따라 부르고, 이 또한 아이의 성에 따라 달리 부른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은 신안과 진도 지역에서 모두 사용하는 방식인데, 하의도가 진도와 다른 점은 여자 아이일 경우 ‘니’를 쓴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진도의 ‘단’과 대립되는 것이다.

(예) 언동수네/언동니네, 뒷개수네/뒷갯니네, 돈올수네/돈올니네

2) 여자 아이의 전통적인 이름 가운데 ‘꽃님’, ‘달님’과 같이 접미사의 일종인 ‘-님’이 붙는 예가 있다. 이 ‘-님’이 붙은 이름은 마땅히 여자 이름이 되는데, 이 점에서 보면 하의도의 딸을 가리키는 ‘-니’가 ‘-님’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3) 진도에서는 ‘동네수네’라고 하며, 광양에서는 ‘제동네떡’이라는 택호를 쓴다.

### 3. 옛말을 보여 주는 하의도 방언

#### (1) 가상구/가상자리

표준어 ‘가상자리’에 해당하며, ‘가상구’는 ‘갓-양구’, ‘가상자리’는 ‘갓-양-자리’로 분석되며, 이때 덧붙는 ‘-양구’나 ‘-양’ 등은 접미사이다. 어근 ‘갓’은 중세어 ‘꺠’에 대응하는 말로서 ‘꺠’보다 더 오래된 형태로 추정된다. 육지에서는 ‘가상자리’는 확인되나 ‘가상구’는 찾아지지 않는다.

#### (2) 옷가심

표준어 ‘옷감’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서 하의도에서는 ‘옷가심’이란 말이 쓰인다. 여기에서 ‘가심’은 옛말 ‘ᄃ슴’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ᄃ슴’은 재료를 뜻하는 말로서 /Δ/의 탈락과 음절 축약에 따라 현대에는 ‘감’으로 변하였다. 현대의 ‘감’은 홀로 쓰일 때는 ‘옷감’의 뜻으로 쓰이며 그밖에는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쓰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대상이 되는 도구나 사물, 사람, 자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신랑감’, ‘사윗감’이 전자의 예라면, ‘놀림감’, ‘구경감’은 후자의 예이다. 전남의 내륙에서도 하의도와 같이 ‘가심’이란 말이 쓰이되, ‘한 주먹가심’(=한 주먹이면 충분할 정도의 하찮은 상대)이나 ‘옛가심’(=애물단지)과 같은 예에 남아 있지만 옷감은 결코 ‘옷가심’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옛말 ‘ᄃ슴’의 /Δ/보다 더 고형으로 추정되는 /ㅅ/을 포함한 방언형 ‘가심’이 어휘에 따라 유지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먹가심’이나 ‘옛가심’에는 아직도 옛 흔적인 /ㅅ/이 남아 있지만 ‘옷감’에는 이 /ㅅ/이 사라져서 새로운 형태의 ‘감’이 쓰이고 있는 것이 전남 내륙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 하의도는 ‘옷가심’에서도 이 /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전남의 내륙보다 /ㅅ/이 남아 있는 낱말의 수가 많다는 뜻이 되며, 이것은 다시 하의도의 언어가 전남 내륙의 언어에 비해 더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3) 못이

여러 형제 가운데서 제일 순위의 사람을 표준어에서는 ‘맏이’라고 하는데 하의도에서는

‘뭇이’라고 한다. 이 말은 옛말 ‘뭇’에서 분화된 말이다. 옛말 ‘뭇’은 아래 예에서 보듯이 옛말에서는 독립된 명사로 쓰였다.

(예)

가. 뭇든 나히 열아흠이오.(소학언해 6:60)

나. 뭇디 病 되엿거늘(삼강행실도 열:78)

그러나 현대 표준어에서 ‘뭇’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뭇형’, ‘뭇딸’, ‘뭇아들’과 같이 접두사로 쓰이거나 ‘뭇이’처럼 접미사 ‘-이’를 붙여 새로운 명사로 재탄생하였다.

‘뭇’은 하의도에서 /으/가 /오/로 변해 ‘뭇’으로 바뀌었고, 이 지방에서도 ‘뭇’처럼 홀로 쓰이지는 않고 ‘뭇이’처럼 접미사 ‘-이’와 결합하여 쓰이면서 그 용법은 표준어 ‘뭇이’와 같다. 그런데 이 ‘뭇이’가 독특한 것은 전남의 내륙 지방에서는 ‘뭇이’나 ‘뭇이’와 같은 말은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륙에서는 ‘뭇’ 대신 ‘큰’을 사용하여 ‘뭇이’는 ‘큰놈’ 등으로 쓰이고, ‘뭇아들’은 ‘큰아들’, ‘뭇딸’은 ‘큰딸’로 쓰인다.

그렇다면 옛말 ‘뭇’은 전남의 내륙에서는 사라졌지만 하의도를 비롯한 신안의 섬지역에서는 ‘뭇’으로 형태를 바꾸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역시 이 지역이 언어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4) 대

하의도뿐 아니라 신안의 섬 지역에서 접미사 정도로 추정되는 ‘대’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예) <물음> 어디서요?

<대답> 부락대서.

(예) 이런 큰 갈대 같은 육지대 가든 대밭이 있드라고.

위의 예를 보면 ‘어디서요’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부락대서’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락대서’는 ‘부락에서’ 정도의 해석을 갖는다. 아래 예의 ‘육지대’ 역시 ‘

육지에'로 바뀌도 같은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 '대'는 무슨 말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의도의 '대'는 옛말 '다히'에서 온 말이다.

(예)

가. 머리 너키 크고 발다히 적게 호야(가례언해 5:6)

나. 남다히로 가라(언해태산집요 10)

예 (가)를 보면 '넉'과 '다히'가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넉'은 주지하다시피 현대어에서도 쓰이는 말로서 '쪽'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다면 중세어의 '다히' 역시 '쪽'이나 '편'과 같이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던 말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발다히'는 '발쪽이'로 해석되며, '남다히로'는 '남쪽으로'로 해석되는 것이다.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히'가 곧 신안 지역어의 '대'의 전신이다. 즉 '다히 > 대'로 변한 것이다.

위의 예 (가)에서 '넉'과 '다히'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실제 전남 방언에서도 '넉'과 '대'가 지역적으로 달리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의 내륙에서 '웃넉'이란 말은 자기가 사는 곳보다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하의도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우에대'라는 말이 쓰인다. 그렇다면 하의도의 '대'는 전남 내륙의 '넉'이나 '쪽', '편'과 같은 의미의 낱말임을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신안 지역어의 '대'는 '다히'의 형태가 이음절에서 일음절로 축약된 결과이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진 옛말 '다히'의 흔적이 하의도를 비롯한 신안 섬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 (5) 네

표준어에서 접미사 '-네'는 사람의 명사에 붙어 '그 사람이 속한 무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철수네'는 철수의 가족, '김서방네' 역시 김서방의 가족이나 김서방이 속한 단체를 가리킨다. 또는 몇몇 명사에 붙어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인네'라 하면 '여인들'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하의도에서 '-네'는 이러한 표준어범보다 더 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예) 가. 아짐네들이 이놈을 보듬고 쓰다듬고 이라므는  
 나. 그분네가 그 수원 팔달문을 세웠어요.  
 다. 그 삼네 집(≡그 사람네 집)

위의 예 (가)의 ‘아짐네’는 ‘여인네’와 같이 같은 처지의 사람 즉 복수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짐네’보다는 ‘아짐네들’이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네’의 복수 지칭 기능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여기에 다시 ‘-들’이라는 복수 표지가 덧붙여야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의 예 (가)에서 ‘-들’ 없이 ‘아짐네’라고 하면 ‘아짐의 가족’처럼 해석될 뿐 ‘여러 아짐들’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네’는 원래 가졌던 복수 표지의 의미가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다. ‘그분네’는 복수가 아닌 단수, 즉 ‘그분’이므로 여기서 ‘-네’는 결코 복수를 나타내지 않는다. (가)보다 더 약화되어 아예 복수를 가리키는 기능이 사라진 예로 보아야 한다. (다)의 ‘그 사람네’의 ‘-네’는 표준어에서도 사용되는 용법이므로 이 점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다. 다만 하의도를 비롯한 신안의 섬 지역에서는 ‘사람’이 ‘삼’으로 축약되어 쓰인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래서 ‘그삼네’는 신안 지역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삼인칭 대명사로 볼 만한 것이다.

## 4. 바다와 관련된 하의도 방언

### 4.1 고기 새끼 이름

#### (1) 송어

하의도에서는 새끼 송어로부터 다 자란 송어에 이르기까지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어린 새끼는 ‘모당구’ 또는 ‘모뎡이’라 하며 이보다 약간 큰 송어는 ‘모치’, 그리고 어른이 된 송어는 그냥 ‘송에’라 한다. 송어는 다시 ‘참송에’와 ‘개송에’로 나뉘는데, ‘개송에’는 하의도에서 ‘씨랭이’라 불린다. 압해도에서는 ‘모당구’나 ‘모뎡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아 ‘모치’와 ‘송에’의 두 종류만이 구별되었는데, 하의도는 가장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모당구’

나 ‘모뎡이’라는 말이 있어 흥미롭다. ‘모치’는 어근 ‘모-’에 고기류에 붙는 접미사 ‘-치’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어근 ‘모-’가 ‘모당구’나 ‘모뎡이’에도 확인되므로 이 말들은 모두 ‘모-당구’나 ‘모-뎡이’로 분석된다. 따라서 접미사 ‘-당구’나 ‘-뎡이’는 ‘-치’에 비해 <더 작은> 또는 <더 어린>의 뜻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농어

농어의 새끼는 하의도에서 ‘결떡’이라 부른다. 그래서 ‘농어’는 ‘결떡’과 ‘농어’의 두 단계에 의한 구분을 한다. 압해도에서는 그 중간 단계에 ‘이결떡’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이결떡’은 자란 지 2년이 된 농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의도에서는 이런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 (3) 민어

민어의 새끼는 하의도에서 ‘통치’라 부른다. 압해도에서는 아주 작은 것은 ‘민둥이/민둥이새끼’, 그리고 1kg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민어는 ‘통치’라고 구별하였으나 하의에서는 오직 ‘통치’만 사용하였다. 압해도가 어촌 중심의 섬이었고, 따라서 고기에 대한 분화가 더 세분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의도는 농업 위주의 섬이므로 압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 분화의 정도가 약한 편임을 알 수 있다.

## (4) 조기

조기의 새끼를 하의도에서는 ‘세조구’라 하였다. 압해도에서는 따로 이름이 없이 그냥 ‘조구새끼’라고 하였는데, 하의도는 ‘세조구’라는 말이 확인되었다. ‘세’는 아마도 한자어 細에서 온 것으로서 ‘잘다’라는 뜻일 것이다.

## (5) 갈치

압해도에서는 젓을 담그거나 말려 찌서 먹는 갈치 새끼를 ‘폴치’라고 구별하였으나 하의도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다. 하의도에서는 갈치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보

면 그 지역에서 잘 잡히는 고기에 대해서는 고기 이름이 세분될 수 있지만, 잘 잡히지 않는 고기에 대해서는 통칭하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이하에 대한 세분된 명칭은 발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 (6) 멸치

하의도에서는 멸치를 ‘멜’이라고 부를 뿐, 멸치의 크기 등에 따라서 세분화된 명칭은 없다. 이에 비해 압해도에서는 가장 잔 멸치로서 이제 막 나온 멸치를 가리켜 ‘세멜’ 또는 ‘시몰’이라 하고, 이보다 약간 큰 중간 정도 크기의 멸치는 ‘뚝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명칭은 ‘왕멜’ 이라고 구분하였다.<sup>4)</sup> 압해도에서의 이러한 세분과 달리 하의도에서는 ‘멜’ 하나만 쓰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 지역에서 멸치잡이가 성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의도가 어업이 아닌 농업 중심의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 4.2 계의 종류

하의도에서 ‘계’는 ‘기’로 발음되는데, 그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가 있다.

- (1) 화랑기 : 낚지 미끼로 쓰이며 털이 약간 있는 자잘한 계이다. 압해도에서는 ‘서렁기’라고 하는데, 하의도에서는 이를 ‘화랑기’라 하여 달리 부른다.
- (2) 빨떡기 : 넓적하고 크다. 바다 개펄 안의 강이나 개펄에서도 산다. 다른 지역에서는 ‘돌계’라고도 한다. 하의도와 압해도 양쪽에서 모두 ‘빨떡기’라고 하였다.
- (3) 돌짱기 : 돌 밑에서 사는 계로서 압해도에서는 ‘독기’라고 하였는데, 하의도는 ‘돌짱기’라고 한다.
- (4) 살기(살끼) : 표준어의 ‘꽃게’를 가리키는 말로서, 압해도와 하의도도 모두 같은 말 ‘살기’를 사용한다.
- (5) 꽃기 : 큰 발이 빨간색인 이 계를 도시 지역에서 ‘집계계’라고 한다고 제보자는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표준어의 ‘꽃게’와 신안 하의도의 ‘꽃기’는 그 지칭물이 다르다.
- (6) 풀기 : 논이나 풀에서 사는 계인데, 압해도에서는 ‘논기’라고 한다. 발이 크며, 수컷은 발 하나가 길고 암컷은 발 하나가 없다. 하의도는 이를 ‘풀기’라고 한다.

## 4.3 고둥

---

4) ‘세멜’과 ‘뚝멜’에서 ‘세’와 ‘뚝’은 각각 ‘셋’과 ‘돌’의 뜻으로 해석된다.

고동 종류로 하의도에서는 ‘세고동’, ‘미영씨고동’, ‘또가리고동’, ‘매운고동’, ‘비트리 고동’, ‘낙지고동’ 등의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또한 ‘찍’이라는 말은 조개껍질 썩은 것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꿀찍’은 굴 껍질이 썩은 것을 가리킨다. ‘뺨이 맨 찍이다’란 말은 개펄이 온통 조개껍질이나 굴 껍질로 덮혀 있다는 뜻일 것이다.

## 4.4 바닷가 지형

### (1) 갯변

‘갯변’은 ‘뺨땅’, ‘갯갯’과 같은 말로서 개펄이 있는 바닷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갯변에 간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닷가에 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굴을 따러 가거나 뜬부기나 돌미역 등을 채취하러 가는 일을 가리킨다.(하의도 말로 ‘굴을 따다’는 ‘굴을 좇다’라 하고<sup>5)</sup>, 뜬부기나 돌미역을 채취하는 일은 ‘매로 간다’라고 표현한다.) 한편 압해도에서 ‘갯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목욕 따위를 하러 가는 것을 가리킬 뿐 해산물을 채취할 일은 없다고 한다. 압해도의 ‘갯변’은 단순한 바닷가로 인식되었다.

### (2) 짝지

바닷가나 산 밑의 자갈한 돌이 깔린 곳 곧 자갈밭을 말한다. ‘짝지’는 어원적으로 ‘짝’과 ‘지’로 분석된다. ‘짝’은 ‘작’이 된소리로 변한 것인데, ‘자갈’(작-알)에 포함된 ‘작’과 같은 것이다. ‘자갈’은 ‘작’에 ‘알’이 합성된 말이다. ‘짝지’의 ‘지’는 아마도 한자어 地일 것이다. 따라서 ‘짝지’는 어원상으로 ‘자갈이 깔린 땅’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하의도에서 ‘짝지’는 모래가 없고 굴 따위를 까는 데 쓰이며, 바다로부터 쓰레기나 기타 허접한 것들이 밀리는 곳을 가리킨다.

5) 그래서 굴을 따는 데 사용되는 갈고리 모양의 도구인 ‘조새’는 동사 ‘좇’에 접미사 ‘-애’가 결합되어 생긴 말로 해석된다.

### (3) 모래짱불

신안 압해도에서 ‘모래짱불’은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 바닷가를 가리켰다. 다시 말하면 바다와 육지의 사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압해도의 경우 ‘모래짱불에 꼬:랑 났다.’라는 말은 바닷물이 빠져 버린 후, 움푹 파져서 물이 흐르는 곳, 즉 ‘개웅’ 또는 ‘개웅창’이 생겼음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하의도에서 ‘모래짱불’은 모래가 많이 길게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빨각단

압해도에서 ‘빨각단’은 개펄과 모래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 반면 하의도에서는 단순히 개펄이 있는 곳을 가리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하의도에서는 ‘모래짱불’과 ‘빨각단’은 바닷가에서 모래가 있는 곳과 개펄이 있는 곳으로 구분될 뿐이다. 즉 물이 빠지고 개펄만 남은 곳을 ‘빨각단’이라 한다. 반면 압해도에서는 ‘짜지-모래짱불-빨각단’과 같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지역의 한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 (5) 물각단[물깍단]

압해도에서 ‘물각단’은 물이 처음에 들어오는 곳, 즉 개펄과 물의 끝 지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깍단 넘었다’는 말은 물이 바닷가의 얇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각단’은 ‘짜지-모래짱불-빨각단-물각단’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곳이다. 그런데 하의도에서는 ‘물각단’이라는 표현을 이해는 하면서도 잘 쓰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미 ‘빨각단’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의도는 농촌 위주의 지역이므로 바닷가의 지역을 압해도처럼 세분하여 명확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물론 압해도와 같은 명칭이 쓰이지 않는 바는 아니나, 모호한 개념으로 쓰이거나 절대적 개념으로 쓰일 뿐, 압해도와 같이 ‘짜지-모래짱불-빨각단-물각단’과 같은 구조 안에서의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이다. ‘빨각단’의 인식이 그러하였고, ‘물각단’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 (6) ‘댄둥’과 ‘진참’

개펄 가운데서 땅이 단단한 곳을 가리켜 ‘댄둥’이라 한다.<sup>6)</sup> 압해도에서도 같은 말이 쓰이되, 거기에서는 개펄의 높은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높은 곳이 곧 단단한 곳이라는 점에서 압해도와 하의도는 같은 뜻으로 ‘댄둥’을 사용하였다. ‘댄둥’은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로 단단한 개펄 지역을 말한다. 한편 ‘댄둥’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는 ‘진참’이 있다.<sup>7)</sup> 이는 개펄의 무른 곳을 가리킨다. 압해도와 하의도는 ‘진참’이란 말을 개펄의 무른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5. 활용 방안

우리는 하의도 방언을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하의도 방언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하의도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는 방언으로서 친족어와 택호 체계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육지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옛말을 하의도 방언이 보존하는 경우로서, 몇몇 낱말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방향을 가리키는 낱말 ‘대’가 이러한 옛말의 흔적을 보이는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셋째는 하의도 방언은 바다와 관련된 어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물고기의 새끼와 다 자란 것의 구별, 게나 고둥의 종류 그리고 바닷가의 여러 지형들을 세분하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다.

제주도를 여행할 때마다 관광 안내인들이 흔히 독특한 제주도 말 몇 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던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 하의도에서도 하의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 위에서 언급한 방언들을 소개하면서, 하의도의 독특함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의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 자체를 하의도 방언으로 대체한다면, 외지인들은 단순히 낱말 몇 개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하의도 말의

6) ‘댄둥’은 ‘단단하다’의 어근 ‘단단’의 일부인 ‘단’과 ‘둥’이 결합한 말로 추정된다.

7) ‘진참’의 ‘진’은 물론 ‘질다’에서 온 말이다.

독특한 억양이나 표현법까지 알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전에서 소금 제조, 김이나 툇의 양식 방법 등과 같은 하의도 고유의 삶의 모습을 표준말이 섞이지 않은 하의도 방언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배(1985), 하의·장산 방언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3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왕한석(2010), 한국의 언어민속지 2-전라남북도 편, 서울대출판부  
허경희(1985), 하의·장산의 구비문학 자료 조사 보고, 도서문화 3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부록> 하의도의 독특한 방언

가상구/가상자리 : 가장자리	두덕지 : 누더기	버렸어.
각수리 : 잔돈	딸쌩 : 꼼쌩 (예) 딸쌩 못하다	암닥평 : 까투리
건계 : 반찬(짠 것)	떼깁/주레 : 파리	에기업계 : 업저지
겉제 : 왕겨	똥/또랑/꼬랑 : 도랑	오그작오그작 : 흙이나 땅을 파는 모양 (예) 벽을 오그작 오그작 팡개는
게우 : 꿩이	똥똥똥똥 : 오래오래(돼지 부르는 소리)	오글씨다 : 오그리다
괴플하다 : 사납다	마리 : 광	오두 : 오디
국떡/떡국떡 : 가래떡	만침 : 만큼 (예) 이만침	옴베기(작은 것)/옴박지(넓게 퍼진 것) : 옴자베기
군두 : 그네	메꼬리 : 멧둥구미	웃가심 : 웃감
귀지 : 귀전	멧똥쌩/멧똥쫓 : 멧돌 암쇠/수쇠	옹삭하다 : 옹색하다/형편이 곤란하다
귀통어리 : 귀통이	모개 : 이삭	울청 : 돼지우리
까구리 : 갈고리	모지 : 만이	으찌곰 : 어떻게나 (예) 으찌곰 무섭든지
까랍다 : 꺾끄럽다	물동우(머리에 입)/무동우(지게에 짐) : 물동이	-이세 : -일세 (예) 거가 배락바우세.
깜뿔/깨뿔/까막살 : 깜부기	물리 : 마루	자물썸지다/자무러지다 : 까무러치다
꼬지막 : 꼭대기 (예) 꼬지막을 딱 올라갔다	베공 : 배꼽	잔뜩 : 매우 (예) 잔뜩 무성개
꼭게우 : 곡괭이	볼절림 : 쥐불놀이	장닥평 : 장끼
꽃밭 : 발돋움	볼키다/부름키다 : 부르트다	짜지 : 자갈밭
공 : 공기	빨뿌리/빨찌 : 물부리	찌다신하다 : 기다랄다
끈 : 끼니 (예) 여러 끈을 꿰어놓게	뿐팔다 : 분반다	찌다 : 찰다
나람 : 이영	뿌락지 : 황소	찔벌찔벌하다 : 절뚝절뚝하다 (예) 호랭이가 잘 못 걸고 찔벌찔벌함시로
나람랏/나람장 : 이영의 단	산물랑/물랭/물랑가지 : 산마루	출출 : 총총 (예) 정신 출출 하든
나문 데 : 다른 곳	산데미(깨끗한 것을 담음)/거렁지(쓰레기나 더러운 것 등을 담음) : 삼태기	친친 : 꼭 (예) 눈 친친 감고
날람하다 : 날카롭다	살갈레 : 기저귀	코꽃 : 코털
날쌩다/날랍다 : 날래다	셈 : 보조개	콩눈 : 진눈깨비
너바구 : 바위	서너뎃 : 서넛 (예) 서너뎃가우 살엿단 말이어.	괴상(작은 것)/귀썩(큰 것) : 궤
넉장들리다 : 넉이 나간다. (예) 호랭이가 바우 우게 얹아서 콧소리를 냐게 그만 넉장들려서 갖고 갔던 거다 놉두고 도망갔어.	성문제~이 : 정강이	터덜가지 : ? (예) 용이 올라간 터덜가지가 있단 말이어.
노름장 : 놀이터 (예) 거가 아그들 노름장이었어.	세:미 : 우물	틀부다 : 다르다
누에나부 : 누에나방	세다구 : 사이	팽메질 : 팽매질
능개이 : 이끼	소드랑/소두방/소뚜렁 : 솔뚜렁	푹/푹지(벼), 꼬렁/꿀꼬렁 : 그루터기
달꽃 : 달무리	송생이 : 은하수	푹지 : 포기 (예) 장구섬이란 술 한 대 푹지 돋은 바우섬이 있느디
담살이 : 남의집살이(아이)	시리벤다구 : 시룻번	푸령등 : 멍
당글다 : 버리다	심 : 학질	푸제비 : 수제비
대편질하다 : 가부좌	씩다리 : 삭정이	한주/단술 : 감주
덜걸이 총각 : 떠꺼머리 총각	씩약 : 썩기	향침 : 발경계
돌식 : 독식 (예) 아눔을 내가 돌식을 해야 쓰겼느디	아감치 : 아가미	헵 : 외동사니(웃놀이에서)
돔바오다/들러오다 : 훑치다	아웅계 : 고양이	
	안진가리 : 앙금	
	얏다 : 침몰하다 (예) 배가 덩빙 얹아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편

---

## VII 주거문화

김지민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1. 조사 개요 248
2. 민가유적 250
3. 활용방안 256



# VII 주거문화

## 1. 조사 개요

과거 평범한 서민이 살았던 민가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 민속, 신앙, 경제 등 지역의 토착문화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인간과 가장 하부적으로 밀착되어 발전을 거듭해온 목조 민가는 이제 더 이상 현대적 편익성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언제부터인



사진 1. 농어촌주택 사례1

농어촌 어느곳이든 흔히 볼 수 있는 슬라브 주택. 주변환경과 지역의 전통을 도외시 한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으로 이제 한국 주택사의 한 장르가 되고있다.



사진 2. 농어촌주택 사례2

서민의 보편적인 살림집이었던 초가(목조)가 현대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 1차 : 1970~80년대 지붕개량(초가→슬레이트)
- 2차 : 보일러설치, 창호교체
- 3차 : 2000년대 지붕개량(슬레이트→강판)

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농·어촌에 들어서고 있다.(벽돌조 스라브주택) 새로운 형태의 주거란 주거개념과 형태에서 과거의 전통가옥과는 너무 이질적인 것으로서 주거 문화사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혁신적인 것이다.

하의도의 전통민가는 건축사적으로 근대화 이전에 건립된 조선시대 마지막 완성형의 건축이라도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하의도 주거문화의 형성체계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왜구의 침입과 정부의 공도정책으로 인해 한때 비워있던 섬에 17~18세기경 다시 새로운 입도조들에 의해 재구성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서성(Insularity), 즉 바다에 둘러싸인 격리, 해양성 자연환경, 제한된 자원, 협소한 영토 등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입도조들의 고향문화가 환경이 다른 도서에 어떻게 수용되고 또는 변용되었는가 하는 점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의도 민가는 도서지역의 근대화 과정에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전통이 유지되었고 그 결과 19세기 정도에 건립된 많은 민가가 1990년대 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통의 모습을 갖춘 민가는 없다. 더 이상 현대적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적 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행이나마 도면과 기록은 남아있어 하의도 전통 주생활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이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 마을에는 필자가 조사한 남서해 도서지역의 민가 중 건축년도가 가장 빠른 朴亭心 가옥도 있다. 안채에 “嘉慶二年丁巳七月…”이란 上樑文이 있어 건축년도가 正祖21年(1797年)으로 확인되었다. 오래된 것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변형된 곳이 한곳도 없어 건축적으로 크게 주목된다. 이 민가는 2005년경에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 벽돌조로 주택을 지었다. 대리마을의 대부분 민가들은 마래 상부의 모릿대(중도리)에 上樑文이 있어 쉽게 건축년도를 파악할 수 있다.

대리마을은 1990년대부터 돌담장이 블록담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초가지붕도 슬레이트 등으로 교체 되었다. 전통구조의 측간채도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마을의 구조적 전통성이 거의 없다.

표1. 민가 유적 목록

번호	명칭	위치	연대	비고
1	박형심 가옥	하의면 대리 261	1797	헐림
2	제갈천일 가옥	하의면 대리	1823	사랑채 현존
3	김형윤 가옥	하의면 대리 280	1824	헐림
4	김성배 가옥	하의면 대리 189	1831	헐림
5	정성철 가옥	하의면 대리 258	1837	헐림

## 2. 민가 유적

### 1) 박형심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하의면 대리(대리 2구)
- 건축연도 : 1797년

박형심 가옥은 안채에 “嘉慶二年丁巳七月…” 상량문이 있어 건축연대가 정조 21년(1797)으로 확인된 가옥으로 필자가 조사한 신안군내의 전통민가중 건축연대가 정확히 확인된 가옥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이다. 현재 건축당시의 원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부정형 대지의 중앙 안쪽에 癸坐丁向으로 안채가 있고 전면 좌측으로는 비스듬히 사랑채와 측간채가 있다. 그리고 동쪽 담장에 면하여는 돈사가 있다. 안마당 한쪽으로는 현재 짚더미와 솔가지 등이 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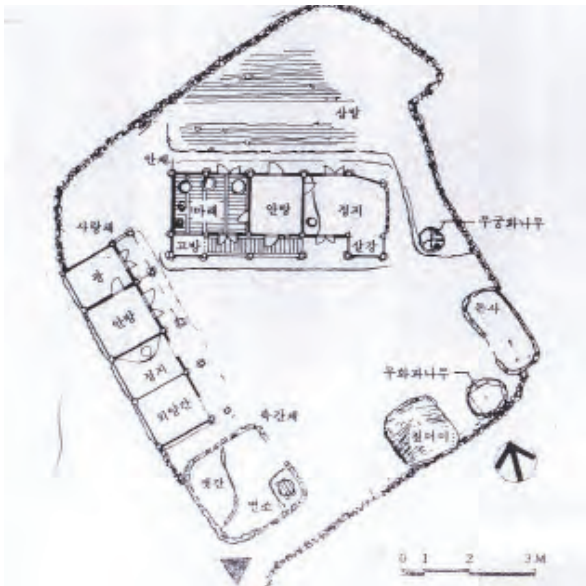


그림 1. 박형심 가옥 배치도



사진 3. 가옥 상량문(嘉慶二年丁巳)

안채는 정면 5칸의 ‘一’자형 전퇴 집으로 양쪽 끝칸은 폭이 5척으로 비교적 작다. 평면형태는 중앙의 1칸 안방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마래와 정지를 두었으며 퇴칸에는 툇마루를 시설하고 그 끝으로는 고티방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지 끝칸 전퇴에는 살강을 시설하였다. 이 가옥은 안채에 안방 다음으로 꾸며지는 2번째 방인 모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규모에 비해 마래와 정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구조는 4량가로서 막돌초석 위에

방주를 세웠다. 그러나 전면의 중앙 퇴주와 후면의 안방 우측 기둥만은 두리기둥을 세웠다. 도리는 납도리이며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이다.

창호는 판장문(마래·정지 전후면), 띠살문(안방 전면), 죽살문(안방에서 마래 쪽 샷문) 등이 다양하게 쓰였으며 안방 뒷문과 정지로 가는 샷문에는 폭이 좁은 판자로 살을 짜고 창호지를 바른 작은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전퇴를 둔 ‘一’자형 초가로 평면 형태는 좌측으로부터 각 1칸씩 외양간, 정지, 사랑방, 광 순으로 되어 있다. 전퇴에는 툇마루 없이 토단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조는 막돌 초석위에 방주를 세운 4량가이다.

## 2) 제갈천일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하의면 대리 261(대리 1구)
- 건축연도 : 1823년

본 가옥의 건축년대는 안채에 “道光三年癸未十月…”이란 상량문이 있으므로 순조 23년(1823)에 건축된 집임이 확인되었다. 안채의 좌향은 亥坐巳向이며 안채 전면 좌측으로는 사랑채와 측간채가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의 전퇴 초가집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마래 2칸, 안방 1칸, 정지 2칸을 나란히 배치하고 우측 끝칸 정지 앞으로는 1칸 모방을 들였다. 전퇴에는 툇마루를 시설하고 그 우측 끝으로는 고방을 설치하였다. 마래의 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다.

‘마래’는 남서해 도서의 모든 민가, 즉 3칸 3실 규모의 작은 민가에 까지도 빠짐없이 본채(안채)에 설치된 주목이 되는 공간이다. 3실 민가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2번째 방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마래는 전남 내륙지역의 ‘마루방’과 그 성격은 유사하나 건축 평면상 실의 위치와 쓰임새에 차별성이 있고 공간의 규모도 보통 큰방보다 크다.

마래에는 곡식을 담은 큰 독들이 놓여있다. 즉 마래는 곡식창고인 썸이다. 벼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알곡식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독에 담겨져 있다. 기타 여러 세간살이도 이곳에 함께 보관되는 고방이 되고 있다.

마래의 기능에서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보통 3대 정도의 조상 위패를 상시적으로 안치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내륙지방 사대부 가옥의 사당 역할을 마래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가옥의 경우 다른 곳(보통 안채 대청)으로 장소를 옮겨 기제사를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마리에서 바로 제례를 지낸다. 즉 장소와 행위가 일원화 되어 있다. 또한 마래는 성주신을 모신 민속신앙 공간도 된다. 보통 종도리 아래(큰방 쪽)에 성주신을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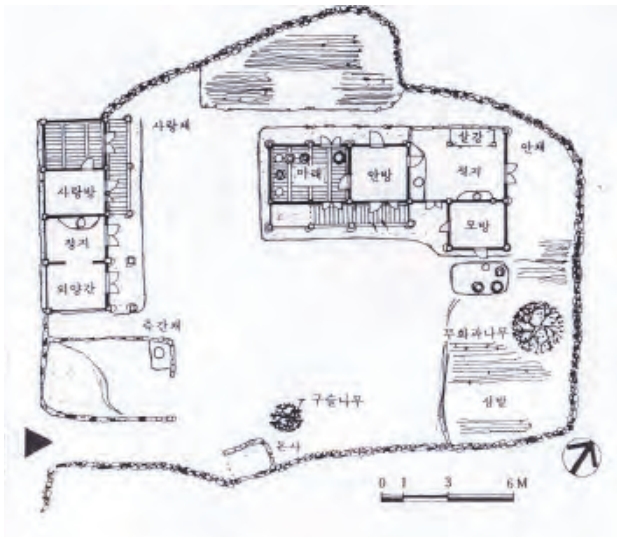


그림2. 제갈천일 가옥 배치도

구조는 막돌초석(전면 퇴주 초석만은 다듬은 방형)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와 퇴보로 결구한 4량 구조이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마감이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一’자형 건물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1칸씩 외양간, 정리, 사랑방, 방, 순으로 배치하고 전퇴에는 사랑방과 방 전면으로만 뒷마루를 시설하였다. 구조는 4량 형식의 민도리집으로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 3) 김형원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하의면 대리 280(대리 2구)
- 건축연도 : 1824년

본 가옥의 건축년대는 순조 24년(1824)으로 (안채에 “道光肆年甲申甲戌月十九日...”이란 上樑文이 있음) 19세기 초에 지어진 가옥이다. 배치 모습은 壬坐丙向으로 뒷 담장에 바로 면하여 안채가 자리하고 있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헛간채가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다. 이 헛간채의 뒷면은 대지의 동측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안채의 서쪽 측면으로는 돈사와 담장이 이어져 있다.

안채는 전·후면과 우측으로 돈사를 둔 ‘一’자형 4칸 초가지집이다. 평면구조는 좌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꾸며져 있고 좌측 퇴에는 상하로 고방을, 전퇴의 마래와 안방 앞으로는 툇마루를 시설하였다. 여기에서 고방이 있는 좌측퇴와 후퇴는 증축된 부분이라고 한다. 마래 바닥은 마루가 아닌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

본 건물에서는 모방이 정지 앞쪽에 오지않고 좌측에 배치된 사실에 주목된다. 이러한 형식은 전남의 남해지역 도서와(완도군) 흑산도 등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보인다.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이 위에 방주를 세웠고 도리는 모두 납도리를 걸었다. 가구형식은 전퇴로 내주를 둔 5량가이나 후면퇴주만 약간 낮을 뿐 전면 퇴주와 내주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벽체는 흙벽마감이며 창호는 안방과 마래에는 띠살문을, 정지에는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창호 중 안방 전면의 봉창이 다른 가옥보다 유난히 크다.

헛간채는 2칸 규모의 죽담집으로 좌측 1칸은 헛간이며 우측 1칸은 찻간과 측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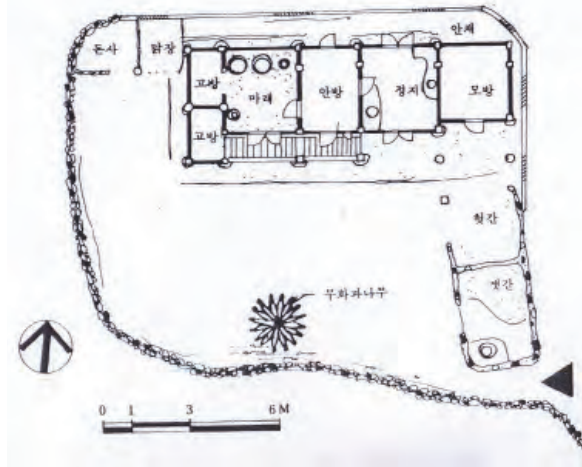


그림3. 김형원 가옥 배치도

#### 4) 김성배 가옥

- 소 재 지 : 신안군 하의면 대리 189(대리 1구)
- 건축연도 : 1831년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부속사로는 측간채와 돈사 등이 있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이다. 건축년대는 안채의 상량문 (“道光十年辛卯...”)확인 결과 순조 31년(1831)에 건축된 가옥임이 밝혀졌다. 안채의 좌향은 亥坐巳向 사랑채와 함께 튼 ‘ㄱ’자형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 후면과 대지의 좌측으로는 넓은 텃밭이 일구어져 있으며 측간채는 대지의 아래편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전후로 퇴를 둔 5칸 규모의 안가로 평면구성은 좌측에서부터 우물마루를 칸 2칸 아래, 안방 2칸, 정지, 그리고 정지 끝 전면으로 모방을 드린 이 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형태로 되어있다. 현재 마래는 7년전에 판벽으로 막아 2개의 실로 분리 되어 있는데 좌측 실은 주로 수장공간으로, 우측 실은 대청기능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실의 후면 벽쪽으로는 감실장(조상의 신위를 모셔두기 위해 만든 장)을 설치하여 제사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마래의 위치는 평면상 맨 위쪽(집의 머리쪽)에 자리한다. 즉 집에서 최고로 위계성이 높은 곳에 자리한 셈이다. 조상숭배와 곡식이 갖는 중요성이 건축적으로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타 지역의 ‘一’자형 민가에서 마루(대청)가 안방과 건너방 사이의 중앙에 오는 보편적 구조와 큰 차이가 난다

구조는 막돌초석(전면 퇴주 초석만은 다음은 방형 초석)위에 방주를 세우고 납도리로 결구한 2고주 5량집이다. 창호는 7년전에 마래 전면의 판장문을 띠살문으로, 고방전면의 미단이 문 설치, 안방 전면의 봉창 철거 등의 부분적인 개수가 있었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이다.

사랑채는 왼쪽에서부터 고방, 사랑방, 정지, 외양간, 순으로 꾸민 전후 4량집이다. 후면과 우측면 벽은 죽담구조이며 지붕은 안채와 같은 우진각 초가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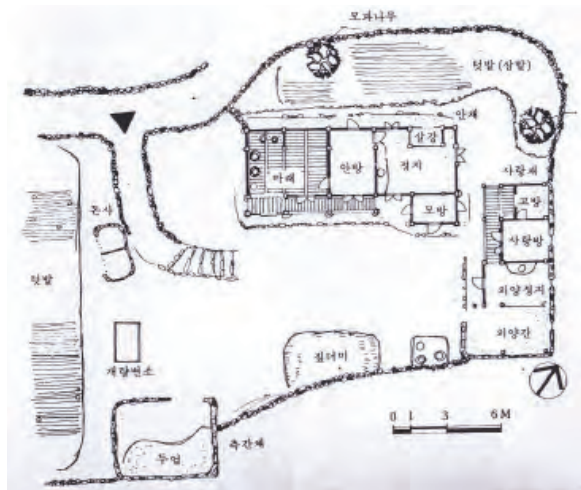


그림 4. 김성배 가옥 배치도

## 5) 정성철 가옥

- 소 재 지 : 신안군 하의면 대리 258(대리 1구)
- 건축연도 : 1837년

안채와 행랑채만으로 구성된 가옥이다. 안채 전면 우측에 있던 사랑채는 약 20년전에 헐렸으며 현재는 그 자리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배치는 안채가 辛坐乙向으로 대지의 안

쪽 중앙에 위치하고 안채 아래쪽에는 행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건축년대는 안채에 “道光拾柒年丁酉十月七月…”이란 상량문이 있어 현종 3년(1837)에 건축된 가옥임이 밝혀졌다.

안채는 정지 전면으로 모방을 갖춘 5칸 전퇴집으로 실의 구성은 머리쪽으로부터 2칸 마래, 1칸 안방, 2칸 정지를 두었으며 수장에는 툇마루를 시설하였다. 툇마루 끝으로는 알곡식을 수장하는

고방을 드렸다. 마래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다른 가옥에서는 보기드문 측문을 설치하였다.

“모방”이란 호칭은 그 위치가 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리 또한 정지 앞에 있어 평면구성과 동선개념이 전체적으로 정지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다. 또한 전면 기둥선 앞으로 돌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ㄱ’형 같은 인상도 준다.

이 방은 큰방과 함께 가족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된다. 성장한 자녀들이 기거하기도 하며 또한 큰 아들이 결혼했을 경우 이 방에서 아들 내외가 거처하게 된다. 그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큰방으로 옮기는데 통상 이런 방식으로 큰방과 작은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방의 규모는 개략 1.5평 내외의 크기로 큰방에 비해 아주 작다. 겨우 성인 둘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밖에 안 된다.

구조는 4량가로서 기단은 잡석으로 비교적 높게 축조하였으며 초석은 호박돌 주초를 사용하였고 기둥은 방주를 썼다. 후면 벽체는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을 죽담구조이나 정지쪽으로는 최근에 블록으로 보수하여 옛 모습이 아니다.

안방에서 정지쪽 셋문 옆으로는 방안에서 정지를 살펴보고 또한 정지와 조명을 겸하기 위한 바라지창(“봉창”이라고도 함)이 설치되어 있다. 이 바라지창은 오래된 가옥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다.

행랑채는 약 40년 전에 새로 지은 정방형 평면의 초가로 전통 건축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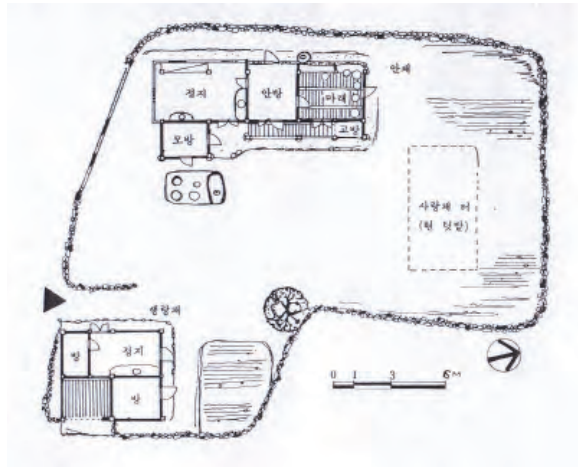


그림 5. 정성철 가옥 배치도

### 3. 활용 방안

최근에 들어 한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가령 100여년전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서울의 북촌 한옥은 서울이라는 도시적 파위와 함께 이제는 문화가 됐다. 전주 역시 한옥촌이 전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

전라남도의 한옥 건립도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농·어촌에 살림집으로 건립되고 있는 한옥은 서울, 전주 같이 기존 한옥을 개·보수 하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신축하는 것이다. 2008년경부터 짓기 시작하여 현재 약 1,000여채가 도서 지방을 포함하여 전남 곳곳에 지어졌고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약 85~100㎡ 규모의 안채 위주로 건립되고 있는 한옥은 과거 보통 서민들의 보편적인 민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뿌리는 바로 전통민가에 있다.

하의도는 조선 후기의 주거문화가 최근에 까지도 잘 보존되었던 곳이다. 비록 그 유형적 인모습은 거의 없어졌지만 장소성과 함께 건축학적 자료는 비교적 잘 남아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사진 4. 보편적인 과거 서민의 한옥



사진 5. 전남의 살림집 한옥

#### 신축 살림집 한옥개념

#### 1) 전통민가의 복원

하의도 대리마을은 과거 하의도는 물론 신안 전체 도서에서 제일 규모가 큰 마을이었

고, 또한 마을 구조(안길 구조, 가옥 배치 등)나 민가 형태 등 정주공간이 가장 잘 짜여진 마을이었다. 따라서 대리마을의 한 구역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전통 주생활 체험 및 도서 민속촌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다른 도서상품과 연계한 전통 민속 관광자원
- 교육적 효과(마을 및 민가 체험)
- 이벤트 사업 공간 활용(영화촬영, 각종 전통 민속 공연 등)
- 민박으로 활용



사진 6. 전형적인 배치 민가(좌:행랑채, 우:안채)



사진 7. 좌:행랑채, 우:안채



그림 6. 자연스럽게 복원된 하의도 대리마을 옛 모습, 복원에 충실한 자료가 된다.



사진 8. 민가의 보편적인 창호(죽살문과 봉창)



사진 10. 마을 안길과 돌담



사진 9. 안채 미래 내부



사진 11. 마을 복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낙안읍성 민가

## 2) 행복마을 조성을 통한 신한옥 건립

행복마을 조성은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소(인구유입, 소득증대 등)를 불어넣는 일종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00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마을 내에 살림집을 반드시 한옥으로 짓게 되어있고 그에 대한 뒷받침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있다.

- 호당(85㎡ 이상 신축) 4천만원 내외 무상지원(도 2천만원, 시·군 2천만원 내외)
- 3천만원 융자금 지원(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2%대)
- 행복마을 당 1회에 한하여 공공기반 시설비 3억원 지원(도 1.5억, 시·군 1.5억)

행복마을 유형에는 크게 ①기존마을 정비형과 ②신규단지 조성형이 있다. ①번은 기존 마을의 일정한 경역내에 10호 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것이고 ②번은 신규로 단지를 조성(농림수산식품부지원 전원마을)하여 20호 이상 한옥을 신축하는 유형이다. 2007년 5곳의

행복마을(기존마을 정비형)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현재 기존마을 정비형 58곳과 신규 단지 조성형12곳이 있다. 즉 전라남도의 거의 모든 시·군에 3~5곳의 행복마을이 있다. 불과 3~4년 사이에 1,000여 채의 한옥이 전남의 농·어촌 마을에 지어졌다. 2011년에는 먼 바다에 위치한 비금도, 조도에 행복마을이 들어서 수십채의 한옥이 지어졌다. 하의도 대리마을도 행복마을 조성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규모, 전통성 등 여러 면에서 마을에 새로운 주거사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민가 복원과 함께 현대생활에 맞는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한옥촌 마련도 좋을 듯하다. 특히 민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가 된다.



행복마을 한옥



‘ㄱ’ 자형 한옥



행복마을 한옥



신축중인 ‘一’ 자형 한옥

#### 참고문헌

- 김지민, 『남서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학 박물관, 1990  
 최성락 외, 『역사와 공간 다도해 사람들』, 경인 문화사, 2003  
 김지민, 「도서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도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5, 2005.  
 김지민, 「지속가능한 ‘한옥’ 평면형 개발」,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2-3, 2006  
 김지민, 「지속가능한 ‘한옥’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요자 의식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2, 2007  
 김지민, 「전라남도 행복마을 한옥의 현실과 새로운 가능성 모색」, 『한국 주거학회 세미나발표자료집』, 2010  
 김지민, 「서남해 도서지역 민가의 ‘마리’ 공간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집』 20-6, 2011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⑨

# 하의면

---

## VIII

# 관광자원화 방안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이윤선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하의면의 상징 이미지 262
2. 하의면의 주요 자원 263
3. 자원의 활용(관광자원화)을 위한 스토리텔링 265

# VIII 관광자원화 방안

## 1. 하의면의 상징 이미지

### 1) 지명 “荷衣”(연꽃荷, 옷衣) - 연꽃

- 연꽃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 연꽃이 활짝핀 모습(蓮花滿開形)
-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모습(蓮花浮水形)

### 2) 하의도의 형상

- 영국(United Kingdom=UK) 형상의 축소판
- “하의도는 신안의 UK”



그림 1. 하의도와 영국의 지도

### 3) 이미지 : “민권과 평화의 섬”

- 세계적 민권지도자로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고향
- 350년간 하의3도농민운동(민권운동)의 본향

## 2. 하의면의 주요 자원

### 1) 생태자원

- 대리당 주변의 서어나무군락 당숲 : 무궁화와 동백나무의 무리한 식림으로 인해 자연성이 훼손되고 있음.
- 어은1구 띠숲(우실) : 팽나무(11개체)를 중심으로 멀구슬나무(2), 곰솔(1), 굴참나무(2)로 이루어짐. 문화재 지정 고려.
- 옥도 당숲 : 상록활엽수림 군락.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의 상록성 교목이 줄지어 있음. 전형적인 잠재자연식생으로 보전 필요.
- 신도 해수욕장

### 2) 선사문화자원

- 지석묘군 : 대리 동편지석묘군, 대리 뜰개목지석묘군
- 패총 : 어은리 패총
- 고분 : 대리 칼산고분, 대리 사두고분, 대리 벼락바위고분
- 문제점 : 현재 대부분 원형이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소실된 상태임.

### 3) 역사자원

- 인물 : 초암 김연(대리의 덕봉강당과 김연고택), 후광 김대중(후광리 생가터)
- 사건 :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과 비석)

- 옥도 : 일본해군 팔구포방비대 터, 근대기상관측 시발지

#### 4) 민속사회자원

- 당집과 당제 : 10여군데 분포. 현재 대리당집 이외에는 자취가 거의 사라짐.
- 전통 소금(화염)과 천일염 : 후광리 화염체험장과 천일염전시관
- 기타 : 다양한 세시풍속과 일생의례

#### 5) 어로문화자원

- 특산물 : 전복(신안군 생산량의 22%), 낙지(최고급), 천일염, 툇, 김, 미역 등
- 갯벌 : 큰빨(후광리와 장병도 사이)과 옥도빨(옥도와 신의면 기도 사이)
- 음식(로컬푸드) : 낙지연포, 인동청주 등

#### 6) 구비전승자원

- 바위이야기 : 봉알바위(양세바위), 사자바위(큰바위얼굴), 범바위(노적바위), 절바위, 개골바위, 삿갓바위 등
- 노래/놀이 : 연자방아노래/놀이
- 소리공동체 : 이흥채의 판소리고법모임(한소리회)



사진 1. 개골바위

#### 7) 기타 자원

- 방언문화자원 : 친족어, 택호, 바다 관련 방언
- 주거문화자원 : 전통민가



사진 2. 삿갓바위

### 3. 자원의 활용(관광자원화)을 위한 스토리텔링

#### • 관광자원화를 위한 4대 전제조건

- \* 자원 조사와 인프라 기반 확보(하드웨어)
- \* 의미·재미의 스토리와 매력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 \* 프로그램 운영주체 양성(휴먼웨어)
- \* 관광객을 위한 매력적인 기념품 개발(문화상품)

#### • 하의도 관광자원화(스토리텔링)의 주요 아이템

- \* 아이템1 : 평화와 민권의 섬, 하의도
- \* 아이템2 : 봉알바위(양세바위)와 사자바위(큰바위얼굴) 이야기
- \* 아이템3 : 하의도 대리당 이야기
- \* 아이템4 : 사통팔달 팔구포의 섬, 옥도
- \* 아이템5 : 힐링의 섬, 신도 : 신도의 비극과 치유

#### 1) 평화와 민권의 섬, 하의도

##### (1) 주요 자원(하드웨어)

- \* 후광리 : 김대중 생가, 염전과 화염체험장, 천일염전시관, 큰빨
- \* 대리 : 초암 김연의 덕봉강당,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 \* 기타 : '큰바위얼굴'(죽도), 양세바위(오림리)

##### (2) 주요 스토리(소프트웨어)

- \* 하의도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후광 김대중을 배출하였고, 350여년 동안 초장기 농민운동을 수행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 평화와 민권의 섬임.
- \* 후광의 생가가 후광리에 있고, 후광이 어린 시절 한학을 배웠다는 초암 김연선생의 덕

- 봉강당이 대리에 있어, 초암-후광으로 이어지는 하의도의 지적 전통을 엿볼 수 있음.
- \* 후광이라는 큰 인물을 상징하는 '큰바위얼굴'이 하의도 서해안도로의 죽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국가권력과 지주의 양면적 수탈(兩稅)에 저항했던 하의3도농민운동을 상징하는 양세바위가 오림리 뒷산에 드러나 있음.

### (3) 프로그램 개발·운영(소프트웨어)

#### • 김대중 생가와 주변 해양생태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 \* 기존사업계획 : 노벨평화공원 조성사업, 하의 해양테마파크조성사업
- \* '후광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평화·민권학교 운영
- \* 주변의 천일염전시관과 전통소금화염체험장, 그리고 큰빨(후광리와 장병도 사이의 갯벌)을 활용하는 해양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병행 운영

#### • 덕봉강당 운영 프로그램

- \* 후광이 일제 강점기 마지막 선비인 초암으로부터 한학을 배웠다는 덕봉강당을 활용한 전통 서당체험 프로그램(서당스테이) 운영
- \* 김연 선생 생가를 보수하여 숙박시설로 활용

#### • 평화·인권의 길 프로그램 운영

- \* 기본 프로그램 :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덕봉강당→김대중 생가
- \* 확장 프로그램 : 큰바위얼굴과 양세바위 포함



사진 3. 천일염전시관



사진 4. 전통소금화염체험장과 염전



사진 5. 하의 큰빨

(4) 운영주체 양성(휴먼웨어)

- 청소년평화·민권학교 및 해양생태문화체험의 기획·운영자 양성(외부 전문가 및 현지주민 활용)
- 템플스테이 운영할 기획·운영자 및 훈장 양성
- 평화·민권의 길 안내할 이야기꾼 및 가이드 양성
- 양성 프로그램 :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예-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사진 6. 하의3도농민기념관



사진 7. 초암전사관

2) 봉알바위(양세바위)와 사자바위(큰바위얼굴) 이야기

(1) 봉알바위(양세바위) 이야기 : 설화의 변형1

• 원설화의 개요

- \* 원래는 봉알바위로 불림.
- \* 봉알바위에 빌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려옴.

• 설화의 변형

- \* 바위 이름이 봉알바위에서 양세바위로 바뀜
- \* 하의3도농민운동의 원인이 되었던 양세(兩稅) 수탈의 상징물로 간주됨.

• 의미와 재미

- \* 하의3도농민운동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으로 인해 봉알바위설화가 양세바위설화로 바뀐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줌.



사진 8. 덕봉강당



사진 9. 초암생가

(2) 큰바위얼굴(사자바위) 이야기 : 설화의 변형2

• 원설화의 개요

- \* 옛날 어은리 피섬 마을 뒷산에 고승이 암자를 짓고 큰 숫사자를 키우며



사진 10. 김대중생가



봉알바위(양세바위)



사자바위(큰바위얼굴)



범바위

수도에 정진함.

- \* 피섬 앞산에 큰 호랑이(범)가 살면서 자주 출몰해서 가축과 인명을 해침.
- \* 고승은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서 숫사자와 함께 범 사냥에 나서 범을 생포하여 마을 앞 산 석굴에 가두어 둠.
- \* 범을 가둔 바위는 범의 형상을 띠게 되어 범바위라 부름.
- \* 고승과 숫사자는 범 사냥 과정에서 입은 큰 부상으로 인해 죽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작은 바위섬(대섬-죽도)에 안치함.
- \* 이후 죽도는 갈기가 무성한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사자 바위라 부르게 됨.

#### •설화의 변형

- \* 죽도의 사자바위 얼굴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 얼굴 형상으로도 보여져, 이를 ‘큰 바위얼굴’이라 부르고, 하의도에 큰 인물이 나리라는 계시로 간주하는 이야기가 언제 부턴가 생겨남.

#### •의미와 재미

- \*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배출과 관련하여 ‘큰바위얼굴’은 세인의 흥미를 끌게 됨.
- \* 큰 인물의 출현으로 인해 사자바위의 설화가 큰바위얼굴의 이야기로 변형되고 있는 사례임.

### 3) 하의도 대리당 이야기

#### (1) 하의도의 본당, 대리당의 위상

- \* 하의면에는 마을마다 신당(마을당)이 있음 : 대리당, 문절리당, 어은당, 가개목당, 벌섬당, 유희리당, 벗언당, 능산당, 신도당, 대야당, 노루자리당 등
- \* 그 중에서 대리당이 하의도를 대표하는 본당의 위상을 가지며, ‘하의도사(荷衣島社)’라 칭해짐.
- \* 대리당은 7위의 당신격을 모신 관계로 ‘칠신당’, ‘칠성당’이라고도 불림.

#### (2) 대리당의 정착

- \* 하의도 최초의 마을은 어은리 : 1449년 전주이씨가 영암에서 이주. 1488년 남양제갈씨가 해남으로부터 이주. 1500년경 파평윤씨가 해남으로부터 이주.
- \* 대리는 1508년 어은리 언동마을에서 남양제갈씨가 이주하면서 마을 성립. 1568년 인동장씨가 영암으로부터, 1658년경 인동장씨가 강진으로부터 이주하면서 마을 확대.
- \* 16세기 초 남양제갈씨가 어은리에서 대리로 이주하면서 어은리에 있던 하의도 본당의 위상이 대리로 옮겨짐.(대리당)
- \* 이후 대리당은 몇 차례의 이전 과정을 거쳐 덕봉산 중턱의 현위치에 정착 : 당마당(현재의 덕봉강당 자리)→덕봉산 북쪽(현재 ‘당터’라 불리는 곳)→덕봉산 중턱(현위치).

#### (3) 초암 김연(金鍊, 1833~1959)과 대리당의 관계

- \* 초암은 하의도 대표 유학자. 어린 시절 도초도 김인겸선생에게 수학하여 대리에 서당을 짓고 무안, 나주 등지에서 온 제자 1,000여명 가르침. 제자들이 서당 터에 덕봉강당을 지어 선생의 학덕을 기림.
- \* 초암의 환생 스토리 : 초암이 42세 되던 해 정월 돌림병으로 혼절하여 저승에서 상제를 만나 뵈고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리당의 당할머니를 만나 계시를 받음. “너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 섭섭하게 하는구나. 다시 세상에 나가거든

마을에 당을 다시 짓고 잘 모셔라”

- \* 유학자로서 초암은 처음엔 대리당에 비우호적이었음. 이는 초암이 원 대리당의 터였던 ‘당마당’에 서당을 짓고 대리당을 덕봉산 북쪽의 ‘당터’로 옮기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임.
- \* 초암이 환생이라는 신비경험을 하면서 당할머니와 화해하고 새로운 당집을 현위치(덕봉산 중턱)에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



사진 14. 대리당 첫째칸에 있는 신위들



사진 15. 대리당 둘째칸에 있는 신위들

#### (4) 대리당 신격의 성격

- \* 대리당에는 7위의 당신격을 모심. ①하의덕봉산 후토신(后土神), ②후직신(后稷神), ③구룡신(九龍神), ④주조기신(周祖棄神), ⑤풍백신(風伯神), ⑥우신(雨神), ⑦뇌신(雷神)
- \* 후토신은 산천을 주관하는 신이고, 후직신은 백곡을 풍성하게 하는 신으로, 두 신은 각각 국가대제에서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에 배향되는, 유교국가의 사직(社稷)을 상징하는 신격임.
- \* 주조기신은 주나라 시조신으로 후토신, 후직신과 함께 유풍(儒風)을 내포함.
- \* 구룡신은 바다를 상징하는 섬의 수호신을 표상함.
- \* 풍백신, 우신, 뇌신은 각각 바람, 비, 구름(우레)의 신을 표상하며, 단군신화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에 대응됨. 토착의 자연신 혹은 도교풍의 신으로 간주됨.
- \* 특히 주목해야할 대목은, 7신 중 최고의 신인 하의덕봉산 후토신을 대리당의 토착 주신격인 당할머니신에 배당했다는 것임. 이는 곧 토착신격이 유교 의례의 질서 속에 습합되어진 것을 의미함.
- \* 이는 초암이 마을 신앙이었던 당제를 유풍의 질서와 적절하게 습합시켜서 또 하나의 전통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초암의 환생 스토리에 나오는 ‘초암과 당할머니의 만남’이 이를 반영함.

#### (5) 대리당 스토리텔링

- \* 하의도 대리당제는 어은리당을 이어받아 초암을 통해 유교적 제례로 바뀌었고, 후토 신과 후직신 등 7신을 좌정하면서 유풍(儒風)을 강하게 드러냄.
- \* 이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해 대외 향거 능력을 키운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의3도농민운동과 김대중과 같은 큰 사건 및 걸출한 인물과 연결하여, 하의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흥미·의미의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 스토리텔링의 과정 : [어은리] 어은리당→[대리] 당마당(덕봉강당)→당숲(서어나무숲)→당터→대리당→하의3도농민운동→[후광리] 김대중.
- \* 이 스토리텔링의 과정에는 오림리 양세바위와 서해안도로의 큰바위얼굴도 포함할 수 있음.

### (6) 유의할 점

- \* 초암의 이적(異蹟) 스토리(신비와 영험성)는 하의도 대리당 스토리텔링의 중요 매개로 리로 활용할 수 있음.
- \* 대리당숲(서어나무숲)의 관리를 통해서 당숲을 생태문화숲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현재 대리당 주변에 동백이나 무궁화의 식림으로 인해 토종 서어나무군락의 당숲이 훼손되고 있는데, 우선 이의 지양이 필요함.
- \* 위의 스토리텔링 과정은 더욱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 하의도 모실길이나 축제 개발



사진 16. 어은리당터사진



사진 17. 당마당(덕봉강당)



사진 18. 당터



사진 19. 대리 당숲



사진 20. 대리당



사진 21.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사진 22. 김대중 전대통령



작아지고 빠지면 커지는 살아있는 ‘갯벌섬’의 독특하고 탁월한 경관을 연출함.

- \* 옥도가 사통팔달의 해로로 통하는 요충이어서 ‘팔구포’라 불리고 있다는 점과 옥도갯벌의 최고 특산물인 낙지의 발이 8개라는 사실(‘팔족낙지’)을 연계하여 ‘팔구포 옥도낙지’를 신안군의 상징적 브랜드로 삼을 수 있음.(“섬과 바다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신안”의 이미지 부각)
- \* 옥도의 ‘玉’은, 옥도의 3개 산(망마산, 갈마산, 잣산)을 잇는 ‘王’자에 옥도갯벌에 박혀있는 무인도 ‘꾸자리섬(狗頭島)’이 점을 찍어 ‘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 \* 옥도의 ‘옥’은, 갯벌바다의 탁한 물 색깔이 옥색(玉色)을 닮아 있다는 점과 ‘비옥한 갯벌바다’(옥해, 沃海)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갯벌로 둘러싸인 옥도의 ‘갯벌섬’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

### (3)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안

- \* 옥도를 ‘다이아몬드군도’의 도서해양관광 중심기지로 삼아 다양한 도서해양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 옥도갯벌 체험프로그램, 옥도의 일본 해군기지 탐방프로그램, 하의도 대리당-농민운동-김대중 프로그램, 신의도 백제섬문화-소금 체험 프로그램, 안좌도 김환기미술관 탐방 프로그램 등.
- \* ‘다이아몬드군도’의 도서해양관광 중심기지로 삼기 위해서는 옥도에 최고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최고수준의 호텔, 리조트 건설, 망마산 정상에 ‘다이아몬드군도’를 조망하는 ‘다이아몬드 전망대’ 설치 등)
- \* 최초의 기상관측소가 있었다는 점과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가치 “기후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센터”를 건설하여 기후변화 관련 세계적 이슈들을 생산하는 중심기지 활용 구상.



사진 23. 옥도당숲



사진 24. 옥도갯벌



사진 25. 팔구포해군정



사진 26. 일본해군의 아와 석조 욕조와 우물



사진 27. 옥도 기상관측소 터

## 5) ‘힐링의 섬’, 신도

### (1) 주요 자원

- 아름다운 자연경관
- 아늑하고 깨끗한 신도 해수욕장
- 고즈넉한 섬마을 풍경

### (2) 주요 스토리 : “신도의 비극과 치유”

#### • 아픈 역사 ‘신도 괴질’ 사건

- \* 1986년-1988년에 신도에 괴질이 돌아 80명의 주민중 10명이 죽고 소 등 가축 40여마리가 몰살하여 전국을 강타했던 사건.
- \* 괴질의 정체를 탄저병이라 주장한 이도 있었지만 끝내 원인 구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초제 파라콰드 중독이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종결됨.
- \* 마을 주민 중에는 당제 지내기 전날 개가 죽어 이를 주민 몇 사람이 잡아먹은 일이 있었던 것을 주목하여, 이것이 부정 타서 일어난 일로 믿는 분도 있음.

#### •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영화 ‘우리선생님’

- \* 신도 섬마을을 주무대로 제작하여 2005년에 개봉한 영화임.
- \* 국내 최초 산(라인픽처스)·학(한일장신대학교)·관(신안군) 합작 영화임.
- \* 신도의 분교에 부임한 서울 출신 여선생님(오수아 분)과 길수(유승호 분) 등의 섬마을 학생들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어려운 준비를 하는 과정과 처음 서울 구경을 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휴먼드라마임.
- \* ‘신도 괴질’ 사건이 일어난지 20년 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신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섬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섬주민들의 정겨운 인심으로 아픈 기억을 치유함.

### (3) 활용 방안

- \* 하의면의 서쪽 끝에 위치한 신도는 그 서쪽으로 멀리 우이도가 바라다 보일 뿐 망망대해로 통해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임.
- \* 섬의 형태가 기기묘묘하고, 춤추는 ‘+’ 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 최고의 등산로를 개설하기에 적지로 판단됨.
- \* 여기에 목섬으로 살짝 가려진 신도해수욕장은 조류의 쓸림을 피해 해양쓰레기가 전혀 도달하지 않는 청정무구의 깨끗함과 은밀함을 자랑하고 있어, ‘누드비치’를 구상할 만함.
- \* 등산로와 해수욕장을 연계하여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힐링의 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신도의 항공사진



신도해수욕장 전경



신도 섬마을 풍경

#### 참고문헌

이윤선, 2006 「하의도 대리당제의 전통과 변화의 함의」 『한국도서(섬)연구』 18-2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0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9

# 하의면편

---

2011년 1월 발행

발행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신안군  
인쇄 (주)사람과사람들

전남 목포시 용해동 114-38

TEL. 061-274-3372

출판신고 제480-2012-000002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1666

TEL. 061-450-2952

FAX. 061-453-2958

<http://islands.mokpo.ac.kr>

신안군청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271-1004

FAX. 061-240-8000

<http://shinan.go.kr>

ISBN 978-89-968812-0-9



# 하의면



## 선사유적

- ① 대리 동편지석묘군
- ② 대리 돌개목 지석묘
- ③ 어은리 패총
- ④ 대리칼산고분
- ⑤ 대리 사두고분

## 역사유적

- ① 덕봉강당
- ②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비군
- ③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 ④ 옥도 이호준 선정비
- ⑤ 일본해군 옥도 팔구포방비대 터
- ⑥ 근대기상관측시발지
- ⑦ 일본 옥도해군 목욕탕 석조 및 우물
- ⑧ 옥도 송씨종가 고택 및 사당
- ⑨ 피리사지
- ⑩ 김해김씨 제각 및 선산
- ⑪ 김연고택

## 생태경관

- ① 신도해수욕장
- ② 큰바위얼굴 바위
- ③ 신도 안태골 대나무 숲
- ④ 신도 안태골 해변
- ⑤ 어은이구 마을 숲
- ⑥ 대야도 해안
- ⑦ 샷갯바위